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 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 제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제주대학교 대학원

관광개발학과

姜 淇 皓

2018년 8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 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 제주 농촌체험휴양마을 대상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이 진 희

강 기 호

이 論文을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8年 6月

강기호의 觀光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宋在祐



委員

張聖洙



委員

崔容禧



委員

金信成



委員

李震熙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8年 6月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Mediating Factors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ourism
Business Performance in Rural Tourism Villages
– Focused on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Rural Experience Recreation Villages on Jeju Island –

Ki-Ho Kang
(Supervised by professor Jin-Hee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Tourism Development

2018. 6.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9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1
1. 연구의 범위	11
2. 연구의 방법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농촌관광	15
1. 농촌관광의 개념 및 등장배경	15
2. 농촌관광의 특징	20
3. 농촌관광의 유형 및 주요활동	27
4.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29
5. 농촌관광의 사업성과	33
제2절 주민참여	37
1. 주민참여의 개념	37
2. 주민참여의 유형	40
3. 주민참여의 단계	44
4. 주민참여의 방향	51
제3절 사회자본	53
1. 사회자본의 개념	54
2. 사회자본의 유형 및 구성요소	62
3. 사회자본의 특징 및 기능	70
4. 제주지역의 사회자본	73
제4절 로컬거버넌스	77
1.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77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82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85
제5절 선행연구 검토	89
1.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	89
2.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	93
3.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	95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	96
5. 사회자본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	100
6. 로컬거버넌스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	103
제3장 연구의 설계	106
제1절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설정	106
1. 연구모형의 설계	106
2. 연구가설의 설정	108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09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	115
1. 연구대상지 선정 범위	115
2. 예비 조사	115
3. 조사 설문지 구성	133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36
제3절 연구대상지	139
1. 연구대상지 선정	139
2. 조사 대상지 개요	140
제4장 실증분석 및 연구의 함의	159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9
제2절 자료검증 및 분석결과(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165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65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172
3. 연구모형(조성 전)의 적합도 검증	178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	181
5.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184
6.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 검증	190
7.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191
8.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198
9. 연구의 결과 및 함의	200
제3절 자료검증 및 분석결과(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204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204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211
3. 연구모형(현재)의 적합도 검증	217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	220
5.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223
6.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 검증	229
7. 집단별 영향관계 차이 검증	231
8.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237
9. 연구의 결과 및 함의	239
제4절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변화양상 분석 및 함의	243
제5장 결론 및 제언	255
제1절 연구의 요약	255
제2절 연구의 시사점	266
1. 학술적 관점	266
2. 실무적 관점	267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271
1. 연구의 한계	271
2. 향후 제언	272
참고문헌	276

[부 록]	303
I.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	304
II. 인터뷰 조사 내용	317
III. 예비 조사 설문지	333
IV. 본 조사 설문지	338
 ABSTRACT	 343

표 목 차

<표 1-1> 2013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인구수	11
<표 2-1> 농촌관광의 정의	18
<표 2-2> 전통적 관광개발과 농촌관광개발 비교	26
<표 2-3>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별 특징	30
<표 2-4>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정부 정책	32
<표 2-5> 연간 국내관광 및 농촌관광 이동총량의 비교	33
<표 2-6>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현황(호당 평균)	36
<표 2-7> 주민참여의 개념	39
<표 2-8> 주민참여의 유형	43
<표 2-9>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에 따르는 주민참여 단계	45
<표 2-10> 주민참여 매트릭스	46
<표 2-11> Prieto-Martin & Ramirez-Alujas의 주민체계 모형에 따르는 주민참여 단계	48
<표 2-12>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61
<표 2-13> 국외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67
<표 2-14> 국내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68
<표 2-15> 국내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69
<표 2-16> 사회자본·물적자본·인적자본의 비교	71
<표 2-17> 결속형(Bonding)·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의 특성 및 장·단점	73
<표 2-18> 제주지역의 협력형(수눌음형) 사회자본	74
<표 2-19> 지방정부 패러다임과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79
<표 2-20>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81
<표 2-21> Pierre의 로컬거버넌스 유형 분류	84
<표 2-22> Miller, Dickson & Stoker의 로컬거버넌스 유형 분류	84
<표 3-1> 예비 조사 대상지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16
<표 3-2> 예비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117

<표 3-3> 예비 조사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118
<표 3-4> 협의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19
<표 3-5> 협력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0
<표 3-6>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0
<표 3-7>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1
<표 3-8> 로컬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2
<표 3-9> 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2
<표 3-10> 비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23
<표 3-11>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설문 문항 응답차이 분석)	124
<표 3-12>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설문 문항 응답차이 분석)	125
<표 3-13>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요인별 차이분석)	126
<표 3-14>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평균점수 및 순위)	126
<표 3-15>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A안)	130
<표 3-16>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B안)	131
<표 3-17>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내용 및 측정 항목	134
<표 4-1> 전체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59
<표 4-2>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162
<표 4-3>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166
<표 4-4>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68
<표 4-5>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68
<표 4-6>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69
<표 4-7>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70
<표 4-8>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70
<표 4-9>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71
<표 4-10>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171
<표 4-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연구모형(조성 전)의 관측변수 구성 ...	173

<표 4-12> 측정모형(조성 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176
<표 4-13> 측정모형(조성 전)의 잠재변수 상관관계(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	177
<표 4-14> 연구모형(조성 전)의 적합도	179
<표 4-15> 연구모형(조성 전)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비표준화 계수)	181
<표 4-16> 팬텀변수를 포함하는 연구모형(조성 전)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 (비표준화 계수)	183
<표 4-17>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조성 전)	185
<표 4-18> 서부·동부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 (조성 전)	186
<표 4-19>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조성 전, 비표준화 계수) ..	187
<표 4-20>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조성 전)	188
<표 4-21> 상위·하위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 (조성 전)	188
<표 4-22>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조성 전, 비표준화 계수) ..	189
<표 4-23>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검증(조성 전)	190
<표 4-24> 서부·동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193
<표 4-25> 상위·하위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196
<표 4-26>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조성 전)	198
<표 4-27>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조성 전)	199
<표 4-28>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205
<표 4-29>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7
<표 4-30> 협력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7
<표 4-31>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8
<표 4-32>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9
<표 4-33> 로컬거버넌스(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09
<표 4-34>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10
<표 4-35> 비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210
<표 4-3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연구모형(현재)의 관측변수 구성	212

<표 4-37> 측정모형(현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215
<표 4-38> 측정모형(현재)의 잠재변수 상관관계(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216
<표 4-39> 연구모형(현재)의 적합도	218
<표 4-40> 연구모형(현재)의 전체 매개효과(비표준화 계수)	220
<표 4-41> 팬텀변수를 포함하는 연구모형(현재)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비표준화 계수)	222
<표 4-42>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현재)	224
<표 4-43> 서부·동부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 (현재)	225
<표 4-44>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현재, 비표준화 계수)	226
<표 4-45>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현재)	227
<표 4-46> 상위·하위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 (현재)	228
<표 4-47>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현재, 비표준화 계수)	229
<표 4-48>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검증 결과(현재)	230
<표 4-49> 서부·동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233
<표 4-50> 상위·하위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236
<표 4-51>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현재)	238
<표 4-52>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현재)	239
<표 4-53>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 (전체표본)	243
<표 4-54>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 (서부집단)	244
<표 4-55>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 (동부집단)	245
<표 4-56>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 (상위집단)	246
<표 4-57>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 (하위집단)	247

<표 4-58>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전체표본)	248
<표 4-59>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서부집단)	250
<표 4-60>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동부집단)	251
<표 4-61>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상위집단)	252
<표 4-62>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하위집단)	254

[부 록]

<표 I-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내용	306
<표 I-2> 부처별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기준)	308
<표 I-3> 정부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흐름	310
<표 I-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 내용	311
<표 I-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지구수 및 사업비 현황(2016년까지)	312
<표 II-1> 인터뷰 조사 내용구성	318

그림 목 차

[그림 1-1] 본 연구 예비 조사의 공간적 범위	12
[그림 2-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본개념 틀	24
[그림 2-2]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31
[그림 2-3] 농촌관광 이동총량 추이	34
[그림 2-4] 농촌관광 인지도, 지난 1년 간 농촌관광 경험 정도, 농촌관광 의향 추이	34
[그림 2-5] 주민참여 단계 스펙트럼	47
[그림 2-6] OECD의 주민참여 단계	47
[그림 2-7] Arnstein과 Prieto-Martin & Ramirez-Alujas의 주민참여 모형 비교	50
[그림 2-8] 사회자본과 집단 이기주의의 개념도	60
[그림 2-9]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 유형분류 및 구성요소 개념도	76
[그림 2-10] 거버넌스의 다차원적 분류	83
[그림 2-11] A model of community based tourism facilitating conditions and steps suggested by Arnstein(1969) and Selin and Chavez(1995) ...	92
[그림 3-1] 연구 기본모형	107
[그림 3-2] 연구 세부모형	107
[그림 3-3] 제주도의 지역별 연평균 풍속 및 강수량	128
[그림 3-4] 예비 조사 대상지의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의 구분	129
[그림 3-5]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A안)	130
[그림 3-6]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B안)	131
[그림 3-7] 청수리 체험프로그램	141
[그림 3-8] 저지리 체험프로그램	143
[그림 3-9] 동광리 체험프로그램	146
[그림 3-10] 소길리 체험프로그램	148
[그림 3-11] 명도암마을 체험프로그램	150

[그림 3-12] 가시리 체험프로그램	153
[그림 3-13] 신흥리 체험프로그램	155
[그림 4-1] 측정모형(조성 전)의 확인적 요인분석	175
[그림 4-2] 연구모형(조성 전)의 최종 분석 결과	178
[그림 4-3]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 (조성 전)	182
[그림 4-4] 서부·동부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조성 전)	194
[그림 4-5] 상위·하위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조성 전)	197
[그림 4-6] 측정모형(현재)의 확인적 요인분석	214
[그림 4-7] 연구모형(현재)의 최종 분석 결과	217
[그림 4-8]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 (현재)	221
[그림 4-9] 서부·동부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현재)	234
[그림 4-10] 상위·하위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현재)	237

[부 록]

[그림 I -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지원 절차	314
------------------------------------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농촌은 고령화, 인구의 과소화, 그리고 농가 소득의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며(OECD, 2004), WTO, DDA, 그리고 최근의 FTA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의 압력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지역의 쇠퇴는 도시화, 공업화를 경험한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여러 국가들과 일본과 같은 선진 산업국들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보다 앞서 농업의 쇠퇴에 따르는 농촌으로부터의 이농,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고령화, 공동체의 해체 등을 경험하였다.

그동안 급격히 이루어진 세계화(globalization)에 맞물리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변화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가족농에 기반하는 농업에 더 큰 타격을 입혔던 것이 사실이다(문옥표, 2003 : 139).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의 선진국과 우리나라 인근의 선진국 일본에서는 농가 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업의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농가의 경영 다각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확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촌관광을 전개하였고, 현재 이들 선진국의 농촌관광은 농업구조정책에서 소외된 농가의 경영 및 농업소득 보정을 위한 경영 다각화 측면에서 농업·농촌정책의 새로운 대안으로 위치하고 있다(박시현 외, 2003).

농촌관광은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수단이자 농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등장하게 되었고(야마자키 미쓰히로, 1997; 고미네아키라 외, 2008 : 27), 급속한 세계화의 흐름,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성찰과 더불어 농촌관광이 대안관광의 대표적인 형태로 인식되면서 그 수요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조재환 외, 2003; 고미네아키라 외, 2008 : 47).

영국에서는 1960년대 당시 농산물 과잉으로 인하여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자 일부 농

가에서 경영 다각화의 일환으로 농가 민박사업이 농촌관광의 한 형태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 농촌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끼는 영국 도시민들의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촌관광은 유망한 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이후 농촌관광은 농촌의 경영다각화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틈새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영국에서의 농촌관광정책은 단지 농촌관광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농가의 경영다각화와 농촌의 활성화, 그리고 관광진흥이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1939년에 유급휴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값싸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1950년대부터 농촌 민박사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 이후 농업 생산물 과잉으로 인해 소농들의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농들의 경영다각화를 위한 방안으로 농촌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다양한 농촌관광의 형태가 출현하였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의 지원도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농촌관광을 농가의 부업으로 위치시켜 농촌에서의 경제활동을 다양화하기 위한 조치로, 1988년부터 농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농산물 직매행위와 농가에서 운영하는 관광사업을 제도상 농업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농촌관광은 1960년대 농가 민박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중산층을 위한 농가에서의 휴가가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2008년 말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구상안이 통과되면서 농촌관광정책은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농가에서의 농외소득 향상을 통한 이농 방지, 농업과 농촌의 보전·유지, 농촌의 자연과 문화적 보전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직불금정책의 제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적자 경영이 계속되는 상황으로, 농가에서는 농촌관광 등 부업을 통한 농외 소득이 절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 농촌지역의 고령화, 인구감소, 농업의 저효율성 및 저생산성 등 문제점이 가속화되면서 1972년 농림수산성의 “자연휴양촌 정비사업” 정책추진을 시작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게 된다. 1986년에 세계 무역의 자유화와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한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작하면서 농업·농촌 생존 전략의 하나로 농촌관광을 시도하는 방안이 대두되는데, 이러한 초기의 시도는 유럽형 농촌관광을 벤치마킹하는 형식이었고, 이는 한국에 비하여 약 10년 앞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미네아키라, 2008; 44). 1995년에는 “농산어촌체재형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정비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농촌관광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농촌관광을 발전시켜 왔다. 일본에서 그린투어리즘은 도시·농촌간의 교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각종 마을 가꾸기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일본에서의 농촌관광은 농림어업의 6차 산업화 정책과 더불어 향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시현 외, 2012 : 19-33).

유럽의 선진국이나 일본의 농촌지역에서 농외소득을 위한 농촌관광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의 현 상황에 비추어볼 때, 이들 국가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농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의 농촌관광은 농촌지역의 구조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화의 흐름에 대처할 수 있는 필연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추진 배경은 기존 전통적 농업정책으로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소득원 개발의 필요성, 기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통한 농가소득 연계의 한계성에 대한 반성, 그리고 국내 관광에 대한 주요 인식이 대중관광(mass tourism) 위주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농촌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은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농가의 소득과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 간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처할 농외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이 다시 주목받게 된 것인데, 이때의 농촌관광정책은 관광농원과 같은 개별 경영체 단위를 위주로 하는 개별 경영형 농촌관광이 아니라 마을을 주 경영체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농촌관광정책을 시행하기까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 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950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국토가 폐허가 되어 나라의 살림살이는 형편없었고 전후 복구가 시급한 시기였기에 농어촌지역 정비에 대한 관심은 1950년대 후반에 가서야 가능하게 되었다. 1957년 유엔의 지원 하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작되었고, 1962년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은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1970년부터 새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시작된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생산기반조성, 복지환경조성, 소득증대 등 농어촌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생산구조의 현대화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최수명 외, 2011 : 26-27). 이 시기에 농어촌의 인구가 도시로 이주하는 이농향도 현상이 급증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때부터 농어촌과 도시 간 지역격차, 농어촌지역

소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침체지역·낙후지역이 되어가는 농어촌의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다. 침체지역은 과거에는 산업 활동이 활발했으나 현재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사양화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며, 낙후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광산업 등 1차 산업에 주로 의존하면서 산업 생산성이 낮고, 자원의 고갈, 기술의 낙후 등의 요인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침체지역·낙후지역에서는 실업문제, 저소득, 저성장률과 그에 따른 높은 인구유출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이진희, 2009 : 159-184).

1980년대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지역균형개발이 주요한 공간 전략이었고, 농어촌지역과 관련해서 「농어촌지역개발기본법(1986)」, 「도서개발촉진법(1986)」, 「오지개발촉진법(1988)」 등과 관련된 사업(농어촌진흥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도한 정주권개발사업, 내무부(現 행정안전부)의 도서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들을 착수하게 된다(임경수, 2010 : 156).

1990년에 농공단지조성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1994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등의 추진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1957년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시작된 후 정부에서 추진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정식적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최수명, 2011 : 28).

「문민정부」에서 「농어촌발전대책」을 통하여 농정추진체계의 상향식 개편을 꾀한 것과, 「국민의 정부」에서 「농업·농촌발전대책」을 통하여 지방농정의 자율성을 강화한 것은 ‘농업정책’을 ‘농촌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농가·어가 인구의 고령화 등 농어촌의 근본적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참여정부」 초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되었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농어촌 지역이 전반적으로 힘든 여건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생산기반 위주의 양적 농정에서 품질 중심 농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게 되는데, 농어촌이 과거의 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생산·휴양·정주를 위한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는 인식의 전환에 따라 정책 투자의 방향도 사회간접자본 중심에서 소득·복지 중심의 지역개발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농어촌의 지역개발에 농촌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고, 농림수산물부(現 농림

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어촌체험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산림청의 산촌생태마을사업 등이 2000년 이후 전개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다양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업들은 대부분 농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사업들로, 농어촌의 고유성과 잠재적 가치를 극대화 하는 데 주력하였는데,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강기호, 2014: 2).

2010년부터 포괄보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200여개의 사업을 22개의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폐합시켰는데, 이는 지역발전정책의 방향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하고, 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지역별 특성·여건에 맞게 지원을 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2012년 정부에서는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다시 세분화·체계화시켰는데, 단계별로 수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2016년부터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에 사전 주민역량강화가 의무화되었고, 이후 사업 신청은 사업 규모에 따라 진입단계를 거쳐 발전단계로, 그 다음 자립단계로 이어지게 제도화하여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농업중심의 정책에서 농촌중심의 정책으로,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접근의 변화를 꾀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게 권역의 범위로 혹은 개별 마을의 범위로, 그리고 지역별 수준에 따라 단계별 사업을 계획하는 등 농촌관광의 활성화, 도농 간의 격차해소, 살맛나는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각 사업주체들은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기존의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을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어촌·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단계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개편하고 전반적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정비하면서 업그레이드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들이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대부분의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소득이 증가하는 등 이상적인 사업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지만 점차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개발방식이 체계를 잡으면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마을 내 갈등, 마을 공동사업 추

진의 어려움, 추진 주체 간 또는 주민 간 소통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최대한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제도적 내용 및 절차 등을 보완해 가면서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업그레이드되는 정책과 발맞추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비 집행 실적 제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농어촌의 지역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강기호, 2014 : 3-4).

마을의 젊은 토박이 인력들이 도시로 빠져나가는 이농향도 현상으로 고령화되던 우리 농어촌이 이제는 힐링·치유를 위해 찾는 안식처로, 그리고 새로운 기회의 공간으로 기대되면서 근래 귀촌·귀농 인구가 전례 없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이 새로운 농어촌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전국의 귀농 가구 수가 2013년 10,202가구에서 2016년 12,875가구로 2,673가구(26.2%) 증가하였고, 귀촌 가구 수가 2013년 280,838가구에서 2016년 322,508가구로 41,670가구(14.8%) 증가하였으며, 2016년에 농촌으로 이동한 도시민은 496,048명이라고 한다(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해양수산부, 2017).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들은 열악한 여건에서 다변화하는 농어촌의 쉽지 않은 상황을 극복하여 기회의 공간으로 발전하는 농어촌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농촌관광(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개념을 기저에 깔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들은 주민들의 공동 참여 및 관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주민들의 공동 참여 및 관리를 통한 마을의 공동체 복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중요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 사회자본은 근래 혼란하고 각박하여 점점 더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질풍노도의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단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나마 도시에서보다는 공동체 의식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농어촌에서조차도 이웃 간의 교류가 예전 같지 않아 많이 소원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곤 한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우리 농어촌의 공동체 복원과 연계되는 사회자본이 근래 더욱 화두가 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면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농촌관광 지역개발 정책 수행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회복의 미흡한 점 등이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는 공동체 참여(공동체 복원)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사회자본이 부족한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도시의 외지인들이 점차 농어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는 근래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농어촌의 사회자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시행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책임을 함께 지는 공동 의사결정방식으로 정의되는 로컬거버넌스(염원일·설성현, 2003)는 주민이 주도하는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근래 더욱 강조되는 개념으로, 전국의 각 지역마다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협력하며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방자치제가 점차 강조되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의 의식 또한 성장하게 되었고, 행정과 주민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최근 지역 정책의 결정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들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도적으로, 지역별로 구성되는 로컬거버넌스는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임승빈, 2005).

중앙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의 성공을 위해 거버넌스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그로 인한 효과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이종수(2016)는 그의 저서 『공동체 - 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에서,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사업 주체는 지역의 주민들이지만, 그들을 포함하는 각 이해관계자들이 협치하는 거버넌스 개념은 공식적 권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축소를 의미할 뿐, 현실적으로는 공식적 권위의 부담이 증가하고 정부의 권위가 오히려 더욱 강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 근래 정부의 수많은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정부의 제도적 또는 공식적 권위를 넘어서는 시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이종수, 2016 : 116-117).

문영훈(2012)은 거버넌스가 제도화될수록 지역개발사업의 성과가 더 높고, 정부 부문 주도형 거버넌스보다는 사회부문 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축할수록 사업의 성과가 더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서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가 아닌 사회부문 주도형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문영훈, 2012 : 222).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농촌관광은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도시화와 공업화의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의 회복과 연관되는 사회자본,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대중적 참여와 단결을 지속시킬 수 있는 민주적 대안으로, 사회과학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로컬거버넌스가 정부의 농촌관광마을사업 정책 시행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지역주민 참여형 농촌관광마을사업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는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한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선진국의 농촌관광은 유럽의 개별 경영형 농촌관광과 일본의 지역 경영형 농촌관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일본의 지역 경영형 농촌관광과 유사한 마을 경영형 농촌관광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경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 NPO 등 비교적 공식적 조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은 경영주체를 마을공동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 따라서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은 ‘마을공동체 활성화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농촌관광의 정책 역시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했을 때 공동체 활성화는 농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 등 정부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몇 년간 정부지원에 의해 농촌관광시장이 성장해 왔지만, 근래 농촌관광마을의 수가 증가하고 농촌민박 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농촌관광 시장의 경쟁조건이 악화되면서 정부지원에 의한 농촌관광의 경영유지는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장기적 또는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농촌관광을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은 일본의 지역 경영형과 유럽의 개별 경영형을 모두 포함하면서 양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농촌관광정책의 의미를 살려나가되 개별 경영형 관점에서 수익성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박시현 외, 2012 : 122).

이러한 정책적 융통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하나, 마을공동체가 우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성 추구는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라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도 이러한 측면의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상당기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매년 정책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거나 경쟁력이 취약하여 활성화가 어려운 농촌관광마을들이 적지 않고, 잘 운영되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경쟁 조건이 악화되는 등 농촌관광의 전체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현 상황에서 향후 농촌관광마을의

1)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675, p.121.

진정한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그 전제로 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는 형식적인 동원형 참여가 아니라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적 농촌관광 사업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와 농촌관광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공동체 회복에 밀접히 연관되는 사회자본과 지역주민들이 행정기관·전문가그룹 등과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협력해 나가는 로컬거버넌스의 상호 역할 및 영향관계 등을 밝히고자 한다.

농촌관광의 주민참여 및 사업성과 변수와 연계하여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영향관계,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는 연구는 기존의 변수 간 단순 영향관계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합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본 연구를 통해 정부 정책의 시행에 따르는 농촌관광마을 내 전반적 파급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향후 농촌관광마을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등 본 연구에서의 주된 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아울러 체계적인 실증연구를 위하여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 실태, 사회자본 실태,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 실태 및 성과인식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간의 영향관계,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간의 영향관계,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 간의 영향관계, 사회자본과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 로컬거버넌스와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 등 여러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구조모형 분석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분석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연구의 대상 및 공간, 연구의 시기, 그리고 연구의 내용에 따라 대상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그리고 내용적 범위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정부 농촌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을 그 대상으로 하였는데, 현재 정부의 농촌관광정책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이야말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주민주도 상향식 관광개발 방식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은 그 운영에 대하여 정부에서 평가·관리를 시행하고 있어서 상당부분 농촌관광마을사업 운영에 대한 객관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가 전제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사업성과를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와 연계시킴으로써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 2013년 ~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 인구수²⁾

구분	2013 귀농·귀촌인구		2014 귀농·귀촌인구		2015 귀농·귀촌인구		2016 귀농·귀촌인구	
	귀농(명)	귀촌(명)	귀농(명)	귀촌(명)	귀농(명)	귀촌(명)	귀농(명)	귀촌(명)
20대 ↓	-	1,369	-	1,543	-	2,233	-	2,554
30대	45	1,837	57	2,184	52	2,745	71	2,989
40대	68	1,521	101	1,843	120	2,471	140	2,765
50대	85	1,140	99	1,273	152	1,708	175	2,083
60대	40	476	33	624	55	786	103	1,048
70대 ↑	12	284	7	370	12	403	22	498
계	250	6,627	297	7,837	391	10,346	511	11,937

자료 : 귀농·귀촌인 통계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kr).

2) 여기서의 귀농 인구수는 동반가구원수를 제외한 순수 귀농인수를 말한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대상으로 정하였다. 근래 귀농·귀촌이 늘어나면서 농촌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제주도는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데, 노년층, 젊은층을 불문하고 도시에서 퇴직 후 지치고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하기 위해서, 또는 도시에서의 삭막한 직장생활을 접고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전국의 귀농가구 규모를 기초자치단체별로 비교해보면 제주도 서귀포시의 귀농가구 규모가 260명(257가구)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바로 뒤를 이어 제주시의 귀농가구 규모가 251명(250가구)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귀농가구 중에서 제주도로 이주하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지고³⁾, <표 1-1>의 내용과 같이 제주도의 귀농·귀촌 인구수가 상당히 증가하면서 전국의 이목이 제주도로 집중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래 귀농·귀촌의 시대 흐름 중심에 있는 제주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공간적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였는데,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15개 마을 중 최근 2016년에 지정되어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1개 마을(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을 제외한 14개 마을[(제주도 제주시 6개 마을 - 낙천리, 명도암마을, 소길리, 유수암리, 저지리, 청수리), (제주도 서귀포시 8개 마을 - 가시리, 고성리, 동광리, 무릉2리, 신평리, 신흥2리, 온평리, 화순리)]을 본 조사 전 예비 조사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제주도 내 특정 지역이 아닌 도 내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출된 결과들에 대한 제주도 내에서의 일반화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1) 본 연구 예비 조사의 공간적 범위

3) 원성심(2017), '나홀로' 귀촌·귀농 1인가구 부쩍↑, 서귀포시 '귀농 1번지', 헤드라인제주 뉴스(2017.06.29.)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마을별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재 시점까지로 한정하면서,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현재의 속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는데, 주민의 참여도,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사업성과와 같은 변수들의 현재 특성은 농촌 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의 사업성과 간 구조적 영향관계를 논의하는 통합적 연구모형의 프레임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우선 농촌관광, 주민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등에 관한 이론 및 변수들 간의 관계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농촌관광의 사업성과 간 관계에서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과 농촌관광마을사업 로컬거버넌스의 매개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관광, 주민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로컬거버넌스와 관련된 각각의 개념과 유형 등을 고찰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된 내용들을 근거로 연구모형을 구상하고, 실증연구를 위한 설문지 설계 등 본 연구의 토대를 이루는 연구 설계를 하였다. 문헌고찰을 토대로 주민참여를 협의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로 구분하였고, 사회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로컬거버넌스는 단일 변수로 위치시키고,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함으로써 이들 각각의 영향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한 설문조사는 예비 조사를 거친 이후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에서 도출되는 측정척도의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설문 문항을 정제·보완하였는데, 이렇게 예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수정된 최종 항목의 내용으로 본 설문지를 작성하여 본 조사 설문을 실시하였다.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기간에 설문지 항목으로 파악하기 힘든 부분을 확인하고 설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보조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대상 마을의 리더(추진위원장, 리장, 사무장 등)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18.0,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변수들에 대한 설문 문항들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분석 등 가설 검증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및 집단별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분석 등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포함하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e equation model : 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농촌관광

1. 농촌관광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농촌관광의 개념

전 세계적으로 농촌관광은 당초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이라는 정의에서 출발하여 최근 농촌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정의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강신겸, 2014).

한국관광공사(1996)는 농촌관광에 대하여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농어촌 관광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관찰시설, 편익·휴양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의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이를 이용하게 하며, 이용객들에게는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농어촌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광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Mason & Cheyne(2000)은 농촌관광을 '기존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공간적, 기능적으로 농촌을 그 목적지로 하여 그곳의 자연환경, 문화 및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류선무 외(2003)는 농촌관광을 '농·산·어촌 지역의 농촌 환경이 주 관광자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주체는 농·산·어촌 지역의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들의 자발적 합의형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도농 교류를 통해 도시민의 자연욕구충족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공생, 공존, 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박시현·송미령(2003)은 농촌관광에 대해 '농촌이라는 지역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해 농촌성(rurality)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농촌다움(amenity)이 보존된 농촌에서의 체류형 체험·여가활동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강신겸, 2014).

농림축산식품부(2005)에서는 농촌관광을 '농촌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통칭하는 용

어이고, 이는 농촌다움을 바탕으로 소규모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업인 농업이나 생활문화, 전통 향토문화, 그리고 농촌경관 환경 등을 도시민들과의 교류와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나가는 관광으로, 요약하여 농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와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농촌관광은 농촌의 자연환경, 농업, 전통문화 등을 매개로 농촌 공동체의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농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역만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역사 및 향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개발사업이고 동시에 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윤유식·박덕병, 2008).

야마자키(山崎光博) 외(1993)는 농촌관광에 대하여 전형적인 농촌이나 산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서비스의 주체가 농촌의 주민이 되고,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를 통해 농촌의 생활자원 및 문화자원 등의 각종 자원을 보존하면서 농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 등을 충족하는 관광이라고 제시하였다(김남조, 2004).

유럽에서는 농촌관광과 같은 의미의 용어로, 그린투어리즘, 연성관광, 대안관광, 휴먼관광, 자연관광, 책임관광,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등이 혼용하고 있고(안중현, 2008), 국내에서도 농촌관광과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록환, 2003). 농촌관광은 농업을 관광의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광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그린투어리즘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린투어리즘은 농업관광과 도농교류라는 양 측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미야자키 타케시, 2003). 그린투어리즘은 우리말로 '녹색관광'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요즘 농촌환경을 포괄하여 '농촌관광'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인배, 2009).

국가 또는 지역 특성별로도 농촌관광의 유사한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green tourism을 사용하고 있는데, 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원래 프랑스에서 관광활동이 행해지는 지역 특성에 따라 녹음이 짙은 전원에서의 관광을 'green tourism'이라고 이

4) 농촌관광에 대한 개념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은 농촌관광 자체가 가지는 포괄 개념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일수록 농촌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우선 농촌의 개념 정의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farm village, 農村)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사회로, 2차 산업, 3차 산업 종사자가 밀집한 도시(都市)에 대응되는 말이다(두산백과).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별하고, 농촌을 도시의 상대적인 지역으로 해석하면서, 농사가 주업이 되는 농업촌락(agricultural village)으로 부르고 있다(김병도, 2000; 강신겸, 2014). 학자마다 그 개념 정의가 유사할 수는 있으나, 농촌의 개념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지역 내 인구수, 산업 및 직업의 유형, 사회적·문화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촌락을 지칭한다(강신겸, 2014).

름붙인 데서 비롯되었으며, 그 외에도 파란 바다가 펼쳐진 해안 지역에서의 관광을 ‘blue tourism’으로, 하얀 눈이 덮인 산악지역에서의 관광을 ‘white tourism’으로 이름 붙였다. 이탈리아에서는 농업인이 숙박 등의 관광 요소를 농업과 접목하여 경영할 때 ‘agri tourism’⁵⁾으로, 비농업인이 농촌에서 농업 생산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단지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등 관광 관련업에 종사할 때 ‘rural tourism’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agri tourism’과 ‘green tourism’을 혼용하며, 영국은 ‘rural tourism’을 사용하고 있다(김남조, 2004; 강신겸, 2009; 이인배, 2009).

일본에서의 농촌관광은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1970년대 농산촌지역 투어리즘을 도입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green tourism이라고 불리고 있다(이걸재, 2009 : 204). 일본에서도 농촌관광, 관광농업 등으로 구별했었지만 최근에는 ‘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국가적 농업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농업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함께 해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송광인, 2003). 즉, 농업이나 농촌이라는 용어로 한정시키게 되면 선입관이 생기게 되는 문제가 있지만 ‘green tourism’이라는 용어는 자연환경을 중요시하는 오늘날의 시대적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단지 농업의 문제 또는 농촌의 문제가 아닌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김남조, 2004; 강신겸, 2014).

그러나 박호균(2002)은 정책적 측면을 아울러 마땅히 농촌관광(rural tourism)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촌관광을 위한 전개 방향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김남조(2004) 역시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에 대한 정부의 막중한 역할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관광관련 활동을 농촌관광(rural tourism)으로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강신겸(2009)도 관광객들이 활동하게 되는 농촌이라는 장소 또는 장소적 특성에 주목하는 개념으로서의 농촌관광(rural tourism)이야말로 농촌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활동을 가장 폭넓게 포괄할 수 있는 용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연구자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농촌관광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촌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농·산촌의 고유한 유무형의 농촌문화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유지·보전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도시민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관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김남조, 2004).

⁵⁾ agri tourism: agricultural tourism(농업관광)은 농가 또는 농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농특산물을 판매하거나 농사체험활동을 가능토록 지원하는 등 농업과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상품으로 제공하는 관광형태를 말한다.

〈표 2-1〉 농촌관광의 정의

연구자	농촌관광의 정의
Lane(1994)	단순 농장에서의 농촌체험활동(farm based tourism)이라기보다 다양한 체험을 중시하는 활동
OECD(1994)	농장관광, 자연관광, 생태관광, 등산관광, 모험관광, 건강관광, 사냥관광, 낚시관광, 교육여행, 예술 및 유산관광, 종족생활체험관광 등을 포함하는 복합 다방면의 활동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농어촌 관광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관찰시설, 편익·휴양시설, 운동·체육시설 등의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이를 이용하게 하며, 이용객들에게는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농어촌지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관광활동
Sharpley & Sharpley(1997)	친환경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골에서 일어나는 관광
Mason & Cheyne(2000)	기존의 관광지에서 벗어나 농촌을 목적으로 하여 공간적·기능적으로 농촌의 문화나 자연환경, 역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형태
박석희(2001)	농촌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지닌 농촌다움을 핵심편익으로 상품화한 관광
박호균(2002)	농촌지역 공간에서 농촌사회의 주민들이 농업활동을 기반으로 방문객들에게 사회적 여가행위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박시현·송미령 (2003)	농촌이라는 장소에 대한 보편적 특성인 농촌성(rurality)을 바탕으로 하는 관광활동
김남조(2004)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농산촌의 고유한 유무형의 농촌문화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유지·보전하려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인해 파생되는, 도시민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관광
농림축산식품부 (2005)	농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통칭하는 것으로, 농촌의 풍부하고 깨끗한 자연경관과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문화와 농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 간의 교류형 교류활동
류선무(2009)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농촌의 생산환경, 생활환경, 역사문화환경, 자연환경, 사회환경을 유인요소로 활용하여 도시민들을 농촌에 유치해서 생산, 가공, 유통, 체험학습, 교류가 현장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업농경방식으로서 21세기 복합농촌 건설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강신겸(2014)	농촌지역에서 행해지는 관광활동 또는 농촌의 자연적·사회문화적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의 주민들이 이를 방문객들에게 관광매력물로 제공하는 관광활동

자료 : 강신겸(2014), 『농촌관광 :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 p.41 〈표2-1〉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2) 농촌관광의 등장배경

전 세계적으로 농촌관광이 여가행위 중 하나로 출현하게 된 시기는 약 18세기 후반이었고, 두 번의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주요 관광형태 중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津端修一, 1995; 야마자키 미쓰히로·오야마 요시히코·오오시마 준코, 1997; Sharpley & Sharpley, 1997). 그 이후 점차 많이 알려지면서 근래 이슈화 되고 있는 농촌관광의 등장배경에 대하여 다음의 몇 가지 내용으로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고속성장의 개발을 추구하면서 발생하는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

르는 전 세계적 인식의 변화이다. 엄청난 개발 속도와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견뎌내지 못하고 지구가 온난화 되면서 남극·북극의 빙하가 점점 녹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전 세계의 사회적 패러다임 자체가 개발지향적 패러다임에서 환경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하여 점차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연환경의 파괴는 세계 유명 도시 관광지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이제는 자연환경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농촌이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농촌지역에서의 농촌관광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농촌의 소득감소와 이로 인한 이농현상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농업근대화정책으로 식료품의 대량(과잉) 공급이 가능해지면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폐경지, 휴경지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농촌지역에서의 고용기회는 감소하고 농촌의 소득도 계속하여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점차 도시와 농촌 간의 고용 및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농촌의 주민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러한 농업,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헤쳐나가기 위한 농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 방안으로 농촌관광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다(津端修一, 1995). 20세기 이후 점차 경제적으로 독립 가능한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이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농촌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농촌의 여성들이 이전에는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면서 남편을 보조하던 위치에 있었지만, 점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이제는 여성들이 농촌의 유희 노동력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 노동력으로 바뀌고 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여성들이 농촌의 B&B(Bed and Breakfast : 아침식사 제공되는 간이 숙박) 사업, 농촌민박 등에 많이 참여하면서 농촌관광의 순조로운 출발에 큰 기여를 하였고(Pearce, 1990), 그리스에서는 농촌관광과 관련된 여성협동조합이 조직될 정도라고 한다(장호찬, 2003 : 183-186).

넷째, 농촌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얼마 전까지 농촌은 값싼 노동력이 공급될 수 있는, 식량생산을 위한 공간으로만 인식되어 왔고, 농촌개발 정책은 농업 생산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식량 생산의 원초적 기능뿐만 아니라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힐링 여가 등을 제공하는 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데, 기존 농촌의 농산물 생산 등 경제적 가치의 평가 외에 농촌의 자연환경적·사회문화적 측면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촌은 도시민들이 도시에서는 느끼거나 경험할 수 없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공간, 치유를 위해 찾는 여유로운 공간,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농촌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힐링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대로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귀농·귀촌이 증가하며 농촌에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 시대에 농업과 관광을 접목하는 농촌관광이야말로 농업·농촌·도시의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대안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강신겸, 2014 : 28-36).

2. 농촌관광의 특징

1)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개발

정부의 이전 관광개발은 대부분 관광자원과 인접한 일정 지구를 관광지로 지정한 후 국비, 지방비를 투입하여 공공 편의시설을 만들고, 상가 및 숙박시설 등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이러한 ‘지역분리형’ 관광개발방식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사회를 배제한 채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지 못하면서 그 개발이익이 지역 외로 빠져 나가고, 외부의 개입이 심화되면서 본래의 지역사회를 와해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개발로 심하게 자원을 훼손하여 결국 관광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사회가 개발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 내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단기의 과도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이면서도 최대한 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도형’ 관광개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관광개발 즉,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개발 또는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개발(community-based tourism development)은 ‘지역사회의 구성요소인 지역의 관광자원과 인적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방문 관광객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관광개발의 계획단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마을의 전체 혹은 일부 지역을 관광 목적지로 하는 농촌관광과 같은 형태에 적합한 개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관광개발 대상의 공간적 범위는 주로 관광단지 및 관광지에 국한되었지만

점차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지역사회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 자체가 관광목적지로서의 공간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관광기능만을 제공하는 관광단지 개발과는 다른 차별화된 개발방식에 대한 현 시대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데(강신겸, 2014 : 55-56), 최근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舊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舊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등의 농촌관광마을사업들은 모두 커뮤니티 기반의 관광개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송영민, 2010 : 246).

2) 소프트웨어 중심의 주민참여형 관광개발

관광개발은 기존의 관광자원에 기반시설과 소프트웨어를 혼합하여 관광객이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시설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인데, 아무리 훌륭한 고가의 기반 시설물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에게 재미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관광객의 needs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관광개발의 의미는 상당히 퇴색될 것이다. 따라서 특색있고 매력적인 관광상품의 개발, 친절하고 진정성 있는 관광 서비스 제공, 매력적인 이미지의 창출 및 홍보 등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적 접근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관광개발은 대개의 경우 하드웨어적 개발에 치중한 측면이 많았고 그 곳만의,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려는 노력에는 소홀하면서 지역마다 특색을 살리려고 하기보다는 타 지역의 사례를 모방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근래 각 지역마다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리적 개발만으로는 안 되고,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농촌관광에서 기반시설은 관광개발의 목표가 아닌, 선결 전제조건이 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핵심 관광상품이 된다.

점차 각박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정신적 치유 또는 힐링을 위해 농촌으로의 휴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이때에 농촌관광개발에 있어서 걸 상자를 만드는 하드웨어적 측면보다는 상자 안에 알찬 내용물들을 만드는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이런 농촌관광의 소프트웨어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학자 그뤽스만(R. Glücksmann)이 관광에 대하여 '체류하는 지역에 잠시 머무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총체'라고 정의(양위주·장희정, 1998) 했을 정도로 관광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의 만남과 교류를 가장 중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의 관광정책이나 관광계획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김성진, 2003).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개발은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다른 어떤 개발형태에서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주민들 자체가 관광상품의 일부가 되고, 그들이 제공하는 관광상품으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공유하게 되는 등 지역사회가 내부적 접근(insider approach)의 관광개발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George Taylor, 1995; 강신겸, 2014).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개발 방식에 걸맞는다고 볼 수 있는 농촌관광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적 관광개발은 주민들의 자치 의식을 제고하고, 진정한 농촌관광마을의 활성화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의 매력적 관광자원을 살려내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관광자원과 정주환경의 조화 및 관광객의 만족으로까지 이어져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1987년 4월, 세계환경발전위원회(WCED :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는 「우리의 공동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지속가능성의 이념을 제시하였다. WCED는 「브룬트란트 보고서(The Brundtland Repor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간들 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 “미래 세대의 가능성을 제약하지 않고,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하였다(WCED, 1987: 43). 이 개념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연환경을 우리 미래세대도 최소한 현 세대 만큼은 향유할 권리가 있고, 이는 경제적 지속가능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자원을 포함하는 생태계 전체가 지속가능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김판석·사득환, 1998 : 81-82).

그 후 1992년 6월에 개최된 리우환경회의는 WCED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 :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제창하면서(정대연, 2004: 115-116)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리우환경회의에서, 환경적인 측면만을 다루었던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경제적·사회적 측면까지 모두 아

우르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으로 논의된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경제적 지속가능성·환경적 지속가능성·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각 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개념은 제반적 인간 활동에 대한 포괄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유치선·이수기, 2015 : 8).

한편 점점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되었던 리우환경회의에서는 여러 국가 간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다행히도 인류가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서로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의제 21(Agenda 21)'⁶⁾이다. 의제 21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을 글로벌 수준은 물론 국가적·지역적 수준으로까지 연계시키는 주요 의미와 포괄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의제 21은 글로벌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기구나 개별국가 중앙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두었던 종전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강성철·문경주·김도엽, 2008 : 7-8).

WTO(1993)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의미는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농촌관광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의 추구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동완, 2009 : 421).

이후 2002년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 영역으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가지 영역을 두루 고려하는 균형적인 발전적 접근방향 즉, 'TBL(Triple Bottom Line)'적 접근 방향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있었다(윤순진, 2009). John Elkington에 의해 1997년에 제시된 TBL 개념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후 지속가능성 논의에서 대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Elkington, 1997; McKenzie, 2004). 첨언하자면, 지속가능한 개발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과 함께 환경의 보호와 사회적 발전을 아우르는 총괄적인 개발전략을 의미한다(이연호, 2010; 송주연·임석희 재인용, 2015 : 679).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축은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성의

6) '의제 21'은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지침으로, 21세기를 위한 지구인의 행동지침 성격을 띠고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외교통상 용어사전).

추구이다. 이런 세 가지 지속성의 기본적 프레임 속에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링의 정책과 제도, 통합적 관광계획, 의견교환과 협력,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보장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환경보전(environmental conservation)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다(김성일, 2003 : 20-21; 강신겸, 2014 : 47).



[그림 2-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기본개념 틀

자료 : 김성일(2003), 『지속가능한 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과 미래 과제』, p.21 [그림]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지속성 등의 기본개념 틀을 중요시(WTO, 1993; 김성일, 2003)하듯이,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농촌관광은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사람과의 교류, 정신적 교류, 농산어촌의 깨끗한 환경의 유지'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강신겸, 2014).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은 한국 관광이 모색하여야 할 새로운 농촌관광의 대안이자 신기술을 연계하는 미래 한국 관광전략의 방향이기도 하다(고한익, 2010).

농촌관광은 농촌 지역사회의 자원 및 여건 등 농촌지역의 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농촌 관광자원의 보존, 그리고 관광객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한 가지 형태이다. 농촌관광의 범위는 단순 농촌 민박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사회의 환경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박운정, 1999). 농촌관

광은 기존의 전통적 관광개발과 차별화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원칙에 의거하는 관광개발 방식을 취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개념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의 연속선상에 있고, 관광분야에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라는 개념 하에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편익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숙박 및 체험활동,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해 도농교류를 활발히 추진하여 농촌의 소득 증진에 기여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주민들의 창의적 역량강화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농촌다움(amenity)을 보전하여 도시와 차별화되는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는 일회성 자금 지원보다는 장기간에 걸치는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장기 비전 및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강신겸, 2009 : 27; 강신겸, 2014 : 45-61).

이전의 대표적 관광형태인 대중관광은 대규모 투자가 주를 이루고, 제약이 따르지 않는 가운데 가격을 중시하며 대규모 단체가 이용한다. 관광지구 내부만 고려하면서 건물을 신축하고, 첨두(尖頭) 수요를 지향한다. 외부인이 개발을 주도하면서 주로 지역주민이 아닌 외지인을 고용하며,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 목표로 둔다. 결국 사회적 비용은 지역사회에서 부담하게 되고, 지역산업은 붕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에 반해 농촌관광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관광지구 계획을 수립하고, 양호한 경관을 우선 보존하며, 건물의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의 리모델링 등 재사용을 주도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생태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추진 과정에서 개발 업자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기존의 지역산업이 존속할 수 있게 된다(박석희, 2013).

농촌마을에 관광이 접목된다는 것은 기존 농촌의 전통적 기능인 농업생산 이외에 유통과 서비스가 더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단순히 농촌지역에 관광시설, 여가공간을 새로 조성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 전체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을 뜻한다. 농촌이라는 하드웨어에 관광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전통적 농업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전의 물리적 시설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결합하는 종합적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관광부문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면서 실제로

성공을 거두는 사례는 거의 없다(Buttler, 1998)는 비판도 있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관광분야에 적용시켜 완전 정확하게 구사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여 계속하여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김대관, 2001).

일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광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역사회에 편익을 가져다 주는 바람직한 형태의 관광'을 의미한다. 전통적 관광이 관광산업,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조화롭게 충족시키지 못한 반면, 지속가능한 관광은 다양한 욕구의 균형 포인트를 찾아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김성일, 2003 : 15-16).

〈표 2-2〉 전통적 관광개발과 농촌관광개발 비교

구분	전통적 관광개발	농촌관광개발
개발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 이익 최우선 고려 관광객 만족 고용창출 소득증대 세수증대 기반시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사회·문화·생태적 측면의 통합적 고려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활환경의 개선 지역정체성 확립 지역주민의 자긍심 고취 관광객 만족
개발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지인 개발주도 국가·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대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 개발주도 및 협조적·갈등적 참여 자방자치단체·공공기관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개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뛰어난 자연경관자원 문화유적·지정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의 고유한 환경(기후, 자연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풍습, 생활, 축제 등) 지역산업 마을단위(권역단위) 관광개발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 새로운 시설물(스키장 및 골프장 등의 관광시설, 호텔 및 콘도 등의 숙박시설, 수영장, 슈퍼마켓 등의 편의시설) 건설 자가 교통수단 우선 고도의 기술 및 장비 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발 기존 시설물의 리모델링 등 재활용 대중 교통수단이나 우선 하위 기술 및 선별적 장비 투입 Attractions and Amenities
개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개발 집중적·고밀도 개발 단기적 개발 지구수준의 계획 가격중시 개발 자연파괴적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개발 분산적·저밀도 개발 장기적 개발 지역과 연계된 지구계획 가치중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개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역사·문화자원의 파괴 외지인 고용 사회적 비용을 지역사회에서 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연·역사·문화자원의 보전 지역주민 고용 사회적 비용을 개발 업자가 부담
시장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규모 시장 첨두수요 수용 지향 계절성에 민감 하나의 지배적 표적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시장 평균수요 수용 지향 계절성에 무관 특정 지배시장 없음

자료 : 강신겸(2014), 『농촌관광 :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 p.60 〈표 2-5〉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3. 농촌관광의 유형 및 주요활동

‘관광’이라는 상품은 공급자의 입장과 관광객의 입장에서 보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의 시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중 관광객의 입장에서 그들의 경험은 관광상품 요소들의 총합보다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얼핏 생각하면 관광 현지에서의 경험이 관광의 전체 경험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관광의 경험단계는 복잡하며, 관광경험에 대하여 Clawson & Knetsch(1966)는 5단계로, Chubb & Chubb(1981)은 11단계로 세분화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박석희, 2007 : 32-34).

○ 클로슨의 5단계 관광경험

기대단계(계획~떠나기 전) → 가는단계(목적지까지의 거리가 여행 자극요인이 되어 중요함) → 현지단계(이 단계를 전체 경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 시간, 비용, 전체 만족 측면에서 보면 절반 이하에 해당함) → 오는단계(갔던 길 보다는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좋다) → 회상단계(전체 경험 중 인상적인 내용을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함).

○ 첵&첵의 11단계 관광경험

자각단계(어떤 종류의 관광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시작되는 경험) → 초기 결정 단계(관광 참가 여부의 결정) → 자료 수집단계(참가 결정 후 다른 사람들과 상의·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수집) → 최종 결정단계(관광 참가결정 그 자체가 매우 즐거운 경험) → 기대단계(기대에 부풀어 즐거움을 경험, 지나치게 낙관하면 나중에 실망 가능성 크므로 현실적 요인 감안) → 준비단계(필요한 물품, 심리적 준비 필요) → 가는단계(목적지까지 가는 거리가 여행 자극요인이 되어 중요함) → 현지단계(현지에서 수영, 등산, 사냥 등 각종 활동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단계로, 이 단계를 전체 경험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실상 시간, 비용, 전체 만족 측면에서 보면 절반 이하에 해당함) → 오는단계(갔던 길과 다른 길로 오는 것이 좋다) → 정리단계(신체적 피로를 풀고 흥분을 가라앉히며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단계) → 회상 단계(전체 경험 중 인상적인 내용을 주변 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움을 함께함).

만약 농촌관광을 이렇게 복잡한 관광경험의 단계로 구분한다면, 농촌관광은 단순히 개별적 관광요소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범위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의 공급은 개별적 요소의 차원을 넘어 전체적인 관광경험의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관광의 활동은 관광객의 입장에서 집을 떠나 농촌지역을 방문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

가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휴양·체험·학습·교류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농촌관광은 일반적인 타 관광과 달리 직접 활동을 동반하는 체험관광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농촌 지역에서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것이 농촌관광마을을 방문하는 우선적 동기가 될 만큼 농촌체험활동은 농촌관광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이혜현·박덕병·이민수, 2006). 농촌관광을 개발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에게 농촌관광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의 학습, 제반 도구 및 시설의 준비 등 광범위한 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활동은 상황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며, 유기적으로 확장 가능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농촌체험활동들을 살펴보면 자연 채취·수렵 채취·농사 체험·농촌생활 체험(풍습 및 생활)·토속음식제조 체험·전통놀이 체험·축제 체험·문화유적탐방 체험·야외활동 체험·자연생태림 체험·전통공예 체험·건강 체험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김기완·유광민, 2010).

오순환(2000)은 농촌관광의 활동을 체험의 차원으로 접근하여 자연체험, 전원체험, 친수 체험, 보양체험 등 4가지로 구분하였고, 박석희(2001) 역시 체험의 차원에서 자연체험, 전원체험, 역사 및 문화체험, 친수체험, 건강 및 보양체험, 제작체험, 레포츠체험 등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강신겸, 2014 : 52-54).

농촌관광은 추진 주체, 관광상품 유형,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민 주도형, 관 주도형, 민관협동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가장 이상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주민 주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 주도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생각을 한 방향으로 결집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훌륭한 리더가 존재해야 한다. 주민 주도형의 반대 유형은 관 주도형인데, 2002년 이후 몇 년간 각 중앙부처 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농촌관광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의 지원에 의해 출발하였지만, 지역 주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민관협동형이라 할 수 있는데, 농촌관광정책이 정착될수록 이 형태의 유형이 다수 출현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농촌관광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리는 곳들은 대부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촌관광의 상품에 따라 숙박체류형, 농산물 판매형, 음식물 판매형, 체험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숙박체류형은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농산물 판매형은 현장방문 판매 또는 인터넷 네트워킹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농산물 판매형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

물 판매형은 선진국에서 농가레스토랑이라는 형태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국에서처럼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민박, 팜스테이, 관광농원 등에서 음식물 판매를 통해 일부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체험형은 유치원생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농사체험 등이 주를 이룬다. 이들 유형은 각기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2개 이상의 유형이 혼합되어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근래 농촌관광마을은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요즘 농촌관광은 체험형과 음식물 판매형, 그리고 농산물 판매형이 혼합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이 행해지는 장소에 따라 경영방법과 관광상품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장소에 따라 대도시 근교형(주말농원 등 농사 체험 등), 산촌 산림형(등산, 산책, 삼림 체험, 산채 채취 등), 농촌 농지형(농사 체험, 농산물 구입 등), 목장형(치즈만들기 등 축산물의 가공체험 및 구입 등), 해변형(해변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활동 및 취식 등), 기타 자연형(하천 또는 호소 등에서의 낚시, 계곡 등에서의 캠핑 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2004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점차 여가시간이 확대되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농촌에서의 수용태세 정비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우리 농촌관광마을도 단기적으로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비교하여 조금씩 서서히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발전적 흐름선상에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오현석(2002)은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를 3단계 즉, 시장형성 초기단계 → 양적 성장단계 → 질적 발전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시장형성 초기단계는 농촌관광시장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이 만들어지는 단계인데, 이 시점에 농촌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새로운 상품화의 가능성이 발견되기 시작하고, 이를 조직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농촌관광의 수요나 농촌어메니티 자원의 상품화는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공부문의 농촌관광 관련 시책도 농촌관광 시장의 조직화 차원에서 고려되기보다는 농외소득 증대 등 특수 개별정책의 수준으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둘째, 양적 성장단계는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제약하는 시간적·공간적·접근적 측면 등에서의 제약 요인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공급측면에서는 농촌관광시장에 대한 다양한 형

태의 참여자그룹들이 농촌어메니티 자원을 조직화하고 상품화하려는 노력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공급측면에서는 다양한 공급자 그룹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농촌관광상품의 다양화, 유형화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분적으로 농촌관광시장의 차별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관광시장 전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공공부문의 농촌관광 관련 정책은 이때까지의 기존 농외소득 증대 중심의 정책에서 농촌관광시장의 효율화를 위한 시장조직화 정책으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 때 도농교류 촉진, 농촌의 정보화, 농촌관광시설 현대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고, 정부 각 부처의 농촌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되기 시작한다.

셋째, 질적 발전기는 농촌관광 공급자 그룹별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체 관광시장 내에서 농촌관광 부문이 다른 관광 부문과 경쟁을 시작하게 되는 단계로, 이 때의 농촌관광은 네트워크화된 그룹별로 브랜드화가 진행되고, 그 브랜드 품질의 유지·관리를 위해 품질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공부문에서도 농촌관광상품 및 프로그램의 개발지원, 품질관리 지원 등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농촌관광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시장의 공급체계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되고, 농촌관광과 관련된 정부 부처별 정책도 일시적 협의체 형식이 아닌, 항시적 협의체 기구를 통해 농촌관광의 고부가가치화의 방향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오현석, 2002 : 1-6; 강신겸, 2007 : 1-11; 안중현, 2008 : 21-25).

〈표 2-3〉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별 특징

구분	농촌관광시장의 발전단계		
	시장형성 초기	양적성장기	질적발전기
농업·농촌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접근 농업정책의 후퇴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고용유지기능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정책에서 농촌개발 정책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개발정책의 강화 및 농업·농촌·지역·환경·관광 정책 등 각종 정책 간 조율
수요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시간의 부족 정보의 부재 농촌지역 접근성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가시간의 확대 정보통신 수단의 발전 농촌지역 접근성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 관광 부문과의 경쟁 대두 농촌관광의 진정성 추구
공급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자원의 분산 등 비조직화 농촌관광 개발주체의 농촌관광상품 준비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참여자 그룹의 확산 농촌관광 공급자 그룹의 네트워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화된 공급자 그룹 중심의 브랜드화 품질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고품질화
정책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외소득 개발 고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시장의 조직화 수요·공급측면의 시장 활성화 기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관광의 품질화 및 고부가가치화
국내외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초 한국 (양적성장기 진입 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초 일본 (양적성장기 진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0년대 초반 이후 유럽

자료 : 오현석(2002), 농촌관광과 어메니티 시장의 발전, p.2 〈표〉 내용 인용.

이러한 오현석(2002)의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내용들을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우리나라의 농촌관광 부문이 다른 관광부문과 경쟁하게 되는 질적 발전기에는 이르지 못한, 양적 성장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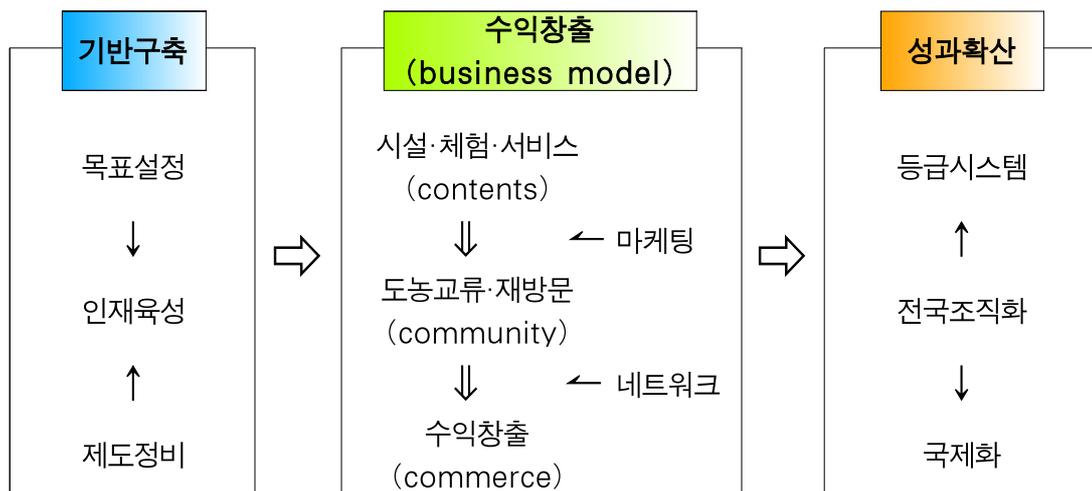
강신겸(2001)은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를 ① 기반구축 → ② 수익창출 → ③ 성과확산의 3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기반구축 단계에서는 사업 경영자(CEO)를 비롯한 농촌주민의 인식변화 및 역량강화가 가장 필요하고, 새로운 목표 및 이미지를 정립하는 것, 그리고 관련법규 및 지원정책의 준비가 요구된다.

둘째, 수익창출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성공요소라고 할 수 있는 3C(contents, community, commerce)를 효율적으로 조합하여 차별화된 수익창출 모델을 발굴해야 하는데, 독특한 시설, 재미있는 체험프로그램, 진정성 있는 서비스를 주요 콘텐츠로 개발하여 마케팅과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접목하면서 도시와 농촌 지역사회 간 교류를 통해 방문객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셋째,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농촌관광의 전국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시설 및 서비스의 등급제도를 도입하게 되며, 국제적 교류를 통한 농촌관광의 국제화에도 힘쓰게 된다.

이러한 강신겸(2001)의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내용들을 토대로 현재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은 국제적 농촌관광의 교류를 통한 성과확산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수익창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2] 농촌관광의 발전단계

자료 : 강신겸(2014), 『농촌관광 :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 p.64 [그림 2-6] 내용 인용.

한편 마을단위 농촌관광정책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추진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던 때에 박시현 외(2003)는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를 도입기(2002년~2005년), 정착기(2006년~2011년), 성숙기(2012년~)로 구분하였는데, 도입기는 각종 정책적 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관광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이고, 정착기는 농촌관광이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단계이며, 성숙기는 농촌관광에 대해 가급적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을 위한 품질 관리를 지속해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박시현 외(2003)는 이렇게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내용들을 제시하면서 2017년 현재에는, 도입기, 정착기를 거쳐 성숙기 단계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농촌관광의 실상을 살펴보면, 농촌관광의 산업화 시스템이 완비되어 여타 관광 상품들과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성숙기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수익 모델 정착에 힘쓰는 정착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2003년도의 예측 내용과 지금 현재 실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당시 박시현 외(2003)가 강조하였던 주민과 행정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사업의 추진, 개별 경영체 지원정책 확대, 농촌관광의 전문인력 양성, 농촌관광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하여 소홀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2-4〉 농촌관광 발전단계별 정부 정책

구분	주요 정부 정책	특징
도입기 (2002~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추진 주체의 육성 •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농촌관광 홍보체계 구축 • 도시민의 농촌방문 유도 및 지원 • 농촌관광 관련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소수의 농촌관광 방문객 • 농촌자원의 농촌관광 상품화 노력 미흡 • 농촌관광 개발 주체의 역량 미흡 • 다양한 경영전략 탐색 • 수익모델의 불확실성
정착기 (2006~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 상품개발의 지원 • 등급제 등 품질관리 체제 도입 • 공급자 및 중계자 조직의 육성 • 농촌관광 관계자 교육·훈련의 지속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농촌관광 시장 형성 • 농촌관광 공급자 네트워크 조직 • 수익모델의 정착
성숙기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개입의 최소화 • 지속적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농촌관광 시장 형성 • 타 관광부문 상품과의 경쟁 심화 • 산업화 시스템 완비

자료 : 박시현 외(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p.172 〈표 4-4〉 내용 인용.

5. 농촌관광의 사업성과

‘성과’의 개념은 통상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포괄하고 있는 개념으로 흔히 인식되어 있는데, 업무추진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의 개념을 살펴보면, 효율성은 ‘투입물과 산출물 간의 비율’을 의미하고, 효과성은 ‘산출물이 실질적으로 외부에 대해 영향을 초래하여 의도된 목적을 실현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안전행정부, 2003: 10).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농촌관광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2015년 말 기준 농어촌 민박 24,246개소, 농어촌체험휴양마을 873개소, 관광농원 545개소, 휴양단지 23개소 등의 농촌관광 공급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 간에 구축된 농촌관광의 공급기반을 바탕으로 하여 농촌관광의 시장이 확대되고 그 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는데,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은 2009년에 13,024,136일(농촌진흥청, 2009), 2014년에 15,906,034일(농촌진흥청, 2014)로 추산하고 있고, 약 5년 간 2,881,898일 증가하여 22.1%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5〉 연간 국내관광 및 농촌관광 이동총량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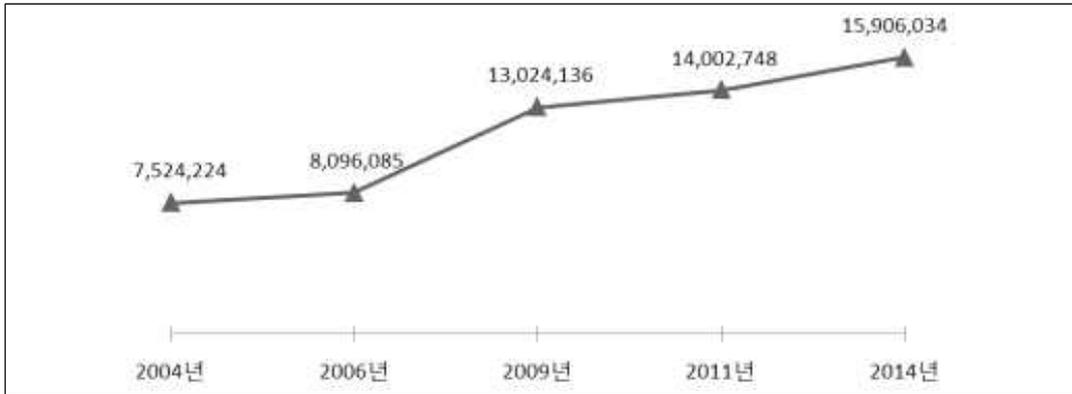
구분	연간 국내관광 이동총량(일)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일)	농촌관광의 차지 비율
2009년	131,111,085	13,024,136	9.9%
2014년	190,394,184 (45.2% 증)	15,906,034 (22.1% 증)	8.4% (1.5% 감)

연간 국내관광 이동총량⁷⁾(2009년 131,111,085일(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4년 190,394,184일(문화체육관광부, 2015))과 연간 농촌관광 이동총량⁸⁾을 비교했을 때 농촌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에는 9.9%, 2014년에는 8.4%인 것으로 나타나 단순히 그 비율이 5년간 약 1.5% 감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는 국내 전체 관광수요 증가 폭에 비해 농촌관광 수요의 증가 폭이 작은 데 기인하는 것으로, 농촌관광만을 따로 살펴볼 때에는 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7) 여기서 국내관광 이동총량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하는 국내여행 총량(관광여행+기타여행)에서 여행의 주 목적이 가족·친척·친구 방문, 교육·훈련·연수, 쇼핑, 사업 및 전문 활동·업무상 목적 등에 해당하는 기타여행을 제외한 관광여행(여가·위락·휴가, 건강·치료, 종교·성지순례 등)의 이동총량을 말한다.

8)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단위 : 일)



[그림 2-3] 농촌관광 이동총량 추이

자료 :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그림 2-4] 농촌관광 인지도, 지난 1년 간 농촌관광 경험 정도, 농촌관광 의향 추이

자료 : 농촌진흥청(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 조사』.

농촌관광의 인지도는 2003년 10.1%, 2006년 17.3%, 2011년 19.0%, 2014년 21.5% 등으로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농촌관광 경험의 정도도 2003년 8.1%, 2006년 8.5%, 2011년 13.8%, 2014년 14.7% 등으로 증가 폭이 작지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농촌관광의 의향은 2003년 43.4%, 2006년 47.6%, 2011년 70.4%, 2014년 65.3%로, 2011년까지 비교적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4년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에 대한 인지도, 농촌관광의 지난 1년 간 경험정도 등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도 선진국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국내의 시대적 주류 자체가 농촌관광 등 대안관광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폭의 성장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농촌관광의 양적·질적 성장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하에서 가능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2007년에 ‘도농교류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사업비 지원(보험료 지원 포함), 농촌관광마을에 대한 등급평가제 도입, 농촌관광마을 내 신용카드 포인트제 도입 등 농촌관광의 품질관리, 소비자 보호 및 편의제공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촌관광이 단순 농업생산 또는 농촌생활의 체험 외에 농촌의 자연·경관·문화 등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활동으로 그 범위가 공식적으로 확대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관련법의 제정 및 시행은 기존의 법적 규제 완화, 사업비 지원 등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는 실질적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을단위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상향식 접근방식을 강조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농촌관광마을의 운영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성과가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체험프로그램, 숙박, 음식제공 등 농촌관광 사업추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농촌관광을 아우르는 제반 마을경영이 촉진된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농촌관광사업으로 인한 마을 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등 농촌관광마을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표 2-6>의 내용과 같이 2012년에 57.56%, 2013년에 62.46%, 2014년에 61.52%, 2015년에 64.39% 등으로 2014년에 2013년 대비 -0.94%의 소폭 감소 수치를 보이기는 했으나, 3년 간 2.27%의 평균 증가 폭을 보이고 있고, 농가소득도 6.32%의 평균증가율을 보이는 등 농가의 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수치들이 오로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결과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정부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6〉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현황(호당 평균)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증가율(폭)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천원)	53,909	55,274	56,815	57,800	2.35%
농가소득(천원)	31,031	34,524	34,950	37,215	6.32%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57.56%	62.46%	61.52%	64.39%	(2.27%)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16)를 인용하여 재구성.

지역의 관광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및 자부심 고취 등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고 (Murphy, 1985; 김홍운·김사영, 2002; 송상섭·한범수, 2012; 윤주·최승담, 2013), 정부의 FTA 추진으로 우리 농촌지역이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농촌관광 마을 개발이 농외소득 증진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윤유식·박덕병, 2008).

농촌관광의 성과와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송미령·성주인(2005)은 농촌관광마을 개발사업 대상지들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수준을 지수화하고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지수화하여 그 관계를 파악하였고, 노용호·조광익·이상영(2006)은 AHP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농촌전통테마마을의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성과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대분류 성과지표 및 중분류 성과지표를 도출하였으며, 김남조·문성민(2007)은 균형성과지표 BSC(Balanced Scorecard)를 이용하여 농촌관광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에 적합한 성과평가모형 개발을 시도하였다. 채종훈·서정원(2011)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변인을 추출하면서 향후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윤주·최승담(2013)은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와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한상연·서윤정·조록환·박정운·배형호(2014)는 농촌마을 특성화사업 시행 마을의 사업성과 분석을 위해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강기호·이진희(2015)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함에 있어서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송미령·성주인(2005), 윤주·최승담(2013) 및 강기호·이진희(2015)의 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사업성과를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제2절 주민참여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에 대한 개념은 그것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이나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규정되는데, 이것의 일반적 개념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住民參與, participation of residents, citizen participation)는 지역의 주민들이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반 행위를 말하며, 행정참여라고도 한다. 왈도(Dwight Waldo)는 주민참여를 공식적인 행정조직 외부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행정조직의 목표 설정과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커닝햄스(James V. Cunninghams)는 주민참여에 대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대두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주민참여는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에 대한 하위 계층의 참여와 함께 참여행정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네이버 지식백과; 행정학사전, 2009).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의 개념은 1960년대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참여형 민주주의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개념으로(김소진, 2015), 지금까지도 주민참여의 내용과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표 2-7〉 참고).

주민참여의 개념은 시대적 여건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 행정적 측면으로 주민참여의 개념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 사용되는 개념은 계획과정부터 설계과정을 거쳐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까지의 참여 등 종합적 측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성순아, 2015), 최근에 거론되는 주민참여는 전통적인 개념과 두 가지 점에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지역주민의 적절한 역할에 대하여 전통적 견해는 계획과정의 참여에만 한정시켰지만 최근의 견해는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어떻게 실행·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의 집행과정 참여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참여의 범위에 대하여 전통적 견해는 기존 엘리트 중심의 참여를 당연시하였지만 최근의 견해는 저소득층,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주민들의 참여까지 확대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주민참여의 개념은 기존 엘리트 중심의 주민참여 개념에서 계획과정에서부터 집행 및 운영과정까지 권력과 거리가 있는 일반 지역주

민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 같은 주민참여 개념의 변화는 성공적인 농촌관광마을 개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Thomas, 1995; 정봉섭, 2010 재인용).

지역개발사업에서 계획이나 설계 등의 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는 어떤 사업이 시행되는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이해가 관계되는 주민들이 그들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회적·물리적 조건을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립, 방향 및 목표의 설정, 대안의 선택, 사업의 시행 및 평가단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덧붙이면 주민이 원하는 바가 정책이나 계획 시행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이윤정, 1997; 김은정, 2002).

주민참여는 주민자치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약속'(the promise of democracy)을 실현하기 위한 맥락에서 주민참여는 '민주주의의 혁신'(democratic renewal)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도출된 실질적 정치 의제(Wilson 1999)이고, 주민참여는 민주적 관점에서 지방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재확립하는 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들이 지역사회 리더십 역할을 떠맡을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곽현근, 2008a).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지역주민 참여의 개념은 후기 산업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관광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개발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참여에 대한 요구와 함께 출현하기 시작하였다(Tosun, 2000). 농촌관광마을 개발로 인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농촌관광 목적지에서 거주하는 농촌의 주민들이며,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관광개발 수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Briedenhann & Wickens, 2004), 지역주민(공동체)의 참여 정도와 연계되는 관광개발의 성공 사례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주고 있다(Pearce, 1997; Mason & Cheyne, 2000; Horn & Simmon, 2002; Fallon & Kriwoken, 2003; 송영민 재인용, 2010 : 246).

지속가능성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어울리는 농촌으로 발전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사회자본을 확충하고 농촌지역 부존자원의 가치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옛 농경시대의 전통적 집단 규범으로서의 참여는 될 수 없겠지만, 새로운 형태의 시대 흐름에 걸맞는 형태의 주민참여가 필요하다.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역량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 중 마을의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지속가능한 농촌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이재준·이상문, 2003).

농촌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 및 그 지역만의 고유한 발전전략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伊藤昭男, 1993; 유광민, 2006).

〈표 2-7〉 주민참여의 개념

연구자	주민참여의 개념	
국외	Arnstein(1969)	정보의 배분, 목표와 정책의 형성, 자원의 배분과 사업의 집행 등의 결정과정에 비참여자들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
	Cunninghams (1972)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
	Huntington & Nelson(1976)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일반주민의 행위
	Tosun(2000)	지역주민의 기회와 책임과 관련된 것에 대응하는 개인의 자발적 행동
국내	박용치(1993)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
	조창현(1998)	행정 관료조직들의 정책 형성 및 집행과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집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배용규(2001)	사업의 시행여부에 따라서 직·간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대한 발의와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김세용(2002)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노력
	이연택(2004)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관점의 접근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관점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의사결정과정, 수익창출과정, 주민교육과정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행동
	김혜민(2006)	어떤 사업의 시행 여부에 따라 직·간접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주민들이 해당 사업의 발의, 계획의 수립 및 사업 시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
	백완기(2007)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결정,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행위
	김소진(2015)	주민들이 정책이나 사업 시행에 있어서 단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책 또는 계획의 입안, 사전 기획(목표 및 방향설정), 대안선택, 계획수립, 사업시행, 운영관리 등 종합적인 범위에서 주체적으로 활동하며 영향을 미치는 행위

자료 : 성순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의 영향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4-15, 이상훈(2013),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1, 정봉섭(2010),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8-11을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주민참여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그것이 내포하는 본질적 의미는 대부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 개념 역시 이러한 의미와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것의 범위는 농촌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하는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하고자 한다.

2. 주민참여의 유형

주민참여의 유형 역시 시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참여의 제도성, 참여의 주도성, 참여의 직접성, 참여의 집단성 등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배웅규, 2001 : 41).

1) 참여의 제도성에 따른 분류

주민참여의 유형은 가장 보편적으로 제도성 여부에 따라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급증하는 주민참여의 요구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적절한 수준의 제도화를 도모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협조와 자치를 제도적 참여로 볼 수 있다. 협조는 주민이 행정의 정책결정과정에 협조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치는 행정에 대한 주민통제의 참여를 뜻하는 것이다.

제도적 참여는 다시 세분화하여 제도적 참여와 준제도적 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적 참여는 공고·공람,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과 같은 법으로 보장된 참여방식을 말하고, 준제도적 참여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도적 참여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대안적 장치로서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민원, 청원, 진정 등 행정제도 상 보장하고 있는 참여방식을 말한다.

비제도적 참여에는 운동과 교섭이 있는데, 운동은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대안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교섭은 자신들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대안을 협상하며 거래·교환하는 계산적 사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제도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2) 참여의 주도성에 따른 분류

주민과 행정기관 중에서 어느 쪽에 주민참여의 주도성이 있는지에 따라 주민 주도형 참여, 행정 주도형 참여, 그리고 수평형 참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선진국은 주민 주도형 참여나 수평형 참여가 대다수를 이루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행정 주도형 참여의 형태를 띤다고 할 수 있다.

주민 주도형 참여는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행정기관에서 수용하는 유형으로, 주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주민들이 시위·농성 등의 극단적 수단을 선택할 때에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도 있다.

행정 주도형 참여는 행정이 주민참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서 주민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유형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참여의 과정을 주도하고 주민은 행정기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참여하며 의견의 반영 여부도 행정기관의 결정에 따르는 형태를 말한다. 이 행정 주도형은 행정기관이 주도함에 따르는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도하는 행정기관의 태도 역시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주민참여가 행정홍보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

수평형 참여는 주민과 행정기관 중 어느 한 편에서 참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이상적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유형으로, 주민·행정 협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3) 참여의 직접성에 따른 분류

주민참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직접적 주민참여와 간접적 주민참여로 구분할 수 있다.

행정관료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시대적 비판의식 및 오늘날 정당·의회·이익단체를 통한 간접적 참여에 의해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직접적 주민참여 방식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직접적 주민참여 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최호준, 1984; 배웅규, 2001).

현 시대에는 지역주민 이해관계의 이질성으로 인해 그 누구도 전체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는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 속에는 간접적 주민참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특히 농촌 지역사회는 개인과 집단, 지역의 대표와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일정 부분 지역의 대표가 지역의 주민회의 등을 통한 의결사항 제시 등 개인과 집단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4) 참여의 집단성에 따른 분류

주민참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개별적 주민참여와 집단적 주민참여로 구분할 수 있고, 개별적·집단적 주민참여는 다시 각각 공식적 참여와 비공식적 참여로 세분화할 수 있다.

개별적(공식적) 참여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신분으로 참여하는 등 법규에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고, 개별적(비공식적) 참여는 개별 민원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적(공식적) 참여는 지방의회의 의원 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집단 또는 이익집단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 주민투표 등에 참여하는 것이고, 집단적(비공식적) 참여는 지역 주민의 일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집단민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적 참여에서는 집단의 범주와 관련해서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집단이 비조직적인 주민 집단인지, 아니면 이익집단인지에 따라서 집단적 참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집단은 주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강한 조직력을 갖게 되고, 행정기관과도 긴밀한 공생 관계를 형성하면서 해당 이익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반해, 비조직적 주민집단은 경제적 기반이나 조직력이 없이 특정 이익이 아닌 지역의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조직적 주민집단과 이익집단은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대개 공식적 참여는 행정기관의 발의로 이루어지고, 비공식적 참여는 주민의 발의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공식적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져 비공식적 참여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데 비해, 공식적 참여가 비활성화될수록 비공식적 참여의 욕구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곽순길, 1996; 배용규, 2001 : 41-46, 이정화, 2005 : 29-33).

〈표 2-8〉 주민참여의 유형

유형 구분		내용	
제도성	제도적 참여	공고·공람, 공청회·주민 설명회 등과 같이 법으로 보장된 참여방식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원, 청원, 진정 등 행정제도상 보장하고 있는 준제도적 참여방식을 포함하는 참여 유형	
	비제도적 참여	행정기관이 제시하는 대안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운동과, 자신들의 요구와 행정기관의 대안을 협상하며 거래·교환하는 계산적 사고를 전제로 하는 교섭 등의 참여 유형	
주도성	주민 주도형 참여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행정기관에서 수용하는 참여 유형	
	행정 주도형 참여	행정이 주민참여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서 주민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유형	
	수평형 참여	주민과 행정기관 중 어느 한 편에서 참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동등한 수평적 관계로 이상적 협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유형	
직접성	직접적 참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참여적 민주주의의 이념에 의해 지지되는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유형	
	간접적 참여	정당, 의회, 이익단체를 통해 주민들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의 참여 유형	
집단성	개별적 참여	공식적	주민이 행정기관의 공무원 신분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신분으로 참여하는 유형
		비공식적	개별 민원 등을 통해 행정기관에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 유형
	집단적 참여	공식적	지방의회 의원 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거나, 이익집단 등 주민집단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지방선거, 주민투표 등에 참여하는 유형
		비공식적	지역 주민의 일부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행정기관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집단민원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참여 유형

자료 : 곽순길(1996), 도시계획관련 민원의 실태 및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배용규(2001), 지역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41-46, 이정화(2005),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29-34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한편, 토리고에(1997)는 주민참여의 형식 및 내용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즉, 제도적 참여, 목적적 참여, 가치적 참여로 구분하였다.⁹⁾ 이러한 분류는 개념적 차원의 구분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의 사례들 중 많은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유형에 걸쳐 있을 수도 있다는 한계를 전제하고 있다.

제도적 참여는 행정기관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틀 내에서 주민들의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

9) 馬越皓之(1997), 環境社會學の理論と實踐, 有斐閣, p.112.

어지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회장, 운영위원장 등 조직대표를 소집하는 경우와 안(案)의 열람 및 공청회 등과 같이 주민들이 행정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형식적 참여라고 할 수 있다.

목적적 참여는 지역적 문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 또는 찬성하며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NIMBY(Not In My Back Yard) 또는 PIMBY(Put In My Back Yard) 현상과 같이 무분별한 반대나 찬성으로 지역문제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거나 비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점차 대립구조가 복잡해지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대립하는 찬반양론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의 민주주의 방식을 실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강기호, 2014 : 35).

가치적 참여는 목적적 참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이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와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 수준에서의 주민참여는 특정 사안이 쟁점이 되어 그에 대한 이해관계 주민들만이 찬반양론으로 대립하는 형태가 아니라 어떤 사안의 배경이 되는 지역적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함께 논의에 참여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부분적인 것을 반대하거나 요구하는 운동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김찬호, 2000 : 108-109).

본 연구와 관련된 주민참여 유형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형 중 오로지 한 가지로 지칭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도적 참여, 수평형 참여, 직접적 참여, 집단적 참여 중 공식적 참여 등의 특성을 두루 아우르는 주민참여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에서의 농촌관광사업은 주민들 스스로 지역을 더욱 풍요롭고 쾌적하게 만드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리고에(1997)가 분류한 주민참여 유형 중 가치적 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주민참여의 단계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의 정책결정과정 등에 참여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 많은 학자들과 여러 기관들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수준 또는 정도에 따라 몇 개의 단계로 나누어 제시해 왔다.

Sherry R.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모형은 1969년에 제시된 것으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단계별 참여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Arnstein(1969)은 크게 비참여 단계(Degree of

Non-Participation), 형식적 참여 단계(Degree of Tokenism), 주민권력 참여 단계(Degree of Citizen Power)의 3단계로 구분하고, 비참여 단계를 다시 조작(Manipulation) 단계와 치료(Therapy) 단계로, 형식적 참여 단계를 다시 정보제공(Informing) 단계, 협의(Consultation) 단계, 회유(Placation) 단계로, 주민권력 참여 단계를 다시 동반자관계(Partnership) 단계, 권한위임(Delegated Power) 단계, 주민통제(Citizen Control) 단계로 구분하면서 모두 8개의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표 2-9〉 Arnstein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에 따르는 주민참여 단계

주민참여 단계			내용	참여 수준	
I	비참여 단계 (Degree of Non Participation)	①	조작 (Manipulation)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계도, 설득하거나 일방적 지시를 전달하고, 주민은 단순참여 등 수동적으로 응하는 단계	약
		②	치료 (Therapy)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치료하기 위해 심의회 등에 주민을 참여시키지만 주민들이 실제 정책결정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등 단순 행정기관의 책임회피 형태가 되는 단계	↓
II	형식적 참여 단계 (Degree of Tokenism)	③	정보제공 (Informing)	행정기관에서 주민에게로 일방적 정보제공의 흐름으로 인해 환류를 통한 협상과 타협이 불가능한 단계	↓
		④	협의 (Consultation)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에 참석할 수 있으나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보다 참석과정을 거쳤다는 형식이 우선시 되는 단계	↓
		⑤	회유 (Placation)	정보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각종 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아직 주민들에게 정책결정의 영향력은 없는 단계	↓
III	주민권력 참여 단계 (Degree of Citizen Power)	⑥	동반자 관계 (Partnership)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의사교환이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	↓
		⑦	권한 위임 (Delegated Power)	주민들의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강하여 행정기관이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협상하고자 하는 단계	↓
		⑧	주민에 의한 통제 (Citizen Control)	입안, 결정, 집행 등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을 실제로 지배하게 되는 단계로, 주민들에 의한 완전자치가 실현되는 단계	강

자료 : Arnstein, Sherry R.(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pp.216-224, 정봉섭(2010),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4, 노정민(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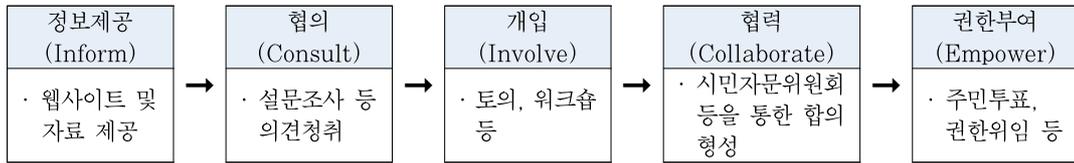
2000년에 Nick Wates는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에서 주민참여의 매트릭스를 통해 사업단계별 주민참여의 단계를 4단계로 제시하였는데(〈표 2-10〉 참조). 사업의 ‘착수, 계획, 시행, 유지관리’라는 사업단계별 주민참여 단계를 하향식 일방향의 흐름인 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 행정기관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협의(Consultation) 단계, 작동방식과 의사결정에 대해 공유하게 되는 동반자 관계(Partnership) 단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 지역사회가 견제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자립(Self Help) 단계로 구분하였다.

〈표 2-10〉 주민참여 매트릭스

구분		사업 단계				
		착수	계획	시행	유지관리	
		→		→		
주민 참여 단계	↑	자립 (지역사회 통제)	지역사회 단독 사업 착수	지역사회 단독 사업 계획	지역사회 단독 사업 시행	지역사회 단독 유지관리
	↑	동반자 관계 (작동방식과 의사결정의 공유)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사업 착수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사업 계획 및 설계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사업 시행	행정기관과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유지관리
	↑	협의 (행정기관의 지역사회 의견수렴)	지역사회 협의 후 행정기관의 사업 착수	지역사회 협의 후 행정기관의 사업 계획	지역사회와 협의 후 행정기관의 시행	지역사회와 협의 후 행정기관의 유지관리
	↑	정보제공 (정보, 대중홍보의 일방향 흐름)	행정기관의 사업 착수	행정기관의 단독 사업 계획 및 설계	행정기관의 단독 시행	행정기관의 단독 유지관리

자료 : Nick Wates(200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Earthscan : London, p.10.
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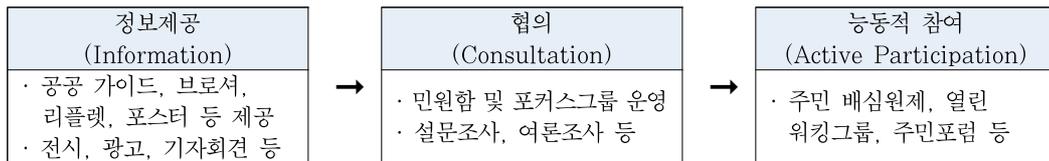
2000년 공공참여를 위한 국제협회(IAPP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는 ‘주민참여의 스펙트럼’에서 주민참여의 발전단계를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1단계는 웹사이트 및 자료의 제공 등 정보제공(Inform) 단계이고, 2단계는 설문조사, 의견 청취 등의 협의(Consult) 단계이며, 3단계는 토의, 워크숍 등의 개입(Involve) 단계이다. 4단계는 시민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형성 등 협력(Collaborative) 단계이고, 5단계는 주민투표, 권한위임 등의 권한부여(Empower) 단계이다(〔그림 2-5〕 참조).



(그림 2-5) 주민참여 단계 스펙트럼

자료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IAP2)(2000), 『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양재섭·김태현(2011), 서울의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실태와 개선방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Working Paper 2011-BR-03, p.13 인용.

OECD는 2001년 ‘정보제공, 협의, 그리고 대중의 정책결정에의 참여 핸드북’을 통해 주민참여의 단계를 3단계(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 협의(Consultation) 단계,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 단계)로 제시하였다(〔그림 2-6〕 참조). 여기서의 정보제공 단계는 정부기관에서 정보를 전달하면 주민들은 그것을 받는 형태의 일방향 관계의 단계로, 추후 협의 및 능동적 참여의 작동을 위한 조건이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협의 단계는 정부기관과 주민들 간의 쌍방향 관계가 형성되면서 정부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단계로, 민원함, 포커스그룹, 설문조사, 여론조사, 워크숍, 세미나 등의 수단이 이용된다. 그리고 능동적 참여 단계는 정부기관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기관과 주민들 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가장 진전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합의회의, 주민 배심원제, 열린 워킹그룹, 주민포럼 등의 수단을 주로 이용하게 된다.



(그림 2-6) OECD의 주민참여 단계

자료 : OECD(2001),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OECD, p.13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2013년 Prieto-Martin & Ramirez-Alujas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 단계를 크게 갈등(Conflict) 단계, 비참여(Non-Participation) 단계, 협의적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 단계, 협력적 참여(Collaborative Participation) 단계의 4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갈등 단계를 다시 불법적 협박(Illegal Duress) 단계와 합법적 강제(Legitimate coercion) 단계로, 비참여 단계를 다시 조작(Manipulation) 단계로,

협의적 참여 단계를 다시 정보제공(Information) 단계, 협의(Consultation) 단계, 조언(Advice) 단계로, 협력적 참여 단계를 다시 협력(Collaboration) 단계, 권한위임(Delegated Power) 단계, 통제위임(Delegated Control) 단계로 구분하는 등 모두 9개 단계로 세분화하였다.

〈표 2-11〉 Prieto-Martin & Ramirez-Alujas의 주민체계 모형에 따르는 주민참여 단계

주민참여 단계			내용	참여 수준	
I	갈등 단계 (Degree of Conflict)	①	불법적 협박 (Illegal Duress)	공권력이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강하게 침해하여 갈등이 심화되는 단계	약 ↓
		②	합법적 강제 (Legitimate coercion)	정부기관이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소통의 공식절차를 제공하지 않을 때 시위, 청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단계	
II	비참여 단계 (Degree of Non Participation)	③	조작 (Manipulation)	실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도가 없이, 단지 주민들의 고분고분한 자세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단계	↓
III	협의적 참여 단계 (Degree of Consultative Participation)	④	정보제공 (Informing)	정부기관이 주민들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혹은 계획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단계로, 이전 단계인 조작 단계에 비해 상당히 진전한 단계	
		⑤	협의 (Consultation)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조직 등 의사소통 채널을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등을 환류하는 단계	
IV	협력적 참여 단계 (Degree of Collaborative Participation)	⑥	조언 (Advice)	주민들, 협회 등의 집단에 일종의 대화 형태로 그들의 관심사, 의견 등을 제시하도록 하는 단계	
		⑦	협력 (Collaboration)	협의제도로 분명하게 권한위임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정직한 협동'의 원칙에 따라 정책결정의 역량이 암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공유되는 단계	↓
		⑧	권한 위임 (Delegated Power)	주민참여제도가 제한된 권력으로 여겨지는 단계로, 낮은 수준의 위임과 자치권을 행사하게 되는 단계	
		⑨	통제 위임 (Delegated Control)	참여제도로써 어떤 지역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의 통제권을 부여받는 단계	강

자료 : Pedro Prieto-Martín(2014), Participation Schemas - A tool to characteriz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PDD Specialist Group Conference presentation paper, pp.1-14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Arnstein이 1969년에 그의 유명한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을 제시한 이후, 여러 방면에서의 주민참여를 설명하고 분류하기 위해 많은 대안 모델들이 제안되었지만(Brodie et al 2009), 이들 모델들은 너무 단순하여 분석적으로 의미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지 못하거나 또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 모델들의 광범위한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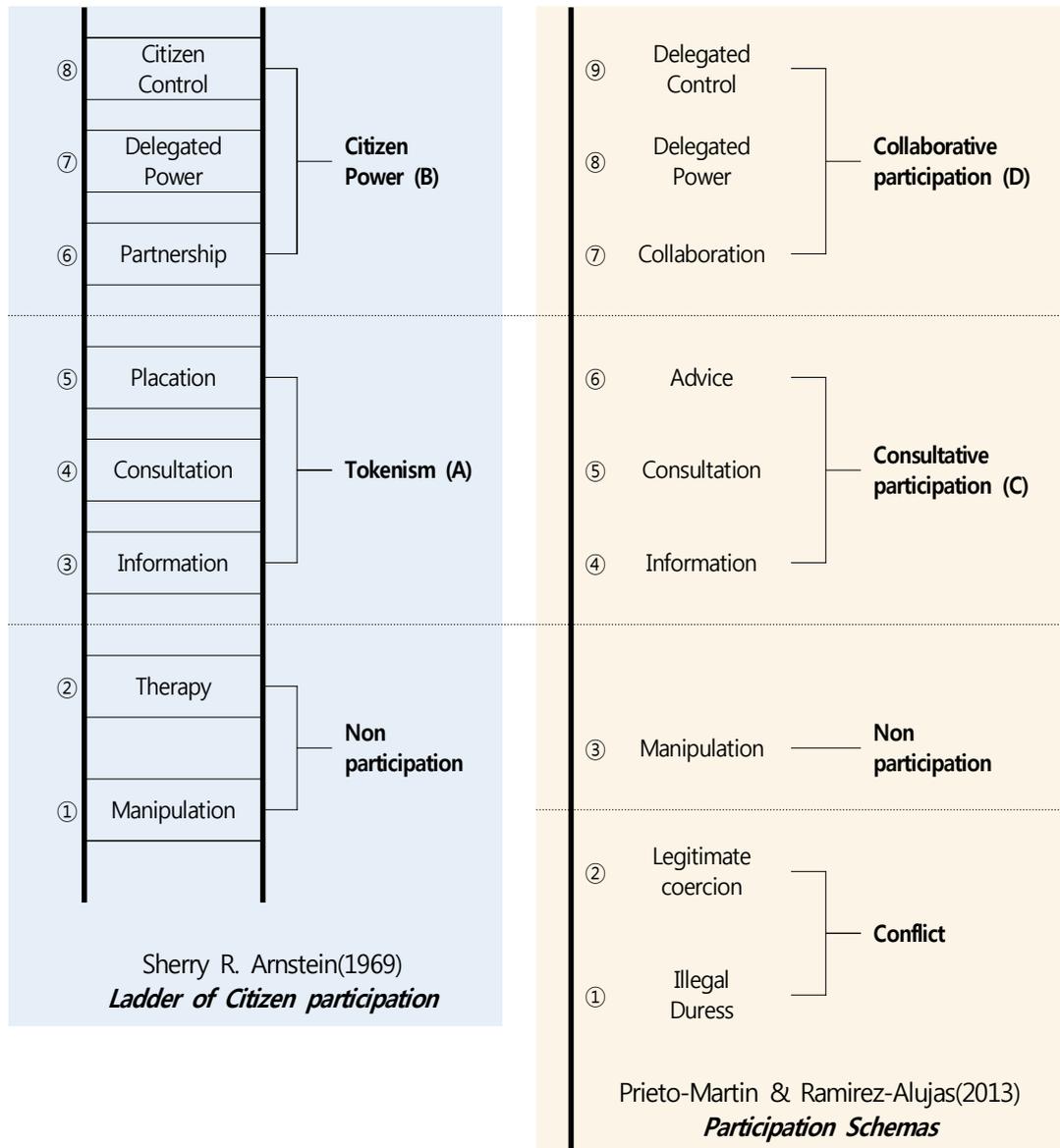
지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젝트나 연구들은 2000년 IAPP에서 제시한 척도와 2001년에 OECD에서 제시한 척도에 많은 부분 의지했던 것이 사실인데, IAPP(2000)와 OECD(2001)가 제시한 척도 모델은 기본적으로 Arnstein(1969)의 8단계 척도를 각각 5단계와 3단계로 단순화시킨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델은 Arnstein의 권력의 쟁점을 둘러싼 비판을 무시하고 있고, 특히 높은 참여 단계에서 주민참여가 수반하는 수없이 많은 미묘한 차이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율성, 포용, 신중함, 제도화와 같이 주민참여의 특징이 되는 근본적 차원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Prieto-Martin 2014 : 2-3).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의 참여체계 모형(Participation Schemas)은 주민참여 과정의 특징에 대한 기초적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해석하기가 쉽지 않지만 현상의 복잡성, 유용성, 융통성 간의 실용적 타협점을 제공한다. 이 모형은 기존의 주민참여 대안모형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되었으나(Brodie et al 2009), 개방적이고 유연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Prieto-Martin 2014 : 12).

본 연구에서의 주민참여는 Arnstein(1969)이 제시한 주민참여 사다리모형(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참여 단계와 이를 보완하여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가 제시한 참여체계 모형(Participation Schemas)의 참여 단계를 근거로 하여, 크게 협의적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와 협력적 참여(Collaborative Participation)로 구분하고자 한다.

여기서의 협의적 참여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에서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회유(Placation)의 세부 단계를 포함하는 형식주의(Tokenism) 참여 단계([그림 2-7]의 (A))에 해당하고,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의 참여체계 모형에서 정보제공(Information), 협의(Consultation), 조언(Advice)의 세부 단계를 포함하는 협의적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 단계([그림 2-7]의 (C))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집회 및 공청회 등에 출석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채널은 존재하지만 권고 수준의 제기만이 가능하여 정책결정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적 참여는 Arnstein(1969)의 주민참여 사다리모형에서 동반자 관계(Partnership),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주민에 의한 통제(Citizen Control)의 세부 단계를 포함하는 주민 권력(Citizen Power) 참여 단계([그림 2-7]의 (B))에 해당하고,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의 참여체계 모형에서 협력(Collaboration),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통제 위임(Delegated Control)의

세부 단계를 포함하는 협력적 참여(Collaborative Participation) 단계([그림 2-7]의 (D))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의사교환이 동반자적 관계에서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주민의 권한이 사업계획 및 시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7] Arnstein과 Prieto-Martin & Ramirez-Alujas의 주민참여 모형 비교

자료 : Pedro Prieto-Martín(2014), Participation Schemas - A tool to characteriz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PDD Specialist Group Conference presentation paper, p.4를 인용하여 연구자 재구성.

4. 주민참여의 방향

주민참여는 대부분 ‘수단적 효율성’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를 높이고 집행과정의 파행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며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계속하여 강조되어 온 내용이다.

반면, 민주주의는 ‘for the people’이 아니라 과정적 참여를 주목하는 ‘by the people’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민주적 정당성’ 측면의, 주민참여가 갖는 근본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시각이 있다. 이 경우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참여가 강구되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념적으로만 강조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수준과 비교하여 항상 부족한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참여 없이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참여는 그 자체가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곳이든 주민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 지역의 공동체는 이미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위에서 언급한 ‘수단적 효율성’ 측면의 참여, ‘민주적 정당성’ 측면의 참여는 사실상 참여를 통한 부차적인 효과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 자체의 참여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참여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단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기능론자들에게 있어서 주민참여는 주민동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듯이, 참여에 대한 엄중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 또한 수립할 수 없게 된다.

지역에서의 어울림, 지역 삶의 터전을 가꾸는 일 없이 어느 날 불쑥 주민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공동체 형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민참여는 삶터에서의 어울림과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이다. 삶터에서의 주민들 간 상호 호혜적 교류 및 어울림의 결과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갖게 되고, 어울림이 주는 기쁨이 더해져 주민참여는 제고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지 않는 한 참여는 요원한 것이 될 것이다. 단순히 행정의 성과 또는 효율성을 위해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여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에 나설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주민참여는 해당 마을의 주민들이 어울리면서 상호 인정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곳, 소속감(we-feeling)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마을의 공동체가 해체되었을 때 주민참여는 행정의 형식적 수단에 불과할 것이고, 참여 자체가 주민들 간

10) 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 내용을 통해서도 농촌관광마을사업 현장에서의 주민참여에 의한 공동체의 형성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록 II] 인터뷰 조사 내용 pp.317-332 참조).

에 기분 좋게 어울리는 일련의 과정이 아니라 귀찮은 일(work)이 될 것이다(이종수, 2016 : 115-118).

주민참여는 개입된 그룹 및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한 상호이해 기반의 증진 노력과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타협 노력에 의해서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이익을 위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기본적 신뢰기반의 구축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에 대한 이러한 기본 전제조건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격변하는 오늘날의 사회 여건 속에서 이를 구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울러 농촌 주민 개개인의 자질 부족, 농촌마을의 리더 부재, 상호 간 이해 조정 능력 부족, 정보공개에 대한 보수경향 등 내적 주민참여 한계 요인과 행정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주민참여 제도 미비, 주민참여 촉진 전문그룹의 미형성 등 외적 주민참여 한계요인은 우리 농촌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주민참여의 제약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김은정, 2002 : 19-20).

Wang, Yang, Chen, Yang & Li(2009)는 지역 주민들이 관광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은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관광에 대한 이해 부족은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운영을 제한하는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다(Tosun, 2000). 지역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개념과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낮은 참여도, 낮은 지지도로 직결된다(송영민, 2010 : 249-250).

위와 같은 주민참여의 제약요인들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리더육성, 주민교육, 선진지견학 시스템 구축,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교육, 조직구성 및 운영 지원 등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제도화해 나가야 한다. 단, 단기적 목표로 제도화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리더그룹이 바뀌더라도 참여그룹이 보완되면서 이전 리더그룹의 맥을 이어 다음 리더그룹이 이어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등 농촌지역의 현실적 여건을 파악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3절 사회자본

사회자본의 '자본'은 경제학에서 다루어지는 자본의 개념이 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 경제학에서 '자본'은 시설, 기계, 완제품 등의 실물과 화폐를 모두 포괄하며 토지·노동과 함께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로 지칭되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다. Bourdieu(1986)는 일정한 조건에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아 자본의 유형을 경제·문화·사회자본으로 구분하면서 '자본'이라는 용어를 대입시켰는데(반호준, 2016 : 13), 그는 자본이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사회자본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박희봉, 2009 : 30).

제3의 자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기계나 토지와 같은 물적자본(physical capital), 기술이나 교육에 투자하여 생성되는 개인의 역량과 같은 인적자본(human capital) 외에 사람들이 협력하여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능력이다. 개별 사물이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물적·인적자본과는 달리 사회자본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Light, 2004), 이는 좋은 관계형성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자본이 생산적 목적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곽현근·유현숙, 2011 : 64). 사회자본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신뢰나 호혜성, 책임감 등 사회적 협력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다(KBS 사회적 자본 제작팀, 2011 : 24-32).

1980년대 미국 사회에서 퇴조하던 도덕적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동체 의식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보았던 시대 흐름과 함께 Coleman은 가족의 가치, 준법질서,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사회자본에 주목하였다(김상준, 2004 : 76). 공동체 의식은 집단 사회생활을 하게 되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공동체 의식을 상실했을 때 그 사회는 전체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사회자본이 이 시대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지역의 삶의 질은 그것들의 성장 속도와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커지는 사회적 불안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 현실의 모습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회자본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감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의 의미는 매우 다양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오욱환, 2013 : 47).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사용은 1916년 하니판(Lyda J. Hanifan)¹¹⁾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하니판은 당시 학교 교육의 개혁촉구 서신에서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과 가족 간의 친교, 사회적 교류는 사람들의 일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은 혼자일 때 상호협력이 불가능하지만, 이웃과 접촉하고 교류를 시작하면서부터 ‘사회자본’이 축적되기 시작한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사회생활에 유용한 자산이 되고, 전체 사회의 생활수준(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사회 각 구성원들의 협력은 공동체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주고, 개인 역시 상호 교류 및 협력, 사회적 연대감 등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하니판의 사회자본 개념은 그 이후 한동안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960년대 후반 로리(Glenn Loury), 제이콥스(Jane Jacobs) 등 일부 도시사회학자들에 의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이후 부르디외(Pierre Bourdieu)를 필두로 하여, 콜먼(James S. Coleman), 퍼트넘(Robert D. Putnam), 후쿠야마(Francis Fukuyama) 등을 중심으로 논의¹²⁾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 25-26). 이들은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다른 연구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연구의 다양성을 확장시키는 데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박희봉, 2009 : 63).

계급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의 사회모순이 계속되는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자본의 개념을 도입한 Bourdieu는 현금화 등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는 경제자본, 일정 조건 하에서 경제자본화 될 수 있고 교육적 자격으로 제도화될 수 있는 문화자본과 더불어 사회적 의무를 통해 경제자본화될 수 있고 고귀한 칭호(title of nobility)의 형태로 제도화될 수 있

11) 1916년 당시 하니판(Lyda J. Hanifan)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장이었다.

12) 사회자본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고, 그 논의의 흐름은 크게 Bourdieu와 Coleman으로 대표되는 사회학적 관점과 Putnam 계열의 정치학적 관점으로 구분된다. 사회자본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개인 또는 조직이 소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자원이나 정보가 해당 개인이나 조직에 미치는 선별적인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정치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또는 국가와 같은 집합체가 소유하는 집합적 자원으로 간주하고, 조직, 동네, 지역, 국가 등과 같은 사회조직 구성원들 간의 네트워크의 특징뿐만 아니라 신뢰 및 호혜의식 등과 같은 인지적 특징들을 강조한다(이강혁, 2017 : 11-12).

는 사회자본을 자본의 형태들 중 하나로 보았다(Bourdieu, 1986; 박영민, 2012 : 20). 이는 자본 개념을 경제재(economic goods)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 문화재, 사회재, 정치재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경제적 측면의 자본 개념을 상징적·비경제적 영역의 이해 추구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³⁾ 사회자본 연구의 핵심을 네트워크로 보았던 Bourdieu는 사회자본에 대하여 ‘서로 면식이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산의 총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자본을 상호 지속적 네트워크의 소유 정도와 관련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자원의 결합체로 규정할 것이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보다 포괄적인 사회 관계망 속에서 개인들의 지속적 네트워크 및 집단이 각 개인에게 주는 다양한 사회적 기회들을 총칭하는 것이며, 사회자본의 총량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규모와 그 사회적 네트워크에 속한 각 개인들이 가진 잠재적 기회 자원의 양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Bourdieu, 1986 : 246; 진관훈, 2013 : 26).

Bourdieu의 사회자본 이론이 융합적이고 탄력적 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본은 상호 전환되지만 다른 형태의 자원은 결국 경제적 자본으로 귀결된다는 그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경제주의적 마르크스주의의 틀 안에 머물면서,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김상준, 2004 : 70). 그뿐만 아니라 계급 구조의 재생산적 관계 속에서 빈곤 등 불평등의 원인이 사회자본의 차이에 있다고 설명한 Bourdieu의 사회자본은 결국 계급의 불평등이나 빈곤 등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Coleman 방식의 사회자본’¹⁴⁾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한상미, 2007 : 12; 진관훈, 2013 : 34-35).

Coleman은 사회자본의 분석단위를 계급경쟁 상황에 처한 개인들에 초점을 맞추었던 Bourdieu 계통의 연구 수준 및 분석단위를 지역사회 내의 가족, 집단 등으로 이동시키고(Winter, 2000; 광현근·유현숙, 2011 : 64), 사회자본이 집단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시각을 넓히면서 사회적 관계까지 개념적인 범위를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chuller et al, 2000). 따라서 Coleman 이후의 연구자들은 사회자본을 집단이 소유한 자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게 된다(박희봉, 2009 : 61-62). Coleman은 사회자본에 대하여 ‘단일한 실

13) Bourdieu의 자본 개념은 이윤추구 및 이윤증식적인 마르크스의 자본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Bourdieu는 자본 개념을 상징적·비경제적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킴으로써 원래 경제적 자본이 갖는 이윤추구, 이윤증식 성격의 개념을 상징적·비경제적 차원의 이해추구로까지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가 마르크스 관점을 확장했다는 측면의 의미와 함께 막스 베버적 관점을 흡수했다는 측면에서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막스 베버적 관점이란, 역사 흐름의 추진력은 물질적·경제적 가치 또는 이해만이 아닌 정신적·문화적 가치 또는 이해로도 이루어진다는 시각이다(김상준, 2004 : 69-70).

14) Coleman(1988)의 사회자본은 수평적 관계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계급 구조의 수직적 관계까지 포함한다.

체가 아니라 다양한 실체이며, 사회구조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내 행위자들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Coleman, 1990 : 302; 곽현근·유현숙, 2011 : 64). 사회자본은 이러한 행동의 원천으로, 합리적 행동 패러다임 내에 있는 사회구조라고 할 수 있다(Coleman, 1998; 박희봉, 2009 : 32). 미국 사회학계에서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Coleman은 '모든 행위 유형은 행위자의 이해 실현(actor's realization of interest)을 증가시킨다는 하나의 목적 내에서 이루어진다'(Coleman, 1990; 김상준, 2004 : 76) 라고 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을 특정한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productive social network)으로 보았는데(Coleman, 1988, 1990), 이는 효용의 극대화(maximization of utility)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관계의 생산성에 주목하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입장과 일관된 것이다(김상준, 2004 : 76). Coleman은 인간의 행동을 사회적 규범, 규칙, 의무 등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관점과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학적 관점을 접목시키고자 시도하면서,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사회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회자본 개념을 사용하였다(Coleman, 1988 : 95). 그는 사회자본의 기능을 거래비용의 감소, 정보의 통로, 도덕적 규범의 강화를 통한 공공재의 공급 등으로 제시하였다(Coleman, 1998; 유석춘 외, 2007 : 98-102, 박영민, 2012 : 20-21). Coleman은 행위의 설명근거를 행위자의 자기이해 실현에 배타적으로 두면서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이해의 제재 또는 제가(sanc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는 제재의 강화를 통해 사회자본을 강화시키자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의 다양성을 아우르는 데 제약적일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Coleman은 규범에 대하여 상호 구속적 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의 합리적 타산을 기반으로 하는 '포괄적 신용과 부채(extensive credits and debits)'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말하는 제재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다. 경제적 대여와 상환은 엄격한 등가성 및 규범적 강제성이 있다는 것으로, 대여한 쪽으로 반드시 상환되어야 하는 닫힘(closure) 또는 고밀도(high density)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높은 밀도의 닫힌 관계망이 사회자본의 힘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있으나, 신용과 부채의 상환을 확인해주는 합리적 선택이론 시각에서의 제재만이 사회자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즉, 상호 구속력이 약하거나 밀도가 약한 사회적 관계가 오히려 더욱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노벤테르(Mark Granovetter)와 버트(Ronald Burt)의 약한 연결망(weak ties) 이론이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김상준, 2004 : 78).

사회자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하지만, Putnam은 사회자본의 연구와 대중화에 가장 큰 공헌을 한 학자로 주목받아왔다. Putnam은 20여 년에 걸친 이탈리아 남부와 북부 지역의 비교 실증연구에서 수평적 조직·단체를 통해 호혜적 규범과 주민참여의 네트워크가 꾸준히 축적되어 온 북부지역이 정치·사회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남부지역보다 훨씬 더 좋은 제도적 성과를 이루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1993년에 발표한 그의 저서 『Making Democracy Work』에서 그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이 남부지역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민주주의 정치가 더욱 성숙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높은 사회자본 때문이라고 제시하였다(곽현근·유현숙, 2011 : 65-66). Putnam(1993a)은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평적 단체 내 구성원들 간의 관계로 보았는데, 다음의 글은 이러한 그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이태리의 어떤 지역에는 활동적인 많은 수의 지역사회 조직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사사로운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적 이슈에 의해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한다. 이 지역사회의 리더는 상대적으로 정직하고 공정하게 행동하며, 사회·정치 네트워크는 수직적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조직된다. 이 지역사회는 협동, 주민참여, 통합을 가치 있게 평가하는데, 그 중심에는 중세 사회의 자기방어를 위한 길드, 종교단체, 성채사회, 협동단체, 상호부조 사회, 20세기의 이웃단체 및 합창단 등 조직화된 상부상조 및 시민연대의 풍부한 네트워크가 존재한다(Putnam, 1993a : 36-37).”

Putnam은 사회자본에 대하여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이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사회조직¹⁵⁾의 특징들과 관련되는 것(Putnam, 1993a : 35-36, 1995 : 67)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Coleman이 사회자본을 지역사회 내의 집단 수준에서 연구한 것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수준으로 확대 접근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개념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Coleman이 Putnam보다 더 넓게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즉, Putnam은 사회자본의 개념을 수평적 관계로 한정한 반면, Coleman은 수평적 관계뿐 아니라 불평등한 권력구조의 수직적 관계까지 포함하고 있다(박희봉, 2009 : 31-62).

15) Putnam은 신뢰 또는 호혜적 규범(norm of reciprocity)을 촉진하는 비공식적 형태의 사회단체를 더 강조했다. 여기서 비공식적 형태의 사회단체는 음악·스포츠 동호회 등과 같이 지대 추구(rent-seeking)보다 모임 자체가 주 목적이 되는 조직을 말한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 27-28).

Fukuyama는 사회자본에 대하여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Fukuyama, 1995 : 49). 그는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는 진실과 책임의식이 함께 해야 하며, 호혜성(reciprocity)이 있어야만 사회자본이 창출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즉, 잘못된 가치나 규범은 사회자본의 형성에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어떤 특정한 산출물이 아니라 개인 간의 연결 관계에서 생성되는 호혜적 규범이나 사회적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동원·정갑영 외, 2009 : 30). Fukuyama는 1995년 발표한 그의 대표 저서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에서 한 국가의 복지와 경쟁력은 신뢰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할 만큼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의 신뢰는 ‘어떤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들이 보편적인 규범에 기반하여 규칙적이고 정직하게 협동적 행동을 할 것이라는 기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의 가장 작은 기본적 집단인 가족 내에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및 국가단위에서도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기초로 하여 Fukuyama는 비슷한 환경을 지닌 국가 간에도 경제적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를 사회자본인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Fukuyama, 1995 : 49-50, 조주은, 2015 : 38).

울콕(Michael Woolcock, 1998)은 사회자본을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하는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적 규범’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사회자본이 경제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여부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이 미시적 또는 거시적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조합하게 되는가에 달려 있고, 발전 그 자체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사회자본의 역할 또한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빈곤한 공동체에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 내부의 통합성(integration)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외 다른 주류 사회와의 연계성(linkage)을 형성해야 한다고 본 것인데, 그의 이러한 설명은 외국의 이민사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이민사회에서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은 처음에 이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그들 민족 공동체의 후원이 없이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들은 그들 민족의 공동체에 통합되는 배태성(embeddedness)¹⁶⁾의 과

16) Woolcock은 배태성(embeddedness)과 자율성(autonomy)이라고 하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에 기초하여 사회자본을 바라보았다. 그에 의하면 배태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들이 그들 공동체 내부에서 행하는 사회적 연대(social ties)와 같은 ‘통합성(integration)’을,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조직 내에서 가지게 되는 ‘상승효과(synergy)’를 의미한다. 자율성이란, 미시적 수준에서는 소수민족의 소규

정을 거치면서 발전의 기반을 다지지만 어느 정도 기반을 다진 후에는 그들의 공동체 자체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소규모 기업이 향후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벽을 뛰어넘어 더 넓은 주류 사회로 진입하는 자율성(autonomy)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Woolcock, 1998; 정기환 외, 2006 : 21-22)고 보았다.

이 외에도 국외 많은 연구자들과 기관에서 사회자본 개념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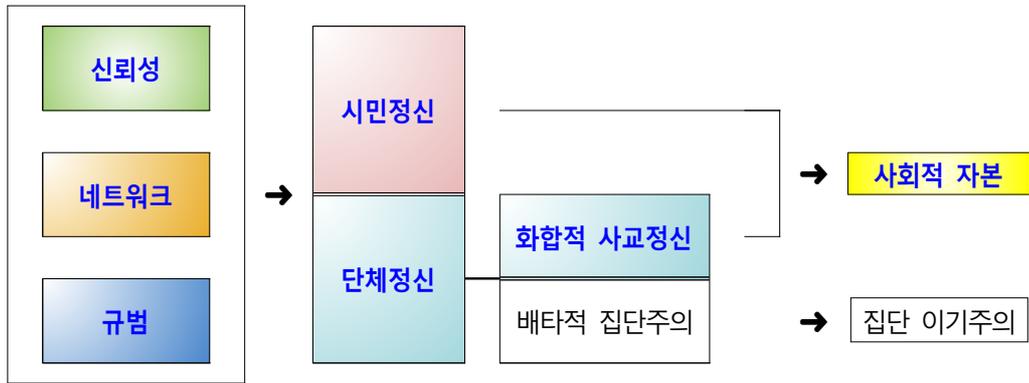
한편,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록환(2003)은 사회자본을 '조정화 된 행동을 유도하여 사회의 생산적 잠재력을 증진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한상미(2007)는 연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자본 연구의 큰 흐름이 Bourdieu 학파와 Coleman 학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전제하에 Bourdieu 학파와 Coleman 학파의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면서, 사회자본에 대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 혹은 힘의 총합'으로 정의하였다.

조남익(2008)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체계에서 나타나는 공공재적 성격의 사회자본은 한 개인이 내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능력인 인적자본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사회자본에 대해 Putnam의 정의에 따라 '서로 건강하고 생산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호혜적 규범, 그리고 다양한 관계에서 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다.

최기조(2009)는 신뢰성, 네트워크, 규범이라고 하는 원천으로부터 시민정신과 단체정신이 생겨나게 되고, 단체정신은 다시 화합적 사교정신과 배타적 집단주의로 나뉘게 되는데, 시민정신과 화합적 사교정신은 사회자본이 되고, 배타적 집단주의는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그림 2-8] 참조). 그는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자본을 '인간의 본성으로 볼 수 있는 신뢰성,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규범을 원천으로 해서 발생하는 시민정신 및 화합적 사교정신과 같은 무형의 정신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 네트워크에 치우치게 되는 사회자본 개념 정의의 문제, 사회자본을 도덕적 자원으로 한정하는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모 기업들이 그들 공동체를 넘어서서 지역사회 내 다른 조직들과 관계를 맺게 되는 '연계성(linkage)'을, 거시적 수준에서는 국가 사회제도 내에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제도적 응집력, 경쟁력, 역량과 같은 조직적 차원의 '완전성(integrity)'을 의미한다(Woolcock, 1998; 정기환 외, 2006 : 21; 김승현, 2012 : 9-10).



[그림 2-8] 사회자본과 집단 이기주의의 개념도

자료 : 최기조(2009), 사회적 자본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1 참조.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자본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여러 분야별로 사회자본의 개념이 다양하게 융통되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자본(capital)’이라는 용어가 ‘① 시간의 연장, ② 다가올 미래의 이익을 위한 현재의 신중한 희생, ③ 양도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회자본 용어의 ‘자본 비유’ 자체를 비판(Arrow, 2000 : 4)하는 시각이 있다. 뿐만 아니라, ‘비축된 자본은 과거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 축적된 투자금액’이라는 점을 들어, 사회자본의 비축물은 무엇인지, 사회자본에 있어서 과거 투자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반문하는 등, 사회자본이 ‘비축된 자본’의 개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비판(Solow, 2000 : 7)받기도 한다. 그러나 Coleman(1988)이 강조한 것과 같이, 사회자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불가능한 목적을 이루도록 해 준다는 측면에서 사회자본의 실체는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반호준, 2016 : 15).

여러 연구자들에 의한 다양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의 개념은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조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관계자산’으로 정의하며, 연구대상지인 농촌관광마을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을 ‘농촌관광마을 내 구성원들의 개인적·조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관계자산’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표 2-12〉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연구자	사회자본의 개념 정의	
국 외	Bourdieu (1986)	서로 면식이 있어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산의 총합
	Coleman (1990)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다양한 실체이며, 사회구조 측면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 내 행위자들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시키는 것
	Putnam (1993)	사회적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이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해 조정과 협력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 효율을 높이는 사회조직의 특징들과 관련되는 것
	Fukuyama (1995)	집단 내 구성원 간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인 가치 또는 규범으로, 집단이나 조직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Woolcock (1998)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에 내재하는 정보, 신뢰, 그리고 호혜적 규범
	Portes (1998)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이익을 획득하는 능력
	Narayan (1999)	사회구조 내에 배태되어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여 의도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규범이나 사회적 관계
	OECD (2001)	그룹들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된 규범, 가치관과 이해를 함께 하는 네트워크
	Inkpen & Tsang (2005)	개인이나 조직이 소유한 관계망 내에서 배태되고 관계망으로부터 파생된 소중한 자원들의 집합
	Krause, Handfield & Tyler(2007)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용하게 만들어진 자원에 접근함으로써 생겨나는 가치있는 자산
국 내	Hwang(2012)	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체활동을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조록환 (2003)	조정화 된 행동을 유도하여 사회의 생산적 잠재력을 증진시켜 사회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
	한상미 (2007)	지속적인 네트워크 즉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 자원의 총합 혹은 힘의 총합
	조남익 (2008)	서로 건강한 생산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신뢰',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장할 수 있는 '호혜적 규범', 다양한 관계에서 협력을 촉진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적 네트워크'
	박용순 (2009)	사회관계 안에 내재된 자원들의 총합으로, 사람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신뢰, 상호 호혜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되는 자본의 형태
	최기조 (2009)	인간의 본성으로 볼 수 있는 신뢰성, 사람들 사이의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규범을 원천으로 해서 발생하는 시민정신 및 화합적 사교정신과 같은 무형의 정신자산
	김성태 (2012)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사회구조 내에 축적된 무형의 자산
	전창진 (2014)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신뢰, 참여, 연계, 이타심의 형태로 나타나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되면서 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의 목표를 이루는 데 영향을 주게 되는 무형의 자원
	반호준 (2016)	개인적 속성과 공동체적 속성을 모두 지니면서 개인 또는 공동체의 실질적, 잠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인의 신뢰, 사회의 규범, 그리고 개인 또는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것

2. 사회자본의 유형 및 구성요소

1) 사회자본의 유형

사회자본은 다양하게 정의되는 그것의 개념만큼이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로 구조적(structural)·인지적(cognitive)·관계적(relational) 차원의 사회자본 유형(Nahapiet & Ghoshal, 1998; Tsai & Ghoshal, 1998; Inkpen & Tsang, 2005; Sahin, 2010; Turner, 2011; Go, Trunfio & Della Lucia, 2013; 윤주·최승담, 2013; Liang, Huang, Lu, & Wang, 2015)과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Gittell & Vidal, 1998; Putnam, 2000; Woolcock & Narayan, 2000; Inaba, 2007; Newton, 2008; 김희조, 2010; 최병훈·조현석, 2010; 이현우·이지호·한영빈, 2011; 윤성준, 2013; 이희정, 2013; 서형준·명승환, 2015; 반호준, 2016; 이수, 2016)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외에도 구조적(structural)·인지적(cognitive) 사회자본 유형(Foley & Edwards, 1999; Uphoff, 2000),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자본 유형, 두터운·얇은 사회자본 유형, 그리고 내부 지향적·외부 지향적 사회자본 유형 등(Putnam & Goss, 2002 : 10-11)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구조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대체로 사회시스템, 관계망과 같은 특성과 관련되고(Nahapiet & Ghoshal, 1998 : 244), 사회 구성원들 서로에 대한 접근 가능성 또는 구성원들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관계구조를 말하는 것으로(Sahin, 2010 : 24), 네트워크의 유대관계, 구성 및 안정성 등을 포함하는 네트워크화된 행위자들의 관계형태를 수반하는 난제(dilemma)라고 할 수 있다(Inkpen & Tsang, 2005; Go, Trunfio & Della Lucia, 2013 : 106). 이는 집단 내 유대의 존재 유무와 같은 네트워크 양상, 조직 내 계급체계와 같은 네트워크 구성, 그리고 관계의 밀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¹⁷⁾, 다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존재 유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구성, 네트워크의 밀도와 연결성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사회자본은 이를 깊이 탐구 분석한 버트(Ronald S. Burt)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Turner, 2011 : 13), Burt(1992)는 네트워크에서 구조적인 공백을 가질수록 정보의 적절성, 적시성, 그리고 소개(referring)에 따르는 네트워크의 재창출 등과 같은 정보력이 강화된다고 하였다. 공백(구조적 공백)은 전기회로에서 절연체와 같은 완충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구조적 공

¹⁷⁾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은 '연락하고 지내는 둘 사이의 중복되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Burt, 1992 : 65).

백을 통해 두 가지의 관계가 중복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부가적인 네트워크 편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Burt, 1992 : 65).

인지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집단 내 구성원들 간에 공유되는 인식, 표현, 해석, 의미체계 등을 제공하는 자원들과 관계되고(Nahapiet & Ghoshal, 1998 : 244; Sahin, 2010 : 25), 조직 내 동료들이 공유하는 비전(shared vision)과 집단 목표에 의해 구현되는 것으로(Tsai & Ghoshal, 1998; Turner, 2011 : 14), 서로 공유되는 공통코드, 공통 언어 등의 문화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Inkpen & Tsang, 2005; Go, Trunfio & Della Lucia, 2013 : 106). 이것은 단지 화려한 용어를 늘어놓거나 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트워크 관계자들에게 공유되는 풍부한 정보의 의미를 올바르게 전달한다는 중요한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urner, 2011 : 14). 사회자본의 인지적 차원이 사회자본의 한 가지 측면으로 고려되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중심 역할을 하게 되는 등 조직 내부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가치 창출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박순미, 2000 : 178).

관계적 차원의 사회자본은 사람들이 상호교류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시켜온 일종의 대인관계와 관련되는 것으로(Nahapiet & Ghoshal, 1998: 244; Sahin, 2010 : 26), 구성원들 간의 관계적 특성이 이익 또는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순미, 2000 : 177). 이러한 관계적 사회자본은 호혜성, 신뢰,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의 규범적 특징을 반영하며, 사회 내 호혜의 규범과 신뢰적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것이다(Inkpen & Tsang, 2005; Go, Trunfio & Della Lucia, 2013 : 106). 이것은 개인들 간의 관계적 특징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종 네트워크 관계 내에서 특정 개인이 가지게 되는 신뢰, 협력, 정체성 등을 통해 특징지어진다(Turner, 2011 : 12).

Nahapiet & Ghoshal(1998)은 이러한 사회자본의 세 가지 차원 즉, 구조적·인지적·관계적 차원의 사회자본이 관련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개념들에 대한 해석은 가변적일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규범은 사회 구성원들이 순응하거나 따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일종의 사회 상황에 대한 인식 공유에 따르는 행동적 기대로서, 인지적 차원의 것으로 구분되지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요소라는 점에서 관계적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공통 코드 역시 네트워크 구성원들 간에 서로 연결되어 인지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인지적 차원으로 분류되지만 공통 코드를 통

해 구성원의 유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적 차원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호준(2016)은 사회자본의 구조적·인지적·관계적 차원으로서의 구분과 관련하여 인지적·관계적 차원의 개념들이 정형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네트워크와 개인적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반호준, 2016 : 17-18).

사회자본을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사회자본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1993a; Putnam 1995; Halpern 2005; Wallace & Pichler, 2007 : 30). Putnam은 사회자본을 ‘결속형·교량형’¹⁸⁾이라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대표적 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는 사회자본이 집단 내의 특성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집단 간을 연결하는 특성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유형 즉,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하게 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Putnam, 2000 : 22-23).

결속형 사회자본은 뻘뻘한 열결망을 더 밀접하게 묶는 강한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것으로(Wallace & Pichler, 2007 : 30), 가족, 친한 친구, 그리고 가까운 이웃과 같은 끈끈한 관계의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의 형태로, 내부 지향적이고 동질성, 충성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부의 결속적 관계에 의존하는 등 동질적 집단(혈연, 지연, 학연 등)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 집단의 강한 유대와 두터운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수민족 구성원들에게 창업을 위한 자금과 신뢰할 수 있는 노동력을 공급하는 등의 결정적인 심리적·사회적 후원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를 결속형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Woolcock(1998)이 언급하였던,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공동체 내부에서 행하는 사회적 연대(social ties) 즉, 미시적 수준 사회자본의 배태성(embedded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⁹⁾

반면 교량형 사회자본은 외부 지향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차이를 아우르는 성격의 것으로, 이질적 성격의 개인들 또는 집단 간에 다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는 약한 유대관계(weak ties)²⁰⁾의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된다(Putnam, 2000; 박영민, 2012 : 36). 이는 Paxton(1999)이 언급한 교차 유대관계

18) 결속형과 교량형은 ‘양자택일’의 범주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자본을 비교할 수 있는 ‘다소간 정도’의 차원들이다(Putnam, 2000; 구혜정, 2002 : 29).

19) 본 논문의 pp.58-59 참조.

20) Granovetter(1973)는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의 용어가 만들어지기 오래 전에 이와 유사한 개념인 weak ties(약한 유대관계)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Ostrom & Ahn, 2007 : 11).

(cross-cutting 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느 집단의 구성원이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 지지 또는 획득을 위해 다른 집단의 구성원들과 관계를 가질 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량형 사회자본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시청에 전화하는 것, 향의를 하기 위해 근린집단을 구성하는 것, 더 나아가 민권운동을 전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Larsen et al, 2004 : 66). 이는 Woolcock(1998)이 언급하였던,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작은 울타리의 공동체 벽을 뛰어넘어 더 넓은 국가와 지역사회 조직의 주류 사회로 진입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 미시적 수준 사회자본의 자율성(autonomy), 국가와 지역사회 조직 내에서 가지게 되는 거시적 수준 사회자본의 배태성, 그리고 소수민족의 소규모 기업이 국가 사회제도 내에서 갖추고 있는 조직적 차원의 제도적 응집력, 경쟁력, 역량 등 거시적 수준 사회자본의 자율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²¹⁾

Putnam(2000)은 그의 대표적 저서인 『Bowling Alone』²²⁾에서 사회자본을 결속형과 교량형으로 구분하면서, 이 두 가지 유형 사회자본의 각기 다른 역할에 대해 제시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은 지역사회에 소속된 개인들을 집결하도록 하는 강력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지역사회 내·외부의 구성원들과 원활하게 관계를 맺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등 각각은 상이한 성격을 지니지만, 서로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 개인의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은 상호 보완하면서 축적되고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Putnam, 2000; 반호준, 2016 : 19).

사회자본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자본의 다차원적 본질에 주목하게 되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즉, 결속형 사회자본은 ‘내부 지향적 사회자본’, ‘두터운 사회자본’과 여러 가지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외부 지향적 사회자본’, ‘얇은 사회자본’과 유사하게 연계된다는 것이다(박영민, 2012 : 36).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이 두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은 개념 구분이 명확하고 그 역할 또한 구분이 확실하여 결속형과 교량형으로의 사회자본 유형 분류는 상대적으로 적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반호준, 2016 : 20-21).

21) 본 논문의 pp.58-59 참조.

22) Putnam(2000)이 그의 저서 『Bowling Alone』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다. 1980년~1993년에 미국의 전체 볼링 인구가 10% 증가한 것에 비해 볼링 경기의 단체 수는 40%나 줄어들었고, 단체로 경기를 할 때가 혼자서 볼링을 할 때보다 맥주나 피자의 소비량이 3배 이상 많다는 점에서 혼자 볼링을 하는 인구의 증가가 볼링장 주인의 수입을 줄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혼자 볼링을 하는 사람들은 맥주와 피자만 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음식을 즐기면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마저 끊게 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김용학, 2003 : 129).

2)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다차원적 속성을 지니는 사회자본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유형 구분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위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그것의 구성요소 역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다.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관련된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지만, 이에 대해 계속되는 연구의 시도들은 사회자본 이론 형성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1993a)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보았고, Putnam(2000)은 그가 사회자본의 요소로 정하였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요소에서 규범 요소를 빼고 그 대신 참여 요소를 넣어서 신뢰, 참여, 네트워크의 사회자본 측정지표를 개발하였다. Onyx & Bullen(2000)은 지역공동체의 참여, 사회적 진취성, 신뢰감, 이웃과의 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삶의 가치, 직장 내 관계 등과 같이 8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였다. Narayan & Cassidy(2001)는 사회자본을 집단성격, 협력, 규범, 사회성, 이웃관계, 자원봉사, 신뢰 등의 7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Stone(2001)은 사회관계의 규범, 사회관계 구조,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등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의 측정을 시도하였다. World Bank의 Grootaert et al(2004)은 그룹(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연대(결속), 단체활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소통,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 권한위임과 정치적 행동 등 6개 요인으로 구분하여 사회자본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Nakagawa & Shaw(2004)는 사회자본에 대하여 상호 신뢰, 개인들과 집단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그리고 상호 유익한 단체행동에 대한 의무와 의지와 같은 사회적 규범 등 3개의 중심 요소들이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Jankauskas & Šeputienė(2007)은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등의 3개 요인을 사회자본의 주된 요소로 보았고, Ostrom & Ahn(2007)은 신뢰성(trustworthiness)²³⁾, 네트워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칙과 제도 등 3개의 요인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보았다. Jones, Sophoulis, Iosifides, Botetzagias & Evangelinos (2009)는 사회적 신뢰, 기관 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등 4개의 요인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지표로 사용하였다.

사회자본의 개념 구성요소는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지만, 여러 선

²³⁾ Ostrom & Ahn(2007)은 '신뢰(trust) 그 자체는 사회자본의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성공적인 단체행동이 될 수 있도록 연계시켜주는 사회자본 형태의 결과'라고 했던 Torsvik(2000)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한 후, 그룹 내 개인들 간 신뢰의 존재는 사람들의 신뢰성(trustworthiness), 네트워크, 제도와 같은 사회자본 형태의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고 제시하면서, 신뢰(trust)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의 개념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Ostrom & Ahn, 2007 : 8-9).

행연구들을 통해 대부분의 경우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주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그 외 참여, 협력 등을 추가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회자본의 개념이 대체로 '신뢰(trust)', '규범(norm)', '네트워크(network)' 등의 세 가지를 그 핵심 요소로 하고 있음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Jankauskas & Šeputienė, 2007 : 136; 박세경 외, 2008 : 39; 안태숙, 2010; 박영민, 2012 : 24; 진창남, 2012 : 11; 반호준, 2016 : 22).

〈표 2-13〉 국외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Putnam (1993a)	신뢰, 규범, 네트워크
Putnam (2000)	신뢰, 참여, 네트워크
Onyx & Bullen (2000)	지역공동체의 참여, 사회적 진취성, 신뢰감, 이웃과의 관계, 가족 및 친구관계,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 삶의 가치, 직장 내 관계
Narayan & Cassidy (2001)	집단성격, 협력, 규범, 사회성, 이웃관계, 자원봉사, 신뢰
Stone (2001)	사회관계의 규범, 사회관계 구조, 공식적 네트워크, 비공식적 네트워크
Grootaert et al (2004)	그룹(집단)과 네트워크, 신뢰와 연대(결속), 단체활동과 협력, 정보와 의사소통, 사회적 응집력과 포용, 권한위임과 정치적 행동
Nakagawa & Shaw (2004)	상호 신뢰, 사회적 네트워크(개인과 집단), 사회적 규범(상호 유익한 단체행동에 대한 의무와 의지 등)
Jankauskas & Šeputienė(2007)	사회적 네트워크, 신뢰, 사회적 규범
Ostrom & Ahn (2007)	신뢰성(trustworthiness), 네트워크,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규칙과 제도
Jones et al (2009)	사회적 신뢰, 기관신뢰, 사회적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

한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도 2000년대 이후 여러 학문분야에서 사회자본에 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사회자본의 개념 소개와 각 학문 분야별 유용성을 논의하는 기초연구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초기 사회자본의 측정을 시도한 연구는 박희봉·김명환(2001), 김용학(2003),²⁴⁾ 소진광(2003), 조록환(2003), 유광민(2006), 한상미(2007), 홍영란(2007) 등의 연구가 대표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박세경 외 2008 :

24) 김용학(2003)은 사회자본의 개념이 지칭하는 요소를 신뢰, 연결망, 사회규범으로 보았고, 사회자본을 측정하게 되는 단위의 차원 즉, 사회자본이 측정되는 장소를 개인, 관계적 구조, 사회(문화)로 제시하면서, 두 개의 축 즉, 사회자본의 개념요소 축과 측정 장소의 축이 교차하는 항에 따라 다른 사회자본의 의미가 생겨난다고 설명하였다(김용학, 2003 : 124).

57), 특히 조록환(2003), 유광민(2006)의 연구는 농촌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사회자본 축정을 시도함으로써 이후 농촌관광 지역개발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연구의 지평을 넓혀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지금까지 국내 여러 분야에서의 사회자본 관련 연구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문성민(2008), 박용순(2009), 윤유식(2009), 이승철(2009), 김성태(2012), 박영민(2012), 정규식(2012), 김기철(2013), 노정민(2013), 윤주·최승담(2013), 김정태(2014), 민흥기(2014), 전창진(2014), 최수남(2014), 성기호(2015), 조주은(2015), 이수(2016) 등)에서도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 2-14〉 국내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박희봉·김명환 (2001)	신뢰, 규범, 집단 내 협력, 정보공유
김용학 (2003)	신뢰, 연결망, 사회규범
소진광 (2003)	신뢰기반,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참여기회, 이타적 성향 및 포용력
정기환·심재만·최경은 (2006)	사회적 교환과 보상, 협동, 경쟁, 갈등
한상미 (2007)	신뢰, 네트워크, 규범
홍영란 (2007)	신뢰 및 관용성,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시민의식 및 사회참여 (이를 다시 미시적 수준, 중간수준, 거시적 수준으로 세분화함)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 (2008)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사회규범, 사회구조
임우석 (2009)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 및 호혜성
안태숙 (2010)	신뢰, 네트워크, 규범
이미숙 (2011)	신뢰, 사회규범, 참여
진관훈 (2011)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사회구조
진창남 (2012)	신뢰, 네트워크, 사회적 규범
최지민 (2015)	신뢰 및 호혜성, 결사체 네트워크, 참여적 특성
반호준 (2016)	신뢰, 네트워크, 호혜의 규범
이강혁 (2017)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사회적 포용력

〈표 2-15〉 국내 관광 및 지역개발 분야 주요 학자별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연구자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농촌관광 · 농촌지역개발 분야	조록환 (2003)	신뢰, 연결망, 규범
	유광민 (2006)	신뢰, 네트워크, 규범
	박용순 (2009)	제도적 틀과 연합적 네트워크(by 구조적 요인) 관계적 통치와 사회적 신뢰(by 인지적 요인)
	윤유식 (2009)	신뢰와 믿음, 네트워크, 상호협력, 마을규범
	박영민 (2012)	신뢰, 규범, 네트워크
	윤주·최승담 (2013)	네트워크 구성, 제도적 틀(by 구조적 요인) 상호 신뢰, 동일화, 상호 의무감, 기대(by 관계적 요인) 공유된 가치, 지역의 규범(by 가치공유적 요인)
	김정태 (2014)	주민교육, 지역사회 리더십, 공동목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부조력, 행정 대응력, 주민협력, 주민 문제해결능력
	민흥기 (2014)	신뢰, 네트워크, 협동, 사회적 규범
	성기호 (2015)	신뢰, 집단네트워크, 참여, 규범
문성민 (2008)	네트워크 내 규범의 영향 하에 개인 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신뢰	
이승철 (2009)	신뢰, 네트워크, 참여활동, 이웃관계, 봉사활동, 기부행위	
김성태 (2012)	신뢰, 네트워크, 규범, 참여	
정규식 (2012)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정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정도, 사회적 포용력의 정도	
김기철 (2013)	신뢰, 네트워크, 파트너십, 정보교류	
노정민 (2013)	신뢰도, 참여도, 친밀도, 네트워크	
전창진 (2014)	신뢰, 네트워크, 참여	
최수남 (2014)	신뢰, 네트워크, 규범	
조주은 (2015)	신뢰, 네트워크, 지역사회 참여, 호혜적 규범	
이수 (2016)	신뢰, 네트워크, 규범	

3. 사회자본의 특징 및 기능

1) 사회자본의 특징

물리적 형태의 물적자본, 지식·기술 형태의 인적자본에 비해 사람들 간 관계의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자본은 그 형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소유주체에 일정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든 형태의 자본은 개인, 집단, 지역, 국가 등 소유주체의 생산성과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본이 다른 형태의 자본과 비교하여 가지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Schuller, Baron & Field, 2000; Lin, 2001; 유석춘·장미혜, 2002 : 97-101; 남궁근, 2007 : 303-305에서 재인용).

첫째, 사회자본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자본으로, 다른 유형의 자본들과 구분되는 가장 근본적 차이점은 두 사람 이상의 행위자들이 맺게 되는 관계의 특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사회자본은 개인의 네트워크나 결사체에 의해 배태(embedded)되는 자원이다.

둘째,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은 소유주체에게 배타적으로 이익이 돌아가지만, 사회자본은 그 이익이 포괄적으로 공유되는 특성을 가지는데, 배타적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공공재(public goods)’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Putnam, 1993a).

셋째, 사회자본은 소유주체가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자본으로, 집단 구성원들 간의 관계에 대한 끊임없는 재확인을 통해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자본이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

넷째,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 교환관계는 다른 경제적 거래와 같이 동등한 가치를 주고받는 등가물의 교환관계가 아니다. 예컨대 신뢰의 교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 간에 존재하는 신뢰가 받은 것만큼 늘어나고, 준 것만큼 줄어드는 제로-섬(zero-sum) 관계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거래 당사자들이 모두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축적되고 증가하는 포지티브-섬(positive-sum)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사회자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총량이 늘어나게 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하게 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자본은 그 사용 정도에 따라 선순환되기도 하고, 악순환되기도 한다(Putnam, 1993a).

다섯째, 물적자본의 교환은 동시 발생을 예측할 수 있지만, 사회자본의 교환은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물적 자본의 경제적 교환과 사회자본의 비정부 또는 비영리적 교환에 적용되는 개인적 동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Lin, 2001).

〈표 2-16〉 사회자본·물적자본·인적자본의 비교

구분	사회자본	물적자본	인적자본
실체성	비실체적 존재	실체적 존재	반실체적 존재
형태	사회 관계망	토지, 기계, 건물 등	기술, 학력, 자격 등
특성	공공재적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사적 소유의 성격
생산성	생산적	생산적	생산적

자료 :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5 참조.

2) 사회자본의 기능

사회자본의 기능은 크게 사회자본의 긍정적 측면인 '순기능'과 부정적 측면인 '역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순기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홍영란 외, 2006 : 13-15, 박세경 외, 2008 : 51-53 재인용).

첫째, 사회자본의 가장 강력한 순기능으로,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법적인 문서나 근거 없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과 채무가 형성되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획득을 위한 비용을 절감시킨다.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적 관계 내의 잠재된 정보원을 활용함으로써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회규범을 통해 사회적 통제력이 작동하도록 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기능을 하는데, 사회규범이 기회주의를 효과적으로 제재하게 되면, 사회적 감시비용이 절약되어 다른 경제적 거래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도덕적 의무감이 증대되고, 공직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가 자연스럽게 강화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지역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데, 신뢰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정책의 장기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정책수행의 추진력을 더 갖게 된다. 사회자본이 많이 축적된 국가일수록 경제성장률이 더 높다는 경험적 연구(OECD, 2001)의 결과들은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긍정적 순기능에 대해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있는 반면, 사회자본의 이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지배적인 상황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회자본의 부정적 역기능에 대하여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런 이론가들은 어떠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데 유용

한 사회자본이 개인들 또는 어떤 그룹에 부정적 영향을 동반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 Portes(1998)와 Jones(2005)가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 있다. Portes(1998)는 최근 사회자본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사회자본의 네 가지 부정적 결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Portes, 1998; Hwang, 2012 : 38-39에서 재인용).

첫째, 집단 구성원 사이에 공유되는 혜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공동체 경계의 외부 사람들을 배제한다는 것이고, 둘째, 집단 구성원들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것인데, 이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거대한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으로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으로(Wall, Ferrazzi & Schryer, 1998), 이는 표준 준거에 대한 강한 요구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규범의 하향평준화로, 이는 주류 사회규범에 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낮은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결속된 집단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wang(2012)의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단체행동 참여에 있어서 신뢰 요소의 긍정적 연관성을 강조했던 이전의 사회자본 연구와 달리, 지역 주민들 사이에 공유되는 고도로 인지된 신뢰가 단체행동에서 구성원들의 불참을 야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무임승차 문제(free-rider problem)가 발생하게 되는 점 등을 설명하면서, 신뢰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Hwang, 2012 : 225).

이상의 내용과 같이 사회자본은 불가피하게 순기능적 측면과 역기능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순기능적 활용을 확대하고 부정적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진관훈, 2013 : 41-42).

사회자본을 결속형·교량형으로 분류한 Putnam(2000)은 결속형 사회자본의 어두운 면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다. 소규모 집단의 경우 성장을 위해 결속형 사회자본보다 교량형 사회자본이 더 필요하지만, 구성원들이 외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결속형 사회자본의 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게 되고, 결국 소규모 집단 내 교량형 사회자본의 형성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은 비례적이며 상호 보완하면서 증진될 수 있는 관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Putnam, 2000; 반호준, 2016 : 19-27; 이수, 2016 : 22-23).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 지역사회가 외부세계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혹은 오로지 끈끈한 연결망만 소유한 지역사회보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게 된다(Ostrom & Ahn, 2007 : 11).

〈표 2-17〉 결속형(Bonding)·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의 특성 및 장·단점

사회자본 유형	특성	장점(순기능)	단점(역기능)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	집단 내 강한 연결망(Strong ties), 구성원 간 동질성, 폐쇄성, 안정성	정서적/실질적 지지 및 동원, 집단 내부 삶의 질 향상, 좋은 관계형성	혁신의 제한, 배타성, 적대감 초래
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	집단 내 약한 연결망(weak ties), 구성원 간 이질성, 다른 집단과의 연결, 개방성	넓은 네트워크 범위, 새로운 정보획득 용이, 시야확보 가능	깊은 관계형성에 제한, 정서적/실질적 지지 제한

자료 : 이수(2016), 중국 농촌 관광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3 참조.

사회자본의 명암에 대한 시각차는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회자본에 관한 측정연구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4. 제주지역의 사회자본

제주지역은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육지부와는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예로부터 그 문화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라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왜구의 침입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도읍에서 가장 먼 유배지였기에 유배자들과 그 자손들의 한이 깊게 맺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에는 군사기지로 쓰이면서 주민들이 강제노역과 징병에 시달렸고, 4·3사건으로 인해 무고한 피해자가 2만 5천~3만 명에 이르렀던 역사적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제주를 방문하는 선의의 외지인들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라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제주지역의 고립되고 폐쇄된 지리적 여건, 한 맺힌 역사적 경험 등으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지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주지역에는 ‘켄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문화인 ‘켄당문화’²⁵⁾가 지금까지 이어져

²⁵⁾ ‘켄당’은 ‘뀨당’이라고도 하며, 친척을 뜻하는 제주도 사투리이다(네이버 국어사전). ‘켄당문화’는 제주지역의 공동체문화로서, 친척들 간에 갖는 결속감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며, 가깝게 지내는 이웃이나 조직, 집단의 문화라는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황경수, 2015 : 1765). 이는 Putnam(2000)이 제시하였던 사회자본의 유형 [결속형(bonding)·교량형(bridging) 사회자본] 중 결속형 사회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고 있으며, 마을마다 마을제 등 마을공동체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문화는 제주지역의 취약한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극복하고자 제주지역의 선조들이 추구했던 나뉠대로의 생존전략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에는 이처럼 켄당을 중심으로 하는 마을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수눌음²⁶⁾ 전통이 강하여(진관훈, 2013 : 90), 위에서 언급한 마을제 외에 초집일기, 쇠번, 그릇재(계), 몰방애, 용수집단, 멜집(멸집), 출력, 도갯불 관리 등의 협력형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자원들은 제주지역의 협력형(수눌음형) 사회자본으로 볼 수 있다(김인성·황경수·오윤정, 2014).

〈표 2-18〉 제주지역의 협력형(수눌음형) 사회자본

제주지역 사회자본 (향토자원)	내용
초집일기	초가 지붕을 새로운 새와 줄로 단장하는 것으로, 가까운 이웃집들끼리 서로 돕는 수눌음 형태
쇠번	동네의 소들을 모아서 하루 종일 풀을 먹이고 다시 돌아오는 일을 번 회원들 간에 돌아가며 협력하는 수눌음 형태
그릇재(계)	동네 사람들 중 뜻이 맞는 사람끼리 돈을 내어 그릇을 사서 공동으로 쓰는 모임을 말하며, 관혼상제 등 큰 일이 있을 때 가져가서 쓰고, 일이 끝나면 씻은 후 가지고 있다가 다른 회원에게 넘겨주어 사용하던 협력체계
몰방애	보리나 조 등을 도정할 때 사용하는 연자매를 제주에서는 몰방애라고 불리었고, 몰레방아가 없는 제주지역에서는 계원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며, 몰방애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어서 그 협력의 필요성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함
용수집단	지표수나 용천수가 없을 때, 식용 또는 소 등이 먹는 물로 사용하기 위해 용수를 만들 때 협력하는 모임을 말하며, 특히 소들이 물을 먹을 때 사용할 연못이나 물통들이 없을 때, 마을 내 몇몇 가구들이 모여서 소 물 먹일 곳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결과나 이익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형태였다고 함
멜집(멸집)	동네의 사람들이 모여서 멜(멸치)를 공동으로 잡고 나누는 제도로, 모래밭이 있는 마을들은 대부분 멜집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마을 전체 주민들이 참여하거나 계원의 형태로 협력을 이루는 직간접적 협력방식이었음
출력	태풍 등으로 마을 길 또는 포구가 훼손되었을 때 주민들이 직접 나와 힘을 보태는 것을 말하며, 주민 대부분이 참여해서 협력하는 형태로 제주도의 경우 재난재해가 많아 이러한 협력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다고 함
도갯불관리	지금의 등대와 같이 호롱불을 밝혀 항해하는 배들에게 신호를 주는 것을 도갯불이라고 하는데, 바닷가의 도갯불 관리는 어촌계에서 회원제로 돌아가면서 하였고, 이는 직접적 이익이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협력하는 일종의 봉사 형태였다고 함

자료 : 김인성·황경수·오윤정(2014), 제주지역의 협력(수눌음)형 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연구, 탐라문화 45, pp.94-108 참조.

26) '수눌음'은 제주도 특유의 미풍양속으로, 육지의 품앗이와 유사한 것이다. 그것은 생산 공동체에서 행하는 관습으로, 단순한 협업 노동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향토문화전자대전).

이와 같이 제주지역은 켤당 간의 신뢰, 마을공동체 내의 협력과 같은 사회자본이 잘 축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방화,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연계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난개발, 그리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는 상황은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 공동체가 파괴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제주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하락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농촌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제주도 농촌지역에 이주민이 급증하고, 외부 자본이 출현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감소하고, 기존 제주의 전통적 공동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제주지역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통적 공동체의 기반이 훼손되고, 제주의 협력형(수눌음형) 사회자본이 상당히 약화됨에 따라 제주지역은 이를 다시 재건하고 확충해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를 안게 되었다.

제주지역의 켤당문화가 지금까지는 살아 숨 쉬고 있고, 이를 승화시키기 위한 노력²⁷⁾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제주지역 공동체의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라 사회자본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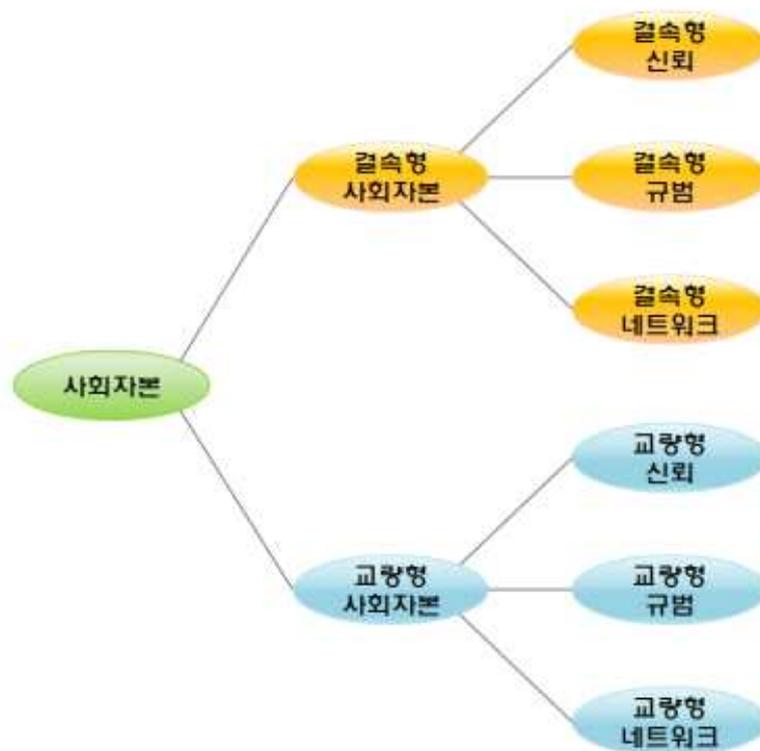
선거철만 되면 제주도민들 사이에서 ‘어떤 당보다 켤당이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켤당 문화는 제주지역에 존재하는 결속형 사회자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그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웃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부분 등에 분명 기존 제주지역의 ‘켤당 문화’ 혹은 ‘켤당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제주지역만의 수눌음형(협력형) 사회자본과 연결되는 켤당문화가 순기능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켤당문화가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호혜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긍정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연구결과(황경수, 2015)는 켤당문화에 내재된 결속형·교량형 사회자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新제주형 사회자본의 구축을 향한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양길현, 2017).

27)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조례 제 1058호, 2013.07.17. 제정, 2013.10.18. 시행)를 제정하고, 제주도 차원의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1기 출범 - 2015.02.24., 2기 출범 - 2017.04.24.)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 육성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을 수립하는 등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부터 제주도내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 사회적 자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자본의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자본의 유형은 그 개념 및 역할의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분류(Putnam, 2000)하고자 한다.²⁸⁾ 그리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핵심 구성요소로 합의되고 있는 세 가지 요소 즉,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하되,²⁹⁾ 사회자본의 각 유형별로, 결속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결속형 신뢰, 결속형 규범, 결속형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하고, 교량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교량형 신뢰, 교량형 규범, 교량형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림 2-9] 참조).



[그림 2-9]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 유형분류 및 구성요소 개념도

28) 본 논문의 p.65 참조.

29) 본 논문의 p.67 참조.

제4절 로컬거버넌스

1.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및 등장배경

거버넌스(governance)는 시장의 실패 및 정부의 실패에 대한 반성의 대안으로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로,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통치이론이다(김영 외, 2008 : 89; 정진원 외, 2011 : 225). 특히, 거버넌스는 정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정부가 공공의 문제해결에 실질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1980년대 이후 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정부의 무능 또는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롭게 대두된 통치방식을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최보희, 2014 : 9).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은 최소국가론의 논리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부문을 공공부문에 도입함으로써 정부의 역할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Rhodes, 1997; 김성태, 2012 : 33).

현대 정부는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에 따라 지역의 주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providing) 것보다는 가능하도록 하는(enabling)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차츰 모든 것을 직접 조정(rowing)하기보다 방향을 잡아주는(steering) 안내자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Leach & Percy-Smith, 2001; 정진원·김천권, 2011 : 226).

1988년 Peters & Campbell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진 용어 ‘거버넌스’는 그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거버넌스에 대한 학자별 주요 정의는 다음과 같다(김성태, 2012 : 33-39; 최보희, 2014 : 9).

거버넌스에 대하여 Rhodes(1996)는 변화하는 정부에 대한 개념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하였고, Jessop(2000)은 국가·시장·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주체가 상호 의존적으로 결속하여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조직을 이루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Pierre(2000)는 조화(co-ordination)와 일치(co-herence)를 바탕으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커니즘이며,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제시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제도라고 정의하였다. 강황선(2003)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호협력, 경쟁, 대립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고, 염일열·설성현(2003)은 관료들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정부 단

체, 일반주민 등의 다양한 정책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이명석(2007)은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과는 다른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고, 대응적이며, 투명한 행정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오늘날 거버넌스라는 용어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전에 환경정책, 교육정책, 인터넷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상황에 환경거버넌스, 교육거버넌스, 인터넷거버넌스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거버넌스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의미하는 '거버넌스 열풍'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스림' 또는 '권위 행사' 등 전통적 개념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체하는 '새롭고 개혁적인 것'이라는 뉘앙스를 품고 있기에 거버넌스 용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이에 대한 열풍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열렬한 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명석, 2016 : 2).

사회과학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좁은 의미의 정부 개념과 달리 통치의 과정(governing process)에 연관된 제도의 범위 및 제반 관계 등을 포괄하기 때문이다(Pierre & Peters, 2000 : 1). 거버넌스 개념은 정치구조와 정치적 환경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조타하고 조정할 것인가, 집합적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이론에도 적용되는데, 로컬거버넌스 이론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차원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지방분권화와 맞물리는 2000년 초반부터였다. 특히 참여정부 들어서 강조되었던 혁신과 분권, 시민사회의 성장, 주민참여의 증대 등과 함께 그 논의가 더욱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비정부 단체 및 지역의 주민들이 통치의 주체로 상호 의존하는 다수준 로컬거버넌스 체계가 요구된다. 오늘날의 지역사회 환경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은 다루기 힘든 고약한(wicked) 갈등문제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상충되는 욕구나 이해관계의 협력적 해결을 위한 로컬거버넌스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화 및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의 기능이 지방으로 분산되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그리고 정부 부문에서 비정부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시민사회와 비공식적 단체들이 성장함에 따라 비정부 그룹의 통치과정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데,

분권화의 확산으로 지방이 중요한 통치주체 및 통치대상으로 부상한 것이다.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로컬거버넌스'로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배응환, 2005 : 188-191).

〈표 2-19〉 지방정부 패러다임과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지방정부 패러다임	로컬거버넌스 패러다임
단일 국가	다양한 정치체제들
의회 주권	권력 분산
지방정부 책임성	권한 위임
중앙-지방관계	여러 수준의 거버넌스
동질성, 단일성	다양성, 분절성
계층제적 권위	파트너십, 공동정부

자료 : Leach & Smith, 2001; 김진동, 2005 : 31 재인용 참조.

지역사회 거버넌스 즉, '로컬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영국 지방정부의 목적과 역할, 기능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초기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Stoker(1997)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Stoker(1997)는 지방정부가 복지서비스를 행함에 있어서 민주성이 부족하여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면서,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은 서비스의 전달보다도 지방정부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치적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97년 Stoker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던 용어 '로컬거버넌스'는 그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학자별 주요 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박희봉, 2005 : 4; 배응환, 2005 : 192; 사득환, 2007 : 162; 남상우, 2008 : 33-38; 김성태, 2012 : 44).

Box(1998)는 주민들, 선출직 대표자들, 그리고 공공관리들이 지역사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광범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네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의사결정의 규모로, 규모가 적을수록 거버넌스가 충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둘째는 민주성으로, 정책의 결정과정 및 집행과정에 이해관계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공개적 기회와 그들을 환영하는 기회가 많아질수록 거버넌스에 충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는 책임성으로, 주민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주기 위해 행정서비스와 행정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넷째는 합리성으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참여자들(주민, 선출직 대표, 공무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사고 및 논의를 통해 여러 가지 견해를 표현하고 통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Svava(1999)는 관할지역 주민들이 집단적 공공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으며, Rose(2000)는 공공기관들 간

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간에 상이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방수준에서의 새로운 의사결정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염일열·설성현(2003)은 소속된 지역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는 데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해결하면서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의사결정방식으로 정의하였고, 오재일(2004)은 정부, 기업, NGO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사회 주요 행위자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박희봉(2006)은 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는 각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협력이라고 정의하였고, 사득환(2007)은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의 정책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 내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정책과정의 새로운 형태라고 정의하였다. 남상우(2008)는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 시민단체, 일반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참여시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동의사결정의 한 가지 형태 또는 통치의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 김성태(2012)는 거버넌스의 공간적 범위를 낮춘 개념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의 관리방식으로 정의하였다. 전창진(2014)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 의사결정체계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로컬거버넌스는 국가 내 어떤 지역에서 거버넌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공간적 차원을 뛰어넘어 해당 지역사회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권한 행사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전문가, 이익집단, 그리고 조직화된 NGO가 지방정부의 정책 네트워크에 단순 참여하는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해당사자와 지역주민들이 직접 정책결정 또는 문제해결의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이고 진정한 거버넌스의 모델을 상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 참여와 권한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적 로컬거버넌스 체계가 지방정부 관료 중심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치 방식에 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책임적인 방식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의영, 2011 : 211).

거버넌스가 새로운 사회적 조정양식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과 이에 근거하는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문제가 복잡해서 정부를 포함하는 어떤 주체도 단독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거버넌스는 이미 전통적 정부의 계층제적 통제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지금보다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지배적인 사회적 조정양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이명석, 2006; 이명석, 2016 : 21).

글로벌라이제이션(Glocalization)이 또 하나의 중요한 지역적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관심과 열풍은 시대적 흐름에 맞물리는 어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20〉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연구자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국외	Stoker (1997)	해당 지역의 행위 주체들이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체들 간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개방적이고 공개적인 토론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단위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Box (1998)	주민들, 선출직 대표자들, 그리고 공공관리들이 지역사회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광범위한 활동
	Svara (1999)	관할지역 주민들이 집단적 공공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Rose (2000)	공공기관들 간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간에 상이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지방수준에서의 새로운 의사결정방식
국내	오재일 (2004)	정부, 기업, NGO 간의 관계에 중점을 두는 사회 주요 행위자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
	박희봉 (2006)	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의 주민을 포함하는 각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노력과 협력
	사득환 (2007)	공공부문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의 정책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정책커뮤니티(policy community) 내에 참여시켜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게 하는 정책과정의 새로운 형태
	남상우 (2008)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서비스의 직접 수혜자, 시민단체, 일반 지역주민 등의 이해관계자들을 두루 참여시켜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공공의사결정의 한 가지 형태 또는 통치의 방식
	김성태 (2012)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의 관리방식
	전창진 (2014)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존적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으로서, 수평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 의사결정체계

위 내용과 같이,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농촌관광마을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에서의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진정성 있는 협력체계’로 정의하고자 한다.

2. 로컬거버넌스의 유형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들의 주도적 특성과 논리에 따라 크게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 '시장 주도형 거버넌스',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거버넌스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민주주의적 측면들이 관리의 대상으로 다루어짐으로써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해주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시장 주도형 거버넌스는 자본주의적 시장 경쟁의 심화와 함께 공적 책임성의 결여와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쇠퇴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발전을 토대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함으로써 참여주체들 상호 간의 신뢰수준과 관리주체에 대한 정당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시민사회주도 거버넌스 유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는 공식적 권위체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스스로 집단적(집합적) 행동에서 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권한을 강화(empower)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Rosenau, 1992). 관리의 대상으로서의 시민들이 아닌 실질적 주인의 자격을 가진 능동적 시민(active citizen)들이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선호도를 재평가하기 위한 소통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익(common goods)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합의형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Immergut, 1996; Smouts, 1998). 따라서 정부 또는 시장이 주도하는(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도모하여 신뢰를 보다 더 쌓아갈 수 있는 시민사회 주도형 거버넌스는 사회제도적 혁신을 이루기 위한 전략적 기제로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정규호, 2002 : 21-22).

거버넌스는 수준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관점에 따라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표현될 수 있다. 세계화·지방화가 다차원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글로벌리즘(globalism), 리저널리즘(regionalism), 내셔널리즘(nationalism), 로컬리즘(localism)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고, 거버넌스도 이에 맞물려 다차원적으로 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준 외, 2000). 즉, 다차원성의 측면에서 거버넌스를 분류할 때, 세계적 수준에서 국가 간의 문제해결 및 협력과 연관되는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인근 주변 국가 간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해결 및 국정 운영과 연관되는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그리고 한 국가 내 지방 차원에서의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Hewitt, 1998; 강창현,

2002 : 315; 양현모 외, 2007 : 6-7; 홍종득, 2007 : 13). 여기서 로컬거버넌스는 세방화(glocalization) 및 민주주의의 진전에 의해 지방자치가 확산, 심화되는 환경에 따르는 '지방자치 및 그 지역사회 공동체 수준의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정규식, 2012 : 29).



[그림 2-10] 거버넌스의 다차원적 분류

자료 : 양현모 외(2007),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원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1-08, p.7 참조.

Pierre(1999)는 한 국가의 제도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모형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지방 차원에서 가치체계와 이념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참여와 영향력이 좌우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로컬거버넌스의 유형을 관리적 거버넌스(managerial governance), 조합주의적 거버넌스(corporatist governance), 성장지향적 거버넌스(pro-growth governance), 복지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로 분류하였다. 관리적 거버넌스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가 되는 유형이고, 조합주의적 거버넌스는 여러 참여집단들에 대한 서비스 분배정책에 중점을 두는 유형이다. 성장지향적 거버넌스는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경제의 부흥을 꾀하는 유형이며, 복지거버넌스는 민간 영역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및 복지의 향상을 모색하는 유형이다.

로컬거버넌스 차원의 이러한 유형들은 정책목표와 문화적 가치, 정치행태 등 로컬거버넌스의 다양한 제도적 요인들을 포괄하고 있고, 실제로는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복합적 양상을 보인다(배유일, 2003 : 321-322; 양현모 외, 2007 : 13-14).

〈표 2-21〉 Pierre의 로컬거버넌스 유형 분류

유형	형태	특징
관리적 거버넌스	시장경제의 원리에 근거하여 공·사(公·私) 간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버넌스 형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
조합주의적 거버넌스	지방정치 과정에서 많은 사회단체 및 조직적 이익집단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	여러 참여집단들에 대한 서비스 분배정책에 초점을 맞춤
성장지향적 거버넌스	지방정부와 지방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지방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거버넌스 형태	토지이용 및 소규모 지식기반사업을 통한 지역의 경제부흥을 도모함
복지 거버넌스	민간영역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복지 향상을 꾀하는 형태	단기적으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및 복지의 향상을 꾀할 수 있음

자료 : Pierre, 1999; 배유일, 2003; 양현모 외, 2007 : 14 재인용 참조.

한편, Miller, Dickson & Stoker(2000)는 규범적 로컬거버넌스 모형(Normative models of local governance)을 통해 지역주의 모형(localist model), 개별주의 모형(individualist model), 동원화 모형(mobilization model), 집권화 모형(centralist model)의 네 가지로 로컬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지역주의 모형은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고자 자율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형태이고, 개별주의 모형은 지역공동체의 집단적(집합적) 선택보다는 개별적 구성원들의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형태이다. 동원화 모형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중앙정부에서보다 지방정부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소외계층을 조직화하고 정치적 세력으로 연대시켜 주민참여의 다양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정치의 자율성 구현에 초점을 맞추는 형태이다. 마지막으로 집권화 모형은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수준의 민주주의를 우선시하는 형태이다(신현석, 2011 : 102-103).

〈표 2-22〉 Miller, Dickson & Stoker의 로컬거버넌스 유형 분류

유형	주요 목적	지역의 자율성	참여	서비스전달	정치제도
지역주의 모형	지역공동체의 욕구 충족	강력히 선호	인정하나, 대의 기구 우선	다기능적 지방 정부	지역선거를 통한 대의정치
개별주의 모형	개인의 선택권 보장	선호하나, 개인 선택권 보호 우선	대규모 주민 참여 부정	공급자간 경쟁	개인적 참여 정치
동원화 모형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	변화과정으로 강력히 선호	강력히 선호	근린집단의 분권화	발전적 참여 정치
집권화 모형	국가 목표의 달성	강력히 반대	제한적 선호	중앙통제	중앙정부의 통제정치

자료 : Miller et al., 2000; 양현모 외, 2007 : 15 재인용 참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농촌관광마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개발사업에서의 현재 로컬거버넌스 유형은, Pierre(1999)가 제시한 유형 중 복지거버넌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나, 농촌지역 내의 자발적인 경제적 성과 창출이라는 측면을 고려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지향적 거버넌스가 가미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Miller, Dickson & Stoker(2000)가 제시한 유형 중에는 지역주의 모형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3. 로컬거버넌스의 특징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라는 슬로건이 등장할 정도로, 거버넌스는 국정개혁 또는 행정·정책 혁신을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최성욱, 2004 : 240). 새로운 국정 운영방식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부실패 및 시장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결정 방식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는(Rosenau & Czempiel, 1992)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국가중심 체계에서 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다원적 통치구조와 분권 및 협치를 바탕으로 하는 상호협력 시스템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전제가 기저에 깔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Pierre, 2000; 김석준 외, 2000; 신현석, 2011 : 101-102).

이러한 거버넌스는 정부가 일방적 정책수립의 역할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그룹들과의 파트너십, 협력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조타수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적 의미가 중요시된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고 지방의 주민의식이 성장하면서 행정과 민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인식하여 지방정부도 최근 정책과정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주민을 행정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각 지자체 별로 제도적으로 구성되는 로컬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임승빈, 2005).

지역공동체 수준에서의 거버넌스로, 민간과 행정의 협력체계에 중점을 두는 로컬거버넌스는 대의민주주의의 차원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로컬거버넌스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역사회의 상호 의존적 접근 방식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접근은 서로의 경험과 관심사를 공유하여 상호 주관적 현실(inter

-subjective reality)을 만들어가는 의식 있는 주민들, 시민단체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게 된다. 개인들뿐만 아니라 단체, 기관 등 광범위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사회를 발전시키고, 정부의 권력을 분권화하여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 내 대중적 단결과 참여의 지속가능성으로, 로컬거버넌스는 심의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주민들의 단결과 참여를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민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보다 더 민주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주의 방식에 대중토론, 대화 등과 같은 내면적 방식이 융합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지역에서 참여정치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고양하면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김석준 외, 2000; 박수진 외, 2015 : 339-340).

연구자마다 로컬거버넌스의 개념 및 유형분류가 다양하게 제시되는 상황에서, 로컬거버넌스는 그것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정진원·김천권, 2011 : 227-229). 먼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참여 주체들 간의 민주적 상생(win-win)을 위한 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실제 적용하게 되는 로컬거버넌스는 '반성적 합리성'의 추구로 참여 주체들 간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 로컬거버넌스가 추구하는 합리성은 '절차적 합리성'이나 '실체적 합리성'이 아닌 '반성적 합리성'이어야 하는데, 이는 로컬거버넌스가 소수권력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토론 등을 통한 타협에 더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이고, 아울러 이는 소수자 및 약자들을 위한 로컬거버넌스 형성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Jessop, 2000). 셋째, 로컬거버넌스는 갈등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으로, 오늘날 급변하는 지역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당사자 간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현실에서의 로컬거버넌스는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로컬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지만, 로컬거버넌스에 대해 일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로컬거버넌스가 기존의 전통적 지방행정을 전체적으로 대체하여 지방정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기계 또는 만능열쇠는 아니기에 실질적인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다. 첫째,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적 불분명성으로, 연구자들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로컬거버넌스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란은 행정의 개혁과정에서 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애매하면서도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자칫 잘못하면 행정에서의 수사(修辭)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실질적 행정의 개혁에 기여하지 못하는 결과³⁰⁾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명석, 2002 : 322). 둘째, 사회문제에 대한 민·관 간 불신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통제 없이는 로컬거버넌스의 실패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중심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Jessop, 2000). 셋째, 로컬거버넌스의 배타적 한계로,³¹⁾ 로컬거버넌스는 엘리트·전문가 층, 군중이라는 계층을 더욱 구분시키고, 엘리트·전문가층만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기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Catlaw,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거버넌스는 사회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시장의 한계,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감안할 때, 그리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시각은 분명 긍정적 시각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판단된다. 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심오한 성찰과 함께 로컬거버넌스의 진정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지역개발사업에서의 로컬거버넌스는 상호 의존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공공기관·준공공기관·민간조직·자원기관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각 기관과의 협동, 네트워크, 파트너십 등은 로컬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안성호·배응환, 2004). 이는 현재 농촌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와도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지역별로 시행하고 있는 농촌관광마

30) 이종수(2015)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개념이 실질적으로는 모두 공식적인 관의 권위를 전제로 서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개념을 아무리 확장하여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행정적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보다 더 영향력을 갖게 되는 수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현실에서 '정부 없는 거버넌스'의 의미는 단지 정부의 축소만을 의미할 뿐,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더욱 강력해 지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거버넌스의 가치를 들고 등장한 근래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어 주민의 참여는 부차적 요소가 되어버렸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적 권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가치를 간파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버넌스의 수사적 사용의 잘못에 대해 부연 설명하였다(이종수, 2015 : 116-117).

31) 로컬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현실적 정책과정에 있어서, 일부 지자체 공무원, 지역 내 압력집단, 그리고 의회의 영향력 있는 소수에 의해 주요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방자치가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망각하여, 신중치 못하게 잘못 운영될수록 당초의 좋은 의도와 달리 지자체, 소수관료, 그리고 지방권력 세력의 폐쇄적 통치능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전영평, 2003; 이시철, 2005; 박현근, 2008a).

을사업을 위하여 상호 협동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마을의 민간조직,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구성된 자문단 등의 조직들 간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건강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의 핵심 목적은 마을의 개성을 살리고, 사회 통합적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 주민참여의 바탕 위에 행정, 공공기관,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농촌관광마을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하는 효율적인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영외, 2008 : 89-107).

전라북도 진안군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의 접근방법으로, 로컬거버넌스의 개념을 농촌 실정에 맞게 적용시킨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구자인 외(2012)에서 제시된 ‘행정과 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 ‘행정과 민간의 긴장된 균형관계 만들기’, ‘농촌형 인큐베이팅’이라는 표현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서는 행정 주무 체계의 정비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설립된 민간단체들은 서로 자극을 주고 조직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진안군이 지향하는 방향은 민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행정과 민간의 긴장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농촌 지역주민들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고자 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진안군에서는 ‘농촌형 인큐베이팅’이라 부르고 있다. 다양한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하고 농촌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의식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과 민간 사이의 적절한 힘의 균형’을 통한 대등한 협력관계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구자인 외, 2012 : 215-216).

농촌형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진안군의 사례는 우리나라 농촌 사회의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접근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지만, 한편으로 로컬거버넌스의 진정성을 위한 참여주체의 다원화 및 정책의 지속가능성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김정흠, 2009 : 74).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포함하는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의 시행에 있어서 로컬거버넌스의 구축이 행정의 수사(修辭)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그것의 본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참여주체들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데, 특히 권위를 내려놓고 겸허해져야 하는 지방정부를 포함하는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절 선행연구 검토

1.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간의 관계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박희봉, 2005), 농촌관광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연구(김형곤·고성태, 2008), 청소년 집단활동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 분석(조남익, 2008),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곽현근·유현숙, 2011),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노정민, 2013), 복지관광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최수남, 2014), 지역 메가이벤트 참여가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조주은, 2015),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김은아, 2015) 등이 있었다.

박희봉(2005)은 한국 사회자본의 특징을 연구하면서 서구사회의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형성을 그 좋은 예로 제시하였는데 첫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둘째, 주민들 간 수평적 관계를 설정해야 하고, 셋째, 혈연·학연·지연 등 일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이차적 관계에 따라 발전시키며(Putnam, 1993), 넷째, 주민들 개개인이 단체, 모임 등을 경험하여 다양한 회원들을 접촉하면서(Paxton, 1999)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좋은 사회자본이 점차 형성된다고 하였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 상호호혜, 존중, 관용, 그리고 배려와 같은 미덕을 필요로 하는데(Putnam, 1993), 이러한 미덕은 수평적, 민주적 주민참여 형태를 반복 경험함으로써 생겨나는 사회 학습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민주적·자발적 주민참여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형곤·고성태(2008)는 농촌관광과 사회자본 형성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관광마을의 농촌관광관련 지도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사회자본(결속(bonding)사회자본, 연결(bridging)사회자본)이라는 이론적 틀을 사용하여 농촌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의 사회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결과, 사회자본은 주민들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통해 향상될 수 있기 때문에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촉진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 홍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조남익(2008)은 청소년 집단활동의 참여가 사회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데, 연구모형에서의 독립변수인 '청소년 집단활동의 참여'는 참여 수준, 참여집단 성격, 참여 여건 등 3개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사회자본'은 사회적 신뢰, 호혜적 규범, 생산적 네트워크 등 3개의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청소년 시기를 가장 최근에 경험하였거나 현재 청소년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등의 6개교 5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집단활동의 참여는 청소년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혈연과 지연과 같은 비제도적 사회자본이 아니라 청소년들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향후 사회적으로 건강한(성공적인) 성인이 되기 위해서 사회자본의 형성은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위해 청소년기로부터 차근차근 사회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곽현근·유현숙(2011)은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참여와 사회자본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민조직의 유형을 설립 목적에 따라 친목조직, 사회봉사조직, 이익증진조직, 행정협조조직으로 나누어 접근하였고, 사회자본을 인지적 사회자본 중 사회적 관계의 대상과 성격에 따라 다시 결속적 사회자본, 가교적 사회자본, 연계적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접근하면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주민조직의 참여정도는 결속적 사회자본과 가교적 사회자본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적 사회자본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네 가지 유형의 주민조직이 세 가지 유형의 인지적 사회자본에 서로 다른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서로 상이한 주민조직의 참여가 세 가지 유형의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주민조직 유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두 같은 차원의 참여로 간주하여 접근했을 때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형성에 대하여 중요 정보들이 간과될 수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특히 주민조직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연계적 사회자본 즉, 행정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연계적 사회자본은 단순한 행정기관과의 접촉 또는 협력의 경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 시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권위적이지 않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것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정민(2013)은 주민참여(일상활동의 참여와 계획활동의 참여)가 사회자본(신뢰도, 참여도, 친밀도,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계획활동의 참여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유의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최수남(2014)은 정신적·문화적 풍요를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복지관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복지관광의 가치변화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복지관광, 사회자본,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구조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에 있어서 복지관광은 관광형태, 관광내용, 참여수준, 최근 3년간 참여수준 등 참여를 주 개념으로 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사회자본은 인지형 사회자본으로 신뢰와 규범을, 구조형 사회자본으로 네트워크를 그 요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삶의 질은 행복감, 삶의 만족 등 2개의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복지관광과 연관된 복지기관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복지관광과 사회자본 간의 영향관계 실증분석 결과, 복지관광은 네트워크와 같은 구조형 사회자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신뢰와 규범과 같은 인지형 사회자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관광의 참여형태가 복지기관이 주관하고 기관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의 자율성에 제약이 따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신뢰와 규범 등의 인지형 사회자본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지만, 이용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구조형 사회자본 형성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복지관광의 진행에 있어서 단순히 수동적 입장에서 참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광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사회자본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참여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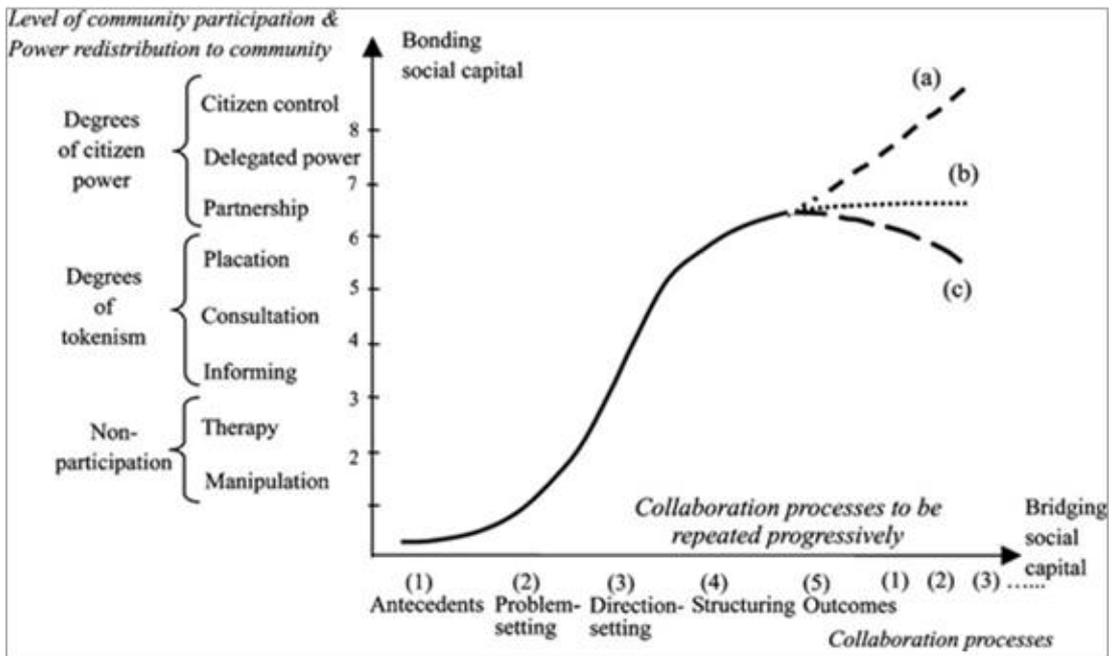
김은아(2015)는 마을만들기의 주민참여(관측변수 - 정보제공형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가 '지역공동체의식'이라는 사회자본을 매개로 하여 사회적 안녕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행정에 의지하는 주민들의 소극적인 참여행태 탈피를 위하여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주민주도적인 참여, 협력적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제도·조직·예산 등의 체계적인 정책화를 제안하면서,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민·관의 대등한 관계를 뛰어넘어 민이 주도하는 협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주은(2015)은 지역 메가이벤트에서의 주민참여의 수준(참여동기의 공익적 수준, 참여시기의 적절성, 참여유형의 적극성)이 사회자본(신뢰의 정도, 네트워크의 정도, 지역사회 참여의 정도, 호혜성규범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관계에서 유의한 영

향관계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Okazaki(2008)는 커뮤니티 기반 관광모델의 연구에서 Arnstein에 의한 시민참여 사다리 개념과 권력 재분배 개념, 협력 프로세스 개념, 그리고 사회자본의 개념을 통합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Butler에 의해 개발된 관광지 수명주기 곡선이론을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더 많은 공동체 참여와 더 많은 권력 재분배에 동의하는 경우에 결속형 사회자본(bonding social capital)과 교량형 사회자본(bridging social capital) 모두 정(+)의 방향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모델이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추진 시 이정표를 제공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한 절차와 단계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Okazaki(2008)의 연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분석단위를 마을의 주민들이 아닌 마을의 지도자로 선정함으로써 사회자본 형성의 실제 주체인 마을주민들의 인식을 대표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덧붙여, 이들 선행연구들 중 김형곤·고성태(2008)의 연구만이 농촌관광마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한 연구였다.



[그림 2-11] A model of community based tourism facilitating conditions and steps suggested by Arnstein(1969) and Selin and Chavez(1995)

자료 : Etsuko Okazaki(2008), A Community Based Tourism Model - Its Conception and Us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p.513 참조.

2.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간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로는,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방안(서태성, 2002),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박희봉, 2006),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손동욱, 2008),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김영화, 2014), 주민참여 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김정희, 2014),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강기호·이진희, 2015) 등이 있다.

서태성(2002)은 오늘날 분권화 시대에 그동안 지위를 독점하던 정부의 역할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고, 대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동의 없이는 지역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단체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희봉(2006)은 시민참여(정치적 참여, 비정치적 참여) 유형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정치적 참여유형보다 비정치적 참여유형이 로컬거버넌스에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치며, 비정치적 참여유형 중에서도 공공목적 단합활동이 로컬거버넌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인터넷 시민참여 형태는 로컬거버넌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도 함께 도출하였다.

손동욱(2008)은 도시재생사업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배려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커뮤니티 활성화, 지역성 창조 등의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 거버넌스체제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일본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도시재생 계획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단순히 피동적인 참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주민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문성을 배양하고, 주민들의 생활습관 및 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주민과의 의사소통방식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성공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김영화(2014)는 대구지역의 주민참여도와 거버넌스 활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구의 주민참여도, 거버넌스의 활용은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의 주민참여, 주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크레이그에 의한 지역사회 발전유형³²⁾ 중 I 유형(지역사회를 위한 발전과 지역하향 발전)의 주도 영역에서 IV유형(지역사회 동반발전과 지역사회에 의한 발전)의 주도 영역으로 이동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이를 위해 시민원탁회의를 통한 시민의 의견 경청, 자치단체의 정책수립, 결정 및 집행에 주민이 참여하는 등의 주민참여 방법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제안하였고, 지자체가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없이 지역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지원, 독려하여 로컬거버넌스의 기반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정희(2014)는 근래 주민참여의 기본 이념과 주민참여의 종류, 대상, 단계, 권한 등을 명시하여 주민참여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시행 중인 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조례의 운영실태 및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을 고찰하였고, 참여성·권한부여·상호책임성 등의 요소로 설정한 거버넌스의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운영체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상시적 참여 및 정책 전 과정의 참여, 의견제시와 자문 및 결정권 부여, 사회적 약자층의 참여를 위한 비례성 확보, 조례의 주민참여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행기구와 하부조직의 설치 및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네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주민참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장기호·이진희(2015)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농촌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주민참여는 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경제적·비경제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거버넌스는 경제적·비경제적 사업성과에 모두 부분 매개역할을 하며, 특히 연구모형의 매개변수인 거버넌스의 간접효과 수치가 낮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의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과 전문가그룹 등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지양하여 지역의 주민들이 고민 후에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7; 유상건, 2007; 진영환 외, 2007)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2) 크레이그(Craig et al.)에 의하면 지역사회 발전의 주요 관점은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4가지 유형은 ① 지역하향 발전(development done to the community), ② 지역사회를 위한 발전(development for the community), ③ 지역사회 동반발전(development with the community), ④ 지역사회에 의한 발전(development by the community) 등이다(Craig et al., 2004; Peter Somerville, 2011; 김영화, 2014: 352-354).

주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도시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였고, 강기호·이진희(2015)의 연구만이 그 연구 대상지를 농촌으로 한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로는,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송미령·성주인, 2005), 제주 농어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강기호, 2014),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강기호·이진희, 2015), 마을만들기 사업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박정민, 2015) 등이 있다.

송미령·성주인(2005)은 마을개발사업이 진행된 9개 시·군의 20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개발사업의 주민참여 실태(계획단계·시행단계·운영단계에서의 참여 실태)와 사업의 성과(경제적·비경제적 효과)를 조사·분석하였다. 주민조사 내용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의 수준과 사업성과를 지수화하여 마을별로 집계한 결과로부터 양자 간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와 긍정적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강기호(2014)는 제주지역 농어촌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참여 실태별 마을만들기 활성화(경제적 측면의 활성화, 사회·문화적 측면의 활성화)의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많이 알수록, 사업에 참여한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사업과 관련한 의견제시를 많이 할수록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향후 마을 주민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지를 위하여,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홍보·정보화 등 마을의 여건에 맞게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하여 시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강기호·이진희(2015)는 농촌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사업성과(경제적·비경제적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 분석하였고, 그 결과 주민참여는 경제적·비경제적 사업성과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주민참여는 경제적 사업성과보다 비경제적 사업성과와의 영향관계에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주민참여가 소득과 관련된 경제적 측면의 성과보다는 '사업 만족도 증가, 주민협조정도의 개선, 주민참여의식 개선'이라고

하는 비경제적 측면의 성과에 더욱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진정한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촌 마을만들기를 위하여 주민의 적극적 참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실증하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박정민(2015)은 김포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마을만들기의 사업특성을 독립변수로, 주민참여도를 매개변수로, 그리고 사업성과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 주민참여는 사업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좋은 내용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가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주민의 정서 및 연령 등 지역의 여건에 맞게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 간의 관계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간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로는,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박희봉, 2005),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남상우, 2008),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김성주, 2009),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안태숙, 2010),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성태, 2012),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창진, 2014), 농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야스모토아츠코·김경희, 2015) 등이 있다.

박희봉(2005)은 사회자본이 좋은 거버넌스를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구와 다른 전통을 지닌 우리나라 사회자본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회자본 연구에 있어서 우리 문화에서 배태된 고유한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그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다. 연구를 위한 설문은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대 이상의 성인들 중 무작위 추출 가구의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Fukuyama(1995)의 주장과 같이 우리 사회는 혈연·학연·지연 등 동질적 일차적 관계의 신뢰성이 높아, 수평적이고 이차적 관계의 신뢰가 높은 서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Putnam(1993)은 사회참여에 있어서 일차적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이차적 관계를 중시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점차 형성되어 간다고 주장한 바가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와 달리 혈연·학연·지연 등과 같은 일차적 관계에 익숙해져 있고, 구성원 간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보다는 권위적·위계적 관

계에 더 친숙하며, 정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부 주도의 권위적 창조직에 길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우리나라의 좋은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서는 일차적 관계 중심이 아닌 이차적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이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어떤 사회자본이 거버넌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어떤 사회자본이 어떤 형태로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남상우(2008)는 사회자본과 지역사회의 거버넌스는 서로 연관되는 아주 밀접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자본의 축적을 지역사회 발전의 목표로 전제하고 그 사회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의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신뢰와 참여를 사회자본의 요소로 설정하였고, 주민들의 공공기관 이용, 준법행위, 조례준수, 공공기관에 의견제시 등 네 가지 요소를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요소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주민들이 공공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법과 질서를 잘 준수하며, 지역을 위한 의견을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거버넌스의 주체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정책 결정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지방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구성원 간의 연결망 형성을 위한 참여기반을 구축해야 하는데,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비상연락망을 개설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김성주(2009)는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문제의 특성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기존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정부 행정운영 체계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힘든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당사자들이 협력·소통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순천만의 보전 과정을 연구 사례로 하여 거버넌스 형성의 요인을 분석하고, 거버넌스의 형성·안정을 위한 사회자본의 기능을 분석하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신뢰를 통한 파트너십 형성, 리더십 역량, 합리적 대안의 개발 등이 거버넌스의 형성 요인이 됨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구축만으로는 우수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연결망 구축을 통한 관계자들 간의 상호작용 증가, 가치

공유를 통한 호혜성 기반의 신뢰구축 및 파트너십 형성 등을 위해 상호 노력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한 사회자본의 형성은 거버넌스의 형성을 위한 그 전제가 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당장 거버넌스 체계를 의결기구로 구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를 수 있으나 여러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중요시되는 요즘 시대의 흐름을 고려한다면 거버넌스 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행위 주체들 간의 대등한 관계형성을 심도 있게 고민하며, 관계자들 상호간의 거버넌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안태숙(2010)은 지역사회 복지 분야에서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관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시 상호의존성, 공동사업수행, 공동의사결정 등을 로컬거버넌스의 하위요인으로, 그리고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제한 사회자본의 하위요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 구성요소(신뢰·규범·네트워크) 모두가 로컬거버넌스 구성요소(상호의존성·공동사업수행·공동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규범의 특성을 보여주는 책임감·목표인식이 로컬거버넌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는 신뢰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관련 공무원들이 민관 협력에 대하여 이해와 관심을 가져야 함을, 그리고 민관 상호 간 인식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해 교육·세미나 등 정기적 워크숍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김성태(2012)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제도를 통해 관광특구지정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실질적 지원 혜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제도적인 실효성이 낮은 것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으로, 사회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관광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연구배경을 언급하면서, 관광특구지역에서의 사회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심층인터뷰, 예비조사를 거쳐 관광특구지역의 사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과정에서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신뢰, 참여, 규범을 그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로컬관광거버넌스는 파트너십 구축, 정부의 지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권한부여를 그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로컬관광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 사회자본 중 신뢰 요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중요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로컬관광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자본 중 규범 요인의 '법과 질서의

준수', '관광특구상인의 예의범절'이 로컬관광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는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사회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의 관계 모형을 구축하였고, 향후 사회자본 기반의 로컬관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정책실행자로서 지방정부의 역할, 민간부문에서 적극적 정책참여자로서 지역관광협의체 와 사업종사자의 역할, 그리고 정책지원자·총괄적 관리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전창진(2014)은 전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로컬거버넌스 구성요소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 구성요소는 선행연구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신뢰, 참여, 네트워킹으로 구성하였고, 로컬거버넌스의 구성요소는 상호의존성, 공동의사결정, 공동사업수행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세부적으로는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신뢰·네트워킹 요소는 로컬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공동의사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자본의 구성요소 중 참여는 로컬거버넌스의 구성요소 중 상호의존성과 공동사업수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네트워킹을 확산시킴으로써 로컬거버넌스의 형성과 활성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야스모토아츠코·김경희(2015)는 관광분야에서 거버넌스 요인과 거버넌스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지만, 농촌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영향요인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농촌관광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농촌관광정책의 핵심이 되는 민·관 협력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두레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거버넌스 영향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거버넌스 영향요인의 하위요인은 제도적 환경, 지역의 사회자본, 지역의 자원, 지방정부의 역량, 지역사업자 역량으로 구성하였고, 협력적 거버넌스의 하위요인은 구조적 요인, 운영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관광두레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다섯 군데 중 경기도 양평군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적 환경과 지역사업자 역량으로 나타났고, 운영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제도적 환경, 지역사업자 역량, 지역의 사회자본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적 요인과 운영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에는 제도적 환경, 지역사

업자 역량, 지역의 사회자본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는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의 역량과 거버넌스 간의 영향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연구·분석한 김형양(2006), 주현정(2013)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이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과 거버넌스 간의 영향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관광두레 사업과 같은 농촌관광정책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역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간 영향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야스모토아츠코·김경희(2015)의 연구만이 그 연구대상지를 농촌관광마을로 선정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농촌 관광을 대상으로 하는 거버넌스 영향요인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5. 사회자본과 사업성과 간의 관계

사회자본과 사업성과 간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로는,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이 농촌관광개발 효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윤유식·박덕병, 2008),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박용순, 2009),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인자·한세희·이희선, 2011), 정부정책의 사회자본 형성기능과 성과에 대한 영향 연구(박영민, 2012),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최해봉, 2012),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윤주·최승담, 2013) 등이 있다.

윤유식·박덕병(2008)은 사회자본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Woolcock, 1998; Sorensen, 2000; Svendsen & Svendsen, 2000; Woodhouse, 2006) 및 사회자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Knack, 2000; 김성권, 2004) 등이 진행되어 왔으나 농촌관광에 있어서 주민들의 효과인지에 대한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의 역할 및 영향정도와 관련된 연구 실적은 미미한 실정임을 지적하면서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의 사회자본이 농촌관광의 효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정부의 농촌관광마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4개 농촌관광마을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이 높은 농촌지역사회에서 농촌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사회문화적·환경적 측

면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 인지를 확인하였고, 향후 농촌관광개발 사업추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사회자본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농촌관광마을 개발사업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할 것을 주문하였다.

박용순(2009)은 농촌관광이 농촌사회에 도입된 이후 공동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농촌의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에 기반하는 신뢰, 네트워크, 규범 등 비경제적 측면의 사회자본 형성을 언급하면서,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이 지역주민들의 통합, 삶의 질 만족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의 사회자본 중 인지적 사회자본 변수는 관계적 통치, 사회적 신뢰 등 2개 요인으로, 구조적 사회자본 변수는 제도적 틀, 연합적 네트워크 등 2개 요인으로, 주민통합 변수는 권한강화, 연대감, 장소애착성 등 3개 요인으로, 삶의 질 만족 변수는 공공서비스, 환경 및 생활여건, 경제적 만족 등 3개 요인으로 각각 설정하였다. 설문조사는 현재 농촌관광을 추진 중인 5년 이상 된 마을과 5년 이하의 마을로 구분하여 모두 10개 마을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고, 별도로 마을 리장, 사무장 등 마을 리더들에 대한 인터뷰조사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구조적 사회자본은 주민통합의 연대감에만 정(+)적 영향을 미치고, 주민통합의 나머지 요인과 삶의 질 만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지적 사회자본은 주민통합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 만족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민들 간의 신뢰, 마을의 공통규범 인식 등과 연관되는 인지적 사회자본이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관광사업 추진 시 주민들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행정적 지원과 외부 전문가 지원 등의 구조적 사회자본은 보조적 역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인자·한세희·이희선(2011)은 사회자본이 교육성과(공교육 사업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을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학교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지역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으로 설정하고, 교육성과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사교육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만이 직·간접적으로 교육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가족 사회자본의 과정 -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 -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 -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 - 학교 사회자본의 구조 등의 순으로 교육성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사교육은 교육성과와 부(-)적인 영향관계가 있었지만, 가족 사회자본의 구조와 과정, 학교 사회자본의 과정, 지역 사회자본의 과정 요인들과 결합되면 교육성과에 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하여 연구자는 청소년의 교육성과(공교육 사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당장의 사교육비 투입보다 사회의 전반적 교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사회자본 증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그리고 가족·학교·지역의 사회자본 축적 및 협력 지원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박영민(2012)은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의 경쟁력은 강화되지 못하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낙후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상황은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추진되어온 정책들의 문제점들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자발적 발전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자발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등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방향 전환에 대하여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농촌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자본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 외적 낙후성 뿐만 아니라 자발적 역량 역시 아주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농촌지역 사회자본의 증진과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농촌마을의 사회자본이 정보화마을사업(정부사업)과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보화마을사업의 구성요인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으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인은 신뢰·네트워크·규범으로, 사업성과의 구성요인은 정보격차해소·지역공동체활성화·지역경쟁력강화로, 그리고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타 사업·마을자체 보유자원 등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 360개 정보화마을의 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실증분석 결과, 정보화마을사업(정부사업)은 사회자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중 네트워크는 사업성과 중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규범은 정보격차해소와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는 모든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규범이 신뢰와 네트워크보다 정보화마을사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사회자본이 소득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연구자는 정부사업이 일방적 추진행태를 탈피하여 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참여함으로써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해봉(2012)은 공공조직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사회자본의 측정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자본의 활용이 조직의 성과 향상 등 생산성 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을 전제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지방정부 성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이론 고찰을 통해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네트워크, 참여, 규범으로 설정하였고, 지방정부의 성과는 행정 비용 절감, 주민만족도, 주민요구의 대응성, 업무성과의 질 향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조직 구성원들 개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자본은 지방정부의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세부적으로, 규범과 참여의 요소들이 지방정부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신뢰의 요소들은 조직의 성과에 직접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른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들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자는 지방정부의 성과관리를 위해서 규범과 참여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윤주·최승담(2013)은 사회자본과 관광개발 성과와의 관계 분석에 있어서 태도,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등 비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자본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론 고찰을 통해 독립변수인 사회자본은 구조적·관계적·가치공유적 요인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관광개발 성과는 경제적·비경제적 성과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국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시행하는 마을들 중 우수체험마을로 선정된 마을의 리장 및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자본은 농촌관광개발의 경제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자본의 관계적 요인을 제외한 구조적 요인, 가치공유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자본은 비경제적 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사회자본의 가치공유적 요인, 관계적 요인, 구조적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농촌관광 개발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마을의 현안사항을 지역주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 로컬거버넌스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

로컬거버넌스와 사업성과 간 영향 관계의 선행연구로는,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사회복지사업 성과 간의 관계 연구(류시혁, 2008), 로컬거버넌스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김은정, 2009), 거버넌스 특성이 커뮤니티 개발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영훈, 2012), 제주 농어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강기호,

2014), 지역활성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유희준, 2014),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 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분석(강기호·이진희, 2015) 등이 있다.

류시혁(2008)은 주민복지서비스의 효과 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방식인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복지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구의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민·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인 로컬거버넌스는 의사소통, 파트너십, 자율성 등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종속변수는 지역복지 사업성과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 유형 중 수평적 의사소통 유형과 쌍방향 의사소통 유형이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상호 동기가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율성에 있어서 지도감독과 재정의존도는 사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과 관의 수평적 의사소통과 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하고, 관의 지도감독과 민의 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은정(2009)은 기존의 연구가 인적자본, 과학기술인프라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로 이어져 왔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제로 주목받고 있는 로컬거버넌스와 지역개발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을 지적하면서 로컬거버넌스가 실제로 지역개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과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시계열 관측치와 횡단면적 자료가 결합된 16개 광역자치단체의 패널데이터 세트를 구성하여 이용하였다. 연구모형의 독립변수인 로컬거버넌스의 구성 요인으로서는 행위자들의 활동성, 행위자들의 협력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인 지역개발(성과)의 구성 요인으로서는 1인당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로컬거버넌스는 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정부의 활동성 및 시민의 활동성이 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서로 협력적일수록, 그리고 지방정부와 시민의 관계가 협력적일수록 지역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에 따라 연구자는 향후 로컬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영훈(2012)은 2006년부터 새로이 시작되고 있는 커뮤니티 개발정책인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등 정부에서 발제한 정책들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참여의욕이 약화되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주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

우려의 기저에는 종래 정부의 일방적 추진방식과 거버넌스에 맞는 추진방식을 적용한 각각의 개발성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서두에 설명하였다. 그리고 거버넌스의 특성이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분석하기 위해 사례연구와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커뮤니티 개발정책의 성과에 대한 구성요인으로 공간의 질 제고,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감 형성, 민주적 자치 신장 등이 선정되었고,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사업 여건의 성숙성, 계획의 완비성, 예산의 충분성,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 사후관리의 정도 등이 선정되었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가 제도화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커뮤니티 개발사업의 성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향후 커뮤니티 개발정책을 추진할 때 거버넌스의 구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하며, 정책적으로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장기호(2014)는 최근 많은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마을만들기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면서, 근래 지역개발에서의 추진체계 방식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을 연구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농어촌 마을만들기 참여조직의 거버넌스(지역주민·행정·전문가그룹의 동반자적 관계구축)가 사업성과(경제적 측면의 활성화, 사회·문화적 측면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는데, 분석 결과, 마을만들기 참여조직의 거버넌스는 마을만들기 사업성과 즉,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활성화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을만들기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지만 행정, 전문가그룹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할 때 마을만들기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호·이진희(2015)는 지역개발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고충석, 2003; 곽현근, 2008b; 김영 외, 2008) 등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과(경제적 사업성과, 비경제적 사업성과)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농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거버넌스'라는 매개변수는 경제적·비경제적 사업성과 모두에 대하여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비경제적 사업성과보다 경제적 사업성과에 대하여 조금 더 매개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행정기관과 전문가그룹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을, 그리고 소득기반사업 등 주민들의 소득과 연관되는 사업을 추진 시 거버넌스 체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모형 설계 및 가설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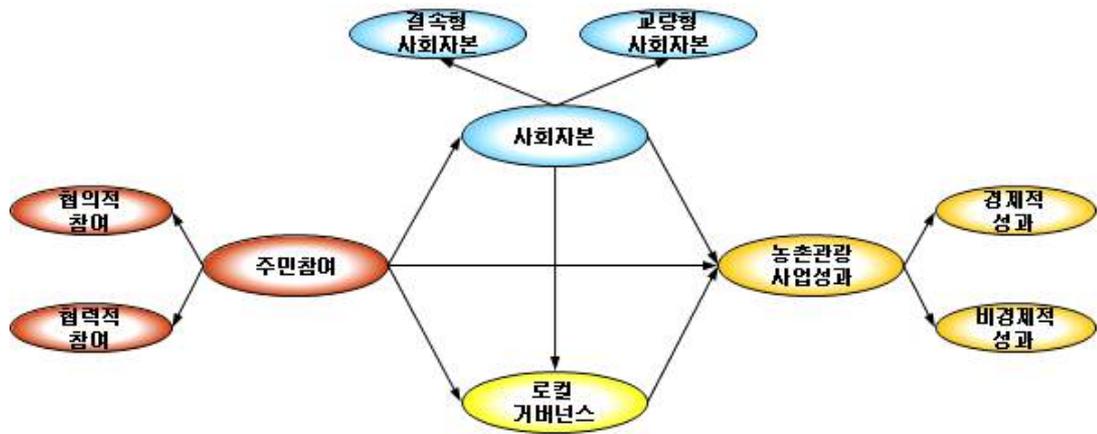
1. 연구모형의 설계

근래에 농촌에서는 농촌관광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정부 차원의 농촌관광마을사업들이 활기 차게 추진되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주민 주도형 상향식 개발방식을 추구하며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마을들을 나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측면에서 향후 농촌관광마을 내 공동체가 회복되고, 주민들이 진정한 주체가 되어 성공적인 농촌관광을 추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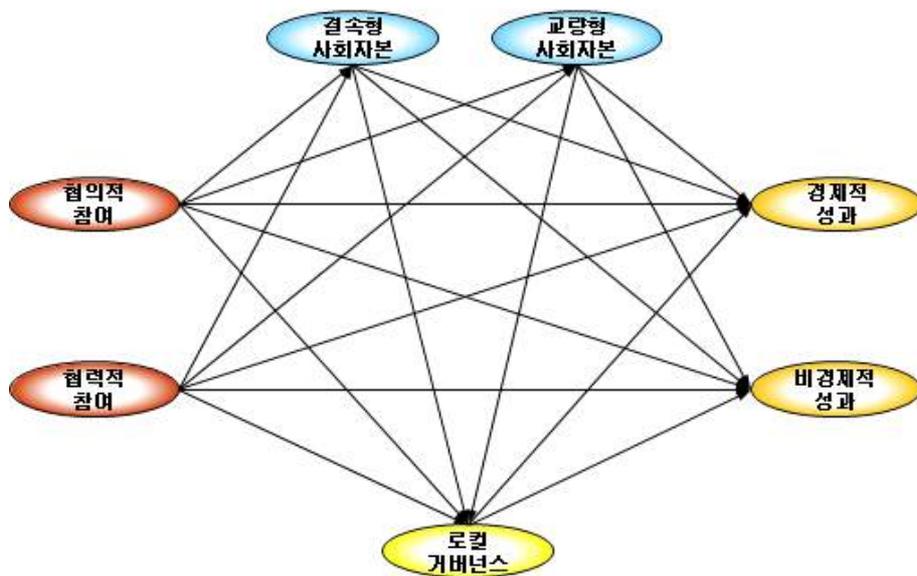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과 관련된 주민들의 참여가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농촌관광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단 간 영향관계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농촌관광의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과 농촌관광마을사업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집단 간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본 연구의 모형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가 독립변수가 되고, 농촌관광의 사업성과가 종속변수가 되며,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과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가 이중 매개변수가 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모형은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 및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농촌관광의 사업성과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가 농촌관광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과 농촌관광마을사업의 로컬거버넌

스가 어느 정도의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도 가정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가정들의 검증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의 주민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림 3-1] 연구 기본모형



[그림 3-2] 연구 세부모형

2. 연구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가설은 앞에서 제시한 각 변수들 간의 관계 선행연구 검토 및 이를 근거로 구축한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설정하였으며, 이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는 농촌관광마을사업(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라고 하는 변수들이 매개하는 연구자의 사회학적 또는 정치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가설 설정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며, 둘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며, 넷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다섯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설의 설정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매개역할을 하는 구조를 설명하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변화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이론적 또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 주가설

- H1 : 주민참여는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주민참여는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주민참여는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부가설

- H4 :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 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a : 서부·동부 집단 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4b : 상위·하위 집단 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5 : 주민참여는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6 : 주민참여는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7 : 주민참여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8 :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9 : 사회자본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0 : 로컬거버넌스는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11a :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11b :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 H12 :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사업(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주민참여가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및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가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으로, 이들의 확인을 위해 제시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등과 같은 연구모형의 변수들은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의 인식에 기초하여 조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농촌관광마을 내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상황 또는 목적 등을 반영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새롭게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이론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변수들을 재정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할 수 있다.

1) 농촌관광마을사업

농촌관광마을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해 농·산촌의 고유한 유무형의 문화를 보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유지·보전하려는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부터 파생되는 도시민들과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농촌관광(김남조, 2004)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정책 측면에서의 농촌관광마을 개념 역시 상기 내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도시민에게 휴식·휴양 및 새로운 체험 공간을 제공 또는 공유하고 농·산촌에는 농·특산물의 생산·가공·판매, 그리고 이와 연계되는 관광·음식물 판매 등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책적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舊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 포함)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농촌관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구 대상지로 삼았으나, 연구의 본 조사 대상지 대부분이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외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다양한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본 조사 대상지를 통상적으로 칭함에 있어 '농촌체험휴양마을'보다는 '농촌관광마을'로 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농촌관광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농촌관광마을사업'으로 칭하고자 한다.

2) 주민참여

주민참여(住民參與, participation of residents)에 대한 본 연구의 내용적·시간적·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연구의 대상지역인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참여를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Arnstein(1969)이 제시한 주민참여 사다리모형(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내용과 그것을 보완하여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가 제시한 참여체계 모형(Participation Schemas)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주민참여를 크게 '협의적 참여(Consultative Participation)'와 '협력적 참여(Collaborative Participation)'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협의적 참여는 주민들이 공청회(주민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채널은 존재하지만 실질적 정책결정에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참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의 진행에 대한 인지정도, 사업관련 마을안내문

에 대한 관심정도, 사업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하는 정도, 사업관련 공청회에 참여하는 정도, 사업관련 전문가 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에 참여하는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협력적 참여는 정부(지방정부 포함)와 주민들의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가 형성되어 주민들의 권한이 마을공동체형 농촌관광사업의 사업계획 및 시행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정도의 참여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된 마을회의에 참여하는 정도, 사업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정도, 사업의 계획·시행 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정도, 사업관련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주민참여를 ‘주민참여(조성 전)’로,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를 ‘주민참여(현재)’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주민참여(조성 전)는 ‘협의적 참여(조성 전)’와 ‘협력적 참여(조성 전)’로 구분하였고, 주민참여(현재)는 ‘협의적 참여(현재)’와 ‘협력적 참여(현재)’로 구분하였다.

3) 사회자본

사회자본(社會資本, social capital)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은 연구대상지인 농촌관광마을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관광마을의 사회자본을 ‘농촌관광마을 내 구성원들의 개인적·조직적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과 같은 무형의 사회적 관계자산’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의 사회자본 유형은 그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Putnam 1993a; Putnam 1995; Halpern 2005; Wallace & Pichler, 2007 : 30)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서, 결속형 사회자본은 동질성, 충성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내부의 결속적 관계에 의존하는 등 끈끈한 관계 집단(혈연, 지연, 학연 등)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내부 지향적인 사회자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교량형 사회자본은 이질적 성격의 개인들 또는 집단 간의 다소 느슨한 연결망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조화롭게 하는 약한 유대관계의 광범위한 사회적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포용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사회자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Putnam, 2000; 박영민, 2012 : 36). 또한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로 선정하되, 결속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와 교량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구분되는 개념이

포괄되도록 하였다. 즉, 결속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 결속형 신뢰, 결속형 규범, 결속형 네트워크의 개념이 내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결속형 신뢰는 가족에 대한 신뢰, 친지들에 대한 신뢰, 마을 이웃에 대한 신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속형 규범은 마을 내 자치규약의 인지 및 준수, 마을 내 불우이웃에 대한 도움 또는 도움에 관한 이웃에의 권유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결속형 네트워크는 마을 내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량형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에는 교량형 신뢰, 교량형 규범, 교량형 네트워크의 개념이 내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량형 신뢰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정도,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정도,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교량형 규범은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정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는 정도, 사회의 일반적 공공법규와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며, 교량형 네트워크는 다른 마을의 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사회자본을 ‘사회자본(조성 전)’으로, 조성 후 현재의 사회자본을 ‘사회자본(현재)’으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사회자본(조성 전)은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으로 구분하였고, 사회자본(현재)은 ‘결속형 사회자본(현재)’과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으로 구분하였다.

4) 로컬거버넌스

여러 학자들의 선행연구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되는 로컬거버넌스는 ‘지역의 공동문제 해결 및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주체들이 수평적이고, 동반자적인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진정성 있는 협력체계’로 정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로컬거버넌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전문가그룹의 지원, 그리고 지역주민·지방자치단체·전문가그룹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 행정지원의 충분성 인식정도, 지자체 재정지원의 충분성 인식정도, 전문가그룹의 협조 인식정도,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의사소통 인식정도,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 동등한 관계로의 협력 인식정도,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의 인식정도,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의 책임의식 견지 인식정도, 지자체·전문가그룹 간 지역주민들의 의견반영 인식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로컬거버넌스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로, 조성 후 현재의 로컬거버넌스를 ‘로컬거버넌스(현재)’로 설정하였다.

5) 사업성과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농촌관광마을사업(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은 일정 시간이 지나서 명칭을 바꾸고, 지원 규모와 내용 등을 변경하면서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꾀하여 왔으나, 사실 그 사업의 목적은 동일한 방향에 맞추어 추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목표는 정책의 시발점에서나 지금 현 시점에서나 모두 ‘점점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화되며,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농촌지역의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소득증대, 지역역량강화’라는 큰 틀의 기능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농촌관광마을사업들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업명칭 변경, 지원규모 및 내용의 변경 등 내적인 변화가 있기는 하였으나, 지금 현재도 ‘일반농산어촌개발’이라는 큰 타이틀을 달고, 그 안에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등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까지 고려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하여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성과’를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방문객 증가, 수익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삶의 만족도 증대 등의 실현 정도’로 정의하였다. 이는 경제적인 측면과 비경제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고, 본 연구에서의 사업성과 역시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여기서, 경제적 성과는 마을 내 가구소득의 증가 인식정도, 마을 내 토지가격의 상승 인식정도, 마을 내 방문객의 증가 인식정도, 마을 내 일자리의 창출 인식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비경제적 성과는 마을 내 공동체 참여의식의 개선 인식정도, 주민단합의 개선 인식정도, 공동시설 개선에 따르는 생활의 편리성 인식정도, 마을 내 삶의 만족정도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들은 농촌관광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로 조성되기 전부터 조성된 후 현재까지 위에서 언급한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마을들이다. 단,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보다 조성된 후에 농촌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해 각각 분석하는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사업성과를 '사업성과(조성 전)'로, 조성 후 현재의 사업성과를 '사업성과(현재)'로 설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사업성과(조성 전)는 '경제적 성과(조성 전)'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로 구분하였고, 사업성과(현재)는 '경제적 성과(현재)'와 '비경제적 성과(현재)'로 구분하였다.

제2절 조사설계 및 분석

1. 연구대상지 선정 범위

우선 본 연구에서는 앞의 제1장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 농촌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사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농촌관광정책사업 중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의 농촌관광사업은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대표할 수 있는 주민 주도형 상향식 농촌관광개발 방식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들로 한정하였다. 근래 귀농·귀촌을 통해 이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의 농촌지역 중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예비 조사 대상지는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15개 마을 중 가장 최근 2016년 8월에 지정되어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1개 마을(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을 제외한 14개 마을[(제주도 제주시 6개 마을 - 낙천리, 명도암, 소길리, 유수암리, 저지리, 청수리), (제주도 서귀포시 8개 마을 - 가시리, 고성리, 동광리, 무릉2리, 신평리, 신흥2리, 온평리, 화순리)]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주도 내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함으로써 제주도 내에서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 조사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 관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고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적합한 항목들을 최종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안의 설문 항목을 수정 또는 정제하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본 조사 대상지를 신중히 선별해 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2017년 7월 3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51일간 예비 조사 대상지로 선

정된 1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14개 마을별 22부씩, 전체 30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고,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마을별 20부씩 총 280부의 유효 표본을 수집하였다.

예비 조사 응답 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최종 본 조사 설문 문항의 도출을 위해 예비 조사 측정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예비 조사 사업성과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 근거로 하여 본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성과에 대한 집단별 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1) 예비 설문조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예비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설문조사에 응한 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3-1>의 내용과 같다.

<표 3-1> 예비 조사 대상지 전체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성	162	57.9	직업	농어업	170	60.7
	여성	118	42.1		자영업	34	12.1
연령	20대	4	1.4		회사원	24	8.6
	30대	28	10.0		전업주부	25	8.9
	40대	86	30.7		기타	27	9.7
	50대	91	32.5	학력	초등 이하	10	3.6
	60대	44	15.7		중학교	39	13.9
70대 이상	27	9.6	고등학교		119	42.5	
고향 여부	예	203	72.5		대학교	108	38.6
	아니오	77	27.5	대학원	4	1.4	
거주 기간	5년 이하	23	8.2	가구 소득	1,500만원 이하	7	2.5
	6~10년	28	10.0		1,500~3,000	66	23.6
	11~15년	14	5.0		3,000~4,500	99	35.4
	16~20년	34	12.1		4,500~6,000	52	18.6
	20년 이상	181	64.6		6,000만원 이상	56	20.0
리더 여부	예	150	53.6	※ 14개 마을별 20개씩 총 280개의 유효 표본 수집 (예비 설문조사)			
	아니오	130	46.4				

성별에 따르는 대상자 현황은 남성 57.9%(162명), 여성 42.1%(118명)로 조사되었고, 연령에 따르는 대상자 현황은 20대 1.4%(4명), 30대 10%(28명), 40대 30.7%(86명), 50대 32.5%(91명), 60대 15.7%(44명), 70대 이상 9.6%(27명)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전국의 70세 이상 농가 인구가 30%, 60세 이상 농가 인구가 56.1%(2016년 말 기준)³³⁾임을 감안한다면 전국 평균보다는 덜 고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예비 조사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예비 조사를 위한 설문 항목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문항들로, 다음 <표 3-2>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3-2> 예비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구분	요인	문항수	출처
주민참여	협리적 참여, 협력적 참여	10	Pia Mwanza Chuzu(2002), 조록환(2003), 노정민(2013), Liedewij van Breugel(2013), 김은아(2015), 성순아(2015), 최문형·정문기(2015), Thulile Promise Ndlovu(2016)
사회자본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13	Pia Mwanza Chuzu(2002), 조남익(2008), 임우석(2009), 광현근·유현숙(2011), Rojana Thammajinda(2013), 최수남(2014), 조주은(2015), 반호준(2016)
로컬거버넌스	로컬거버넌스	7	김진동(2005), 홍종득(2007), 최보희(2014), 김재천(2015)
사업성과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	9	송미령·성주인(2005), 안종현(2008), 윤주·최승담(2013), Liedewij van Breugel(2013), 김태동(2014), Thulile Promise Ndlovu(2016)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고향여부, 거주기간, 직업, 학력, 가구 총소득, 리더여부	8	

※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하였음.

(1) 예비 조사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선 예비 조사의 측정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3-3>과 같이 나타났다.

33)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2017.04.14. 갱신) 자료.

○ 전국 15세 이상 농가 인구(2016년 말 기준)

연령	15~29세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인구수(명)	218,868 (9.3%)	121,717 (5.2%)	207,256 (8.8%)	487,371 (20.7%)	616,781 (26.1%)	707,929 (30.0%)	2,359,922

〈표 3-3〉 예비 조사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 거버넌스	협리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	협력적 참여	비경제적 성과	경제적 성과	공통성
사회9	.783	-.006	-.053	.117	.140	.112	-.010	.662
사회10	.766	.067	-.017	.058	.134	.231	.001	.666
사회8	.766	.073	.146	.086	.022	-.054	.071	.629
사회11	.744	.127	-.006	.042	.009	-.025	-.024	.573
사회13	.722	.093	.087	.214	.072	.072	.017	.594
사회7	.699	.111	.235	-.006	.012	.123	.161	.598
사회12	.678	.154	-.013	.021	.151	.111	-.039	.521
로컬4	.179	.811	.080	-.016	.130	.098	.090	.730
로컬2	.100	.788	.025	-.008	.034	.172	-.006	.663
로컬6	.010	.773	-.023	.110	.072	.029	.030	.616
로컬5	.145	.770	.049	-.020	.040	.152	.103	.651
로컬3	.167	.761	.029	.153	.047	.001	.083	.640
로컬1	.154	.683	.166	-.048	-.072	.160	-.029	.552
로컬7	-.055	.531	-.022	.061	.029	.011	.006	.290
참여3	.071	.116	.759	.109	.184	.010	.003	.640
참여1	.079	.109	.734	.200	.104	.027	.193	.645
참여2	-.013	.008	.664	.006	.131	.131	.013	.476
참여5	.070	-.037	.663	.228	.383	-.037	.054	.649
참여4	.070	-.016	.585	.116	.336	.103	.017	.484
사회3	-.021	-.030	.085	.838	.214	.051	.065	.763
사회4	.013	.030	-.010	.826	.188	-.023	.070	.724
사회2	.276	.154	.232	.709	-.122	.145	.128	.708
사회5	.100	.143	.020	.656	.182	.036	.124	.512
사회6	.091	-.026	.161	.654	.032	.024	-.046	.466
사회1	.221	.075	.293	.539	-.265	-.008	.109	.513
참여10	.137	.001	.113	.120	.742	.082	.108	.615
참여9	.167	.110	.251	.114	.732	.140	.120	.686
참여8	.142	.115	.359	.086	.715	.058	.116	.698
참여6	.058	.141	.439	.049	.652	.037	.106	.656
참여7	.108	.040	.521	.089	.621	.038	.057	.683
성과6	.126	.147	-.031	.023	.121	.869	.104	.820
성과7	.117	.073	-.001	.008	.118	.848	-.025	.753
성과5	.009	.138	.025	.077	.109	.778	.236	.698
성과8	.185	.188	.174	.112	.020	.673	.207	.608
성과9	.082	.072	.159	-.016	-.067	.476	.256	.335
성과3	-.057	.103	.102	.083	.076	.202	.801	.720
성과2	-.037	.043	.152	.086	-.046	.192	.785	.690
성과4	.021	.001	-.045	.054	.171	.093	.727	.572
성과1	.168	.066	.043	.093	.166	.101	.662	.519
고유값	4.279	4.094	3.400	3.357	3.140	3.135	2.611	
분산설명력(%)	10.973	10.498	8.718	8.608	8.050	8.040	6.694	
누적 분산설명력(%)	10.973	21.471	30.189	38.797	46.847	54.887	61.581	

KMO : 0.843,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 0.000

예비 조사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분산력은 61.581%로 타당성이 확보되었고, 총 39개의 측정 문항은 협의적 참여, 협력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의 7개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구성요인들의 고유값(Eigen value)은 최저 2.611로 모두 1.0 이상이며,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판단된다.

(2) 예비 조사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예비 조사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s α 계수를 근거로 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분석 결과,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해당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였다.

① 주민참여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가. 협의적 참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협의적 참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15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의적 참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협의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4>의 내용과 같다.

<표 3-4> 협의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의적 참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0.630	0.775	
	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0.538	0.801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0.664	0.761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함	0.559	0.794	
	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에 참여함	0.657	0.765	
전체 Chronbach's $\alpha = 0.815$				

나. 협력적 참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협력적 참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6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력적 참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

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871로 협력적 참여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협이에 참여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협력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5>의 내용과 같다.

<표 3-5> 협력적 참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력적 참여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0.707	0.837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0.707	0.838	
	사업 계획·시행단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0.756	0.828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0.735	0.829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협이에 참여함	0.607	0.871	제거
전체 Chronbach's α = 0.868				

② 사회자본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가.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33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6>의 내용과 같다.

<표 3-6>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결속형 사회자본	친지들을 신뢰함	0.469	0.831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0.676	0.791	
	마을의 자치규약을 알고 있음	0.707	0.783	
	마을의 자치규약을 준수함	0.674	0.791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0.572	0.812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0.535	0.820	
전체 Chronbach's α = 0.833				

나.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76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7>의 내용과 같다.

<표 3-7>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교량형 사회자본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0.630	0.862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함	0.669	0.858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함	0.711	0.852	
	지자체 행정에 대해 신뢰함	0.716	0.851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함	0.629	0.86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0.607	0.866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0.660	0.858	
전체 Chronbach's $\alpha = 0.876$				

③ 로컬거버넌스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로컬거버넌스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73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로컬거버넌스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882로 로컬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로컬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8>의 내용과 같다.

〈표 3-8〉 로컬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로컬 거버넌스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0.603	0.861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0.715	0.846	
	전문가그룹(자문단)의 협조가 충분함	0.688	0.850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동반자적(동등한) 관계로 협력함	0.762	0.840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됨	0.706	0.848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짐	0.668	0.853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됨	0.409	0.882	제거
전체 Chronbach's $\alpha = 0.873$				

④ 사업성과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가. 경제적 성과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경제적 성과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782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경제적 성과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9〉의 내용과 같다.

〈표 3-9〉 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경제적 성과	가구소득이 증가함	0.519	0.769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0.632	0.708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0.664	0.690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0.551	0.747	
전체 Chronbach's $\alpha = 0.782$				

나. 비경제적 성과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비경제적 성과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42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비경제적 성과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865로 비경제적 성과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마을의 이미지가 향상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비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3-10>의 내용과 같다.

<표 3-10> 비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비경제적 성과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0.690	0.798	
	주민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0.807	0.761	
	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0.714	0.790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0.638	0.812	
	마을의 이미지가 향상됨	0.396	0.865	제거
전체 Chronbach's α = 0.842				

3) 농촌관광 사업성과 인식에 대한 예비 설문조사 분석

예비 조사 분석 결과, 대상지 마을별 주민들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사업성과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정도는 다음 <표 3-11> ~ <표 3-14>와 같이 도출되었다.³⁴⁾

34) 예비 조사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정도 파악을 위한 측정 문항은 예비 조사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거쳐 사업성과 측정 문항으로 선정된 ① 가구소득 증가, ② 마을 내 토지가격 상승, ③ 마을 내 방문객 증가, ④ 마을 내 일자리 창출의 경제적 성과 요인 4개 문항과 ⑤ 공동체 참여의식 개선, ⑥ 주민 단합정도 개선, ⑦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 증진, ⑧ 마을에서의 삶에 전반적으로 만족함의 비경제적 성과 요인 4개 문항을 합한 총 8개 문항으로 하였다. 당초 사업성과와 관련된 측정 문항은 9개 문항이었으나 신뢰도 분석을 거쳐 이론구조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마을의 이미지가 향상됨' 문항은 제거하였다.

〈표 3-11〉 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설문 문항 응답차이 분석)

문항	마을	mean	F(sig.)	문항	마을	mean	F(sig.)
소득증대	낙천리	3.75	4.477*** (.000)	방문객증가	낙천리	4.70	3.176*** (.000)
	청수리	4.00			청수리	4.40	
	저지리	4.60			저지리	4.65	
	무릉2리	3.85			무릉2리	4.40	
	동광리	3.40			동광리	4.00	
	화순리	3.60			화순리	4.55	
	유수암리	3.45			유수암리	4.45	
	소길리	3.55			소길리	4.50	
	명도암	4.10			명도암	4.30	
	신흥2리	4.20			신흥2리	4.55	
	가시리	3.55			가시리	4.45	
	신평리	3.35			신평리	3.60	
	온평리	3.30			온평리	4.40	
고성리	3.60	고성리	4.15				
지가상승	낙천리	4.65	3.006*** (.000)	일자리창출	낙천리	4.25	4.888*** (.000)
	청수리	4.50			청수리	4.35	
	저지리	4.80			저지리	4.75	
	무릉2리	4.40			무릉2리	4.40	
	동광리	4.35			동광리	4.00	
	화순리	4.70			화순리	3.80	
	유수암리	4.80			유수암리	4.20	
	소길리	4.20			소길리	3.80	
	명도암	4.65			명도암	4.80	
	신흥2리	4.35			신흥2리	4.80	
	가시리	4.65			가시리	3.95	
	신평리	3.85			신평리	4.05	
	온평리	4.20			온평리	4.15	
고성리	4.50	고성리	3.90				

***p<0.001

〈표 3-12〉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설문 문항 응답차이 분석)

문항	마을	mean	F(sig.)	문항	마을	mean	F(sig.)
참여의식	낙천리	4.05	4.468*** (.000)	만족도	낙천리	3.90	7.661*** (.000)
	청수리	4.00			청수리	4.40	
	저지리	4.20			저지리	4.35	
	무릉2리	3.70			무릉2리	4.05	
	동광리	3.70			동광리	3.65	
	화순리	3.50			화순리	3.50	
	유수암리	4.05			유수암리	4.30	
	소길리	3.65			소길리	3.75	
	명도암	4.60			명도암	4.40	
	신흥2리	3.85			신흥2리	3.55	
	가시리	4.45			가시리	3.90	
	신흥리	3.30			신흥리	3.25	
	온평리	3.90			온평리	3.50	
고성리	3.35	고성리	3.20				
단합정도	낙천리	4.10	6.301*** (.000)	편리성	낙천리	3.85	5.735*** (.000)
	청수리	4.15			청수리	4.10	
	저지리	4.00			저지리	4.00	
	무릉2리	4.00			무릉2리	3.80	
	동광리	3.60			동광리	3.95	
	화순리	3.50			화순리	3.65	
	유수암리	4.30			유수암리	4.30	
	소길리	3.50			소길리	3.70	
	명도암	4.60			명도암	4.65	
	신흥2리	3.45			신흥2리	3.55	
	가시리	4.45			가시리	4.55	
	신흥리	3.65			신흥리	3.90	
	온평리	3.75			온평리	3.65	
고성리	3.15	고성리	3.15				

***p<0.001

〈표 3-13〉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요인별 차이분석)

요인	마을	mean	F(sig.)	요인	마을	mean	F(sig.)
경제적 성과	낙천리	4.338	4.026*** (.000)	비경제적 성과	낙천리	3.975	7.568*** (.000)
	청수리	4.313			청수리	4.163	
	저지리	4.700			저지리	4.138	
	무릉2리	4.263			무릉2리	3.888	
	동광리	3.938			동광리	3.725	
	화순리	4.163			화순리	3.538	
	유수암리	4.225			유수암리	4.238	
	소길리	4.013			소길리	3.650	
	명도암	4.463			명도암	4.563	
	신흥2리	4.475			신흥2리	3.600	
	가시리	4.150			가시리	4.338	
	신평리	3.713			신평리	3.525	
	온평리	4.013			온평리	3.700	
고성리	4.038	고성리	3.213				

***p<0.001

〈표 3-14〉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예비 조사 대상지의 평균점수 및 순위)

요인	마을	mean	순위	F(sig.)
경제적 성과 + 비경제적 성과	낙천리	4.156	6	6.746*** (.000)
	청수리	4.238	4	
	저지리	4.419	2	
	무릉2리	4.075	7	
	동광리	3.831	12	
	화순리	3.850	10	
	유수암리	4.231	5	
	소길리	3.831	11	
	명도암	4.513	1	
	신흥2리	4.038	8	
	가시리	4.244	3	
	신평리	3.619	14	
	온평리	3.856	9	
고성리	3.625	13		

***p<0.001

4) 예비 조사 결과에 근거하는 본 조사 대상지 선정

〈표 3-14〉의 내용과 같이 예비 조사 대상지별 주민들의 사업성과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 및 순위가 도출되었으며,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에서 제주도 서부지역에 속하는 마을그룹과 동부지역에 속하는 마을그룹으로 구분하고,³⁵⁾ 마을별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본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예비 조사 대상지를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한 것은 제주도 내 기후, 지형, 토양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한라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특히, 동부와 서부의 현격한 지역적 특성차이를 보이는 부분에 크게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예비 조사 대상지의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의 구분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의 여러 요소들 즉, 기후, 지형, 토양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이러한 자연환경은 사회·문화에 유기적으로 반영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에도 동·서 장축의 길이가 약 73km, 남·북 단축의 길이가 31km, 면적이 1,825km² 밖에 되지 않는 작은 곳이지만,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동·서·남·북 각 지역별로 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의 연평균 풍속은 4.2m/s이고, 제주도 동부지역은 3.2m/s, 서부지역은 7.0m/s, 남부지역은 2.9m/s, 북부지역은 3.5m/s의 풍속을 기록하였다(〔그림 3-3〕 참조). 이와 같이 제주도는 면적이 크지 않은 곳이지만, 동·서·남·북의 지역별 풍속 차이가 현저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연평균 강수량은 1,632.6mm(우리나라 연평균 1,499.1mm)로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대 다우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주도 동부지역은 1966.8mm, 서부지역은 1,142.8mm, 남부지역은 1,923.0mm, 북부지역은 1,497.6mm를 기록하였고,³⁶⁾ 애월, 한림 등 서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연간 1,000mm 내외의 강수량을 기록했다고 하니,³⁷⁾ 제주도 동부·서부 지역 간 편차가 현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3-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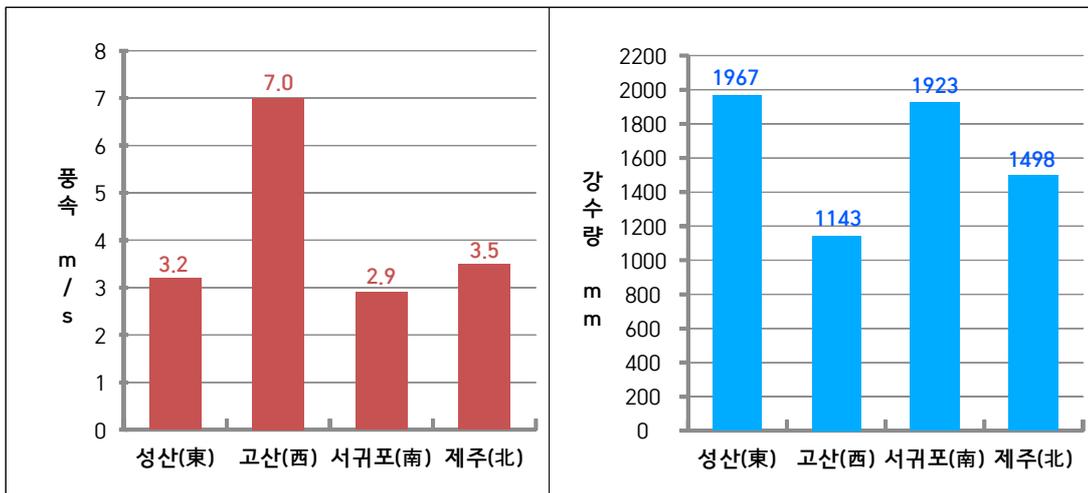
제주도 내 동·서·남·북 지역별로 토양의 화학적·물리적 성질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애월읍, 한경면, 대정읍 등 제주도 서부 지역은 육지부와 비슷한 비옥도를 보유하고 있어 육지부와 유사한 양의 벼 또는 보리의 생산이 가

35)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 서부지역에 속하는 마을그룹과 제주도 동부지역에 속하는 마을그룹을 각각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 칭한다.

36) 기상청 국내기후자료 참고(www.kma.go.kr/weather/climate/average_30years.jsp).

37) 유종인(2016), 보물섬 제주의 보물 - 강수량, 한라일보 한라시론(2016.07.07.).

능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 제주도 동부 지역은 토지 생산성이 매우 떨어져 벼와 보리와 같은 작물재배가 어렵고 겨우 피와 같은 작물만이 재배될 수밖에 없는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화학비료가 없었던 옛날에는 토양의 자체 비옥도에 의해 작물 생산량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고, 마을들도 토지 비옥도에 따라 자연스럽게 부자인 마을과 가난한 마을로 양분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토지 생산성은 과거 제주지역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영향은 당시 사회·문화에도 반영되었을 것인데(현해남, 2011 : 12-13), 제주도 동·서·남·북 특히, 동부·서부지역의 사회·문화적 차이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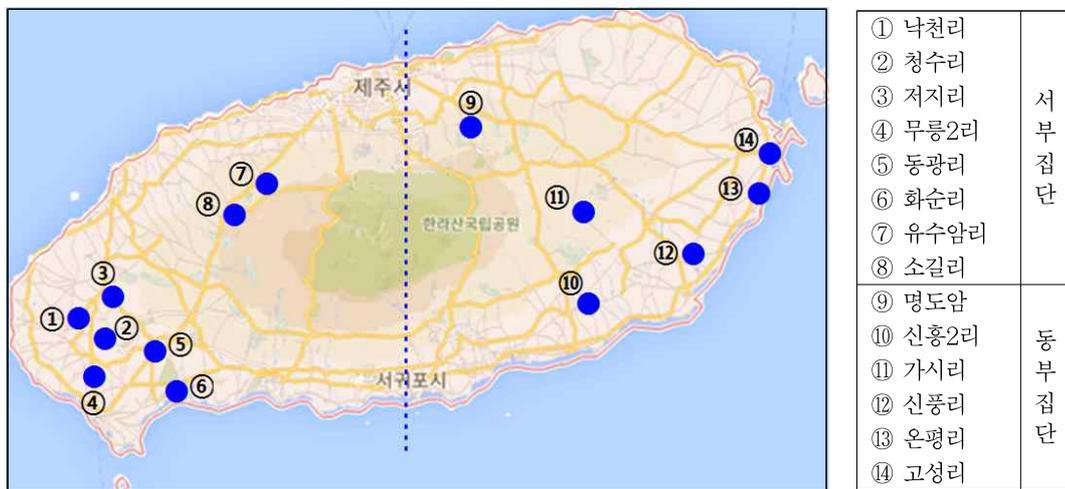
[그림 3-3] 제주도의 지역별 연평균 풍속 및 강수량

이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거에 제주도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는 토지 생산성이 높아 경제적으로 조금 더 우위에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⁸⁾ 물론, 오늘날에는 화학비료들이 고품질화되고, 농업이 선진화되면서 지역 간 토지 생산성 격차가 많이 해소되었을 것이나, 아직도

38)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제주도의 서부는 비가 많이 안 내는 지역(연평균 강수량 1,142.8mm)이고, 동부는 상당히 비가 많은 지역(연평균 강수량 1,966.8mm)이다. 이러한 강수량뿐만 아니라, 바람 등의 기후적 측면과 토지 비옥도 등 토양 환경적 측면에서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극명한 상황으로,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서부지역에서는 농작물의 수확량이 많았던 반면, 동부지역에서는 해마다 기아에 허덕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한 문화적 차이는 김매는 노래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는데, 서부지역에서는 김매는 노래로 경쾌한 음률의 '쫄른 사뭇소리(짧은 사대소리)'가 불리었고, 동부지역에서는 자신의 어려운 신세를 한탄하는 후렴구가 긴 '진 사뭇소리(긴 사대소리)'가 불리었으며, 노래의 수도 쫄른 사뭇소리보다 진 사뭇소리가 훨씬 더 많았다고 전해진다. 한편, 제사문화에 있어서도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지역과 형제 간에 나누어 지내는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는 재산상속과 많이 연관되는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비옥하여 적은 면적으로도 한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던 제주도 북·서부지역에서는 자식들에게 적은 면적이라도 나누어서 상속하는 문화가 생겼고 이에 따라 제사도 분할하게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비옥도가 낮아 토지 생산성이 떨어졌던 동·남부지역에서는 넓은 면적이라고 하더라도 장남에게만 상속하여 장남이 제사를 지내게 되는 문화가 생겨났는데,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이러한 제사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꽤 많이 남아있다(현해남, 2011 : 15-16).

그 지역만의 원초적이고 전통적인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지역 간 자연환경의 현격한 차이에 의해 항상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의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은 서부지역의 집단[(한경면 - 낙천리, 청수리, 저지리), (대정읍 - 무릉2리), (안덕면 - 동광리, 화순리), (애월읍 - 유수암리, 소길리)]과 동부지역의 집단[(봉개동 - 명도암), (남원읍 - 신흥2리), (표선면 - 가시리), (성산읍 - 신흥리, 온평리, 고성리)]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간 자연환경의 현격한 차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차이가 오늘날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을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 구분하게 되었다.



(그림 3-4) 예비 조사 대상지의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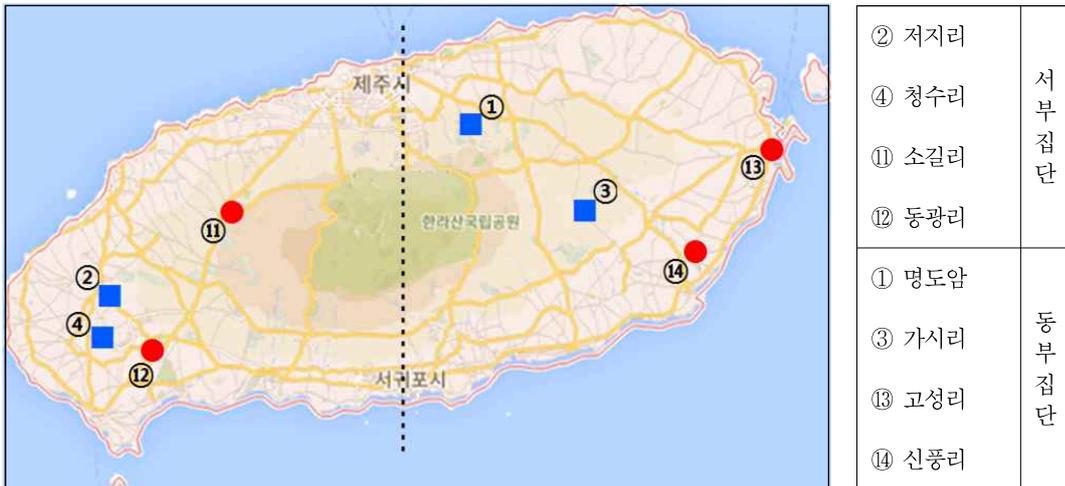
(2) 본 조사 대상지 선정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을 2가지(A안, B안)로 준비하여 검토하였는데, A안은 다음 <표 3-15>와 같이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의 각 집단별 상위 2개 마을과 하위 2개 마을을 선별하여 각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의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B안은 다음 <표 3-16>과 같이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상위 4개 마을 즉, 1~4위 마을과 하위 4개 마을 즉, 11~14위 마을을 합하여 총 8개의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표 3-15〉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A안)

요인	마을	mean	순위	대상지 선정	
사업성과 + 비경제적 성과	서부집단	낙천리	4.156	6	
		청수리	4.238	4	■
		저지리	4.419	2	■
		무릉2리	4.075	7	
		동광리	3.831	12	●
		화순리	3.850	10	
		유수암리	4.231	5	
	동부집단	소길리	3.831	11	●
		명도암	4.513	1	■
		신흥2리	4.038	8	
		가시리	4.244	3	■
		신평리	3.619	14	●
		온평리	3.856	9	
		고성리	3.625	13	●

주) ■ - 집단별 사업성과 평균점수 상위 마을, ● - 집단별 사업성과 평균점수 하위 마을



(그림 3-5)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A안)

〈표 3-16〉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B안)

요인		마을	mean	순위	대상지 선정		
사업성과	경제적 성과 + 비경제적 성과	상위집단	명도암	4.513	1	■	상위집단 4개 마을
			저지리	4.419	2	■	
			가시리	4.244	3	■	
			청수리	4.238	4	■	
			유수암리	4.231	5		
			낙천리	4.156	6		
			무릉2리	4.075	7		
		하위집단	신흥2리	4.038	8		하위집단 4개 마을
			온평리	3.856	9		
			화순리	3.850	10		
			소길리	3.831	11	●	
			동광리	3.831	12	●	
			고성리	3.625	13	●	
			신평리	3.619	14	●	

주) ■ - 집단별 사업성과 평균점수 상위 마을, ● - 집단별 사업성과 평균점수 하위 마을



〔그림 3-6〕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B안)

위의 본 조사 대상지 선정 안(A안, B안)을 살펴보면, A안의 내용을 근거로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마을((서부집단 - 저지리, 청수리, 소길리, 동광리), (동부집단 - 명도암, 가시리, 고성리, 신평리))과 B안의 내용을 근거로 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8개 마을((상위집단 - 명도암, 저지리, 가시리, 청수리), (하위집단 - 소길리, 동광리, 고성리, 신평리))이 동일하게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안과 B안의 검토 결과, 조사 대상으로 동일하게 도출된 8개 마을(청수리, 저지리, 동광리, 소길리, 명도암, 가시리, 신평리, 고성리)을 본 조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본 조사를 통한 집단별 차이 검증 시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³⁹⁾

39) A안에 의한 본 조사 대상지들의 서부·동부 집단 간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차이검증 결과, 다음 <표 A>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B안에 의한 본 조사 대상지들의 상위·하위 집단 간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차이검증 결과, 다음 <표 B>와 같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본 조사에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사업성과 인식에 있어서도 서부·동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상위·하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을 분석하는 본 조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인식차이 검증 결과가 이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본 조사에서의 연구는 사업성과에 대한 단순 검증이 아닌,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변수가 상호연계되는 복합적인 연구가 될 것인데, 오늘날까지도 제주도 서부·동부지역 간 자연환경의 현격한 차이에 따라 사회·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본다면 본 조사를 통한 복합연구에서는 서부·동부지역 간 조절효과, 매개효과 등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한 집단별 차이검증 시에는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표 A> A안에 의한 집단(서부·동부집단)별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차이 검증

구분		서부집단 (4개마을)	동부집단 (4개마을)	t	p
경제적성과	평균	4.24	4.09	1.500	0.136
	표준편차	0.53	0.72		
비경제적 성과	평균	3.92	3.91	0.087	0.931
	표준편차	0.53	0.81		

<표 B> B안에 의한 집단(상위·하위집단)별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차이 검증

구분		상위집단 (4개마을)	하위집단 (4개마을)	t	p
경제적성과	평균	4.41	3.93	5.166	0.000***
	표준편차	0.57	0.61		
비경제적 성과	평균	4.30	3.53	8.663	0.000***
	표준편차	0.56	0.57		

*** $p < 0.001$

3. 조사 설문지 구성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각 변수별 연관성이 낮은 설문 항목에 대해 정제작업을 하였다. 주민참여,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변수의 경우, 예비 조사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변수와 관련성이 부족한 문항 또는 이론구조에 맞지 않는 문항을 도출하여 삭제하였다. 나머지 사회자본 변수의 문항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아 그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와 측정도구 관련 문헌의 재확인을 통해,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 본 조사에서의 주민참여 변수는 Arnstein(1969)이 제시한 주민참여 사다리모형(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의 참여 단계 개념을 수정 보완하여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가 제시한 참여체계 모형(Participation Schemas)의 참여 단계 중 협의적 참여 단계와 협력적 참여 단계의 개념을 근거로 하는 것이다. 그 설문 문항은 조록환(2003), Liedewij van Breugel(2013), 김은아(2015), 성순아(2015), 최문형·정문기(2015), Thulile Promise Ndlovu(2016)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 맞게 협의적 참여 요인과 관련된 5개 문항과 협력적 참여 요인과 관련된 4개 문항을 합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로 구분⁴⁰하게 됨에 따라 최종 주민참여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본 조사에서의 사회자본 변수는 사회자본에 대한 Putnam(1993a; 1995)의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의 유형구분 개념을 근거로 하는 것이고, 그 설문 문항은 Pia Mwanza Chuzu(2002), 조남익(2008), 임우석(2009), 곽현근·유현숙(2011), Rojana Thammajinda(2013), 조주은(2015), 반호준(2016)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 맞게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과 관련된 6개 문항과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과 관련된 7개 문항을 합하여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다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최종 사회자본과 관련된 설문 문항은 총 2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본 조사에서의 로컬거버넌스 변수에 대한 설문 문항은 홍종득(2007), 최보희

40)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 현재 시점에 있어서, 연구 변수들의 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모형 분석 결과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통한 마을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비교 설문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4), 김재천(2015)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 맞게 로컬거버넌스 단일 요인과 관련된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사업성과 변수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송미령·성주인(2005), 안종호(2013), 윤주·최승담(2013), Liedewij van Breugel(2013), Thulile Promise Ndlovu(2016) 등의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 맞게 경제적 성과 요인과 관련된 4개 문항과 비경제적 성과 요인과 관련된 4개 문항을 합하여 총 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로 구분하게 됨에 따라 최종 사업성과와 관련된 설문 문항은 총 1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대상지 마을 주민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척도와 비율척도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설문지 구성 내용과 측정 항목은 다음 <표 3-17>의 내용과 같다.

<표 3-17>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 구성 내용 및 측정 항목

구분	잠재 변수	측정 항목		항목 수	출처
		관측변수	약칭		
주민 참여 변수	협의적 참여	·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참여 1	9	조록환(2003), Liedewij van Breugel(2013), 김은아(2015), 성순아(2015), 최문형·정문기(2015), Thulile Promise Ndlovu(2016)
		· 사업 관련 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참여 2		
		·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참여 3		
		·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에 참여함	참여 4		
		· 사업 관련 교육에 참여함	참여 5		
	협력적 참여	·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참여 6		
		·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참여 7		
		· 사업 계획·시행 과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참여 8		
		· 사업 관련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참여 9		

구분	잠재 변수	측정 항목		항목 수	출처
		관측변수	약칭		
사회 자본 변수	결속형 사회 자본	· 친지들을 신뢰함	사회 1	13	Pia Mwanza Chuzu(2002), 조남익(2008), 임우석(2009), 광현근·유현숙(2011), Rojana Thammajinda(2013), 조주은(2015), 반호준(2016)
		·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사회 2		
		· 마을의 자치규약을 잘 알고 있음	사회 3		
		· 마을의 자치규약을 잘 준수하고 있음	사회 4		
		· 마을 내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사회 5		
		·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사회 6		
	교량형 사회 자본	·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사회 7		
		·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함	사회 8		
		·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함	사회 9		
		· 지방 행정에 대해 신뢰함	사회 10		
		· 사람들을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함	사회 11		
		·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사회 12		
		·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사회 13		
로컬 거버넌스 변수	로컬 거버넌스	·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 1	6	홍종득(2007), 최보희(2014), 김재천(2015)
		·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 2		
		· 전문가그룹(자문단)의 협조가 충분함	로컬 3		
		·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동반자적(동등한) 관계로 협력함	로컬 4		
		·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 교류가 잘 됨	로컬 5		
		·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은 서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짐	로컬 6		

구분	잠재 변수	측정 항목		항목 수	출처
		관측변수	약칭		
사업 성과 변수	경제적 성과	· 마을 내 가구소득이 증가함	성과 1	8	송미령·성주인(2005), 안종호(2013), 윤주·최승담(2013), Liedewij van Breugel(2013), Thulile Promise Ndlovu(2016)
		·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성과 2		
		·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성과 3		
		·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성과 4		
	비 경제적 성과	·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성과 5		
		· 주민들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성과 6		
		·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성과 7		
		·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성과 8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고향여부, 거주기간, 직업, 학력, 가구 총소득, 리더여부		8		

4.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예비 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본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제주도 내 8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0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19일까지 57일 동안 이루어졌으며, 각 마을별로 마을회의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 문항 및 설문지 작성에 대한 요령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후 설문에 대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예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법(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method)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의 응답자들의 신중한 응답을 유도하고, 설문 응답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를 칼라 인쇄하여 배포하였으며,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8개 마을별 70부씩 총 560부를 배포하고, 편의표본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총 521부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설문지 기입에 오류가 발생한 것 등을 제외하고, 집단별 비교분석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동일한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8개 마을별 60부씩 총 4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계량화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의 리더(추진위원장, 리장 또는 사무장)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는데, 인터뷰 조사 시 현장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 보이스 레코딩을 하고 추후 레코딩된 인터뷰 내용⁴¹⁾을 기록하였다.

2) 분석방법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 확보된 480부에 대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 SPSS 18과 Amos 18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농촌관광마을의 현장에 적용하여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및 매개변수의 효과 등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집된 자료들의 전체적인 분포와 응답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표본의 편중성, 인구의 통계학적 특성 등을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 측정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변수별 요인들이 당초 설정한 것과 동일하게 묶이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후 측정 항목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는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항목 간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의 통계적 검증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확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본 조사 대상지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매개효과 등의 분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본 조사 대상지 8개 마을을 제주도 서부 4개 마을(서부집단)과 제주도 동부 4개 마을(동부집단)로 구분하고,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

41) 본 논문의 [부록 II] pp.317-332 참조.

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예비 조사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마을 주민들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본 조사 대상지 8개 마을을 상위 4개 마을(상위집단)과 하위 4개 마을(하위집단)로 구분하고,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인식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여덟째, 본 연구에서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한 인터뷰 조사의 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 레코딩한 대화내용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통해 인터뷰 대화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변수 간 영향관계 분석 등 가설 검증의 보조자료로 활용하였고, 농촌관광마을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분석절차 및 방법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 각각의 연구모형에 적용하여 시행하였다.

제3절 연구대상지

1. 연구대상지 선정

앞의 제2절 제1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오늘날 농촌지역에서 정부 농촌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주도형 상향식 농촌관광개발 방식의 대표적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농촌관광마을사업과 연관되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는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들로 한정하였다. 근래 귀농·귀촌을 통해 이주민이 점차 증가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의 농촌지역 중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들을 그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15개 마을 중 최근 2016년에 지정되어 분석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 1개 마을(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을 제외한 14개 마을을 예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⁴²⁾ 제주도 내 전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구의 예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함으로써 도내에서의 일반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제2절 제2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2가지 안(A안, B안)으로 준비하여 검토하였다. A안은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의 각 집단별 상위 2개 마을과 하위 2개 마을을 선별하여 각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의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B안은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상위 4개 마을 즉, 1~4위 마을과 하위 4개 마을 즉, 11~14위 마을을 합하여 총 8개의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다. 2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A안과 B안을 통해 선정한 본 조사 대상지 마을들이 동일하게 도출됨에 따라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본 조사 대상지 8개 마을을 최종 선정하였다.⁴³⁾

42) 본 논문의 p.115 참조.

43) 본 연구의 본 조사 대상지 8개 마을 : 청수리, 저지리, 동광리, 소길리, 명도암, 가시리, 신흥리, 고성리 (본 논문의 pp.129-132 참조).

2. 조사 대상지 개요

1) 청수리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청수리는 제주시내에서 약 45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내에서 약 34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한경면 저지리, 서쪽으로는 한경면 낙천리, 남쪽으로는 한경면 산양리와 접해 있으며, 서귀포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체면적은 719ha로 그 중 밭이 239ha, 과수원이 32ha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리·콩 농사 등 밭농사와 감귤농사, 시설영농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청수리에서 생산되는 감귤은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최고 가격을 받는 작목으로 지역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일조량이 풍부하고 배수가 원활한 지형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청수리는 ‘맑고 깨끗한 물’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지명으로, 지명에 걸맞게 친환경 농업경영과 꽃자왈 보전 등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자연보호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형적으로 산간마을의 특성을 띠며 고지대에 위치하여 눈과 비가 많은 편이다.⁴⁴⁾

2017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716명으로, 2006년의 인구수 477명에 비해 23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제주특별자치도, 2017),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유입되어 젊은 층이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래 제주지역으로의 이주 열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마을 내 교육시설로는 저청중학교가 있고, 인근 저지리에 위치한 저청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중학교까지는 마을 내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부터는 제주시내에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내 의료시설은 청수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간단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인근 면소재지와 제주시내의 병원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가마오름, 이계오름, 꽃자왈 등의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제주평화박물관이 입지해 있으며, 인근에 방림원, 저지 예술인마을, 생각하는 정원, 유리의 성, 오설록 녹차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 꽃자왈 도립공원 등의 많은 관광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44) 청수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3511>) 참고.

45)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마을안에 서서』, pp.70-79.

청수리는 2007년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을 시작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발을 들여놓았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어서 인근 4개 마을(청수리, 저지리, 낙천리, 산양리)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추진한 옷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7년 - 기본계획, 2008년~2012년 - 사업시행)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권역사업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 참여한 결과, 2010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외부에 마을이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마을 내 주민들의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2016년에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농촌관광, 복지, 농업의 분야를 정보통신기술과 융·복합하는 시도를 하여 정보화 시대의 농촌관광마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7년 6~7월에는 제1회 청수리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를 진행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무리됨으로써 향후 명품 농촌관광마을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7) 청수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카페(<http://cafe.naver.com/jejuchonvillage>) 참고.

청수리는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꽃자왈생태체험, 승마체험, 도예체험, 석부작체험, 압화체험, 캠핑체험 등이 있고, 이러한 체험프로그램들의 운영은 대부분 부녀회, 청년회에서 순번을 정해 참여하고 있고, 축제와 같은

마을전체 행사를 위해서는 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 같이 어우러지고 있다. 2016년도에는 약 15,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꽃자왈 반딧불이 축제 등을 통해 더 많은 방문객들이 권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 저지리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한 저지리는 제주시내에서 약 40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55분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내에서 약 34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쪽으로는 한경면 청수리와 접해 있으며, 서귀포시 안덕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전형적인 중산간 마을이지만 마을 내외의 관광지 개발과 국제영어교육 도시 조성, 그리고 신화역사공원의 조성 등으로 최근 지방도가 확장되고 개설되면서 교통 여건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체면적은 1,580ha로 그 중 밭이 340ha, 과수원이 215ha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수농사의 비중이 가장 크다. 마늘, 콩, 브로컬리, 참깨, 딸기 등의 밭작물 재배가 활발하고, 시설과 수로는 비가림감귤, 한라봉, 천혜향, 키위 등을 재배하고 있다.

조선 숙종때 그린 「탐라순력도」에 '당지'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 설촌된 것으로 추정되며, '당모루'라는 명칭을 시초로 하여 마을이 변성한 이후 용달리, 계릉리, 명학리, 계지리 등으로 칭해오다가 18세기 초부터 저지리로 개명되었다.

저지리는 전형적인 산간마을로, 한경면의 마을 중 한라산에 가장 가까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고지대 산간마을인 관계로, 서부지역 중에서도 비나 눈이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1,162명으로, 2006년의 인구수 1,040명에 비해 122명 증가하였는데(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는 근래 제주지역으로의 귀농·귀촌 열풍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 내 교육시설로는 저청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이 있고, 인근에 저청중학교가 있어서 중학교까지는 마을 내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부터는 주로 제주시내의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의료시설은 저지 보건진료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고, 인근 면소재지와 제주시내의 병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저지악, 송아오름, 마중오름, 새오름, 꽃자왈 등의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예술마을답게 방림원, 생각하는 정원, 유리의 성 등의 관광지가 입지해 있으며, 인근에 오설록

녹차단지, 신화역사공원, 제주 꽃자왈 도립공원 등의 유명 관광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저지리는 2003년 저지예술정보화마을 조성을 시작으로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 2007년 저지지구 전원마을, 2007년~2009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2010년 자연생태우수마을 생태체험사업을 시행하였고, 인근 4개 마을(저지리, 청수리, 낙천리, 산양리)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추진한 옷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7년 - 기본계획, 2008년~2012년 - 사업시행)을 추진하였다. 201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체류형 체험과 향토음식점, 농산물 판매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름다운 마을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2007년에 저지오름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대상을 수상하였고,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그 후 2011년과 2013년에도 계속하여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재지정되었다. 옷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에도 권역의 일원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2010년 정부에서 실시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처럼 저지리는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관광마을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아 왔으며, 지금 현재도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정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 있다.⁴⁶⁾

저지리는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고, 정보화마을의 회원들, 생활개선회, 저지리 영농회 등 여러 단체 및 영농조직에서도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림 3-8] 저지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저지리 홈페이지(<http://jeoji.invil.org>) 참고.

46)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마을안에 서서』, pp.62-69.

저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천연염색, 고구마캐기, 방울토마토따기, 보리쿠키만들기, 천혜향비누만들기, 된장만들기, 삼색수제비만들기, 꽃자왈체험 등이 있고, 개별농가 별로 딸기를 테마로 하여 딸기따기, 딸기잼만들기, 딸기송편만들기체험 등의 건강 먹거리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약 5,9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자연생태마을의 이미지로 점점 알려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생태체험 농촌관광을 위해 찾는 방문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3) 동광리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동광리는 서귀포시내에서 약 24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35분 정도 소요되고, 제주시내에서 약 33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광리는 동쪽으로 안덕면 상천리, 남쪽으로 안덕면 서광서리, 북쪽으로 한림읍 금악리와 접하여 경계를 이루면서 도로변을 따라 형성된 중산간 마을로, 본동과 양잠단지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평화로(지방도 1135호)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제주시 한림읍과 서귀포시내, 대정읍 및 안덕면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인근에 국제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전체면적은 1,576ha로 그 중 밭이 231ha, 목장이 321ha를 차지하고 있다. 동광리는 고지대 산간마을로, 서늘한 기후와 고랭지 여건에 맞게 주요 농산물로 감자와 콩, 메밀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고, 넓은 초지를 활용하는 축산업이 발달하여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지금으로부터 360여 년 전 마을이 형성되었고, 한때 광청리로 불리다가 1839년 동광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4·3사건 때 큰 피해를 입고 해변마을로 분산 이주해 지내다가 1953년 마을 터를 재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537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531명에 비해 6명 증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지금까지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근래 제주도로 귀농·귀촌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주변 국제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이 조성되면서 점차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을 내 교육시설로는 당초 서광초등학교 동광분교가 있었으나 2009년 3월에 폐교됨에 따라 마을의 아이들은 인근에 위치한 서광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 그리고 면소재지에 위치한

안덕중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부터는 주로 서귀포시내 또는 제주시내의 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별도 의료시설은 없고, 인근 마을 서광동리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주로 인근 면소재지와 제주시내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원물오름, 북오름, 도너리오름, 무악오름, 밝은오름, 감낭오름, 당오름, 괴수치오름, 꽃자왈 등의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그리고 4·3 잃어버린 마을 무등이왓 표석과 삼밭구석 표석 등 4·3 잃어버린 마을 유적지, 제주 4·3의 참극을 알린 영화 '지슬'의 촬영지인 큰넓궤, 작은넓궤, 할망당, 돌다리 등 역사문화자원도 풍부한 편으로, 특히 동광리 4·3 유적지는 생생한 평화와 인권교육의 공간으로 부각되면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대표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신화역사공원, 오설록 녹차단지, 제주 꽃자왈 도립공원, 유리의 성, 생각하는 정원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입지해 있다.⁴⁷⁾

동광리는 2004년 전국 최초 태양광 시범마을로 지정되었고, 가구당 2~3kw로 태양광 시설이 구축됨으로써 마을주민들이 혜택을 보았다. 전국 최초 태양광 시범마을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견학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고, 취재를 위해 국내외 방송국에서도 찾아왔었지만, 이를 마을 내 체험이나 관광 등과 연계시키지는 못했다. 2006년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의 추진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2011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으나, 특정 시기의 농산물 수확체험 이외에는 체험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후 2015년에 JDC에서 지원하는 마을공동체사업,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창고 숙박시설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하였으며, 향후 산간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하여 축산업뿐 아니라 약초재배를 통해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이다.⁴⁸⁾

동광리는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동광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콩깍기, 캠핑, 폐교(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자센터)활용 숙박, 오름탐사, 역사문화탐방 등이 있고, 최근에는 대학교 M.T 장소 관계로 문의가 많아지고, 인근에 국제영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서 방문자센터의 운동장 사용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2016년도에는 약 2,9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점차 평화와 인권의 교육 장소로, 역사문화탐방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어서

47) 동광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4406>) 참고.

48)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마을안에 서서』, pp.118-125.

앞으로 특히 학생들의 방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이러한 다크 투어리즘과 기존의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여 융합한다면 더욱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9) 동광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카페(<http://cafe.naver.com/jejuchonvillage>) 참고.

4) 소길리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소길리는 제주시내에서 약 18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내에서 약 38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소길리는 평화로를 중심으로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위치해 있으며, 북동쪽으로 장전리, 북서쪽으로 용흥리, 서쪽으로 상가리, 동쪽으로 유수암리와 접해있는 중산간 마을로, 본동과 윤남동 두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와 평화로(지방도 1135호)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며 평화로를 경계로 북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이고, 남쪽은 마을공동목장, 오름 및 조림지역 등으로 구분된다.

소길리의 지형은 대부분 완경사형 구릉지로 형성되어 있고, 남고북저, 동고서저의 계단상 지형을 보이고 있으며, 마을공동목장 및 오름지역이 대체로 높은 곳에 위치한다. 중산간 마을 중에서도 토질이 비옥한 편으로, 비료 사용이 없던 때에는 타 마을에 비해 농업소득도 높은 편이었다.

마을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나 남고북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북쪽과 남쪽의 기후 차이가 심한 편으로, 남쪽의 목장지대에는 북쪽의 주거지역에 비해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철 눈이 많이 내린다.

소길리의 전체면적은 1,360ha로 그 중 밭이 83ha, 과수원이 48ha, 임야가 1,007ha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 콩, 참깨, 기장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외 조와 팥도 일부 생산하고 있으며, 노지감귤과 한라봉 등 과수농사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 한우,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마을공동목장(35ha)이 있어서 우마(牛馬)를 방목하고 있으며, 임대 등의 형태로 운영·관리하고 있다.

소길리의 설촌 연대는 기록이 없으나, 약 500년 전 지금의 속칭 좌랑못 부근과 신산마루 부근에 이미 산발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기록상으로는 탐라순력도(1702년)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마을이 형성된 것은 17세기 이전의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18세기 중반에 牛路里(우로리 : 쉼질마을)로 표기하였고, 19세기 초반부터 '쉼질마을'의 한자 차용 표기를 좋은 뜻을 가진 召吉里(소길리)로 표기하여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⁴⁹⁾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526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339명에 비해 187명 증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는 최근 불고 있는 제주 이주열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유명 가수 장필순, 이효리 등이 소길리로 이주해 오면서부터 마을이 유명해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마을 인근의 교육시설로는 장전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이 있어서 초등교육까지는 마을 인근에서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은 애월읍 또는 제주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의료시설은 없어서 인근 마을 장전리와 유수암리의 보건진료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주로 인근 애월읍과 제주시내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검은덕이오름, 녹고뒤편오름, 거릿못, 좌랑못, 소길공동목장 등의 자연생태 및 경관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석관묘, 당뱃할망당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마을 내 프시케월드 테마파크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제주경마공원, 제주공룡랜드, 항몽유적지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입지해 있다.

소길리는 인근 3개 마을(소길리, 장전리, 유수암리)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추진한 녹고뒤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9년 - 기본계획, 2010년~2014년 - 사업시행)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권역사업 추진 중 2011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해에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제주도에 올레길 걷기 열풍이 한창이던 때와 맞물려 2011년 10월 녹고뒤편 쉼질(牛路) 걷기이벤트를 통해 마을이 많이 홍보되었고, 그 이후에도 마을 차원의 농촌관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험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이 자주 바뀌는 등 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비해 체험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편이다.

49) 한국농어촌공사(2009), 『녹고뒤편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참고.



[그림 3-10] 소길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사)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카페(<http://cafe.naver.com/jejuchonvillage>) 참고.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소길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천연염색, 소라양초만들기, 쉐질걷기 체험 등이 있다. 2016년도에는 약 3,1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점차 알려지고 있는 마을의 위상처럼 소길리 농촌관광마을의 발전을 위한 마을 주민들의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 보인다.

5) 명도암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명도암은 제주시내에서 약 11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서귀포시내에서 약 32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4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명도암은 동쪽으로 회천동, 서쪽으로 용강동, 남쪽으로 조천읍 교래리와 접하여 경계를 이루면서 해발 200~600m 고지에 자리잡은 조용하고 아늑한 마을이다. 제주시내에서는 번영로(지방도 97호)를 이용하여 진입이 용이하며, 서귀포시내에서는 5.16도로(지방도 1131호)또는 남조로(지방도 1118호)를 이용하여 진입이 용이하다. 번영로가 확장되면서 마을로의 교통 접근성이 더 좋아졌고, 제주시내에서 가깝다는 점은 타 농촌관광마을들에 비해서 가지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기후는 고지대의 특성상 서늘한 편이고, 서부지역과 비교하면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의 전체면적은 443ha로 그 중 밭이 217ha, 과수원이 226ha를 차지하고 있다. 명도암마을은 1970년대까지 누에고치와 담배를 많이 재배하고, 주로 목축업을 했었지만, 1990년대 초부터 대부분 열무, 알타리, 배추, 시금치 등 고랭지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명도암마을은 1604년경 조선시대 유학자인 명도암 김진용 선생이 마을에 거주하는 동안 유학을 전파하면서 마을 이름을 명도암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예로부터 명도암오름과 명도암 물 일대에 사람들이 들어와 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하며, 적어도 조선 중기부터 명도암, 명도암으로 부르고, 명도암(明道庵) 또는 명도암(明道菴)으로 표기하기도 하나, 오늘날에는 명도암(明道岩)이라고 부르고 있다.⁵⁰⁾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302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301명에 비해 1명 증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지금까지 인구수가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마을에 신축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마을로 귀촌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을 내 교육시설로는 사립 선도어린이집이 있고, 인근 봉개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에서 초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등교육을 위해 제주시내의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별도 의료시설은 없고, 제주시내와 근거리에 위치하여 주로 제주시내의 병원과 제주시내의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다.

인근에 안새미오름, 밭새미오름, 열한지오름, 칠오름, 개오름, 거친오름, 절물오름, 민오름, 노루생태관찰원, 절물자연휴양림, 사려니숲길 등의 자연생태자원이 풍부하고, 제주 4·3을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4·3 평화공원'이라는 큰 역사문화자원이 있다. 명도암관광목장, 라헨트 리조트, 명도암 유스호스텔, 청소년 야영장, 한화리조트 등의 관광지도 인근에 입지해 있다.

이전의 명도암은 산간의 오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다. 마을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았으며,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이 많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다시 귀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나, 귀향한 리더들은 언젠가 FTA를 통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이에 마을 리더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준비하게 되었고, 그 시작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행정과의 신뢰, 주민들 간의 신뢰를 쌓아가면서 차근차근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였다.⁵¹⁾

2007년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닦았고, 이때부터 '명도암 참살이마을'로 불리게 되었는데, 여기서의 참살이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한다. 2008년 농촌전통테마마을 2차사업을 추진하였고, 같은 해에 제주시 베스트 특화마을 최우수마을로 선정되었다. 2009년 환경부로부터 자

50)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참고.

51) 명도암 참살이마을 추진위원장 인터뷰(2017.07.05. 오전 9시).

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국립 축산과학원에서 시행하는 푸른농촌 희망찾기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0년 제주도 6차산업 베스트마을로 선정되었다. 2011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고, 2012년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선정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주시 특화마을로 재선정되었다. 2013년 농촌전통테마마을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 커뮤니티비즈니스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에서 가족여행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에 선정되었다. 이와 같이 명도암마을은 2007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하여 차근차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명도암마을회 하부 조직으로 참살이마을 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있고, 운영위원장을 중심으로 하여 기획팀(사무국), 감사팀, 김치팀, 장류팀으로 구성되어 각 팀별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⁵²⁾



(그림 3-11) 명도암마을 체험프로그램

자료 : 명도암마을 운영사례 2017년 발표자료 참고.

명도암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채소류를 이용한 김치 체험, 320m 고지의 자연조건을 이용하는 장류 체험이 있고, 보조 체험프로그램으로 천

52)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마을안에 서서』, pp.38-53.

연염색, 나무곤충만들기, 색깔수제비만들기, 제기만들기, 즉석고추장만들기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개별 농가에 연계하여 도자기만들기, 양먹이주기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약 11,4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체험교육과 인성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향후 학생들의 방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더욱 보완하여 경쟁력을 키워간다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6) 가시리

서귀포시 표선면에 위치한 가시리는 서귀포시내에서 약 28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고, 제주시내에서 약 35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가시리는 녹산로를 중심으로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성읍리, 동남쪽으로 하천리, 남쪽으로 세화 1리, 남서쪽으로 남원읍, 북쪽으로 제주시 조천읍과 접해있는 중산간 마을로, 6개(본동, 두리동, 안좌동, 폭남동, 역지동, 생기동)의 자연 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시내에서는 번영로(지방도 97호)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며 서귀포시내에서는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 또는 서성로(지방도 1119호)를 이용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를 경계로 북서쪽의 대부분은 오름, 마을공동목장 지역이고, 남동쪽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마을의 표고는 240~400m가 46%, 80~240m가 42%를 차지하여 고지대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북에서 남에서 경사를 이루는 대평원지대이다.

마을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나 고지대, 제주도 동부지역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일조율이 낮은 편이고,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 편이다.

가시리의 전체면적은 5,602ha로 그 중 밭이 573ha, 과수원이 169ha, 목장이 1,474ha, 임야가 2,920ha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 감귤, 콩, 무, 더덕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외 당근, 감자, 키위, 브로컬리, 참깨 등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말, 한우,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마을공동목장(750ha)이 있어서 우마(牛馬)를 방목하고 있으며, 그 외 기업목장(233ha)이 위치해 있다.

가시리는 1392년 고려 말 충신 한천이 이조 개국에 불복하여 제주에 유배되고 가시리에 정착하여 설촌하면서 가시오름마을이라 칭하였다고 전해진다. 1948년 4·3 사건으로 마을이

폐허가 되었고, 1945년 5월 4·3 사태의 진압으로 마을이 재건되기 시작했으며, 1962년 정부 지원을 통해 생기동에 문화촌이 형성되고 집단이주하여 지금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었다.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1,231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1,175명에 비해 56명 증가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 2017). 최근 제주로 이주하는 외지인들이 많아지면서 가시리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며, 향후 귀농·귀촌 열풍으로 더욱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을 인근의 교육시설로는 한마음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이 있어서 초등학교까지는 마을 인근에서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은 표선면 소재지 또는 제주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의료시설은 리사무소에 위치한 가시보건진료소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대부분 표선면 소재지의 보건소와 병원 또는 서귀포시내 및 제주시내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가문이오름, 갑선이오름, 따라비오름, 대록산, 소록산 등 총 13개의 오름과 행기머체(크립토 돔),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가시공동목장 등의 자연생태 및 경관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가시리설오름방묘(도 지정 기념물), 청주한씨 방묘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마을 내 정석항공관이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표선해수욕장, 성읍민속마을, 제주민속박물관, 허브동산 등 유명 관광지가 입지해 있다.⁵³⁾

가시리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2009년~2011년)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9년 - 기본계획, 2010년~2014년 - 사업시행)을 통해 주민들이 농촌관광마을 조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12년에는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해 조랑말체험장, 조랑말캠핑장을 조성하였고, 행정안전부의 친환경경생활공간조성사업 등을 통해 갑마장길을 정비하였으며, 같은 해에 색깔있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몽골천막 야영장을 조성하였다. 2013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통해 통나무 게스트하우스를 신축하였고, 조랑말체험공원 체험시설을 보강하였으며, 같은 해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⁵⁴⁾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공동목장 조합장, 공동목장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53) 한국농어촌공사(2009), 『가시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참고.

5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jumaetul.or.kr>) 참고.



[그림 3-12] 가시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홈페이지(www.welchon.com), 희망을 가꾸는 농어촌마을 이야기 카페 (<http://cafe.daum.net/nongchon1000>) 참고.

가시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승마, 오름탐방, 말똥쿠키만들기, 천연스킨만들기, 야생차만들기, 천연염색 등이 있다. 2016년도에는 약 63,00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으며(한국농어촌공사, 2017), 지금까지 노력하여 이루어놓은 농촌관광마을의 기반을 잘 관리하고, 성숙한 공동체문화를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신평리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신평리는 서귀포시내에서 약 33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제주시내에서 약 35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신평리는 한라산을 기준으로 남동부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신산리, 서쪽으로 하천리, 남쪽으로 신천리, 북동쪽으로 삼달리, 북서쪽으로 성읍리와 접해있는 마을로, 본동과 큰개동 등 2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져 있다. 서귀포시내에서는 중산간도로(지방도 1136호) 또는 서성로(지방도 1119호)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며, 제주시내에서는 변영로(지방도 97호)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다. 신평리는 성산읍 소재지인 고성리까지 약 12km의 거리에 위치하고, 표선면 소재지인 표선리까지 약 5.5km의 거리에 위치하

고 있는데, 표선리까지의 거리가 더 가깝다보니 행정구역 상 성산읍에 속해있지만, 생활권은 표선면에 속하는 마을이다.

북고남저의 계단상 지형을 보이는 마을로,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길게 위치한 신평리는 지형상 가운데에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북서쪽에 목장, 조림지역이 위치하며, 주로 가운데에서 남동쪽으로 밭과 과수원이 분포하고 있다.

마을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나 북고남저의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마을 내에서도 남쪽과 북쪽의 기후 차이가 있어서, 남쪽 해안지대보다는 북쪽 중산간 지역에 가까울수록 비와 눈이 많이 내리는데, 제주도 서부지역과 비교하면 비와 눈이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평리의 전체면적은 824ha로 그 중 밭이 257ha, 과수원이 69ha, 목장이 41ha, 임야가 334ha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농산물로 무, 콩, 감자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 외 더덕, 콜라비, 참깨, 브로콜리도 일부 생산하고 있다. 과수농사로는 감귤농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 참다래 농사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우, 돼지 등 가축을 일부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고, 반농반어촌의 특성상 어촌계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업을 겸하는 가구도 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양식장이 분포되어 있는데, 양식장 주요어종은 광어이고, 복어, 참조기, 농어, 오분자기 등 원가가 높고 수요가 많은 어종을 중심으로 하여 양식하고 있다.

마을에 고려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전해지지만, 문헌상으로 신평리는 조선시대부터 기록되었다. 세종 5년(1423년) 정의현의 치소(治所)가 성산읍 고성리에서 표선면 성읍리로 옮겨지면서 향리들이 식수가 풍부하고 관아와 가까운 신평리의 천미천 동서쪽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16세기 초에 신평리는 신천리, 하천리와 함께 내(川)의 끄트머리라는 뜻을 가진 '내끼'라고 불리다가, 조선 후기 고종 10년(1872년)에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신평리'로 불리게 되었다(신평리, 2006 : 158-162; 제주특별자치도, 2012 : 100-101).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658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569명에 비해 89명 증가하였는데(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는 대체적으로 최근 붙고 있는 제주 이주열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2002년부터 추진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통해 '어멍아방 잔치마을'이라는 마을 브랜드가 홍보된 일부의 결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인근의 교육시설로는 신천리에 위치한 풍천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이 있어서 초등학교까지는 마을 인근에서 교육을 받고, 중등교육은 성산읍 또는 제주시내, 서귀포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다.

마을 내 의료시설로는 마을 내에 신평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이 곳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주로 인근 성산읍 고성리와 표선면 표선리에 위치한 의료기관 또는 제주시내, 서귀포시내의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남산봉, 걸리오름, 포제동산, 사전이뭇, 사장터뭇, 설문대할망 테마공원, 제주올레 3코스 등의 자연생태 및 경관자원이 풍부한 편이다. 현씨 일월당, 고칫당, 검은데기 불턱, 천미연대, 6.25 참전비 및 충혼비 등의 역사문화자원이 있고, 마을 인근에 김영갑 갤러리, 성읍민속마을, 표선민속촌, 미천굴, 혼인지, 표선해수욕장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입지해 있다.

신평리는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추진하였고, 다음 해인 2003년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다. 신평리는 은혼식과 금혼식을 올리는 문화가 계승되어 왔는데, 마을 청소년 수련원 운영 초기에 수련원에서 동네 할아버지·할머니가 전통 혼례를 진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어멍아방 잔치마을’이라는 브랜드가 탄생되었다. 이후 마을의 전통 초가집이 도로 개설 등으로 사라지게 될 상황에 처하자 마을 주민들이 전통 초가집을 체험장으로 이설하여 보존하는 등의 노력을 할 정도로 그 열정은 대단했다고 한다. 2004년 농협에서 추진하는 ‘우수 팜스테이 마을’로 지정되어 농가, 전통 초가집, 청소년 수련원 등을 이용하는 체류형 농촌관광사업을 병행 추진하였고, 2006년 최우수 팜스테이 마을로 선정되었다. 2007년 서귀포시의 자립마을 육성사업을 유치하여 전통초가 게스트하우스 조성을 위해 힘썼고(제주특별자치도, 2012 : 103-105), 최근에는 인근 2개 마을(신평리, 신천리)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추진하는 어멍아방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2014년~2018년)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마을 내에 ‘어멍아방 농촌 유학센터’를 설립하여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성숙한 농촌관광마을로의 정착을 계획하고 있다.



[그림 3-13] 신평리 체험프로그램

자료 : 어멍아방잔치마을 홈페이지(<http://jeju.go2vil.org>) 참고.

신평리는 마을 리장,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농촌유학센터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다. 신평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전통초가생활 체험, 어멍아방잔치 체험, 향토음식 체험, 전통문화 체험, 농사 체험, 낚시 체험 등이 있다. 마을을 찾은 방문객은 2009년 약 5,000명, 2010년 약 7,000명, 2011년 약 10,900명으로 계속 방문객이 증가하다가 2012년 약 5,600명으로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이전에 비해 방문객이 더 줄어들었다고 한다(제주특별자치도, 2012 : 106). 인근 지역에서의 제2공항 건설 등 최근 사회적 이슈들과 연계하여 공동체 참여가 이전만 못하다는 목소리도 들려오는 요즘, 처음 농촌관광마을의 조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했던 중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8) 고성리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고성리는 서귀포시내에서 약 45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고, 제주시내에서 약 41km의 거리에 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고성리는 성산읍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동쪽으로 성산리, 동북쪽으로 오조리, 서북쪽으로 수산리, 서남쪽으로 온평리와 접해있는 마을로, 3개의 자연마을(큰동네, 장만이동, 동남동)로 이루어져 있다. 서귀포시내에서는 서성로(지방도 1119호)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며 제주시내에서는 변영로(지방도 97호)와 금백조로를 이용하여 마을로 접근이 용이하다. 고성리는 성산읍 소재지로, 주민들의 대부분은 읍사무소 주변 변화가와 섭지코지 입구 주변에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농경지 등이 분포하고 있다.

고성리는 서고동저의 지형에 대부분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산간 쪽으로 갈수록 암반의 비율이 높아지며, 주 토질은 화산회토이다. 기생화산인 대수산봉(137.3m)이 위치하며, 산 정상에서는 섭지코지와 성산일출봉, 우도, 지미봉 등이 내려다보인다.

마을의 기후는 대체로 온화한 편이나 제주도 동부지역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고, 습도가 높은 편이며, 동쪽 끝 해안지대에 위치하여 한라산의 영향을 덜 받는 입지적 조건으로 인해 다른 동부지역의 마을들보다 북서풍의 영향을 더 세계 받는 편이다.

고성리의 전체면적은 560ha로 그 중 밭이 116ha, 과수원이 135ha, 임야가 186ha를 차지하고 있다. 고성리의 농가비율은 12.0%로, 서귀포시의 농가비율 24.5%, 성산읍의 농가비율 37.1%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으로, 이는 산업구조 상 상업인구가 많은 읍소재지 또는 도시형 시골마을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구조 상 과거에는 주로 조, 보

리, 콩과 고구마를 수확하였으나, 최근에는 토질의 조건에 맞게 무, 당근, 유채 등의 농사를 주로 짓고 있다. 도내 타 마을들과 유사하게 감귤 과수원을 조성한 곳들도 있으나, 서귀포 남부지역 등 감귤농사 적지에 비해서는 질적인 면에서 뒤지는 형편이다. 그리고 반농반어촌인 고성리는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수산물로는 소라, 성게, 톳, 감태 등이 있다.⁵⁵⁾

고성리는 1200년대 고려 말기 현씨가 들어와 살면서 형성되었으며, 17세기 말 ‘탐라도’에 고성촌이 등장하고, 18세기 초 ‘탐라지도’에도 고성리가 확인된다. 고려조 원종 때 삼별초군의 김통정·유재섭 장군이 상륙하여 방어시설을 갖추기 위해 석성(石城)을 마을주위에 쌓아 이를 백산성(白山城)이라 했는데, 조선 초기 정의현의 읍성을 이곳에 처음 세웠다가 성읍으로 옮겼기 때문에, ‘고성’이라는 명칭이 붙었고, 조선조 태종 2년 정간(鄭幹)목사가 옛 성터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고성리’라고 이름지었다고 한다.⁵⁶⁾

2016년 말 현재 마을의 인구수는 3,414명으로, 2006년의 인구 수 3,352명에 비해 62명 증가하였는데(제주특별자치도, 2017), 이는 얼마 전까지 이농·이촌으로 인해 마을의 인구수가 줄어들다가 제주 이주열풍으로 오히려 외지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

마을 내의 교육시설로는 동남초등학교와 부설유치원, 성산중학교가 있어서 중학교까지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는 인근 성산읍내, 표선면내, 서귀포시내 또는 제주시내로 통학하고 있다.

마을 내 의료시설로 성산보건지소가 있어서 간단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읍 소재지인 만큼 각종 병의원들도 위치해 있으며, 다수의 약국들도 위치하고 있어 보건·의료시설은 타 마을들에 비해 많은 편이나, 종합병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주로 제주시내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마을 내에 대수산봉, 소수산봉, 광치기해안 등 자연생태·경관자원이 위치해 있고, 고정의현 성터, 대수산봉 봉수 터, 포제단, 군위오씨 입도선묘, 테우리코사, 귀포코사, 포제 등의 역사 문화자원이 존재한다. 마을 내 고성오일시장, 섬지코지, 신양섬지해수욕장, 아쿠아플라넷, 휘닉스파크가 위치해 있고, 인근에 성산일출봉, 말미오름, 성산포 조가비박물관, 혼인지 등의 유명 관광지가 입지해 있다.

55) 고성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4304>) 참고.

56)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참고.

57) 고성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추진위원장 인터뷰(2017.07.05. 오후 1시 30분).

고성리는 2012년 제주도로부터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 육성사업을 지원받아 게스트하우스 시설을 추진하면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2014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되었다. 2016년~2018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적마을만들기를 통해 방문자체험센터, 전기충전시설, 전기자전거 및 안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제주도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일출봉 주변 녹지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과 연계하여 향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마을 리장, 마을 사무장, 부녀회장, 청년회장, 노인회장 등 리더그룹을 중심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이끌어가고 있고, 2016년도에는 약 7,250명 정도의 방문객이 마을을 찾았다(한국농어촌공사, 2017). 지금 마을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게스트하우스의 숙박 체험사업이 유일한데, 성산읍내에 저가 숙박시설들이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고성리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유일한 프로그램인 숙박 체험 사업마저 어려운 여건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녹지공간조성사업 등과 연계하여 고성리만의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내어 주변 유명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마을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과 전문가, 지자체 행정과의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중요하며, 무엇보다 마을의 주민공동체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장 실증분석 및 연구의 함의

제1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앞의 제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예비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총 521부의 설문을 회수하였는데,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설문지 기입에 오류가 발생한 것 등을 제외하고, 집단별 비교분석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동일한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8개 마을별 60부씩 총 4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4-1>의 내용과 같다.

<표 4-1> 전체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비율%)									
	청수리 (n=60)	저지리 (n=60)	동광리 (n=60)	소길리 (n=60)	명도암 (n=60)	가시리 (n=60)	신평리 (n=60)	고성리 (n=60)	합계 (n=480)	
성 별	남성	34 (56.7)	36 (60.0)	36 (60.0)	38 (63.3)	40 (66.7)	32 (53.3)	36 (60.0)	41 (68.3)	293 (61.0)
	여성	26 (43.3)	24 (40.0)	24 (40.0)	22 (36.7)	20 (33.3)	28 (46.7)	24 (40.0)	19 (31.7)	187 (39.0)
연 령	30대 이하	11 (18.3)	8 (13.3)	11 (18.3)	2 (3.3)	3 (5.0)	2 (3.3)	6 (10.0)	1 (1.7)	44 (9.2)
	40대	13 (21.7)	7 (11.7)	23 (38.3)	14 (23.4)	14 (23.3)	19 (31.7)	16 (26.6)	11 (18.3)	117 (24.4)
	50대	27 (45.0)	23 (38.3)	13 (21.7)	15 (25.0)	17 (28.4)	25 (41.7)	22 (36.7)	17 (28.3)	159 (33.1)
	60대	5 (8.3)	17 (28.4)	9 (15.0)	20 (33.3)	18 (30.0)	11 (18.3)	9 (15.0)	26 (43.3)	115 (23.9)
	70세 이상	4 (6.7)	5 (8.3)	4 (6.7)	9 (15.0)	8 (13.3)	3 (5.0)	7 (11.7)	5 (8.3)	45 (9.4)
고 향 여 부	예	27 (45.0)	31 (51.7)	40 (66.7)	44 (73.3)	46 (76.7)	50 (83.3)	40 (66.7)	48 (80.0)	326 (67.9)
	아니오	33 (55.0)	29 (48.3)	20 (33.3)	16 (26.7)	14 (23.3)	10 (16.7)	20 (33.3)	12 (20.0)	154 (32.1)

구분	빈도(비율%)									
	청수리 (n=60)	저지리 (n=60)	동광리 (n=60)	소길리 (n=60)	명도암 (n=60)	가시리 (n=60)	신평리 (n=60)	고성리 (n=60)	합계 (n=480)	
거주기간	5년 이하	6 (10.0)	3 (5.0)	1 (1.7)	5 (8.3)	1 (1.7)	1 (1.7)	1 (1.7)	-	18 (3.8)
	6~10년	13 (21.7)	5 (8.3)	6 (10.0)	15 (25.0)	4 (6.7)	3 (5.0)	5 (8.3)	4 (6.7)	55 (11.4)
	11~15년	3 (5.0)	4 (6.7)	5 (8.3)	11 (18.3)	14 (23.3)	3 (5.0)	9 (15.0)	3 (5.0)	52 (10.8)
	16~20년	13 (21.7)	11 (18.3)	13 (21.7)	4 (6.7)	6 (10.0)	4 (6.7)	3 (5.0)	4 (6.7)	58 (12.1)
	21년 이상	25 (41.6)	37 (61.7)	35 (58.3)	25 (41.7)	35 (58.3)	49 (81.7)	42 (70.0)	49 (81.6)	297 (61.9)
직업	농어업	41 (68.4)	47 (78.3)	30 (50.0)	36 (60.0)	37 (61.7)	51 (85.0)	47 (78.3)	35 (58.3)	324 (67.5)
	자영업	3 (5.0)	7 (11.7)	8 (13.3)	2 (3.3)	13 (21.7)	2 (3.3)	1 (1.7)	19 (31.7)	55 (11.4)
	회사원	5 (8.3)	-	13 (21.7)	9 (15.0)	2 (3.3)	4 (6.7)	8 (13.3)	5 (8.3)	46 (9.6)
	전업주부	6 (10.0)	2 (3.3)	4 (6.7)	10 (16.7)	6 (10.0)	1 (1.7)	3 (5.0)	-	32 (6.7)
	기타	5 (8.3)	4 (6.7)	5 (8.3)	3 (5.0)	2 (3.3)	2 (3.3)	1 (1.7)	1 (1.7)	23 (4.8)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	-	1 (1.7)	5 (8.3)	4 (6.7)	-	5 (8.3)	3 (5.0)	18 (3.8)
	중학교 졸업	9 (15.0)	13 (21.7)	9 (15.0)	14 (23.3)	13 (21.7)	17 (28.4)	8 (13.4)	14 (23.3)	97 (20.2)
	고등학교 졸업	26 (43.3)	35 (58.3)	19 (31.7)	18 (30.0)	29 (48.3)	20 (33.3)	27 (45.0)	28 (46.7)	202 (42.1)
	대학교 졸업	25 (41.7)	11 (18.3)	31 (51.6)	22 (36.7)	14 (23.3)	21 (35.0)	18 (30.0)	15 (25.0)	157 (32.7)
	대학원 졸업	-	1 (1.7)	-	1 (1.7)	-	2 (3.3)	2 (3.3)	-	6 (1.2)
가구소득	1,500만원 이하	2 (3.3)	2 (3.3)	-	3 (5.0)	3 (5.0)	-	4 (6.6)	-	14 (2.9)
	1,500 ~3,000	15 (25.0)	8 (13.3)	7 (11.7)	16 (26.7)	23 (38.3)	4 (6.7)	10 (16.7)	14 (23.3)	97 (20.2)
	3,000 ~4,500	12 (20.0)	19 (31.7)	27 (45.0)	26 (43.3)	30 (50.0)	30 (50.0)	34 (56.7)	27 (45.0)	205 (42.7)
	4,500 ~6,000	17 (28.3)	18 (30.0)	18 (30.0)	14 (23.3)	4 (6.7)	16 (26.7)	6 (10.0)	7 (11.7)	100 (20.9)
	6,000만원 이상	14 (23.4)	13 (21.7)	8 (13.3)	1 (1.7)	-	10 (16.6)	6 (10.0)	12 (20.0)	64 (13.3)
리더여부	예	31 (51.7)	38 (63.3)	36 (60.0)	30 (50.0)	29 (48.3)	33 (55.0)	28 (46.7)	36 (60.0)	261 (54.4)
	아니오	29 (48.3)	22 (36.7)	24 (40.0)	30 (50.0)	31 (51.7)	27 (45.0)	32 (53.3)	24 (40.0)	219 (45.6)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 480명의 응답자 중 남성이 293명(61.0%)이고 여성이 187명(39.0%)으로 나타나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여성비율이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연관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김기홍, 2006), 이로 인해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설문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44명(9.2%), 40대가 117명(24.4%), 50대가 159명(33.1%), 60대가 115명(23.9%), 70세 이상이 45명(9.4%)으로 60세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3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⁵⁸⁾ 전국의 70세 이상 농가 인구가 30%, 60세 이상 농가 인구가 56.1%임을 감안하면 본 연구에서 본 조사 대상지 응답자들의 연령은 전국 평균보다 덜 고령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154명(32.1%)이 고향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어 농촌마을이 과거 집성촌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귀촌·귀농 등을 통해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서로 융화하는 공간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박용순, 2009 : 76).

거주기간은 5년 이하가 18명(3.8%), 6~10년이 55명(11.4%), 11~15년이 52명(10.8%), 16~20년이 58명(12.1%), 21년 이상이 297명(61.9%)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74%가 16년 이상 거주한 것을 확인하였고, 거주기간이 10년 이하인 응답자가 15.2%로 나타남에 따라 근래 점차 외지인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업은 농어업이 324명(67.5%), 자영업이 55명(11.4%), 회사원이 46명(9.6%), 전업주부가 32명(6.7%), 기타가 23명(4.8%)으로 나타났는데,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이 많은 농어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8명(3.8%), 중학교 졸업이 97명(20.2%), 고등학교 졸업이 202명(42.1%), 대학교 졸업이 157명(32.7%), 대학원 졸업이 6명(1.2%)으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1,500만원 이하가 14명(2.9%), 1,500~3,000만원이 97명(20.2%), 3,000~4,500만원이 205명(42.7%), 4,500~6,000만원이 100명(20.9%), 6,000만원 이상이 64명(13.3%)으로 나타났고, 3,000~4,500만원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리더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61명(54.4%)이 리더이고, 나머지 219명(45.6%)이 비리더로, 리더와 비리더의 비율이 대체로 편중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5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2017.04.14. 갱신) 자료.

이어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2>의 내용과 같다.

<표 4-2>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비율%)						
	서부집단 (n=240)	동부집단 (n=240)	합계 (n=480)	상위집단 (n=240)	하위집단 (n=240)	합계 (n=480)	
성별	남성	144 (30.0)	149 (31.0)	293 (61.0)	142 (29.6)	151 (31.5)	293 (61.0)
	여성	96 (20.0)	91 (19.0)	187 (39.0)	98 (20.4)	89 (18.5)	187 (39.0)
연령	30대 이하	32 (6.7)	12 (2.5)	44 (9.2)	24 (5.0)	20 (4.2)	44 (9.2)
	40대	57 (11.9)	60 (12.5)	117 (24.4)	53 (11.0)	64 (13.3)	117 (24.4)
	50대	78 (16.3)	81 (16.9)	159 (33.1)	92 (19.2)	67 (14.0)	159 (33.1)
	60대	51 (10.6)	64 (13.3)	115 (24.0)	51 (10.6)	64 (13.3)	115 (24.0)
	70세 이상	22 (4.6)	23 (4.8)	45 (9.4)	20 (4.2)	25 (5.2)	45 (9.4)
고향여부	예	142 (29.6)	184 (38.3)	326 (67.9)	154 (32.1)	172 (35.8)	326 (67.9)
	아니오	98 (20.4)	56 (11.7)	154 (32.1)	86 (17.9)	68 (14.2)	154 (32.1)
거주기간	5년 이하	15 (3.1)	3 (0.6)	18 (3.8)	11 (2.3)	7 (1.5)	18 (3.8)
	6~10년	39 (8.1)	16 (3.3)	55 (11.5)	25 (5.2)	30 (6.3)	55 (11.5)
	11~15년	23 (4.8)	29 (6.0)	52 (10.8)	24 (5.0)	28 (5.8)	52 (10.8)
	16~20년	41 (8.5)	17 (3.5)	58 (12.1)	34 (7.1)	24 (5.0)	58 (12.1)
	21년 이상	122 (25.4)	175 (36.5)	297 (61.9)	146 (30.4)	151 (31.5)	297 (61.9)
직업	농어업	154 (32.1)	170 (35.4)	324 (67.5)	176 (36.7)	148 (30.8)	324 (67.5)
	자영업	20 (4.2)	35 (7.3)	55 (11.5)	25 (5.2)	30 (6.3)	55 (11.5)
	회사원	27 (5.6)	19 (4.0)	46 (9.6)	11 (2.3)	35 (7.3)	46 (9.6)
	전업주부	22 (4.6)	10 (2.1)	32 (6.7)	15 (3.1)	17 (3.5)	32 (6.7)
	기타	17 (3.5)	6 (1.3)	23 (4.8)	13 (2.7)	10 (2.1)	23 (4.8)

구분	빈도(비율%)						
	서부집단 (n=240)	동부집단 (n=240)	합계 (n=480)	상위집단 (n=240)	하위집단 (n=240)	합계 (n=480)	
학 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6 (1.3)	12 (2.5)	18 (3.8)	4 (0.8)	14 (2.9)	18 (3.8)
	중학교 졸업	45 (9.4)	52 (10.8)	97 (20.2)	52 (10.8)	45 (9.4)	97 (20.2)
	고등학교 졸업	98 (20.4)	104 (21.7)	202 (42.1)	110 (22.9)	92 (19.2)	202 (42.1)
	대학교 졸업	89 (18.5)	68 (14.2)	157 (32.7)	71 (14.8)	86 (17.9)	157 (32.7)
	대학원 졸업	2 (0.4)	4 (0.8)	6 (1.3)	3 (0.6)	3 (0.6)	6 (1.3)
가 구 소 득	1,500만원 이하	7 (1.5)	7 (1.5)	14 (2.9)	7 (1.5)	7 (1.5)	14 (2.9)
	1,500 ~3,000	46 (9.6)	51 (10.6)	97 (20.2)	50 (10.4)	47 (9.8)	97 (20.2)
	3,000 ~4,500	84 (17.5)	121 (25.2)	205 (42.7)	91 (19.0)	114 (23.8)	205 (42.7)
	4,500 ~6,000	67 (14.0)	33 (6.9)	100 (20.8)	55 (11.5)	45 (9.4)	100 (20.8)
	6,000만원 이상	36 (7.5)	28 (5.8)	64 (13.3)	37 (7.7)	27 (5.6)	64 (13.3)
리 더 여 부	예	135 (28.1)	126 (26.3)	261 (54.4)	131 (27.3)	130 (27.1)	261 (54.4)
	아니오	105 (21.9)	114 (23.8)	219 (45.6)	109 (22.7)	110 (22.9)	219 (45.6)

응답자의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에서 모두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집단 간 유사한 비율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서부집단에서 32명(6.7%), 동부집단에서 12명(2.5%)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집단에서 조금 더 젊은 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서부·동부 집단의 비율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0대가 상위집단에서 92명(19.2%), 하위집단에서 67명(14.0%)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상위집단의 연령대 분포가 하위집단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부집단에서의 고향이 아닌 비율이 동부집단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통해 근래 제주도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으로 귀농·귀촌 인 등 외지인들의 유입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던 상황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집단

에서의 고향이 아닌 비율이 하위집단에서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하가 서부집단에서 15명(3.1%), 동부집단에서 3명(0.6%)으로 나타났고, 6~10년이 서부집단에서 39명(8.1%), 동부집단에서 16명(3.3%)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동부집단보다 서부집단에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1년 이상은 서부집단에서 122명(25.4%), 동부집단에서 175명(36.5%)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 거주자는 서부집단보다 동부집단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하위 집단별 거주기간의 분포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사한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은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의 순으로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교 졸업의 경우 상위집단에서 71명(14.8%), 하위집단에서 86명(17.9%)으로, 하위집단의 비율이 오히려 상위집단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구소득을 살펴보면, 동부집단에 비하여 서부집단에서, 하위집단에 비하여 상위집단에서 고소득 가구가 조금 더 많이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리더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리더와 비리더의 비율이 대체로 편중되지 않는 유사한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집단 간 자연환경 및 공동체 의식수준의 차이 또는 귀농·귀촌의 시대 흐름에 따르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자료검증 및 분석결과(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 대한 측정도구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타당도(validity)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요인분석이다(김계수, 2010; 박영민, 2012 : 103 재인용).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들이 동일한 개념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변수의 구조, 변수의 축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가 타당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성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다. 바로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측정도구들이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 때 각 요인들의 항목별 공통성(communality)은 0.40 이하일 때 낮다고 판단한다. 요인회전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⁵⁹⁾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 대한 총 9개의 주민참여 측정 문항, 총 13개의 사회자본 측정 문항, 총 6개의 로컬거버넌스 측정 문항, 총 8개의 사업성과 측정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⁶⁰⁾ 그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이 나타났다.

⁵⁹⁾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분석 시 어떤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다(배병렬, 2009; 박영민, 2012 : 103 재인용).

〈표 4-3〉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협업적 참여 (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협력적 참여 (조성 전)	경제적 성과 (조성 전)	공통성
사회13(조성 전)	.852	.244	.136	.072	.099	.060	.078	.829
사회7(조성 전)	.846	.212	.220	.149	.041	.028	.020	.834
사회10(조성 전)	.845	.216	.182	.128	.034	.031	.001	.812
사회9(조성 전)	.844	.220	.183	.075	.073	.031	.027	.807
사회11(조성 전)	.827	.234	.141	.098	.078	.046	.037	.778
사회8(조성 전)	.809	.223	.206	.096	.051	.067	.012	.763
사회12(조성 전)	.732	.241	.168	.125	-.057	.011	.062	.645
사회4(조성 전)	.200	.871	.111	.136	.034	.038	.011	.832
사회3(조성 전)	.221	.860	.131	.087	.059	.064	.031	.823
사회2(조성 전)	.270	.857	.134	.090	.039	.034	.041	.839
사회1(조성 전)	.253	.841	.123	.068	.029	.067	.021	.796
사회6(조성 전)	.280	.832	.103	.084	.025	-.008	.065	.793
사회5(조성 전)	.222	.745	.063	.056	.059	.059	-.005	.618
로컬2(조성 전)	.140	.085	.814	.022	.051	.078	.062	.702
로컬3(조성 전)	.166	.141	.807	.106	.117	.021	.095	.733
로컬5(조성 전)	.156	.092	.791	.145	.058	.082	.032	.690
로컬4(조성 전)	.166	.086	.760	.173	.064	.139	.087	.674
로컬6(조성 전)	.204	.109	.743	.100	.076	.078	.096	.637
로컬1(조성 전)	.228	.118	.743	.086	.100	.078	.091	.649
참여1(조성 전)	.169	.097	.160	.875	.065	.296	.033	.922
참여4(조성 전)	.170	.076	.135	.860	.068	.296	.065	.888
참여3(조성 전)	.165	.149	.142	.857	.046	.284	.017	.888
참여5(조성 전)	.108	.054	.137	.791	.100	.377	.053	.815
참여2(조성 전)	.089	.146	.104	.722	.076	.072	.135	.590
성과5(조성 전)	.021	.050	.155	.068	.864	.116	.244	.851
성과6(조성 전)	.071	.065	.122	.083	.861	.131	.244	.850
성과8(조성 전)	.079	.043	.089	.109	.861	.144	.238	.846
성과7(조성 전)	.061	.059	.060	.037	.856	.086	.203	.794
참여6(조성 전)	.060	.050	.127	.316	.134	.865	.125	.904
참여7(조성 전)	.040	.088	.098	.274	.137	.864	.090	.867
참여9(조성 전)	.022	.026	.127	.293	.125	.859	.142	.876
참여8(조성 전)	.074	.065	.114	.285	.133	.829	.110	.820
성과1(조성 전)	.007	.052	.164	.008	.092	.154	.831	.752
성과3(조성 전)	.098	.046	.087	.108	.371	.098	.806	.828
성과2(조성 전)	.051	.014	.110	.104	.377	.077	.803	.819
성과4(조성 전)	.047	.022	.091	.121	.436	.127	.761	.811
고유값	5.433	4.712	4.176	4.004	3.617	3.508	2.924	
분산설명력(%)	15.092	13.089	11.601	11.122	10.047	9.746	8.122	
누적 분산설명력(%)	15.092	28.181	39.782	50.904	60.950	70.696	78.818	

KMO : 0.924,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 0.000

60)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한 동일인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의 인식을 묻는 것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 측정 문항은 18개, 사회자본 측정 문항은 26개, 로컬거버넌스 측정 문항은 12개, 그리고 사업성과 측정 문항은 16개가 된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분산설명력은 78.818%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연구모형의 요인은 협의적 참여(조성 전), 협력적 참여(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경제적 성과(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7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들의 고유값(eigen value)은 최저 2.924로 모두 1 이상이며,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판단된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유사한 조건하에서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비슷한 결과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된 자료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이근희, 2008 : 80).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Chronbach's α 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계수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 이상일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의 척도인 α 값은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측정 항목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해당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각 변수별 요인들의 측정도구를 분석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조성 전)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36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61로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4>의 내용과 같다.

〈표 4-4〉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의적 참여 (조성 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0.928	0.904	
	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0.623	0.961	항목 제거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0.897	0.909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함	0.900	0.908	
	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에 참여함	0.830	0.921	
전체 Chronbach's $\alpha = 0.936$				

②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력적 참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49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5〉의 내용과 같다.

〈표 4-5〉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력적 참여 (조성 전)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0.913	0.922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0.872	0.935	
	사업 계획·시행단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0.838	0.945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0.885	0.931	
전체 Chronbach's $\alpha = 0.949$				

(2) 사회자본(조성 전)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42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47로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6>의 내용과 같다.

<표 4-6>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친지들을 신뢰함	0.836	0.930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0.872	0.926	
	마을의 자치규약을 알고 있음	0.857	0.927	
	마을의 자치규약을 준수함	0.860	0.927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0.703	0.947	항목 제거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0.835	0.930	
전체 Chronbach's $\alpha = 0.942$				

②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51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52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7>의 내용과 같다.

〈표 4-7〉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0.873	0.940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함	0.822	0.945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함	0.855	0.942	
	지자체 행정에 대해 신뢰함	0.858	0.942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함	0.834	0.944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0.732	0.952	항목 제거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0.868	0.941	
전체 Chronbach's α = 0.951				

(3)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로컬거버넌스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03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이 나타났다.

〈표 4-8〉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0.708	0.889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0.738	0.885	
	전문가그룹(자문단)의 협조가 충분함	0.772	0.880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동반자적(동등한) 관계로 협력함	0.731	0.886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됨	0.749	0.883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짐	0.710	0.890	
전체 Chronbach's α = 0.903				

(4) 사업성과(조성 전)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경제적 성과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04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15로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가구소득이 증가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9>의 내용과 같다.

<표 4-9> 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경제적 성과 (조성 전)	가구소득이 증가함	0.685	0.915	항목제거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0.825	0.863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0.829	0.860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0.813	0.867	
전체 Chronbach's $\alpha = 0.904$				

②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34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10>의 내용과 같다.

<표 4-10>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0.856	0.911	
	주민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0.863	0.908	
	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0.805	0.927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0.856	0.911	
전체 Chronbach's $\alpha = 0.934$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앞의 제1항에서는 본 연구 잠재변수들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여 측정 항목들을 선별하였고, 본 항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하고, 측정 항목간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⁶¹⁾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의 표본 크기는 150개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Anderson and Gerbing, 1988 : 415-416), 본 연구에서는 480개의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⁶²⁾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간에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하게 하고, 개별 관측변수에 의해 반영되는 바를 잠재변수가 잘 나타내게 하는 장점이 있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잠재변수들에 대한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확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 등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조부연, 2011 : 53-54; 정주영, 2013 : 95).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몇 개의 항목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연구모형에 대한 최종 관측변수는 다음 <표 4-11>과 같이 정리되었다.⁶³⁾

61)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연구자가 미리 설정하고,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 구조를 파악하여 이론적으로 설정한 당초의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이근희, 2008 : 608).

62)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Schumacker & Lomax, 2004). 그러나 모형이 복잡할 경우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Hoogland & Boomsma, 1998; 우종필, 2013 : 276). 본 연구 구조방정식모형의 경우, 전체 480개의 표본을 확보하였고, 집단별 표본도 최소 150개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분석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3)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측정모형을 '측정모형(조성 전)'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을 '연구모형(조성 전)'으로 칭하고자 한다.

〈표 4-11〉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연구모형(조성 전)의 관측변수 구성

개념	잠재변수	관측변수	비고
주민참여 (조성 전)	협의적 참여 (조성 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참여1(조성 전)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참여3(조성 전)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함	참여4(조성 전)
		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에 참여함	참여5(조성 전)
	협력적 참여 (조성 전)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참여6(조성 전)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참여7(조성 전)
		사업 계획·시행단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참여8(조성 전)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참여9(조성 전)
사회자본 (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사회2(조성 전)
		마을의 자치규약을 알고 있음	사회3(조성 전)
		마을의 자치규약을 준수함	사회4(조성 전)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사회6(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사회7(조성 전)
		지자체 행정에 대해 신뢰함	사회10(조성 전)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함	사회11(조성 전)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사회13(조성 전)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1(조성 전)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2(조성 전)
		전문가그룹의 협조가 충분함	로컬3(조성 전)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됨	로컬5(조성 전)
사업성과 (조성 전)	경제적 성과 (조성 전)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성과2(조성 전)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성과3(조성 전)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성과4(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성과5(조성 전)
		주민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성과6(조성 전)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성과7(조성 전)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성과8(조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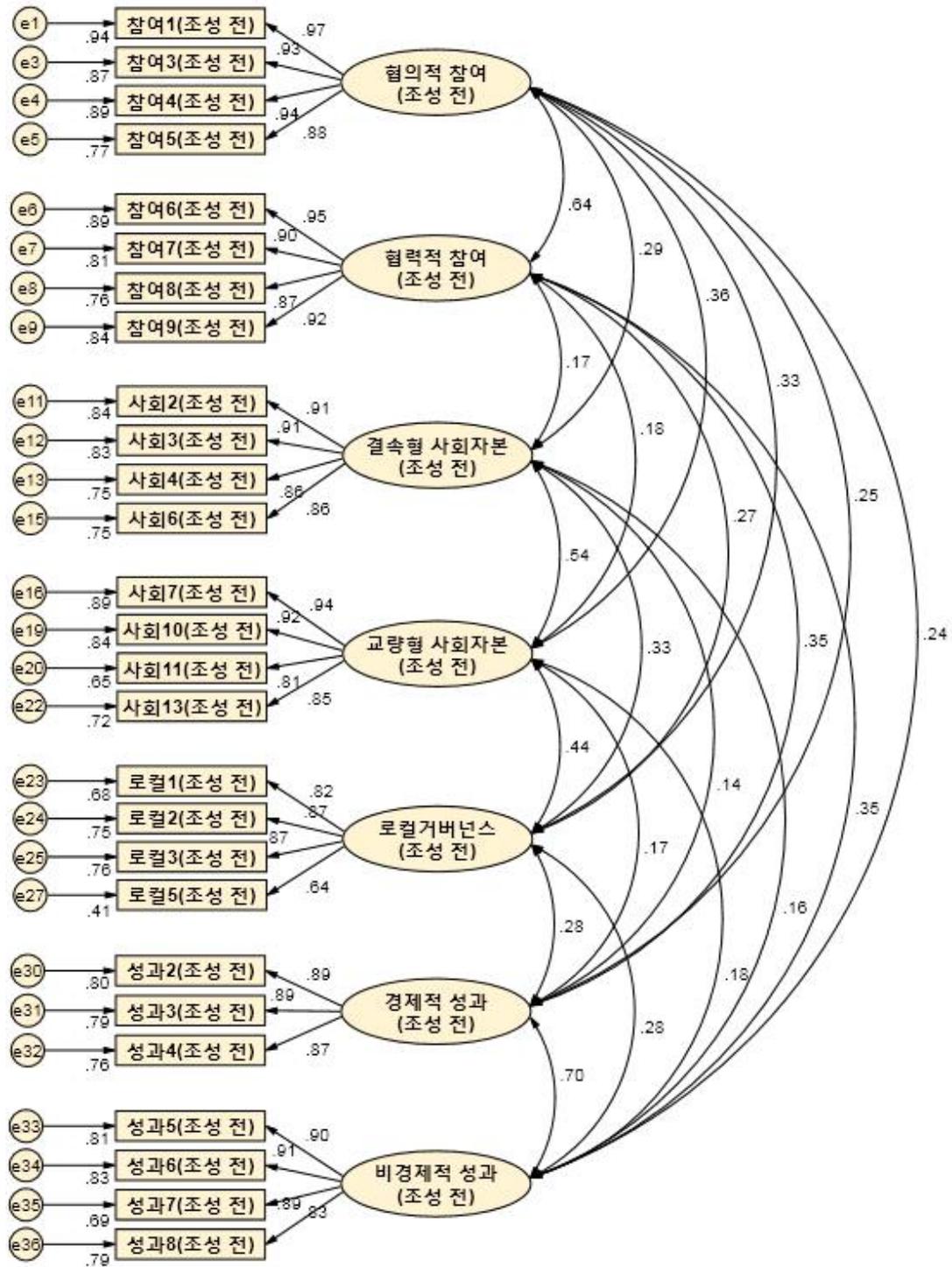
※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모형 적합도 지수(model fit indices)의 산출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 적합도 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절대 적합도 지수는 RMR(<0.05 기준), RMSEA(<0.05 기준, 0.05~0.10 수용가능), GFI(>0.90 기준) 등으로 구성되고, 증분 적합도 지수는 NFI(>0.90 기준), IFI(>0.90 기준), TLI(>0.90 기준), CFI(>0.90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간명 적합도 지수는 AGFI(>0.90 기준)와 χ^2/df (<2.00 기준)으로 구성된다.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 값을 사용하였는데,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λ 값(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이 0.5 이상이어야 하고(0.7 이상이면 바람직함),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개념신뢰도(C.R.) 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고, (상관계수 $\pm 2 \times$ 표준오차)의 값이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노경섭, 2016 : 293-303; 우종필, 2013 : 162-176).



(그림 4-1) 측정모형(조성 전)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4-12〉 측정모형(조성 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관측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 오차	C.R.	SMC	AVE	개념 신뢰도	Chronbach's α	
협의를 참여 (조성 전)	참여1(조성 전)	1.000*	0.968			0.936	0.922	0.979	0.961	
	참여3(조성 전)	1.008	0.932	0.022	45.014	0.869				
	참여4(조성 전)	1.024	0.942	0.022	47.308	0.886				
	참여5(조성 전)	0.978	0.876	0.028	35.019	0.768				
협력적 참여 (조성 전)	참여6(조성 전)	1.000*	0.946			0.895	0.903	0.974	0.949	
	참여7(조성 전)	0.985	0.900	0.028	35.106	0.810				
	참여8(조성 전)	0.939	0.872	0.029	31.898	0.761				
	참여9(조성 전)	0.994	0.915	0.027	37.056	0.837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사회2(조성 전)	1.000*	0.914			0.835	0.894	0.971	0.937	
	사회3(조성 전)	1.073	0.910	0.034	31.974	0.829				
	사회4(조성 전)	0.976	0.864	0.035	28.229	0.746				
	사회6(조성 전)	0.933	0.864	0.033	28.226	0.746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사회7(조성 전)	1.000*	0.944			0.890	0.884	0.968	0.932	
	사회10(조성 전)	0.941	0.918	0.026	35.884	0.842				
	사회11(조성 전)	0.885	0.805	0.035	25.582	0.648				
	사회13(조성 전)	0.889	0.850	0.031	29.111	0.723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로컬1(조성 전)	1.000*	0.824			0.680	0.785	0.935	0.873	
	로컬2(조성 전)	0.988	0.866	0.045	21.930	0.750				
	로컬3(조성 전)	0.973	0.870	0.044	22.052	0.757				
	로컬5(조성 전)	0.753	0.640	0.051	14.793	0.409				
경제적 성과 (조성 전)	성과2(조성 전)	1.000*	0.892			0.796	0.905	0.966	0.915	
	성과3(조성 전)	1.047	0.890	0.038	27.259	0.793				
	성과4(조성 전)	0.969	0.871	0.037	26.244	0.758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성과5(조성 전)	1.000*	0.900			0.809	0.888	0.969	0.934	
	성과6(조성 전)	1.044	0.912	0.034	30.981	0.833				
	성과7(조성 전)	0.946	0.831	0.037	25.249	0.691				
	성과8(조성 전)	0.975	0.891	0.033	29.348	0.794				
측정모형 적합도	$\chi^2=542.569$, $df=303$, $p=0.000$, $CMIN/DF=1.791$, $GFI=0.922$, $AGFI=0.903$, $CFI=0.981$, $RMR=0.015$, $RMSEA=0.041$, $NFI=0.957$, $IFI=0.981$, $TLI=0.978$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 적합지수	Chi-square test statistic(χ^2)				$p > 0.05$				
		Goodness-of fit index(GFI)				> 0.90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0.0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05 , $0.05\sim 0.10$ 이하 수용가능				
	증분 적합지수	Normed fit index(NFI)				> 0.90				
		Incremental fit index(IFI)				> 0.90				
		Turker-lewis index(TLI)				> 0.90				
		Comparative fit index(CFI)				> 0.90				
	간명 적합지수	Adjusted goodness-of-fit index(AGFI)				> 0.90				
		Normed chi-square(χ^2/df)				< 2.00				

주) * 측정모형에서 관측변수의 모수추정치들 처음 1로 고정시킨 값.

〈표 4-13〉 측정모형(조성 전)의 잠재변수 상관관계(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구분	협의적 참여 (조성 전)	협력적 참여 (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경제적 성과 (조성 전)	sqrt (AVE)
협의적 참여 (조성 전)							0.960
협력적 참여 (조성 전)	0.638*** (0.688) 〈0.588〉						0.950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0.286*** (0.326) 〈0.246〉	0.175*** (0.213) 〈0.137〉					0.945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0.357*** (0.401) 〈0.313〉	0.184*** (0.224) 〈0.144〉	0.538*** (0.580) 〈0.496〉				0.940
로컬 거버넌스 (조성 전)	0.328*** (0.370) 〈0.286〉	0.268*** (0.310) 〈0.226〉	0.334*** (0.372) 〈0.296〉	0.440*** (0.482) 〈0.398〉			0.886
경제적 성과 (조성 전)	0.253*** (0.289) 〈0.217〉	0.348*** (0.386) 〈0.310〉	0.142** (0.174) 〈0.110〉	0.174*** (0.208) 〈0.140〉	0.277*** (0.311) 〈0.243〉		0.951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0.239*** (0.279) 〈0.199〉	0.355*** (0.395) 〈0.315〉	0.165*** (0.201) 〈0.129〉	0.182*** (0.220) 〈0.144〉	0.277*** (0.315) 〈0.239〉	0.699*** (0.739) 〈0.659〉	0.943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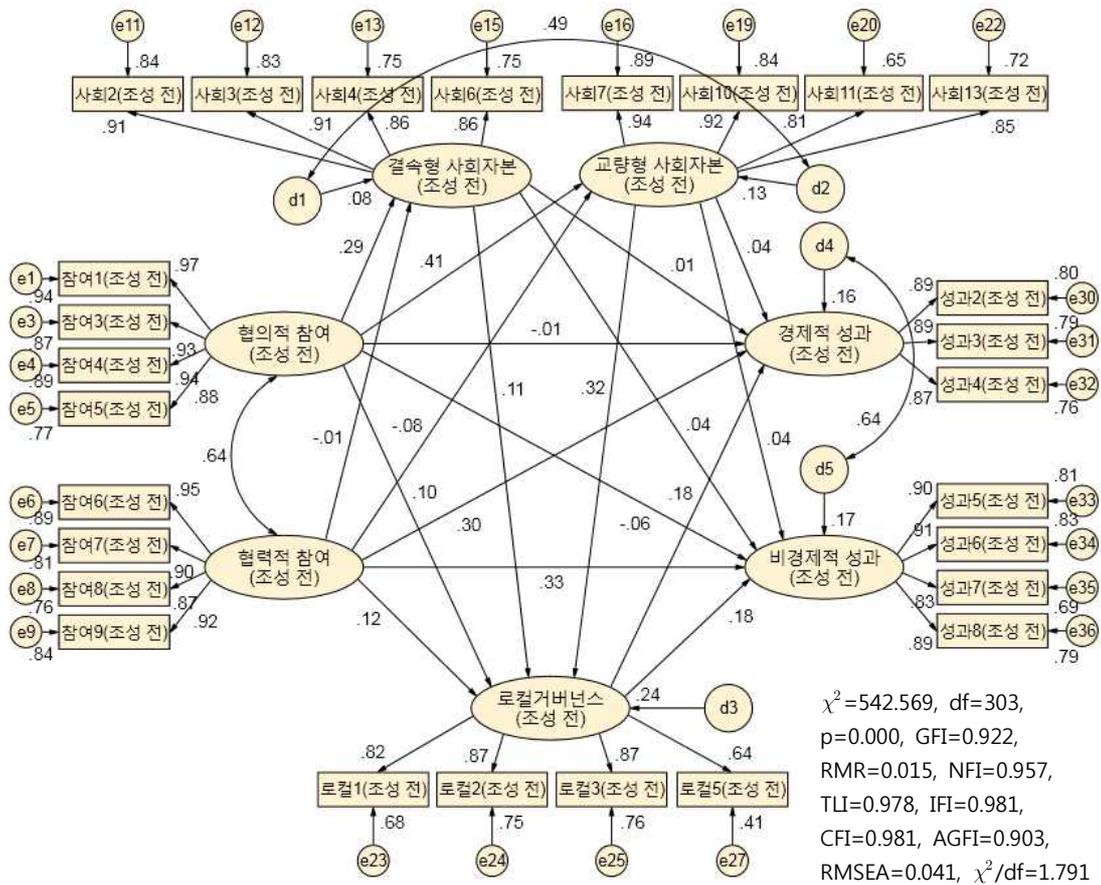
주 2) () :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

주 3) 〈 〉 :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

〈표 4-12〉의 내용과 같이, 측정모형(조성 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값이 모두 0.5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모두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4-13〉의 내용과 같이, sqrt(AVE)의 값이 모두 상관계수보다 크고,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이 모두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조성 전)의 적합도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χ^2 (카이 제곱)=852.067, df(자유도)=305, p=0.000, GFI=0.888, RMR=0.048, RMSEA=0.061, NFI=0.933, IFI=0.956, TLI=0.949, CFI=0.956, AGFI=0.861, $\chi^2/df=2.794$ 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Normed chi-square(χ^2/df) 값은 2.00 미만, RMSEA의 값은 0.05 미만, GFI와 AGFI의 값은 0.90 이상을 그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림 4-2) 연구모형(조성 전)의 최종 분석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카이제곱 값을 낮추어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M.I 값에 따르는 Par Change 값을 기준으로 내생잠재변수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d1↔d2, d4↔d5)함으로써([그림 4-2] 참조)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M.I를 이용하여 수정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chi^2=542.569$, $df=303$, $p=0.000$, $GFI=0.922$, $RMR=0.015$, $RMSEA=0.041$, $NFI=0.957$, $IFI=0.981$, $TLI=0.978$, $CFI=0.981$, $AGFI=0.903$, $\chi^2/df=1.791$ 로 나타나 당초보다 모형의 적합도가 많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⁶⁴⁾

〈표 4-14〉 연구모형(조성 전)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치	연구모형 (당초)	수정 연구모형 (최종)
절대적합지수			
Chi-square test statistic(χ^2)		852.067	542.569
Degrees of freedom(df)		305	303
p-value	> 0.05	0.000	0.000
Goodness-of fit index(GFI)	> 0.90	0.888	0.922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0.05	0.048	0.01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05 0.05~0.1이하 : 수용가능	0.061	0.041
충분적합지수			
Normed fit index(NFI)	> 0.90	0.933	0.957
Incremental fit index(IFI)	> 0.90	0.956	0.981
Turker-lewis index(TLI)	> 0.90	0.949	0.978
Comparative fit index(CFI)	> 0.90	0.956	0.981
간명적합지수			
Adjusted goodness-of-fit index(AGFI)	> 0.90	0.861	0.903
Normed chi-square(χ^2/df)	< 2.00	2.794	1.791

64) χ^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포함하는 적합도의 측정값이고, 본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 결과, $p=0.000$ 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 수가 증가할 때 χ^2 검정이 유의한 확률수준을 보이게 되는 부분과 연관될 수 있으며, χ^2 (카이제곱) 검정 자체가 모형 채택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송지준, 2009 : 342-343; 심현숙, 2012 : 67; 우종필, 2013 : 363-364; 현민철, 2016 : 10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자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시간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 CMB)의 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et al.(2003)에 의해 제안된 다음 두 가지 통계분석을 통해 CMB를 확인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적용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시행하였는데, 이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인이 도출되거나 또는 다수의 요인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한 요인이 측정변수들에 대한 총 분산의 대부분(50% 이상)을 설명한다면 상당한 CMB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 항목 즉, 협의적 참여(조성 전) 4개 항목, 협력적 참여(조성 전) 4개 항목,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4개 항목,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4개 항목,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4개 항목, 경제적 성과(조성 전) 3개 항목,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4개 항목을 합한 27개의 측정 항목을 동시에 투입하여 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분석 EFA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7개의 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13.219%로 누적 총 분산 83.978%의 15.74%(<5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CMB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적용한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이 검증은 단일잠재요인(single latent factor)이 변수들 간 공분산(covariance)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CMB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전체 측정 항목을 한 개의 잠재요인으로 만들어서 단일요인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일요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8738.932(p=0.000)$, GFI=0.324, RMR=0.098, RMSEA=0.233, NFI=0.315, IFI=0.323, TLI=0.265, CFI=0.322, AGFI=0.212, $\chi^2/df=26.972$ 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상당히 좋지 않아 단일요인으로 보기에 부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동일방법편의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Podsakoff et al., 2003; 이은수 외, 2013), 이에 따라 앞에서 최종 수정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조성 전)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 가설(추가설 및 부가설)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

추가설(H1~H3)은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 연구설의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모형(구성 전)에서 제시한 매개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는데,⁶⁵⁾ 앞에서 제시된 [그림 4-2]의 연구모형으로는 전체적 매개효과만 검증할 수 있고, 다중 매개요인들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⁶⁶⁾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매개요인들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15〉 연구모형(구성 전)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비표준화 계수)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	95% 간접 신뢰구간
협리적 참여(구성 전) → 경제적 성과(구성 전)	0.043	-0.011	0.054*	0.014~0.098
협리적 참여(구성 전) → 비경제적 성과(구성 전)	0.019	-0.049	0.068**	0.025~0.118
협력적 참여(구성 전) → 경제적 성과(구성 전)	0.258**	0.246**	0.012	-0.013~0.038
협력적 참여(구성 전) → 비경제적 성과(구성 전)	0.310**	0.298**	0.012	-0.015~0.040

*p<0.05, **p<0.01

Bootstrapping 검증 결과, 〈표 4-15〉의 내용과 같이 협리적 참여(구성 전)와 경제적 성과(구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구성 전) 간의 경로에서 95% 간접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협리적 참여(구성 전)와 경제적 성과(구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구성 전) 간의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협리적 참여(구성 전) → 경제적 성과(구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구성 전)의 경로에서 완전매개효과]⁶⁷⁾한 것으로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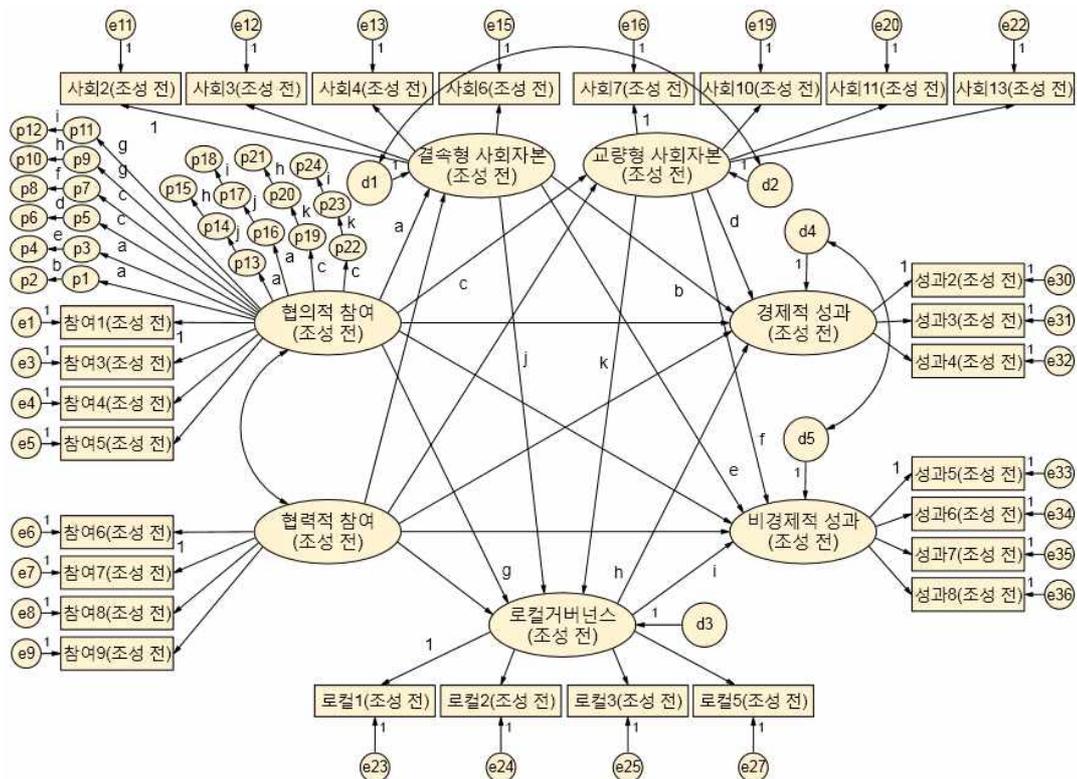
65)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Baron and Kenny(1986)의 접근법이나 Sobel test(Sobel, 1982) 등의 방법들이 통계적 검정력이 미약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체적 방안으로 bootstrapping 기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이현웅, 2014 : 227; 김현우 외, 2015 : 94). 본 연구에서의 bootstrapping 검증은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법을 통해 500회 반복하고, bias-corrected 방법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66) Amos를 활용하는 분석에서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간접효과가 분리되지 않고 합쳐져 제시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는 검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매개변수 각각의 특정 간접효과(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할 수 있다(배병렬, 2014; 김현우 외, 2015 : 93; 정현달 외, 2016 : 199).

67)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경우 매개변수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한 경우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직접효과는 유의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에 따라 협의적 참여(조성 전)와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간의 경로에서 매개요인인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및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의 개별적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참여(조성 전)와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간의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는 95% 간접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력적 참여(조성 전)와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간의 경로에서 매개요인인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및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의 개별적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무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가설(H1~H3)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력적 참여를 제외한 협의적 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을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4-3]은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팬텀변수(p1~p24)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이다.



(그림 4-3)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

〈표 4-16〉 팬텀변수를 포함하는 연구모형(조성 전)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매개효과 추정치(B)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판정
H1a	(p2)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03	0.014	-0.026~0.028	기각
H1b	(p4)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1	0.015	-0.018~0.044	기각
H1c	(p6)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2	0.020	-0.028~0.050	기각
H1d	(p8)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5	0.021	-0.022~0.064	기각
H2a	(p10)협의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5	0.011	0.000~0.045	기각
H2b	(p12)협의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6	0.012	-0.001~0.048	기각
H3a	(p15)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05*	0.003	0.000~0.014	기각
H3b	(p18)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05	0.003	0.000~0.013	기각
H3c	(p21)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9**	0.007	0.008~0.039	채택
H3d	(p24)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20**	0.008	0.008~0.038	채택

*p<0.05, **p<0.01

추가설 1(H1)은 주민참여가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 결과,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및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2, p4, p6, p8)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의적 참여(조성 전)는 사회자본(조성 전)을 매개하여 사업성과(조성 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설 2(H2)는 주민참여가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 결과, ‘협의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10, p12)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의적 참여(조성 전)는 로컬거버넌스(조성 전)를 매개하여 사업성과(조성 전)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설 3(H3)은 주민참여가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

석 결과,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15, p18)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의 매개효과는 95% 간접 신뢰구간 값에 0을 포함하고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21, p24)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는 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리적 참여(조성 전)는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부가설 4(H4)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검증을 위해 우선 전체 표본을 서부·동부(서부 N=240, 동부 N=240), 상위·하위(상위 N=240, 하위 N=240) 등의 집단별로 구분하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집단별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고, 만약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면 집단별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를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free)모형과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두 모형 간의 χ^2 차이 검증을 해야 한다. 이때 df 증가분에 따르는 χ^2 증가분($\Delta\chi^2$)이 χ^2 분포표상의 기준치 ($p<0.05$)를 초과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비제약모형이 제약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즉, 집단 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명하게 된다.

앞에서 추가설(H1~H3)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매개요인들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협의적 참여(조성 전)와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간의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적 참여(조성 전)와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간의 전체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근거로, 매개요인인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개별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협의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을 이용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에 있어서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서부·동부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표 4-17>과 같이 5단계에 걸쳐 측정하였다.

<표 4-17>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조성 전)

모형	χ^2	df	CFI	RMSEA	$\Delta\chi^2$ (df)	$\Delta\chi^2$ Sig. Dif
모형 1. 형태동일성 모형 (비제약 모형)	930.932	606	0.974	0.033	-	-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 (λ 제약 모형)	952.933	626	0.974	0.033	22.001 (20)	비유의
모형 3. 공분산 동일성 모형 (ϕ 제약 모형)	996.899	634	0.971	0.035	65.967 (28)	유의
모형 4. 요인부하량·공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제약 모형)	1024.964	654	0.970	0.034	94.032 (48)	유의
모형 5. 요인부하량·공분산·오차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θ 제약 모형)	1118.396	681	0.965	0.037	187.464 (75)	유의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간의 df 차이가 20($\Delta df=20$) 일 때 χ^2 의 차이는 22.001($\Delta\chi^2=22.001$)로, $\chi^2_{0.05}$ 분포표상의 기준치 31.4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모형 3·4·5는 모형 1(비제약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3 : 423; 박세준, 2016 : 112-113 재인용).

위와 같이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서부·동부 집단별 조절 효과의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18>의 내용과 같이 서부·동부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df 차이가 38($\Delta df=38$)일 때 χ^2 의 차이가 53.736($\Delta\chi^2=53.736$)으로, $\chi^2_{0.05}$ 분포표상의 기준치 53.38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서부·동부 집단별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서부·동부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구분	χ^2	df	χ^2/df	CFI	RMSEA	$\Delta\chi^2$ (df)	Sig.
비제약(free)모형	930.932	606	1.536	0.974	0.033		
제약모형	984.668	644	1.529	0.972	0.033		
차이 (제약모형-비제약모형)	53.736	38				53.736 (38)	유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19>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에서는 p2에서 p24까지 모든 경로에서 95% 간접신뢰구간에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21, p24)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가 이중매개(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경로들에서는 95% 간접신뢰구간에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에서는 모든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조성 전, 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⁶⁸⁾	서부집단(조성 전)			동부집단(조성 전)			판정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H4a-1	p2	0.011	0.018	-0.022~0.052	0.000	0.019	-0.049~0.035	기각
H4a-2	p4	0.029	0.020	-0.002~0.076	-0.001	0.021	-0.048~0.037	기각
H4a-3	p6	-0.001	0.022	-0.047~0.040	0.009	0.037	-0.070~0.079	기각
H4a-4	p8	-0.034	0.025	-0.089~0.008	0.074	0.044	0.000~0.175	기각
H4a-5	p10	0.010	0.012	-0.005~0.046	0.005	0.021	-0.037~0.050	기각
H4a-6	p12	0.009	0.012	-0.008~0.043	0.005	0.021	-0.034~0.052	기각
H4a-7	p15	0.006*	0.005	0.000~0.028	0.001	0.004	-0.007~0.011	기각
H4a-8	p18	0.006	0.005	0.000~0.021	0.001	0.004	-0.007~0.011	기각
H4a-9	p21	0.008	0.007	0.000~0.027	0.033**	0.016	0.010~0.074	채택
H4a-10	p24	0.008	0.007	0.000~0.031	0.034**	0.016	0.010~0.077	채택

*p<0.05, **p<0.01

2)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에 있어서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상위·하위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 〈표 4-20〉과 같이 5단계에 걸쳐 측정하였다.

68)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조성 전)의 세부 경로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그림 4-3〉 참조).

경로	경로 설명
p2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p4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p6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p8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p10	협의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p12	협의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p15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p18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p21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p24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표 4-20〉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조성 전)

모형	χ^2	df	CFI	RMSEA	$\Delta\chi^2$ (df)	$\Delta\chi^2$ Sig. Dif
모형 1. 형태동일성 모형 (비제약 모형)	937.603	606	0.973	0.034	-	-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 (λ 제약 모형)	968.792	626	0.972	0.034	31.189 (20)	비유의
모형 3. 공분산 동일성 모형 (ϕ 제약 모형)	995.005	634	0.971	0.035	57.402 (28)	유의
모형 4. 요인부하량·공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제약 모형)	1024.276	654	0.970	0.034	86.673 (48)	유의
모형 5. 요인부하량·공분산·오차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θ 제약 모형)	1082.384	681	0.968	0.035	144.781 (75)	유의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간의 df 차이가 20($\Delta df=20$)일 때 χ^2 의 차이는 31.189($\Delta\chi^2=31.189$)로, $\chi^2_{0.05}$ 분포표상의 기준치 31.4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모형 3, 4, 5는 모형 1(비제약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3 : 423; 박세준, 2016 : 112-113 재인용).

위와 같이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상위·하위 집단 간 조절효과 비교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21〉의 내용과 같이 상위·하위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df 차이가 38($\Delta df=38$)일 때 χ^2 의 차이가 63.103($\Delta\chi^2=63.103$)으로, $\chi^2_{0.05}$ 분포표상의 기준치 53.38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상위·하위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구분	χ^2	df	χ^2/df	CFI	RMSEA	$\Delta\chi^2$ (df)	Sig.
비제약(free)모형	937.603	606	1.547	0.973	0.034		
제약모형	998.382	644	1.550	0.971	0.034		
차이 (제약모형-비제약모형)	60.779	38				60.779 (38)	유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표 4-22>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24)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 거버넌스(조성 전)가 이중매개(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경로들에서는 95% 간접신뢰구간에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p21)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가 이중매개(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경로들에서는 95% 간접신뢰구간에 모두 0을 포함하고 있어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매개 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조성 전, 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상위집단(조성 전)			하위집단(조성 전)			판정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H4b-1	p2	0.032	0.029	-0.028~0.095	-0.004	0.010	-0.055~0.006	기각
H4b-2	p4	0.042	0.033	-0.024~0.112	0.000	0.010	-0.027~0.017	기각
H4b-3	p6	-0.016	0.044	-0.115~0.064	0.021	0.017	-0.002~0.070	기각
H4b-4	p8	-0.027	0.049	-0.126~0.069	0.022	0.018	-0.002~0.070	기각
H4b-5	p10	0.011	0.014	-0.004~0.056	0.013	0.019	-0.017~0.059	기각
H4b-6	p12	0.024	0.023	-0.013~0.084	0.007	0.012	-0.007~0.048	기각
H4b-7	p15	0.001	0.005	-0.005~0.016	0.003	0.004	0.000~0.020	기각
H4b-8	p18	0.002	0.008	-0.015~0.021	0.002	0.002	0.000~0.014	기각
H4b-9	p21	0.027	0.020	-0.010~0.071	0.007*	0.005	0.001~0.026	채택
H4b-10	p24	0.058**	0.026	0.020~0.119	0.004*	0.003	0.000~0.020	채택

*p<0.05, **p<0.01

6.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 검증

부가설 H5~H10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변수 간 경로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 검증과 관련된 것이다.

〈표 4-23〉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검증(조성 전)

가설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t)	판정
H5a	협약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294***	0.055	4.777	채택
H5b	협약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406***	0.057	6.757	채택
H5c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013	0.056	-0.211	기각
H5d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075	0.058	-1.252	기각
H6a	협약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103	0.056	1.673	기각
H6b	협력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124*	0.054	2.114	채택
H7a	협약적 참여(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4	0.052	-0.220	기각
H7b	협약적 참여(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55	0.056	-0.877	기각
H7c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299***	0.051	4.862	채택
H7d	협력적 참여(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328***	0.055	5.419	채택
H8a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110*	0.055	2.030	채택
H8b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322***	0.054	5.709	채택
H9a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13	0.051	0.240	기각
H9b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42	0.055	0.767	기각
H9c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38	0.052	0.632	기각
H9d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41	0.056	0.699	기각
H10a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180**	0.049	3.252	채택
H10b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75**	0.053	3.231	채택

*p<0.05, **p<0.01, ***p<0.001

부가설 5(H5)는 주민참여가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협약적 참여(조성 전)는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beta=0.294$, $p<0.001$)과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beta=0.406$,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력적 참여(조성 전)는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beta=-0.013$, $p>0.05$)과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beta=-0.075$,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6(H6)은 주민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협약적 참여(조성 전)는 로컬거버넌스(조성 전)($\beta=0.103$,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협력적 참여(조성 전)는 로컬거버넌스(조성 전)(β

=0.124, $p < 0.05$)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7(H7)은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조성 전)는 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14$, $p > 0.05$)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55$, $p > 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협력적 참여(조성 전)는 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299$, $p < 0.001$)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328$, $p < 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8(H8)은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은 로컬거버넌스(조성 전)($\beta = 0.110$, $p < 0.05$)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beta = 0.322$, $p < 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9(H9)는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은 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13$, $p > 0.05$)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42$, $p > 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도 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38$, $p > 0.05$)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041$, $p > 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10(H10)은 로컬거버넌스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조성 전)의 검증 결과, 로컬거버넌스(조성 전)는 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180$, $p < 0.01$)와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beta = 0.175$, $p < 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부가설 11(H11)은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⁶⁹⁾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69) 앞의 제3장 제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의 사업성과(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사업성과) 인식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의 각 집단별 상위 2개 마을과 하위 2개 마을을 선별하여 서부·동부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이는 상위·하위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이 되기도 한다. 단, 여기서 상위·하위 집단의 구분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다시 밝혀둔다.

앞에서 부가설 4(H4)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집단 간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각 집단별 행렬의 parameters 값들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교차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행렬의 C.R.(Critical Ratio) 값 차이(Differences)가 $\pm 1.965(\alpha=0.05)$ 보다 크면 두 집단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⁷⁰⁾

1)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에 있어서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표 4-24>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C.R.)의 값이 $\pm 1.965(\alpha=0.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R.값이 2.425로 1.965를 초과하지만 두 집단의 경로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력적 참여와 교량형 사회자본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동부집단의 경우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232, p<0.05$) 나타난 반면, 서부집단의 경우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beta=0.038, p>0.05$)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오히려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70)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첫째, 연구자가 직접 각각의 집단 간 경로를 제약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집단 간 전체 경로를 제약한 후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의 C.R.(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값을 통해 확인(C.R.값이 $\pm 1.965(\alpha=0.05)$ 이상이면 경로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첫째 방법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의 고정된 계수의 수만큼 각각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우종필, 2013 : 442-4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둘째 방법으로 접근하여 검증하였다.

〈표 4-24〉 서부·동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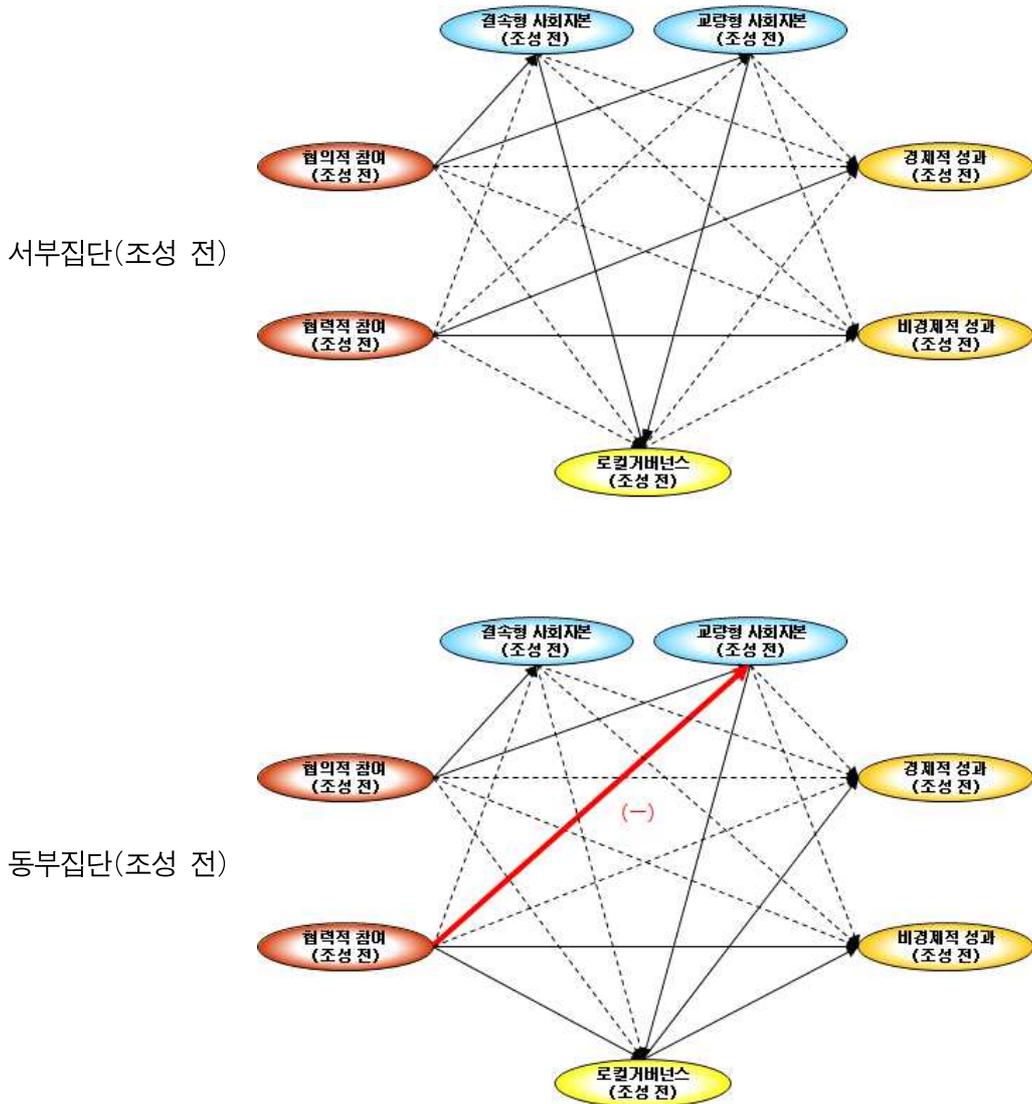
가설	경로	표준 경로계수		C.R	판정
		서부집단	동부집단		
H11a-1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264***	0.277**	0.111	기각
H11a-2	"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322***	0.520***	0.909	기각
H11a-3	"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093	0.029	-0.434	기각
H11a-4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79	-0.056	-1.003	기각
H11a-5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69	-0.189	-1.956	기각
H11a-6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005	-0.002	-0.046	기각
H11a-7	"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038	-0.232*	-2.081	채택
H11a-8	"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081	0.235*	1.438	기각
H11a-9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390***	0.195	-1.227	기각
H11a-10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393***	0.307**	-0.493	기각
H11a-11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208**	0.012	-1.729	기각
H11a-12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52	-0.001	-0.490	기각
H11a-13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21	-0.004	-1.184	기각
H11a-14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243***	0.358***	1.776	기각
H11a-15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03	0.022	0.218	기각
H11a-16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17	0.164	2.425	기각
H11a-17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134	0.222**	0.646	기각
H11a-18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11	0.207**	0.690	기각

*p<0.05, **p<0.01, ***p<0.001

그 외에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 또는 동부집단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에서의 집단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이 동부집단보다 더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이 서부집단보다 더 유의한 정(+)의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력적 참여(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의 경우, 협력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로컬거버넌스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의 경우, 서부집단의 경우와 달리,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지만,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로컬거버넌스는 다시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협력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서부·동부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조성 전)

- 주 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주 2) 굵은 선은 조절효과가 유의한(집단 간 C.R. > ±1.965) 경로를 나타냄.

2)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연구모형(조성 전)의 분석에 있어서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표 4-25>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C.R.)의 값이 ± 1.965 ($\alpha=0.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리적 참여와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에서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412$, $p<0.001$) 나타난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beta=0.116$, $p>0.05$) 나타났다. 그리고 상위집단에서 협리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beta=0.522$, $p<0.001$)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에서도 협리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beta=0.225$, $p<0.05$)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협리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이 더욱 더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beta=0.488$, $p<0.001$)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집단에서도 교량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beta=0.157$, $p<0.05$)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에서보다 그 영향력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더욱 더 증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집단 또는 하위집단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에서의 집단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및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및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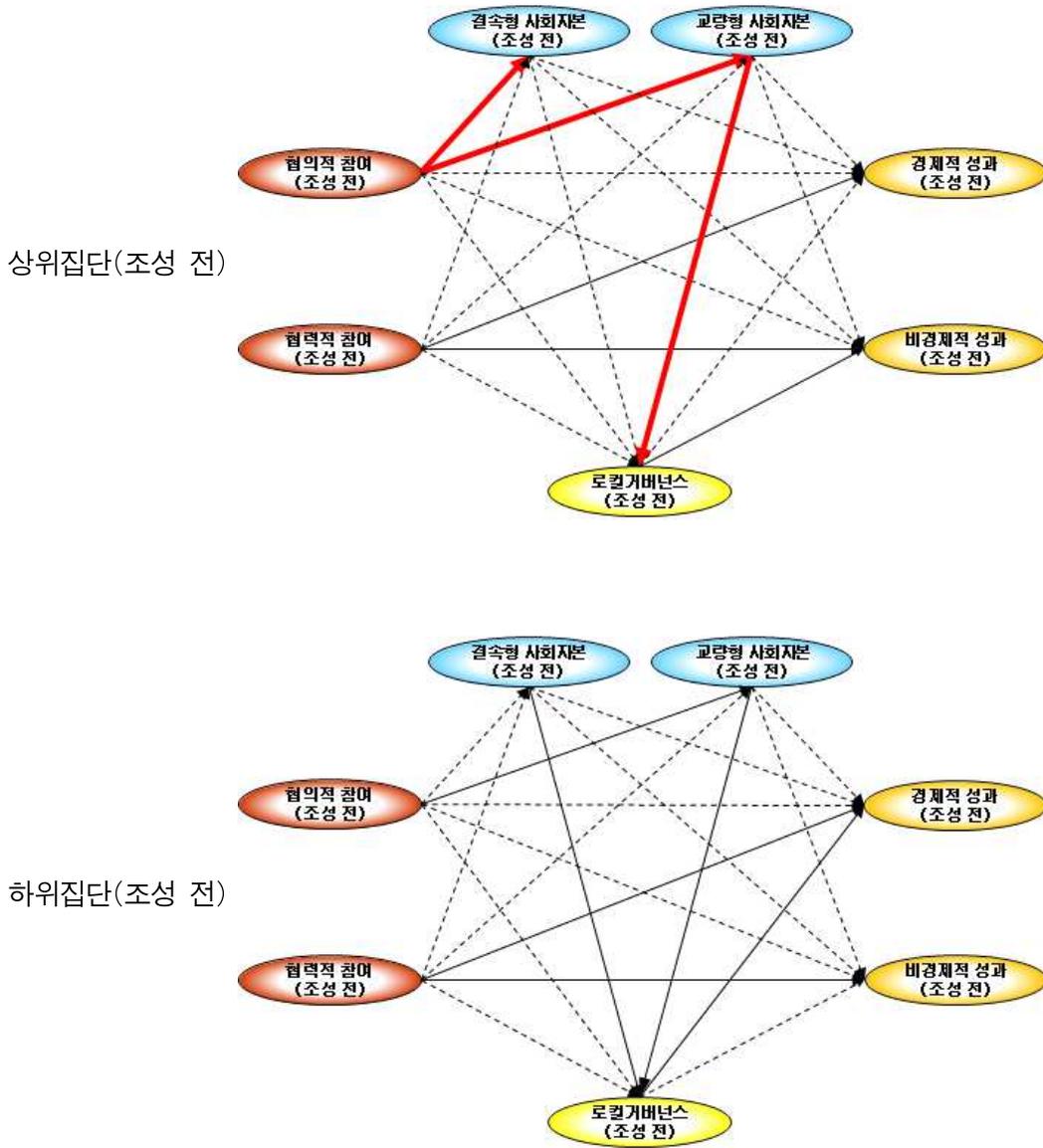
〈표 4-25〉 상위·하위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조성 전)

가설	경로	표준 경로계수		C.R.	판정
		상위집단	하위집단		
H11b-1	협리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412***	0.116	-2.461	채택
H11b-2	"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522***	0.225*	-2.772	채택
H11b-3	"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107	0.071	-0.341	기각
H11b-4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28	0.031	0.464	기각
H11b-5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03	-0.028	0.667	기각
H11b-6	협력적 참여(조성 전) →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0.043	0.050	0.751	기각
H11b-7	" →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0.102	-0.002	0.966	기각
H11b-8	"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151	0.107	-0.69	기각
H11b-9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339***	0.252**	-1.061	기각
H11b-10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349***	0.312***	-1.24	기각
H11b-11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021	0.149*	1.165	기각
H11b-12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98	-0.038	-1.183	기각
H11b-13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106	-0.002	-1.008	기각
H11b-14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0.488***	0.157*	-2.872	채택
H11b-15	"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038	0.111	1.261	기각
H11b-16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053	0.115	1.355	기각
H11b-17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 경제적 성과(조성 전)	0.131	0.219**	0.992	기각
H11b-18	" →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	0.236**	0.120	-1.15	기각

*p<0.05, **p<0.01, ***p<0.001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협리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위집단의 경우,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로컬거버넌스는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위 집단의 경우에는 협리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다시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상위·하위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조성 전)

- 주 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주 2) 굵은 선은 조절효과가 유의한(집단 간 C.R. > ±1.965) 경로를 나타냄.

8.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부가설 12(H12)는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이 나타났다.

서부·동부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협력적 참여(조성 전), 경제적 성과(조성 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에 대하여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협의적 참여(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에 대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 서부집단의 평균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제주도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환경적·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6>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조성 전)

가설	구분		서부 (n=240)	동부 (n=240)	t	p	판정
H12 a-1	협의적 참여 (조성 전)	평균	3.28	3.12	2.455	0.014*	채택
		표준편차	0.66	0.70			
H12 a-2	협력적 참여 (조성 전)	평균	1.90	1.88	0.189	0.850	기각
		표준편차	0.67	0.65			
H12 a-3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평균	3.76	3.54	3.920	0.000***	채택
		표준편차	0.59	0.62			
H12 a-4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평균	2.77	2.47	5.548	0.000***	채택
		표준편차	0.64	0.54			
H12 a-5	로컬거버넌스 (조성 전)	평균	2.60	2.33	4.930	0.000***	채택
		표준편차	0.54	0.63			
H12 a-6	경제적 성과 (조성 전)	평균	2.29	2.21	1.525	0.128	기각
		표준편차	0.55	0.58			
H12 a-7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평균	2.98	2.85	2.370	0.018*	채택
		표준편차	0.60	0.63			

* $p < 0.05$, ** $p < 0.01$, *** $p < 0.001$

2)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27>과 같이 나타났다.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조성 전)에 대하여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력적 참여(조성 전)에 대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속형 사회자본(조성 전), 교량형 사회자본(조성 전), 로컬거버넌스(조성 전), 경제적 성과(조성 전), 비경제적 성과(조성 전)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예비조사 사업성과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한 상위·하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집단 간 차이와 관련된 것으로, 협의적 참여(조성 전), 협력적 참여(조성 전)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협의적 참여(조성 전)와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들에 대해서 하위집단의 평균점수가 상위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해서는 상위·하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협의적 참여(조성 전)와 협력적 참여(조성 전) 요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위집단의 수준이 하위집단의 수준보다 더 낮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었다.

<표 4-27>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조성 전)

가설	구분		상위 (n=240)	하위 (n=240)	t	p	판정
H12 b-1	협의적 참여 (조성 전)	평균	3.08	3.32	-3.964	0.000***	채택
		표준편차	0.71	0.64			
H12 b-2	협력적 참여 (조성 전)	평균	1.83	1.96	-2.194	0.029*	채택
		표준편차	0.64	0.68			
H12 b-3	결속형 사회자본 (조성 전)	평균	3.62	3.69	-1.301	0.194	기각
		표준편차	0.64	0.59			
H12 b-4	교량형 사회자본 (조성 전)	평균	2.61	2.64	-0.486	0.627	기각
		표준편차	0.66	0.55			
H12 b-5	로컬거버넌스 (조성 전)	평균	2.45	2.48	-0.455	0.650	기각
		표준편차	0.63	0.57			
H12 b-6	경제적 성과 (조성 전)	평균	2.27	2.24	0.507	0.612	기각
		표준편차	0.58	0.56			
H12 b-7	비경제적 성과 (조성 전)	평균	2.90	2.94	-0.724	0.470	기각
		표준편차	0.67	0.55			

* $p < 0.05$, ** $p < 0.01$, *** $p < 0.001$

9. 연구의 결과 및 함의

본 절에서의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분석·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둘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검증하였고, 넷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변수들 간 영향관계 차이검증을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협력적 참여는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들이 협의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유의한 이중매개역할을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이 협의적 참여 단계보다 상위 단계인 협력적 참여 수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는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매개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 간의 모든 경로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지만,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동부 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검증과 연계하여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의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역시 협의적 참여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동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경제적 성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협의적 참여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협의적 참여는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서부집단에서보다 동부집단에서 훨씬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위·하위 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하였다. 덧붙이자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된 반면, 협의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사업성과가 증대되었는데, 상위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었고, 하위집단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협력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는 사업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고,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를 증진시켰으며,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한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동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부·동부

모든 집단에서 주민참여의 하위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된 것으로 나타난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주민참여의 상위단계인 협력적 참여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오히려 교량형 사회자본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 즉, 주민들이 협의적 참여 단계를 넘어서는 협력적 참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행정에 대한 신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와 같은 사회자본(교량형 또는 연계형 사회자본)은 단순히 행정기관과 접촉하거나 협력하는 경험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권위를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한 동반자적 관계의 진정성을 경험하는 협력적 참여 단계의 실질적 주민참여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역설한 곽현근·유현숙(2011)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부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협력적 참여를 통해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때, 서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동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로 들어선 주민참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로, 다음 절에서 이어질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의 상황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절차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한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이 더욱 증진되었고,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로컬거버넌스가 더욱 증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력적 참여, 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협의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동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서부집단의 평균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제주도 서부·동부 지역 간 환경적·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의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협의적 참여, 협력적 참여 요인들에 대하여 하위집단의 평균점수가 상위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상위집단의 주민참여 수준이 하위집단보다 오히려 더 낮았음을 확인하였다.

제3절 자료검증 및 분석결과(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1.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1)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우선 타당도 및 신뢰도 검토를 실시하였는데, 본 절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대한 측정도구의 검토를 실시하였다.

타당도(validity)는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또는 속성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요인분석이다(김계수, 2010; 박영민, 2012 : 103 재인용). 요인분석은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기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들이 동일한 개념의 요인으로 구성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변수의 구조, 변수의 축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사용된 측정도구가 타당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구성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으로, 이는 측정도구들이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을 근거로 하여 구성되기는 하였으나, 우선 탐색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에 의해 요인을 추출하였는데, 이 때 각 요인들의 항목별 공통성(communality)은 0.40 이하일 때 낮다고 판단한다. 요인회전은 요인 간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각회전 방식 중 하나인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⁷¹⁾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 요인적재치가 0.40 이상이면 유의한 변수로 간주한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대하여 총 9개의 주민참여 측정 문항, 총 13개의 사회자본 측정 문항, 총 6개의 로컬거버넌스 측정 문항, 총 8개의 사업성과 측정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⁷²⁾ 그 결과는 다음 <표 4-28>과 같이 나타났다.

71)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요인분석 시 어떤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는 없다(배병렬, 2009; 박영민, 2012 : 103 재인용).

〈표 4-28〉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측정 문항	탐색적 요인분석							
	협리적 참여 (현재)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로컬 거버넌스 (현재)	경제적 성과 (현재)	비경제적 성과 (현재)	협력적 참여 (현재)	공통성
참여1(현재)	.893	.159	.123	.174	.108	.142	.182	.933
참여4(현재)	.891	.149	.121	.164	.122	.138	.218	.940
참여3(현재)	.884	.154	.104	.168	.123	.160	.198	.923
참여5(현재)	.881	.119	.104	.152	.130	.145	.241	.920
참여2(현재)	.745	.192	.109	.093	.019	.131	.040	.632
사회7(현재)	.152	.885	.123	.149	.066	.070	.042	.855
사회11(현재)	.152	.863	.116	.145	.071	.119	-.031	.822
사회13(현재)	.132	.857	.158	.138	.054	.105	-.003	.810
사회10(현재)	.131	.855	.135	.181	.046	.095	.058	.813
사회9(현재)	.029	.773	.125	.089	.010	.118	.162	.663
사회8(현재)	.016	.751	.117	.095	-.015	.084	.163	.621
사회12(현재)	.290	.661	.104	.164	.064	.091	-.070	.576
사회3(현재)	.114	.105	.904	.122	.049	.022	.031	.860
사회4(현재)	.104	.119	.899	.103	.055	.020	.059	.851
사회2(현재)	.114	.166	.843	.188	.095	.085	.077	.808
사회6(현재)	.104	.132	.828	.157	.052	.062	.070	.749
사회1(현재)	.051	.208	.739	.090	.003	.115	.004	.613
사회5(현재)	.040	.064	.689	.060	.127	.045	-.015	.502
로컬3(현재)	.058	.171	.154	.809	.029	.028	.070	.717
로컬2(현재)	.068	.109	.136	.803	.058	.028	.153	.707
로컬1(현재)	.042	.156	.124	.781	.074	.034	.137	.677
로컬5(현재)	.151	.189	.103	.761	.144	.153	-.009	.692
로컬4(현재)	.164	.113	.106	.740	.103	.138	-.035	.629
로컬6(현재)	.228	.122	.091	.697	.067	.149	-.080	.595
성과3(현재)	.134	.033	.065	.112	.919	.075	.077	.893
성과2(현재)	.156	.042	.071	.099	.916	.092	.076	.893
성과1(현재)	.060	.051	.139	.067	.840	.099	.091	.754
성과4(현재)	.111	.079	.075	.134	.835	.104	.149	.772
성과6(현재)	.189	.129	.082	.125	.070	.889	.099	.880
성과5(현재)	.167	.123	.127	.130	.126	.869	.155	.872
성과7(현재)	.152	.180	.030	.101	.060	.865	.045	.821
성과8(현재)	.184	.160	.102	.132	.159	.842	.114	.834
참여8(현재)	.554	.133	.087	.084	.192	.206	.735	.959
참여7(현재)	.546	.115	.092	.091	.209	.199	.732	.947
참여6(현재)	.564	.131	.082	.089	.200	.189	.731	.961
참여9(현재)	.547	.119	.061	.110	.220	.163	.730	.937
고유값	5.435	5.123	4.399	4.015	3.461	3.449	2.549	
분산설명력(%)	15.097	14.230	12.221	11.152	9.613	9.581	7.081	
누적 분산설명력(%)	15.097	29.327	41.548	52.700	62.313	71.894	78.975	

KMO : 0.926,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 0.000

72)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동일한 설문 문항에 대한 동일인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현재의 인식을 묻는 것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 측정 문항은 18개, 사회자본 측정 문항은 26개, 로컬거버넌스 측정 문항은 12개, 그리고 사업성과 측정 문항은 16개가 된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연구모형의 측정 문항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분산설명력은 78.975%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연구모형의 요인은 협의적 참여(현재), 협력적 참여(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경제적 성과(현재),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7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성요인들의 고유값(eigen value)은 최저 2.549로 모두 1 이상이며, 요인적재량은 모두 0.4 이상으로 기준치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유의한 변수로 판단된다.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유사한 조건하에서 같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비슷한 결과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반복된 자료가 유사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나타내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다(이군희, 2008 : 80).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는 Chronbach's α 계수에 의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계수는 0~1까지의 값을 가지며, 보통 0.6 이상일 때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1에 가까울수록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신뢰도의 척도인 α 값은 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각 측정 항목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한 상관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요인분석의 결과 추출된 요인들에 대하여 각 요인들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해당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항목에 대해서는 제거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각 변수별 요인들의 측정도구를 분석하였으며,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현재)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협의적 참여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61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87로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29>의 내용과 같다.

〈표 4-29〉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의적 참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0.954	0.942	
	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짐	0.683	0.987	항목 제거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0.944	0.943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함	0.956	0.941	
	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에 참여함	0.937	0.945	
전체 Chronbach's $\alpha = 0.961$				

② 협력적 참여(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협력적 참여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8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협력적 참여(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0〉의 내용과 같다.

〈표 4-30〉 협력적 참여(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협력적 참여 (현재)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0.976	0.983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0.967	0.985	
	사업 계획·시행단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0.976	0.983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0.959	0.987	
전체 Chronbach's $\alpha = 0.988$				

(2) 사회자본(현재)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20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30으로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1>의 내용과 같다.

<표 4-31>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친지들을 신뢰함	0.677	0.918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0.841	0.896	
	마을의 자치규약을 알고 있음	0.874	0.891	
	마을의 자치규약을 준수함	0.867	0.892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함	0.593	0.930	항목 제거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0.798	0.902	
전체 Chronbach's α = 0.920				

②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30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32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2>의 내용과 같다.

〈표 4-32〉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0.881	0.910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함	0.691	0.929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함	0.729	0.926	
	지자체 행정에 대해 신뢰함	0.854	0.913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함	0.852	0.913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함	0.640	0.932	항목 제거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0.845	0.914	
전체 Chronbach's $\alpha = 0.930$				

(3) 로컬거버넌스(현재)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로컬거버넌스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892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로컬거버넌스(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3〉과 같이 나타났다.

〈표 4-33〉 로컬거버넌스(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로컬 거버넌스 (현재)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0.709	0.874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0.724	0.871	
	전문가그룹(자문단)의 협조가 충분함	0.748	0.868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동반자적(동등한) 관계로 협력함	0.692	0.876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됨	0.748	0.867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은 서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짐	0.654	0.883	
전체 Chronbach's $\alpha = 0.892$				

(4) 사업성과(현재) 변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①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28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값이 0.929로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의 전체 Chronbach's α 값보다 크게 나타난 '가구 소득이 증가함' 항목은 이론 구조에 맞지 않게 적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제거하였다.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4>의 내용과 같다.

<표 4-34> 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경제적 성과(현재)	가구소득이 증가함	0.766	0.929	항목제거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0.891	0.887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0.891	0.887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0.787	0.921	
전체 Chronbach's $\alpha = 0.928$				

② 비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의 항목에 대한 신뢰도 분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비경제적 성과 요인에 대한 전체 Chronbach's α 값이 0.940으로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값도 적합하므로 비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의 측정 항목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비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35>의 내용과 같다.

<표 4-35> 비경제적 성과(현재)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명	측정 항목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관계	항목 삭제 시 Chronbach's α	비고
비경제적 성과(현재)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0.874	0.917	
	주민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0.887	0.913	
	공동시설의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0.824	0.932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0.847	0.925	
전체 Chronbach's $\alpha = 0.940$				

2.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성 검증

앞의 제1항에서는 본 연구 잠재변수들의 단일차원성(uni-dimensionality)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 EFA)을 실시하여 측정 항목들을 선별하였고, 본 절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선별된 측정 항목들에 대하여 다시 재확인하고, 측정 항목간의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 CFA)⁷³⁾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의 표본 크기는 150개 이상을 필요로 하는데(Anderson and Gerbing, 1988 : 415-416), 본 연구에서는 480개의 표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⁷⁴⁾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2단계 접근법(two step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측정모형과 연구모형 간에 불필요한 상호작용을 피하게 하고, 개별 관측변수에 의해 반영되는 바를 잠재변수가 잘 나타내게 하는 장점이 있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measurement model)의 적합도 평가를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추출된 잠재변수들에 대한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2단계에서는 확증된 측정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 분석 등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Anderson and Gerbing, 1988; 조부연, 2011 : 53-54; 정주영, 2013 : 95).

우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몇 개의 항목을 제거하였고, 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한 최종 관측변수는 다음 <표 4-36>과 같이 정리되었다.⁷⁵⁾

73) 확인적 요인분석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연구자가 미리 설정하고, 관측변수들의 상관관계 구조를 파악하여 이론적으로 설정한 당초의 구조와 비교함으로써 연구자가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 어느 정도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이근희, 2008 : 608).

74)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최소 150개 정도가 필요하며, 200~400개 정도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Schumacker & Lomax, 2004). 그러나 모형이 복잡할 경우 표본의 크기를 늘릴 필요가 있다(Hoogland & Boomsma, 1998; 우종필, 2013 : 276). 본 연구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우, 전체 480개의 표본을 확보하였고, 집단별 표본도 최소 150개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의 분석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5) 본 연구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측정모형을 '측정모형(현재)'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을 '연구모형(현재)'으로 칭하고자 한다.

〈표 4-36〉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최종 연구모형(현재)의 관측변수 구성

개념	잠재변수	관측변수	비고
주민참여 (현재)	협리적 참여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음	참여1(현재)
		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함	참여3(현재)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함	참여4(현재)
		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견학에 참여함	참여5(현재)
	협력적 참여 (현재)	사업 관련 마을회의에 참여함	참여6(현재)
		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임	참여7(현재)
		사업 계획·시행단계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	참여8(현재)
		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함	참여9(현재)
사회자본 (현재)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함	사회2(현재)
		마을의 자치규약을 알고 있음	사회3(현재)
		마을의 자치규약을 준수함	사회4(현재)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냄	사회6(현재)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함	사회7(현재)
		지자체 행정에 대해 신뢰함	사회10(현재)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대함	사회11(현재)
		경제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	사회13(현재)
로컬 거버넌스 (현재)	로컬 거버넌스 (현재)	지자체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1(현재)
		지자체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함	로컬2(현재)
		전문가그룹의 협조가 충분함	로컬3(현재)
		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됨	로컬5(현재)
사업성과 (현재)	경제적 성과 (현재)	마을 내 토지가격이 상승함	성과2(현재)
		마을 내 방문객이 증가함	성과3(현재)
		마을 내 일자리가 창출됨	성과4(현재)
	비경제적 성과 (현재)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됨	성과5(현재)
		주민의 단합정도가 개선됨	성과6(현재)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됨	성과7(현재)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함	성과8(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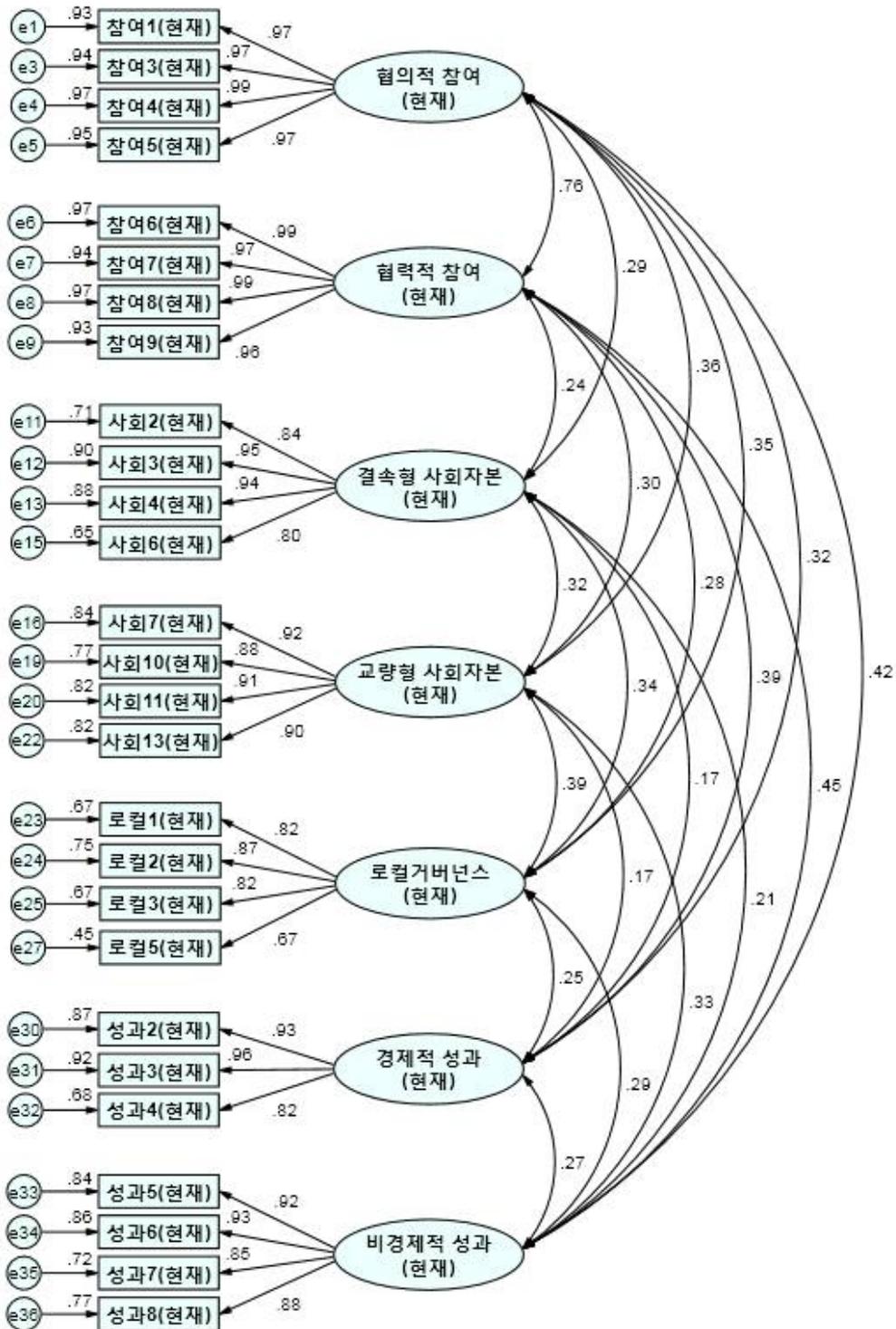
※ 측정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음.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모형 적합도 지수(model fit indices)의 산출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모형 적합도 지수는 절대 적합도 지수(absolute fit index), 증분 적합도 지수(incremental fit index), 간명 적합도 지수(parsimonious fit index)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절대 적합도 지수는 RMR(<0.05 기준), RMSEA(<0.05 기준, 0.05~0.10 수용가능), GFI(>0.90 기준) 등으로 구성되고, 증분 적합도 지수는 NFI(>0.90 기준), IFI(>0.90 기준), TLI(>0.90 기준), CFI(>0.90 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간명 적합도 지수는 AGFI(>0.90 기준)와 χ^2/df (<2.00 기준)으로 구성된다.

수렴타당성, 판별타당성의 검증을 위해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 AVE) 값과 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 C.R.) 값을 사용하였는데, 수렴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의 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렴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λ 값(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이 0.5 이상이어야 하고(0.7 이상이면 바람직함),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0.5 이상이어야 하며, 개념신뢰도(C.R.) 값이 0.7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판별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균분산추출(AVE) 값의 제곱근이 상관계수보다 커야 하고, (상관계수 $\pm 2 \times$ 표준오차)의 값이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노경섭, 2016 : 293-303; 우종필, 2013 : 162-176).



(그림 4-6) 측정모형(현재)의 확인적 요인분석

〈표 4-37〉 측정모형(현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잠재 변수	관측 변수	요인 적재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표준 오차	C.R.	SMC	AVE	개념 신뢰도	Chronbach's α	
협리적 참여 (현재)	참여1(현재)	1.000*	0.965			0.932	0.972	0.993	0.987	
	참여3(현재)	1.033	0.971	0.017	59.558	0.944				
	참여4(현재)	1.030	0.987	0.015	68.226	0.973				
	참여5(현재)	1.012	0.973	0.017	60.369	0.947				
협력적 참여 (현재)	참여6(현재)	1.000*	0.986			0.973	0.963	0.991	0.988	
	참여7(현재)	0.986	0.972	0.013	73.850	0.945				
	참여8(현재)	0.992	0.986	0.011	90.529	0.972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참여9(현재)	0.972	0.963	0.015	66.747	0.928	0.887	0.969	0.935	
	사회2(현재)	1.000*	0.841			0.707				
	사회3(현재)	1.177	0.948	0.041	28.797	0.899				
	사회4(현재)	1.149	0.938	0.041	28.277	0.879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사회6(현재)	0.990	0.804	0.046	21.693	0.647	0.925	0.980	0.945	
	사회7(현재)	1.000*	0.917			0.842				
	사회10(현재)	0.967	0.875	0.033	29.651	0.766				
	사회11(현재)	1.017	0.907	0.031	32.474	0.822				
로컬 거버넌스 (현재)	사회13(현재)	0.984	0.904	0.031	32.155	0.816	0.767	0.929	0.869	
	로컬1(현재)	1.000*	0.816			0.665				
	로컬2(현재)	1.157	0.868	0.055	20.969	0.753				
	로컬3(현재)	1.037	0.817	0.053	19.665	0.668				
경제적 성과 (현재)	로컬5(현재)	0.869	0.671	0.056	15.385	0.451	0.872	0.953	0.929	
	성과2(현재)	1.000*	0.932			0.869				
	성과3(현재)	1.005	0.958	0.027	37.332	0.918				
비경제적 성과 (현재)	성과4(현재)	0.887	0.824	0.033	26.555	0.678	0.868	0.963	0.940	
	성과5(현재)	1.000*	0.917			0.842				
	성과6(현재)	0.958	0.925	0.028	34.105	0.856				
	성과7(현재)	0.889	0.851	0.032	27.643	0.723				
성과8(현재)	0.945	0.879	0.032	29.921	0.773					
측정모형 적합도	$\chi^2=551.172$, $df=303$, $p=0.000$, $CMIN/DF=1.819$, $GFI=0.920$, $AGFI=0.900$, $CFI=0.985$, $RMR=0.021$, $RMSEA=0.041$, $NFI=0.967$, $IFI=0.985$, $TLI=0.982$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	절대 적합지수	Chi-square test statistic(χ^2)				$p > 0.05$				
		Goodness-of fit index(GFI)				> 0.90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0.05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05 , $0.05\sim 1.00$ 이하 수용가능				
	증분 적합지수	Normed fit index(NFI)				> 0.90				
		Incremental fit index(IFI)				> 0.90				
		Turker-lewis index(TLI)				> 0.90				
		Comparative fit index(CFI)				> 0.90				
	간명 적합지수	Adjusted goodness-of-fit index(AGFI)				> 0.90				
		Normed chi-square(χ^2/df)				< 2.00				

주) * 측정모형에서 관측변수의 모수추정치들 처음 1로 고정시킨 값.

〈표 4-38〉 측정모형(현재)의 잠재변수 상관관계(상관계수) 및 판별타당성

구분	협의적 참여 (현재)	협력적 참여 (현재)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로컬 거버넌스 (현재)	경제적 사업성과 (현재)	sqrt (AVE)
협의적 참여 (현재)							0.986
협력적 참여 (현재)	0.759*** (1.699) 〈-0.181〉						0.982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0.286*** (0.510) 〈0.062〉	0.242*** (0.480) 〈0.004〉					0.942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0.357*** (0.625) 〈0.089〉	0.298*** (0.580) 〈0.016〉	0.325*** (0.519) 〈0.131〉				0.962
로컬 거버넌스 (현재)	0.350*** (0.628) 〈0.072〉	0.278*** (0.556) 〈0.000〉	0.337*** (0.551) 〈0.123〉	0.385*** (0.619) 〈0.151〉			0.876
경제적 성과 (현재)	0.323*** (0.671) 〈-0.025〉	0.390*** (0.920) 〈-0.140〉	0.175*** (0.325) 〈0.025〉	0.168*** (0.306) 〈0.030〉	0.251*** (0.471) 〈0.031〉		0.934
비경제적 성과 (현재)	0.422*** (0.854) 〈-0.010〉	0.453*** (1.039) 〈-0.133〉	0.214*** (0.388) 〈0.040〉	0.332*** (0.594) 〈0.070〉	0.286*** (0.524) 〈0.048〉	0.271*** (0.575) 〈-0.033〉	0.931

주 1)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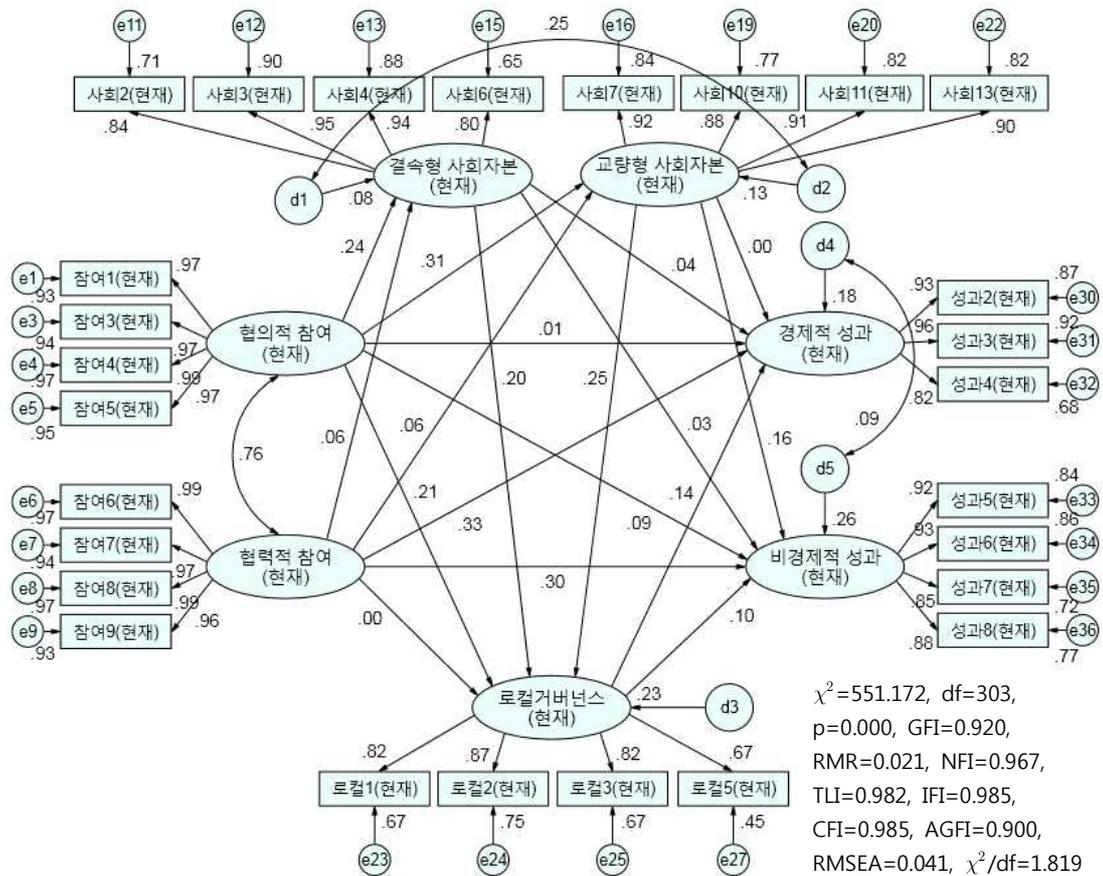
주 2) () :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

주 3) 〈 〉 :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

〈표 4-37〉의 내용과 같이, 측정모형(현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형 적합도 판단 기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화된 요인적재치 값이 모두 0.5 이상이고, 평균분산추출(AVE) 값이 모두 0.5 이상이며, 개념신뢰도(C.R.) 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표 4-38〉의 내용과 같이, sqrt(AVE)의 값이 모두 상관계수보다 크고, (상관계수 ± 2 × 표준오차)의 값이 모두 1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모형(현재)의 적합도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초 χ^2 (카이제곱)=581.022, df(자유도)=305, p=0.000, GFI=0.917, RMR=0.029, RMSEA=0.043, NFI=0.965, IFI=0.983, TLI=0.980, CFI=0.983, AGFI=0.897, $\chi^2/df=1.905$ 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적합도 수준은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AGFI 값에 대하여 0.9 이상을 그 기준치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조금 더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76)

[그림 4-7] 연구모형(현재)의 최종 분석 결과

76)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연구모형(현재)]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연구모형(조성 전)]과 동일한 형태로 최종 도출되었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향상을 위해 수정지수(M.I : Modification Index)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카이제곱 값을 낮추어서 모형의 적합도를 개선시키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M.I 값에 따르는 Par Change 값을 기준으로 내생잠재변수의 오차항 간 공분산을 설정(d1↔d2, d4↔d5)함으로써([그림 4-7] 참조)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

M.I를 이용하여 수정한 연구모형의 분석 결과, $\chi^2=551.172$, $df=303$, $p=0.000$, $GFI=0.920$, $RMR=0.021$, $RMSEA=0.041$, $NFI=0.967$, $IFI=0.985$, $TLI=0.982$, $CFI=0.985$, $AGFI=0.900$, $\chi^2/df=1.819$ 로 나타나 당초보다 모형의 적합도가 조금 더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⁷⁷⁾

〈표 4-39〉 연구모형(현재)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적합도 기준치	연구모형 (당초)	수정 연구모형 (최종)
절대적합지수			
Chi-square test statistic(χ^2)		581.022	551.172
Degrees of freedom(df)		305	303
p-value	> 0.05	0.000	0.000
Goodness-of fit index(GFI)	> 0.90	0.917	0.920
Root mean square residual(RMR)	< 0.05	0.029	0.021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	< 0.05 0.05~0.1이하 : 수용가능	0.043	0.041
충분적합지수			
Normed fit index(NFI)	> 0.90	0.965	0.967
Incremental fit index(IFI)	> 0.90	0.983	0.985
Turker-lewis index(TLI)	> 0.90	0.980	0.982
Comparative fit index(CFI)	> 0.90	0.983	0.985
간명적합지수			
Adjusted goodness-of-fit index(AGFI)	> 0.90	0.897	0.900
Normed chi-square(χ^2/df)	< 2.00	1.905	1.819

77) χ^2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은 통계적 유의성을 포함하는 적합도의 측정값이고, 본 연구모형(현재)의 분석 결과, $p=0.000$ 으로 나타남에 따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 수가 증가할 때 χ^2 검정이 유의한 확률수준을 보이게 되는 부분과 연관될 수 있으며, χ^2 (카이제곱) 검정 자체가 모형 채택에 있어 충분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적합도 지수를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송지준, 2009 : 342-343; 심현숙, 2012 : 67; 우종필, 2013 : 363-364; 현민철, 2016 : 10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설문자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시간대,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common method bias : CMB)의 문제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odsakoff et al.(2003)에 의해 제안된 다음 두 가지 통계분석을 통해 CMB를 확인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적용한 Harman의 단일요인검증(single factor test)을 시행하였는데, 이 검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단일요인이 도출되거나 또는 다수의 요인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한 요인이 측정변수들에 대한 총 분산의 대부분(50% 이상)을 설명한다면 상당한 CMB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연구모형(현재)의 측정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성된 측정 항목 즉, 협의적 참여(현재) 4개 항목, 협력적 참여(현재) 4개 항목,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4개 항목,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4개 항목, 로컬거버넌스(현재) 4개 항목, 경제적 성과(현재) 3개 항목, 비경제적 성과(현재) 4개 항목을 합한 27개의 측정 항목을 동시에 투입하여 베리맥스 회전의 주성분분석 EFA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7개의 요인들이 도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첫 번째 요인의 설명력도 13.933%로 누적 총 분산 86.973%의 16.02%(<50%)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CMB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적용한 Harman의 단일요인 검증을 시행하였는데, 이 검증은 단일잠재요인(single latent factor)이 변수들 간 공분산(covariance)의 대부분을 설명한다면 상당한 정도의 CMB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전체 측정 항목을 한 개의 잠재요인으로 만들어서 단일요인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단일요인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10054.537(p=0.000)$, GFI=0.343, RMR=0.104, RMSEA=0.250, NFI=0.390, IFI=0.397, TLI=0.346, CFI=0.396, AGFI=0.233, $\chi^2/df=31.033$ 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상당히 좋지 않아 단일요인으로 보기에 부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동일방법편의로 인하여 본 연구의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고(Podsakoff et al., 2003; 이은수 외, 2013), 이에 따라 앞에서 최종 수정하여 설정한 연구모형(현재)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가설(주가설 및 부가설)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4.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

주가설(H1~H3)은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검증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 연구가설의 검증과 관련하여 연구모형(현재)에서 제시한 매개요인들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는데,⁷⁸⁾ 앞에서 제시된 [그림 4-7]의 연구모형으로는 전체적 매개효과만 검증할 수 있고, 다중 매개요인들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추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⁷⁹⁾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매개요인들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40〉 연구모형(현재)의 전체 매개효과(비표준화 계수)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매개효과)	95% 간접 신뢰구간
협의를적 참여(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70	0.008	0.062**	0.018~0.123
협의를적 참여(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92**	0.099	0.093**	0.050~0.155
협력적 참여(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296**	0.291**	0.006	-0.020~0.027
협력적 참여(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259**	0.247**	0.012	-0.015~0.042

*p<0.05,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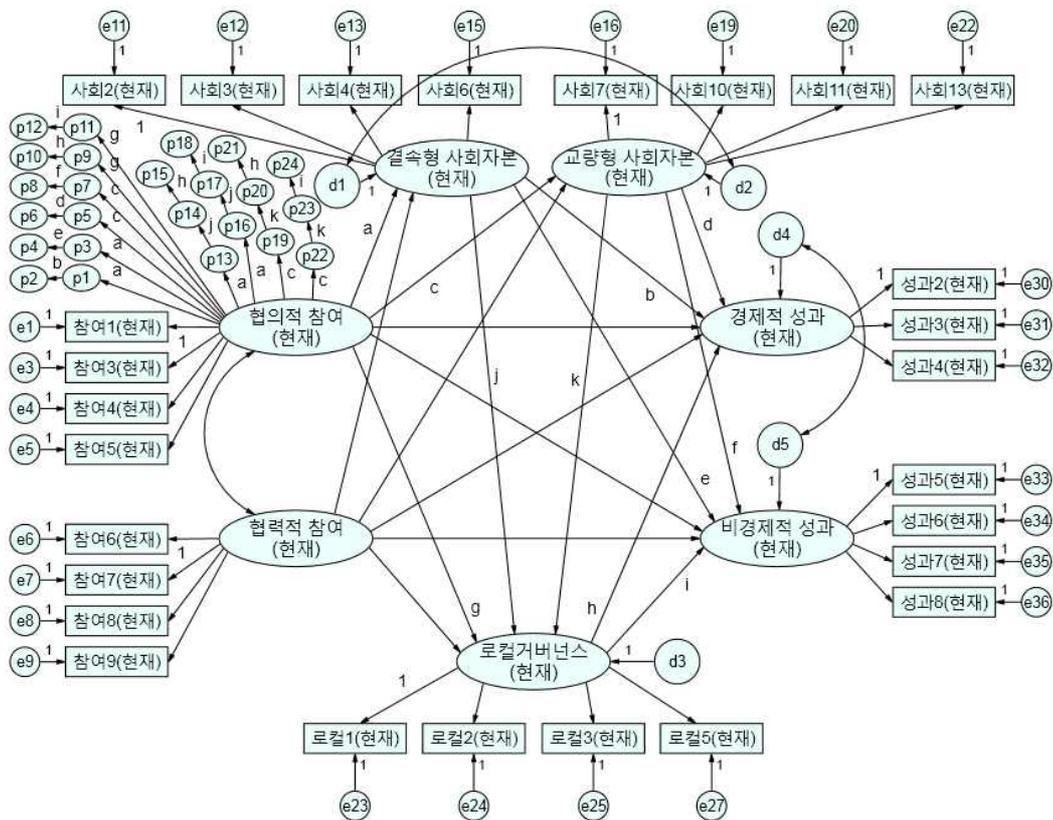
Bootstrapping 검증 결과, 위 〈표 4-40〉의 내용과 같이 협의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경로에서 95% 간접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협의적 참여(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에서 완전매개효과]⁸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결속형

78)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매개변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던 Baron and Kenny(1986)의 접근법이나 Sobel test(Sobel, 1982) 등의 방법들이 통계적 검정력이 미약하거나, 부정확할 수 있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체적 방안으로 bootstrapping 기법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이현웅, 2014 : 227; 김현우 외, 2015 : 94). 본 연구에서의 bootstrapping 검증은 기본적으로 복원 추출법을 통해 500회 반복하고, bias-corrected 방법을 이용하여 95% 신뢰수준의 신뢰구간을 설정하였다.

79) Amos를 활용하는 분석에서 매개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의 간접효과가 분리되지 않고 합쳐져 제시되기 때문에 각각의 세부경로에 대한 매개효과는 검증하지 못한다. 따라서 모형의 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매개변수 각각의 특정 간접효과(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팬텀변수(phantom variable)를 활용할 수 있다(배병렬, 2014; 김현우 외, 2015 : 93; 정현달 외, 2016 : 199).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의 개별적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전체 매개효과는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매개요인인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의 개별적 매개효과에 대한 검증이 무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가설(H1~H3)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협력적 참여를 제외한 협의적 참여와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의 개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을 분석하였다. 아래 [그림 4-8]은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팬텀변수(p1~p24)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이다.



[그림 4-8]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

80)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경우 매개변수는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한 경우 매개변수는 완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직접효과는 유의하지만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 매개변수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41〉 팬텀변수를 포함하는 연구모형(현재)의 개별 매개효과 분석(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매개효과 추정치(B)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판정
H1a	(p2)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12	0.013	-0.013~0.041	기각
H1b	(p4)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07	0.013	-0.015~0.036	기각
H1c	(p6)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01	0.017	-0.039~0.033	기각
H1d	(p8)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52**	0.020	0.022~0.101	채택
H2a	(p10)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32**	0.017	0.009~0.088	채택
H2b	(p12)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21*	0.013	0.001~0.054	채택
H3a	(p15)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07**	0.004	0.002~0.020	채택
H3b	(p18)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05*	0.003	0.001~0.015	채택
H3c	(p21)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12**	0.006	0.004~0.028	채택
H3d	(p24)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08*	0.005	0.001~0.019	채택

*p<0.05, **p<0.01

추가설 1(H1)은 주민참여가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의 분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2, p4),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6)에서는 매개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8)에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의적 참여(현재)가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을 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현재)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설 2(H2)는 주민참여가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의 분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0, p12)에서 로컬거버넌스(현재)는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협의적 참여(현재)가 로컬거버넌스(현재)를 매개하여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설 3(H3)은 주민참여가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사업성과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의 분석 결과, '협약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5, p18, p21, p24)에서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는 이중매개(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협약적 참여(현재)는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에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검증

부가설 4(H4)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검증을 위해 우선 전체 표본을 서부·동부(서부 N=240, 동부 N=240), 상위·하위(상위 N=240, 하위 N=240) 등의 집단별로 구분하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집단 간 차이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multiple group analysis)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집단별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하고, 이때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면 집단 간 조절효과 비교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절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별로 구분하여 설정한 경로모형에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를 제약하지 않은 비제약(free)모형과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를 제약한 제약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해야 하고, 그 다음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을 각각 분석하여 두 모형 간의 χ^2 차이 검증을 해야 한다. 이때 df 증가분에 따르는 χ^2 증가분($\Delta\chi^2$)이 χ^2 분포표상의 기준치(p<0.05)를 초과하여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비제약모형이 제약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즉,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판명하게 된다.

앞에서 추가설(H1~H3)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 매개요인들의 전체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ootstrapping 검증을 실시한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경로에서 전체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적 참여(현재)와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 간의 전체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검증 결과를 근거로, 매개요인인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개별적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협의적 참여(현재) 요인에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을 이용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 분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

연구모형(현재)의 분석에 있어서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 <표 4-42>와 같이 5 단계에 걸쳐 측정하였다.

<표 4-42>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현재)

모형	χ^2	df	CFI	RMSEA	$\Delta\chi^2$ (df)	$\Delta\chi^2$ Sig. Dif
모형 1. 형태동일성 모형 (비제약 모형)	1000.482	606	0.976	0.037	-	-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 (λ 제약 모형)	1031.641	626	0.975	0.037	31.159 (20)	비유의
모형 3. 공분산 동일성 모형 (ϕ 제약 모형)	1035.529	634	0.976	0.036	35.047 (28)	비유의
모형 4. 요인부하량·공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제약 모형)	1078.354	654	0.974	0.037	77.872 (48)	유의
모형 5. 요인부하량·공분산·오차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θ 제약 모형)	1424.160	681	0.955	0.048	423.678 (75)	유의

서부·동부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간의 df 차이가 20($\Delta df=20$)일 때 χ^2 의 차이는 31.159($\Delta\chi^2=31.159$)로, $\chi_{0.05}^2$ 분포표상의 기준치 31.4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모형 1과 모형 3 간의 df 차이가 28($\Delta df=28$)일 때 χ^2 의 차이는

35.047($\Delta\chi^2=35.047$)로, $\chi_{0.05}^2$ 분포표상의 기준치 41.34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모형 4와 모형 5는 모형 1(비제약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이 부분은 추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3 : 423; 박세준, 2016 : 112-113 재인용).

위와 같이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서부·동부 집단 간 조절효과 비교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아래 <표 4-43>의 내용과 같이 서부·동부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df 차이가 38($\Delta df=38$)일 때 χ^2 의 차이가 55.929($\Delta\chi^2=55.929$)로, $\chi_{0.05}^2$ 분포표상의 기준치 53.38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별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3> 서부·동부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구분	χ^2	df	χ^2/df	CFI	RMSEA	$\Delta\chi^2$ (df)	Sig.
비제약(free)모형	1000.482	606	1.651	0.976	0.037		
제약모형	1056.411	644	1.640	0.975	0.037		
차이 (제약모형-비제약모형)	55.929	38				55.929 (38)	유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44>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8)에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0)에서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21)에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이중매개(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동부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8)에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리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2)에서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5, p18, p21, p24)에서 결속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이중매개(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집단에서는 p8, p10, p21의 경로에서만 매개효과(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동부집단에서는 p8, p12, p15, p18, p21, p24의 경로에서 매개효과(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집단과 동부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 p8, p21의 경로에서는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에서의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p10, p12, p15, p18, p24의 경로에서 서부집단과 동부집단 간 명확한 매개효과 차이를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4-44〉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현재, 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⁸¹⁾	서부집단(현재)			동부집단(현재)			판정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H4a-1	p2	0.009	0.014	-0.009~0.058	0.000	0.027	-0.059~0.051	가각
H4a-2	p4	0.012	0.015	-0.009~0.059	-0.004	0.028	-0.062~0.050	가각
H4a-3	p6	0.001	0.021	-0.044~0.047	0.006	0.025	-0.043~0.058	가각
H4a-4	p8	0.034*	0.023	0.002~0.095	0.056**	0.030	0.012~0.133	가각
H4a-5	p10	0.047*	0.030	0.009~0.145	0.025	0.022	-0.001~0.096	채택
H4a-6	p12	-0.005	0.019	-0.049~0.027	0.043*	0.029	0.003~0.122	채택
H4a-7	p15	0.004	0.005	-0.001~0.025	0.010*	0.008	0.001~0.038	채택
H4a-8	p18	0.000	0.002	-0.010~0.002	0.017**	0.010	0.004~0.048	채택
H4a-9	p21	0.011*	0.008	0.001~0.038	0.010*	0.008	0.001~0.037	가각
H4a-10	p24	-0.001	0.005	-0.012~0.008	0.017**	0.010	0.003~0.041	채택

*p<0.05, **p<0.01

2)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

연구모형(현재)의 분석에 있어서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다수의 응답자들이 측정도구에 대해 동등하게 인식하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측정동일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다중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아래 <표 4-45>와 같이 5 단계에 걸쳐 측정하였다.

<표 4-45>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현재)

모형	χ^2	df	CFI	RMSEA	$\Delta\chi^2$ (df)	$\Delta\chi^2$ Sig. Dif
모형 1. 형태동일성 모형 (비제약 모형)	882.045	606	0.981	0.031	-	-
모형 2.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 (λ 제약 모형)	908.708	626	0.981	0.031	26.663 (20)	비유의
모형 3. 공분산 동일성 모형 (ϕ 제약 모형)	959.298	634	0.978	0.033	77.253 (28)	유의
모형 4. 요인부하량·공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제약 모형)	982.747	654	0.978	0.032	100.702 (48)	유의
모형 5. 요인부하량·공분산·오차분산 동일성 모형 (λ, ϕ, θ 제약 모형)	1191.155	681	0.965	0.040	309.110 (75)	유의

상위·하위 집단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1과 모형 2 간의 df 차이가 20($\Delta df=20$)일 때 χ^2 의 차이는 26.663($\Delta\chi^2=26.663$)으로, $\chi_{0.05}^2$ 분포표상의 기준치 31.4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두 집단에서 측정도구를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단, 모형 3·4·5는 모형 1(비제약 모형)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81) 팬텀변수를 추가하여 재구성한 연구모형(현재)의 세부 경로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그림 4-8) 참조.

경로	경로 설명
p2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p4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p6	협리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p8	협리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p10	협리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p12	협리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p15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p18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p21	협리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p24	협리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이 부분은 추후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전환했을 때 가설에 해당되는 인과관계로 변환되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우종필, 2013 : 423; 박세준, 2016 : 112-113 재인용).

위와 같이 측정동일성이 성립된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조절효과 비교 검증을 위해 다중집단분석(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46>의 내용과 같이 상위·하위 집단 간 비제약모형과 제약모형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제약모형과 비제약모형의 df 차이가 38($\Delta df=38$)일 때 χ^2 의 차이가 54.256($\Delta \chi^2=54.256$)으로, $\chi_{0.05}^2$ 분포표상의 기준치 53.38을 초과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6> 상위·하위 집단의 경로모형 적합도 및 모형 간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구분	χ^2	df	χ^2/df	CFI	RMSEA	$\Delta \chi^2$ (df)	Sig.
비제약(free)모형	882.045	606	1.456	0.981	0.031		
제약모형	936.301	644	1.454	0.980	0.031		
차이 (제약모형-비제약모형)	54.256	38				54.256 (38)	유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 <표 4-47>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8)에서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0)에서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15, p21)에서 결속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가 이중매개(완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p8)에서만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이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집단에서는 p8, p10, p15, p21의 경로에서 매개효과(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p8 하나의 경로에서만 매개효과(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 p8의 경로에서는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에서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집단 간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p10, p15, p21의 경로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간 명확한 매개효과 차이를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표 4-47〉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 분석(현재, 비표준화 계수)

가설	경로	상위집단(현재)			하위집단(현재)			판정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간접효과 (매개효과)	표준 오차	95% 간접신뢰구간	
H4b-1	p2	-0.005	0.020	-0.077~0.025	0.025	0.021	-0.005~0.082	기각
H4b-2	p4	-0.016	0.023	-0.091~0.011	0.021	0.017	-0.001~0.068	기각
H4b-3	p6	-0.002	0.027	-0.070~0.046	0.004	0.024	-0.044~0.056	기각
H4b-4	p8	0.065**	0.036	0.016~0.152	0.037*	0.023	0.003~0.093	기각
H4b-5	p10	0.109**	0.048	0.043~0.233	0.001	0.009	-0.013~0.032	채택
H4b-6	p12	0.034	0.038	-0.033~0.135	0.004	0.012	-0.013~0.041	기각
H4b-7	p15	0.013*	0.009	0.001~0.043	0.001	0.004	-0.005~0.013	채택
H4b-8	p18	0.004	0.006	-0.002~0.029	0.005*	0.004	0.000~0.019	기각
H4b-9	p21	0.015**	0.010	0.003~0.053	0.003	0.007	-0.010~0.021	채택
H4b-10	p24	0.004	0.007	-0.002~0.034	0.009*	0.007	0.000~0.028	기각

*p<0.05, **p<0.01

6. 잠재변수 간의 영향관계 검증

부가설 H5~H10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잠재변수 간 경로 유의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 검증과 관련된 것이다.

〈표 4-48〉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검증 결과(현재)

가설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S.E.	C.R. (t)	판정
H5a	협의를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240***	0.056	3.388	채택
H5b	협의를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308***	0.053	4.445	채택
H5c	협력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060	0.044	.853	기각
H5d	협력적 참여(현재)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064	0.042	.924	기각
H6a	협의를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205**	0.057	2.921	채택
H6b	협력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000	0.044	-.001	기각
H7a	협의를적 참여(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08	0.077	.109	기각
H7b	협의를적 참여(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94	0.070	1.414	기각
H7c	협력적 참여(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335***	0.059	4.968	채택
H7d	협력적 참여(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298***	0.053	4.642	채택
H8a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198***	0.050	4.047	채택
H8b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248***	0.053	4.917	채택
H9a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45	0.067	.922	기각
H9b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28	0.061	.612	기각
H9c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004	0.073	-.072	기각
H9d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63***	0.067	3.340	채택
H10a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142**	0.072	2.666	채택
H10b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98	0.065	1.938	기각

*p<0.05, **p<0.01, ***p<0.001

부가설 5(H5)는 주민참여가 사회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는 결속형 사회자본(현재)($\beta=0.240$, $p<0.001$)과 교량형 사회자본(현재)($\beta=0.308$,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참여(현재)는 결속형 사회자본(현재)($\beta=0.060$, $p>0.05$)과 교량형 사회자본(현재)($\beta=0.064$,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6(H6)은 주민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는 로컬거버넌스(현재)($\beta=0.205$,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협력적 참여(현재)는 로컬거버넌스(현재)($\beta=0.000$,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7(H7)은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는 경제적 성과(현재)($\beta=0.008$, $p>0.05$)와 비경제적 성과(현재)($\beta=0.094$,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협력적 참여(현재)는 경제적 성과(현재)($\beta=0.335$, $p<0.001$)와 비경제적 성과(현재)($\beta=0.298$,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8(H8)은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결속형 사회자본(현재)은 로컬거버넌스(현재)($\beta=0.198$,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량형 사회자본(현재)도 로컬거버넌스(현재)($\beta=0.248$, $p<0.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9(H9)는 사회자본이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결속형 사회자본(현재)은 경제적 성과(현재)($\beta=0.045$, $p>0.05$)와 비경제적 성과(현재)($\beta=0.028$,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량형 사회자본(현재)은 경제적 성과(현재)($\beta=-0.004$, $p>0.05$)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비경제적 성과(현재)($\beta=0.163$, $p<0.001$)에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설 10(H10)은 로컬거버넌스가 사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다. 연구모형(현재)의 검증 결과, 로컬거버넌스(현재)는 경제적 성과(현재)($\beta=0.142$, $p<0.01$)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경제적 성과(현재)($\beta=0.098$, $p>0.05$)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집단별 영향관계 차이 검증

부가설 11(H11)은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⁸²⁾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부가설 4(H4)의 검증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기에 이어서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 보았다.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각 집단별 행렬의 parameters 값들을 비교하여 두 집단의 교차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때 행렬의

82) 앞의 제3장 제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조사의 사업성과(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인식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의 각 집단별 상위 2개 마을과 하위 2개 마을을 선별하여 서부·동부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정하였으며, 이는 상위·하위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 마을이 되기도 한다. 단, 여기서 상위·하위 집단의 구분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한 것임을 다시 밝혀둔다.

C.R.(Critical Ratio) 값 차이(Differences)가 $\pm 1.965(\alpha=0.05)$ 보다 크면 두 집단 간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⁸³⁾

1)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연구모형(현재)의 분석에 있어서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표 4-49>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동부 집단 간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C.R.)의 값이 $\pm 1.965(\alpha=0.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 중에서 협리적 참여와 결속형 사회자본의 영향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동부집단의 경우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376, p<0.001$) 나타난 반면, 서부집단의 경우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beta=0.102, p>0.05$)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동부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결속형 사회자본이 상당히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로컬거버넌스와 비경제적 성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동부집단의 경우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233, p<0.01$) 나타난 반면, 서부집단의 경우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beta=-0.018, p>0.05$)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에서는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동부집단에서는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될수록 비경제적 성과가 상당히 증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83) 연구모형의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첫째, 연구자가 직접 각각의 집단 간 경로를 제약하여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 집단 간 전체 경로를 제약한 후 Pairwise Parameter comparison의 C.R.(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 값을 통해 확인(C.R. 값이 $\pm 1.965(\alpha=0.05)$ 이상이면 경로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첫째 방법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모형의 고정된 계수의 수만큼 각각 분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우종필, 2013 : 442-45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경로에서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둘째 방법으로 접근하여 검증하였다.

그 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 또는 동부집단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에서의 집단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이 동부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의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동부집단이 서부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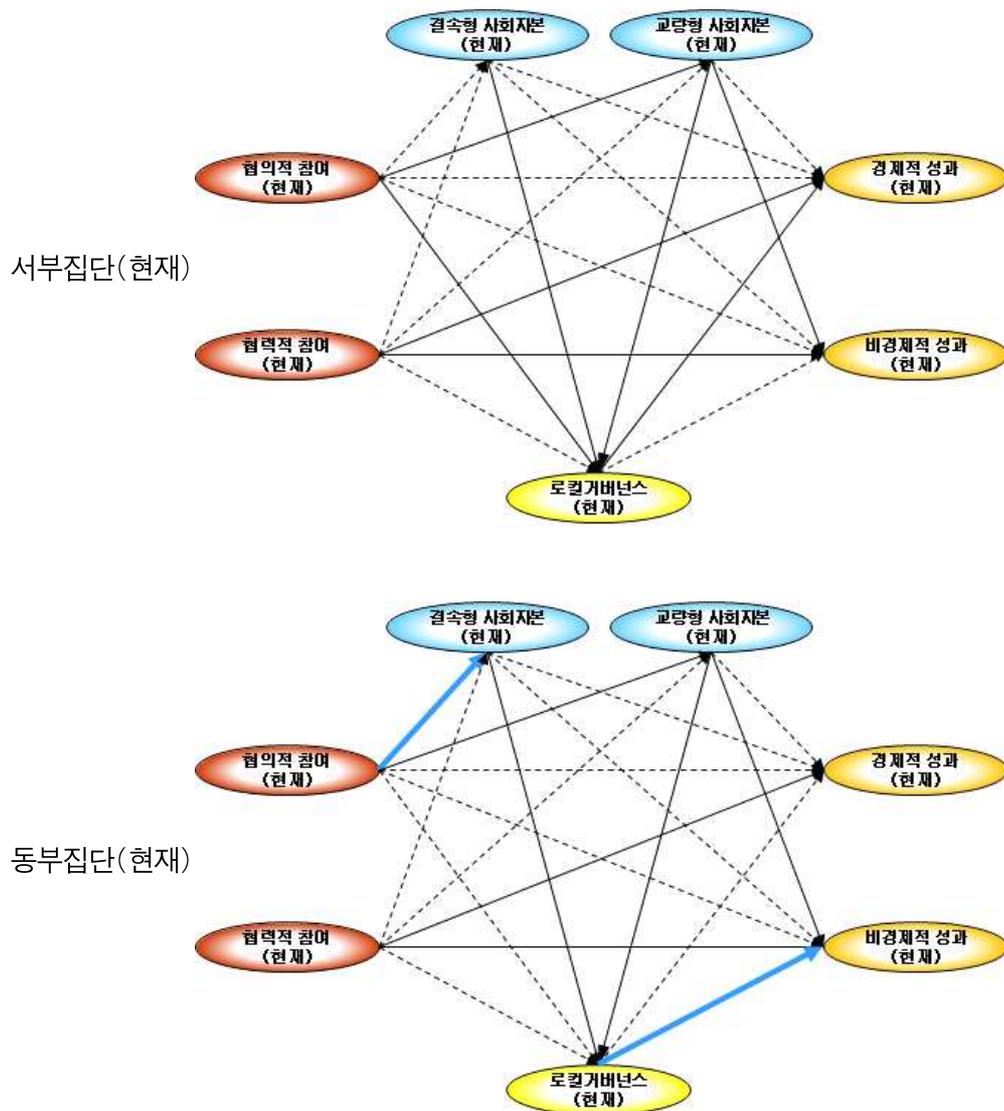
〈표 4-49〉 서부·동부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가설	경로	표준 경로계수		C.R.	판정
		서부집단	동부집단		
H11a-1	협의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102	0.376***	2.140	채택
H11a-2	"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227*	0.330***	0.947	기각
H11a-3	" → 로컬거버넌스(현재)	0.252*	0.185	-0.254	기각
H11a-4	" → 경제적 성과(현재)	0.029	0.103	0.45	기각
H11a-5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37	-0.018	-1.203	기각
H11a-6	협력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099	0.010	-0.618	기각
H11a-7	"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097	0.055	-0.300	기각
H11a-8	" → 로컬거버넌스(현재)	-0.089	0.067	1.136	기각
H11a-9	" → 경제적 성과(현재)	0.314**	0.280**	-0.816	기각
H11a-10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324***	0.325***	-0.498	기각
H11a-11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210**	0.195**	-0.128	기각
H11a-12	" → 경제적 성과(현재)	0.073	0.000	-0.852	기각
H11a-13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10	-0.010	-1.418	기각
H11a-14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253***	0.223**	-0.224	기각
H11a-15	" → 경제적 성과(현재)	0.005	0.018	0.104	기각
H11a-16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38*	0.171*	0.014	기각
H11a-17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157*	0.137	-0.604	기각
H11a-18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18	0.233**	2.236	채택

*p<0.05, **p<0.01, ***p<0.001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의 경우,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와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동부집단의 경우,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결속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¹⁾의 영향을 미치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 거버넌스와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²⁾의 영향을 미치며, 로컬거버넌스는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부·동부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²⁾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9) 서부·동부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현재)

- 주 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주 2) 굵은 선은 조절효과가 유의한(집단 간 C.R > ±1.965) 경로를 나타냄.

2)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

연구모형(현재)의 분석에 있어서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여 두 집단의 경로계수를 비교해보았다.

비교분석 결과, <표 4-50>의 내용과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하위 집단 간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s between parameters(C.R.)의 값이 ± 1.965 ($\alpha=0.0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협리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협력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통계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로 중에서 협리적 참여와 로컬거버넌스의 영향관계를 먼저 살펴보면, 상위집단의 경우 협리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319$, $p<0.001$) 나타난 반면, 하위집단의 경우 협리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beta=0.034$, $p>0.05$)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하위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상위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증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협력적 참여와 로컬거버넌스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위집단의 경우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268$, $p<0.01$) 나타난 반면, 하위집단의 경우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beta=0.187$, $p<0.05$)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오히려 쇠퇴하는 반면, 하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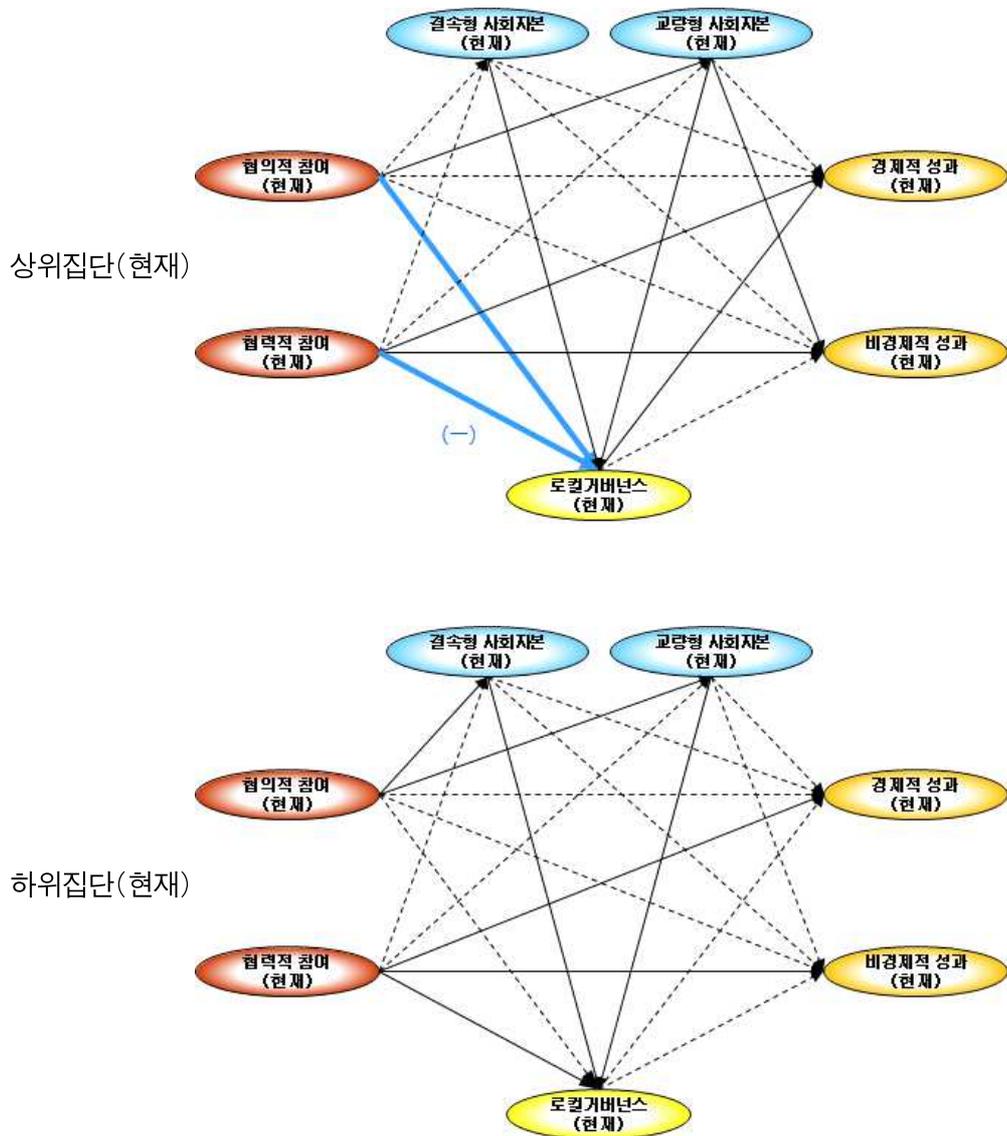
그 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집단 또는 하위집단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경로에서의 집단별 영향관계를 살펴본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리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협력적 참여(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비경제적 성과(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하위집단이 상위집단보다 더 유의한 영향관계를 가지는 경로는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의 경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0〉 상위·하위 집단 간 경로계수 차이 유의성 검증(현재)

가설	경로	표준 경로계수		C.R.	판정
		상위집단	하위집단		
H11b-1	협리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171	0.237*	-0.078	기각
H11b-2	"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239**	0.305***	-0.624	기각
H11b-3	" → 로컬거버넌스(현재)	0.319***	0.034	-2.664	채택
H11b-4	" → 경제적 성과(현재)	-0.117	0.051	1.336	기각
H11b-5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34	0.078	-0.841	기각
H11b-6	협력적 참여(현재) →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0.004	-0.048	-0.400	기각
H11b-7	" →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0.028	-0.052	-0.118	기각
H11b-8	" → 로컬거버넌스(현재)	-0.268**	0.187*	3.626	채택
H11b-9	" → 경제적 성과(현재)	0.312***	0.317***	0.381	기각
H11b-10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215*	0.212*	-0.337	기각
H11b-11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215**	0.182**	-0.400	기각
H11b-12	" → 경제적 성과(현재)	-0.020	0.096	1.255	기각
H11b-13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61	0.101	1.650	기각
H11b-14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 로컬거버넌스(현재)	0.178*	0.275***	1.347	기각
H11b-15	" → 경제적 성과(현재)	-0.006	0.013	0.201	기각
H11b-16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183**	0.136	-0.422	기각
H11b-17	로컬거버넌스(현재) → 경제적 성과(현재)	0.247**	0.028	-1.799	기각
H11b-18	" → 비경제적 성과(현재)	0.070	0.124	0.395	기각

*p<0.05, **p<0.01, ***p<0.001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상위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와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하위집단에서는 협리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0) 상위·하위집단 간 조절효과 검증(현재)

- 주 1) 실선은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냄.
- 주 2) 굵은 선은 조절효과가 유의한(집단 간 C.R. > ±1.965) 경로를 나타냄.

8.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부가설 12(H12)는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서부·동부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51>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1>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현재)

가설	구분		서부 (n=240)	동부 (n=240)	t	p	판정
H12 a-1	협의적 참여 (현재)	평균	4.23	4.06	2.699	0.007**	채택
		표준편차	0.71	0.72			
H12 a-2	협력적 참여 (현재)	평균	2.51	2.53	-0.194	0.846	기각
		표준편차	0.83	0.92			
H12 a-3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평균	3.96	3.94	0.329	0.742	기각
		표준편차	0.57	0.67			
H12 a-4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평균	3.36	3.26	2.004	0.046*	채택
		표준편차	0.51	0.58			
H12 a-5	로컬거버넌스 (현재)	평균	3.22	3.10	2.079	0.038*	채택
		표준편차	0.58	0.64			
H12 a-6	경제적 성과 (현재)	평균	3.89	4.15	-3.699	0.000***	채택
		표준편차	0.81	0.69			
H12 a-7	비경제적 성과 (현재)	평균	3.56	3.37	2.921	0.004**	채택
		표준편차	0.76	0.65			

*p<0.05, **p<0.01, ***p<0.001

서부·동부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경제적 성과(현재)에 대하여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고, 협의적 참여(현재)와 비경제적 성과(현재)에 대하여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량형 사회자본(현재)과 로컬거버넌스(현재)에 대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동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 중 경제적 성과(현재)에 대해서만 동부집단의 평균점수가 서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들에 대해서는 서부집단의 평균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아직 까지도 남아있는 제주도 서부·동부지역의 환경적·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상위·하위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 검증 결과는 다음 <표 4-52>와 같이 나타났다.

〈표 4-52〉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 검증(현재)

가설	구분		상위 (n=240)	하위 (n=240)	t	p	판정
H12 b-1	협의적 참여 (현재)	평균	4.48	3.81	11.612	0.000***	채택
		표준편차	0.52	0.73			
H12 b-2	협력적 참여 (현재)	평균	3.00	2.04	14.300	0.000***	채택
		표준편차	0.72	0.75			
H12 b-3	결속형 사회자본 (현재)	평균	4.13	3.78	6.443	0.000***	채택
		표준편차	0.62	0.58			
H12 b-4	교량형 사회자본 (현재)	평균	3.48	3.14	7.321	0.000***	채택
		표준편차	0.55	0.48			
H12 b-5	로컬거버넌스 (현재)	평균	3.34	2.97	6.897	0.000***	채택
		표준편차	0.60	0.57			
H12 b-6	경제적 성과 (현재)	평균	4.23	3.81	6.269	0.000***	채택
		표준편차	0.72	0.76			
H12 b-7	비경제적 성과 (현재)	평균	3.71	3.22	7.957	0.000***	채택
		표준편차	0.70	0.64			

*p<0.05, **p<0.01, ***p<0.001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협의적 참여(현재) 및 협력적 참여(현재), 결속형 사회자본(현재) 및 교량형 사회자본(현재), 로컬거버넌스(현재), 경제적 성과(현재) 및 비경제적 성과(현재)의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상위집단의 평균점수가 하위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그 차이 또한 확연히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 상위집단에서 모든 측면에 대하여 하위집단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 연구의 결과 및 함의

본 절에서의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분석·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가 사업성장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둘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의 변수들 간 영향관계를 검증

하였고, 넷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변수들 간 영향관계 차이검증을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고,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적 참여는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협력적 참여는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효과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주민들의 협력적 참여보다 하위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매개(또는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보다 상위단계인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며,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동부 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서부집단보다 동부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집단 간 차이가 나는 경로를 살펴본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며,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집단에서의 매개효과가 상위집단보다 더 유의하게 나타나는 경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위·하위 집단 간의 매개효과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협력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는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를 증진시키며, 교량형 사회자본은 비경제적 성과를,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한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것으로,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될수록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는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부·동부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되지만, 협의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한 조절효과의 분석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증진되는 데 반해,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쇠퇴하는 데 반해, 하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협력적 참여 수준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상위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가그룹의 협조 과정, 그리고 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상호교류 과정 등에 대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도 역시 낮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덧붙이자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력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협약적 참여,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부·동부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중 경제적 성과 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서부집단의 평균 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제주도 서부·동부 지역 간 환경적·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 성과에 대한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협약적 참여, 협력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상위집단의 평균점수가 하위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에서보다 주민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져 농촌관광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제4절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변화양상 분석 및 함의

연구모형(조성 전)을 토대로 하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실증분석 결과와 연구모형(현재)을 토대로 하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 현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53>의 내용과 같다.

<표 4-53>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전체표본)

경로	매개효과(비표준화 계수)		95% 간접신뢰구간		유의성(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조성 전	현재	
협의를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03	0.012	-0.026~0.028	-0.013~0.041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를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11	0.007	-0.018~0.044	-0.015~0.036	
협의를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12	-0.001	-0.028~0.050	-0.039~0.033	
협의를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15	0.052**	-0.022~0.064	0.022~0.101	비유의 → 유의
협의를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15	0.032**	0.000~0.045	0.009~0.088	비유의 → 유의
협의를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16	0.021*	-0.001~0.048	0.001~0.054	비유의 → 유의
협의를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5*	0.007**	0.000~0.014	0.002~0.020	비유의 → 유의
협의를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5	0.005*	0.000~0.013	0.001~0.015	비유의 → 유의
협의를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19**	0.012**	0.008~0.039	0.004~0.028	변화 없음 (모두 유의)
협의를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20**	0.008*	0.008~0.038	0.001~0.019	

*p<0.05, **p<0.01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이나 조성 후 현재에나 모두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이중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결속형 사회자본은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없었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게 되는 부분 등을 통해 점차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매개하여 사업성과가 증대되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4〉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서부집단)

경로	매개효과(비표준화계수)		95% 간접신뢰구간		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조성 전	현재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11	0.009	-0.022~0.052	-0.009~0.058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29	0.012	-0.002~0.076	-0.009~0.059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01	0.001	-0.047~0.040	-0.044~0.047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34	0.034*	-0.089~0.008	0.002~0.095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10	0.047*	-0.005~0.046	0.009~0.145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9	-0.005	-0.008~0.043	-0.049~0.027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6*	0.004	0.000~0.028	-0.001~0.025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6	0.000	0.000~0.021	-0.010~0.002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8	0.011*	0.000~0.027	0.001~0.038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8	-0.001	0.000~0.031	-0.012~0.008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p<0.05, **p<0.01

〈표 4-54〉의 내용과 같이, 서부집단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 등을 통해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5〉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동부집단)

경로	매개효과(비경제적 성과)		95% 간접신뢰구간		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조성 전	현재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00	0.000	-0.049~0.035	-0.059~0.051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01	-0.004	-0.048~0.037	-0.062~0.050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09	0.006	-0.070~0.079	-0.043~0.058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74	0.056**	0.000~0.175	0.012~0.133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5	0.025	-0.037~0.050	-0.001~0.096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5	0.043*	-0.034~0.052	0.003~0.122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1	0.010*	-0.007~0.011	0.001~0.038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1	0.017**	-0.007~0.011	0.004~0.048	변화 없음 (모두 유의)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33**	0.010*	0.010~0.074	0.001~0.037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34**	0.017**	0.010~0.077	0.003~0.041	

*p<0.05, **p<0.01

〈표 4-55〉의 내용과 같이, 동부집단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 등을 통해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동부집단에서

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부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동부집단에서는 특히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덧붙여, 결속형 사회자본은 로컬거버넌스와 조합하여 동부집단에서만 점차 매개효과가 작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6〉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상위집단)

경로	매개효과(비표준화계수)		95% 간접신뢰구간		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조성 전	현재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32	-0.005	-0.028~0.095	-0.077~-0.025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42	-0.016	-0.024~0.112	-0.091~-0.011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16	-0.002	-0.115~0.064	-0.070~0.046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27	0.065**	-0.126~0.069	0.016~0.152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11	0.109**	-0.004~0.056	0.043~0.233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24	0.034	-0.013~0.084	-0.033~0.135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1	0.013*	-0.005~0.016	0.001~0.043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2	0.004	-0.015~0.021	-0.002~0.029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27	0.015**	-0.010~0.071	0.003~0.053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58**	0.004	0.020~0.119	-0.002~0.034	유의 → 비유의

*p<0.05, **p<0.01

〈표 4-56〉의 내용과 같이, 상위집단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었으며,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

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57〉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하위집단)

경로	매개효과(비경제적 성과)		95% 간접신뢰구간		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조성 전	현재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04	0.025	-0.055~0.006	-0.005~0.082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00	0.021	-0.027~0.017	-0.001~0.068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21	0.004	-0.002~0.070	-0.044~0.056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22	0.037*	-0.002~0.070	0.003~0.093	비유의 → 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13	0.001	-0.017~0.059	-0.013~0.032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협의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7	0.004	-0.007~0.048	-0.013~0.041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3	0.001	0.000~0.020	-0.005~0.013	
협의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2	0.005*	0.000~0.014	0.000~0.019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007*	0.003	0.001~0.026	-0.010~0.021	유의 → 비유의
협의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004*	0.009*	0.000~0.020	0.000~0.028	변화 없음 (모두 비유의)

*p<0.05, **p<0.01

〈표 4-57〉의 내용과 같이, 하위집단에서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이중매개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하위집단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더 이상 이중매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결국 경제적 성과의 증대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집단에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위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하위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만이 작동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 변화양상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4-58>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8>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전체표본)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협약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294***	0.240***	변화 없음(모두 유의)
협약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0.406***	0.308***	
협력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013	0.060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협력적 참여	→	교량형 사회자본	-0.075	0.064	
협약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0.103	0.205**	비유의 → 유의
협력적 참여	→	로컬거버넌스	0.124*	0.000	유의 → 비유의
협약적 참여	→	경제적 성과	-0.014	0.008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협약적 참여	→	비경제적 성과	-0.055	0.094	
협력적 참여	→	경제적 성과	0.299***	0.335***	변화 없음(모두 유의)
협력적 참여	→	비경제적 성과	0.328***	0.298***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110*	0.198***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322***	0.248***	
결속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13	0.045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결속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42	0.028	
교량형 사회자본	→	경제적 성과	0.038	-0.004	
교량형 사회자본	→	비경제적 성과	0.041	0.163***	비유의 → 유의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180**	0.142**	변화 없음(모두 유의)
로컬거버넌스	→	비경제적 성과	0.175**	0.098	유의 → 비유의

*p<0.05, **p<0.01, ***p<0.001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이나 조성 후 현재에나 모두 협약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을 증진시키고,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되며,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력적 참여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에 동일한 영향관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부분 등에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력적 참여보다 하위 참여 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유의하게 작동하는 긍정적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본격적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가 조금 더 상위 단계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협력적 참여 과정에서도 조금 더 상위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내발성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기대는 높아졌으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변화한 것은 외부지향적 개방형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공동체 참여의식 개선, 주민 단합정도 개선 등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등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현재에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양상으로 볼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는 현재까지 꾸준히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동안에 지역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등의 추진 주체들이 동반자적 관계로 협업하는 개념의 로컬거버넌스가 결국 비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방문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서만 유효하게 작동하게 되었음을 내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서부집단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59>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표 4-59〉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서부집단)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협약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264***	0.102	유의 → 비유의
"	→	교량형 사회자본	0.322***	0.227*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로컬거버넌스	0.093	0.252*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079	0.029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069	0.137	
협력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005	0.099	
"	→	교량형 사회자본	0.038	0.097	
"	→	로컬거버넌스	0.081	-0.089	
"	→	경제적 성과	0.390***	0.314**	
"	→	비경제적 성과	0.393***	0.324***	변화 없음(모두 유의)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208**	0.210**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경제적 성과	0.052	0.073	
"	→	비경제적 성과	0.121	0.110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243**	0.253***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경제적 성과	-0.003	0.005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17	0.138*	비유의 → 유의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134	0.157*	
"	→	비경제적 성과	0.111	-0.018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p<0.05, **p<0.01, ***p<0.001

서부집단에서 협약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약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주민참여의 하위 단계에 속하는 협약적 참여가 내부지향적 강한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결속형 사회자본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나, 외부지향적 개방형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는 계속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협약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협력적 참여보다 하위 참여 단계인 협약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유의하게 작동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외부지향적 개방형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마을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공동체 참여의식 개선, 주민 단합정도 개선 등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되는 긍정적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로컬거버넌

스가 비경제적 성과에는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는 지역주민, 지방정부, 전문가 등의 추진 주체들이 동반자적 관계로 협업하는 개념의 로컬 거버넌스가 결국 비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방문객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서만 유효하게 작동하게 되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동부집단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60>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0>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동부집단)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협리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277**	0.376***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교량형 사회자본	0.520***	0.330***	
"	→	로컬거버넌스	0.029	0.185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경제적 성과	-0.056	0.103	
"	→	비경제적 성과	-0.189	-0.018	
협력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002	0.010	
"	→	교량형 사회자본	-0.232*	0.055	(-)유의 → 비유의
"	→	로컬거버넌스	0.235*	0.067	유의 → 비유의
"	→	경제적 성과	0.195	0.280**	비유의 → 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307**	0.325***	변화 없음(모두 유의)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012	0.195**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001	0.000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004	-0.010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358***	0.223**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경제적 성과	0.022	0.018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64	0.171*	비유의 → 유의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222**	0.137	유의 →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207**	0.233**	변화 없음(모두 유의)

*p<0.05, **p<0.01, ***p<0.001

동부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당초 주민참여의 상위 단계인 협력적 참여의 과정에서 오히려 행정 공공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었으나 점차 진정성 있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본격적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현재에 상위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마을의 내발성이 향상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기관 또는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그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리적 참여

가 경제적 성과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으로, 농촌관광마을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추진을 통해 협력적 참여가 조금 더 상위수준에 위치함으로써 동부집단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 역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이는 흥미롭게도 서부집단에서의 결과와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동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보다 조금 상위 단계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본격적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부집단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상위집단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 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61>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표 4-61>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상위집단)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협리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412***	0.171	유의 → 비유의
"	→	교량형 사회자본	0.522***	0.239**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로컬거버넌스	0.107	0.319***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028	-0.117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03	0.134	
협력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043	0.004	
"	→	교량형 사회자본	-0.102	-0.028	
"	→	로컬거버넌스	0.151	-0.268**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339***	0.312***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349***	0.215*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021	0.215**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098	-0.020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06	-0.061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488***	0.178*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경제적 성과	-0.038	-0.006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053	0.183**	비유의 → 유의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131	0.247**	
"	→	비경제적 성과	0.236**	0.070	유의 → 비유의

*p<0.05, **p<0.01, ***p<0.001

상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주민참여의 하위 단계에 속하는 협의적 참여가 내부지향적 강한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결속형 사회자본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나, 외부지향적 개방형 유대관계와 연관되는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는 계속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력적 참여보다 하위 참여 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유의하게 작동하는 긍정적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협의적 참여보다 상위 참여 단계인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가그룹의 협조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상호교류 과정 등에 대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도 역시 낮아진 상황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속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모두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과 반대의 결과로, 결국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로컬거버넌스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경제적 성과만 증대될 수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하위집단의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다음 <표 4-62>의 내용과 같이 나타났다.

하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단,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상위집단에서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농촌관광마을사업 성과 인식정도의 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4-62〉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하위집단)

잠재변수 간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경로유의성 (Sig.) 변화 양상	
		조성 전	현재		
협리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116	0.237*	비유의 → 유의
"	→	교량형 사회자본	0.225*	0.305***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로컬거버넌스	0.071	0.034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경제적 성과	0.031	0.051	
"	→	비경제적 성과	-0.028	0.078	
협리적 참여	→	결속형 사회자본	0.050	-0.048	
"	→	교량형 사회자본	-0.002	-0.052	
"	→	로컬거버넌스	0.107	0.187*	비유의 → 유의
"	→	경제적 성과	0.252**	0.317***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312***	0.212*	
결속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149*	0.182**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경제적 성과	-0.038	0.096	
"	→	비경제적 성과	-0.002	0.101	
교량형 사회자본	→	로컬거버넌스	0.157*	0.275***	변화 없음(모두 유의)
"	→	경제적 성과	0.111	0.013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15	0.136	
로컬거버넌스	→	경제적 성과	0.219**	0.028	유의 → 비유의
"	→	비경제적 성과	0.120	0.124	변화 없음(모두 비유의)

*p<0.05, **p<0.01, ***p<0.001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 감소에 대처할 농외 소득원으로서 농촌관광에 주목하면서 2000년 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농촌관광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때의 농촌관광정책은 개별 경영체 단위를 위주로 하는 개별 경영형 농촌관광이 아니라, 마을을 주 경영체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을 포함하는 정부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들은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개념을 기저에 깔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외 소득원이라는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이농으로 와해되는 농촌의 공동체를 복원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접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러 방면의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 등 정부의 농촌관광정책 추진 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정책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이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는 공동체 참여(공동체 복원)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회자본이 부족한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해결하며, 책임을 함께 지는 공동 의사결정방식인 로컬거버넌스는 농촌관광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근래 더욱 강조되는 개념이다.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의 추진 시에도 로컬거버넌스는 상당한 중요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농촌관광은 오늘날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농촌관광에서 개별 경영형 관점에서의 수익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는 정책적 의미를 융통성 있게 함께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가 우선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성 추구는 마을공동체 파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라는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문제의식을 기저에 깔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본 연구는 농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시작하였다. 이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게 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라고 하는 변수들이 매개하는 연구자의 사회학적 또는 정치학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대표적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관광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의 농촌관광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제주도 내 농촌체험휴양마을 전체로 정함으로써 제주도 내에서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부터 조사를 진행하는 현재의 시점까지로 한정하면서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 현재의 속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에 앞서 문헌연구를 통해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항목을 도출하고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적합한 항목들을 최종 도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초안의 설문 문항을 정제 또는 수정하기 위해 예비 조사를 우선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본 조사 대상지를 신중히 선별해 내기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대상지로 선정된 14개 마을별 22부씩 총 308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마을별 20부씩 총 280부의 유효 표본을 이용하여 예비 조사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본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였고, 선정 안은 A안과 B안 2가지로 준비하여 검토하였다. A안은 제주도 서부·동부 지역 간 자연환경의 현격한 차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차이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을 우선 제주도 서부집단과 동부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 상위 2개 마을과 하위 2개 마을을 선별하여 각 집단별 4개 마을씩 총 8개의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반면, B안은 순전히 예비 조사 사업성과 인식의 평균점수 순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예비 조사 대상지 14개 마을 중 상위 4개

마을 즉, 1~4위 마을과 하위 4개 마을 즉, 11~14위 마을을 합하여 총 8개의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A안과 B안을 검토한 결과, 각 안별 본 조사 대상지로 도출된 8개 마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A안과 B안을 통해 동일하게 도출된 8개 마을을 본 조사 대상지로 최종 선정하였고, 본 조사를 통한 집단별 차이 검증 시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검증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예비 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각 변수별 연관성이 낮은 설문 항목에 대해 정제작업을 하였고, 본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8개 마을별 70부씩 총 560부를 배포하여 총 521부가 수집되었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 설문지 기입에 오류가 발생한 것 등을 제외하고, 집단별 비교분석을 고려하여 마을별로 동일한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8개 마을별 60부씩 총 4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계량화된 설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을별 리더를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조사, 예비 조사, 본 조사 등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측정척도 개발을 탐색적으로 시도하였다. 측정 문항들에 대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민참여 변수는 협의적 참여 요인과 협력적 참여 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사회자본 변수는 결속형 사회자본 요인과 교량형 사회자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로컬거버넌스 변수는 로컬거버넌스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고, 사업성과 변수는 경제적 성과 요인과 비경제적 성과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에 포괄하면서도 연구의 주안점을 아우를 수 있는 12개의 연구가설과 하위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와 함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포괄적 연구모형으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라고 하는 4개의 변수로 이루어진 모형을 우선 설정하였고, 세부적 연구모형으로 '협의적 참여, 협력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경제적 성과, 비경제적 성과'라고 하는 7개의 요인으로 이루어진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 몇 가지를 분석·검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둘째,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검증을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넷째,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

년스, 사업성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연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농촌 관광마을 조성 전과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 각각의 연구모형을 연구모형(조성 전)과 연구모형(현재)으로 설정함으로써 가설검증을 위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연구가 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8과 AMOS 18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구성에서는 남성이 61%, 여성이 39%로, 응답자의 남성 비율이 여성보다 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라 여성비율이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농촌의 전반적 분위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의 연령대 구성에서는 50대 이하가 66.7%, 60세 이상이 33.3%로, 2016년 말 기준의 60세 이상 전국평균 농가인구 56.1%와 비교하면 전국의 타 농촌지역에 비해 상당히 덜 고령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향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2.1%가 고향이 아니라고 응답하고 있어 이제 농촌마을이 과거 집성촌의 개념에서 벗어나 귀농·귀촌 등을 통해 외지인들이 들어와 함께 융화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더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4.4%가 리더이고, 45.6%가 비리더로 나타남에 따라 리더와 비리더의 비율이 대체로 편중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성별 구성에서는 모든 집단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집단 간 유사한 비율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의 연령대 구성에서는 30대 이하가 서부집단에서 32명(6.7%), 동부집단에서 12명(2.5%)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부집단에서 조금 더 젊은 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서부·동부 집단의 비율 분포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50대가 상위집단에서 92명(19.2%), 하위집단에서 67명(14.0%)으로 나타남에 따라 농촌관광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상위집단의 연령대 분포가 하위집단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향여부와 관련해서는 고향이 아니라는 응답이 서부집단에서 98명(20.4%), 동부집단에서 56명(11.7%), 상위집단에서 86명(17.9%), 하위집단에서 68명(14.2%)으로 나타남에 따라 근래 제주도 동부지역보다 서부지역으로 귀농·귀촌인 등 외지인들의 유입이 더 활발히 이루어졌던 상황과 연관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집단의 고향이 아닌 비율이 하위집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격차가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5년 이하가 서부집단에서 15명(3.1%), 동부집단에서 3명(0.6%)으로 나타났다. 6~10년이 서부집단에서 39명(8.1%), 동부집단에서 16명(3.3%)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근 동부집단보다 서부집단에 더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유입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21년 이상은 서부집단에서 122명(25.4%), 동부집단에서 175명(36.5%)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기 거주자는 서부집단보다 동부집단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하위 집단별 거주기간의 분포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은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대부분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유사한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력은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 이하, 대학원 졸업의 순으로 분포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대학교 졸업의 경우 상위집단에서 71명(14.8%), 하위집단에서 86명(17.9%)으로, 하위집단의 비율이 오히려 상위집단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리더여부와 관련해서는 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리더와 비리더의 비율이 대체로 편중되지 않는 유사한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집단 간 자연환경 및 공동체 의식수준의 차이 또는 귀농·귀촌의 시대흐름에 따르는 사회·문화적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협의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서부집단에서보다 동부집단에서 훨씬 더 컸음을 확인하

였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위·하위 모든 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는 경로를 통해 사업성과가 증대되었는데, 상위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었고, 하위집단에서는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동부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교량형 사회자본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참여를 통해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때,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집단의 협력적 참여가 동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로 들어선 주민참여였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이 더욱 증진되었고,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로컬거버넌스가 더욱 증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력적 참여, 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서부집단의 평균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제주도 서부·동부 지역 간 환경적·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의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협의적 참여, 협력적 참여 요인들에 대하여 하위집단의 평균점수가 상위집단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상위·하위집단 간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지만, 상위집단의 주민참여 수준이 하위집단보다 오히려 더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을 토대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고,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민들이 협의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교량형 사회자본을 매개하여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고,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협의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들이 협력적 참여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는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매개효과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주민들의 협력적 참여보다 하위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를 매개(또는 이중매개)하여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보다 상위단계인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수록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를 매개하지 않고도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가 직접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집단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의적 참여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서부집단보다 동부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매개효과 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의적 참여와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에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는 하위집단보다 상위집단에서 더 유의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 검증을 위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결속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것으로,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될수록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

위 집단 간 영향관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 거버넌스가 상당히 증진되는 데 반해,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상당히 쇠퇴하는 데 반해, 하위집단에서는 협력적 참여가 활발할수록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협력적 참여 수준이 하위집단보다 높은 상위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가그룹의 협조과정, 그리고 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상호교류 과정 등에 대해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도 역시 낮은 상황을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하였다. 우선,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협력적 참여, 결속형 사회자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요인들 중 경제적 성과 요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서부집단의 평균점수가 동부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제주도 서부·동부 지역 간 환경적·사회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 간 인식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들에 대한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차이가 유의한 모든 요인들에 대하여 상위집단의 평균점수가 하위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 상위집단에서 하위집단에서보다 주민참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관광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실증분석 결과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실증분석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 현재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와 사업성과 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유의성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여러 경로에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단,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관

광마을 조성 전에는 협의적 참여가 비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교량형 사회자본 및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가 없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이중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없었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매개효과 또는 이중매개효과가 작동하게 되는 부분 등을 통해 점차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매개하여 사업성과가 증대되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의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부·동부 집단별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서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부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 교량형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서부·동부 집단별 매개효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서부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동부집단에서는 특히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고,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던 결속형 사회자본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상위·하위 집단별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매개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결속형 사회자본 또는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이중매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협의적 참여를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경로에서는 교량형 사회자본이 점차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의 변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상위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하위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만이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 변화양상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경로에서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영향력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단, 협의적 참여를 통해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협력적 참여는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고, 교량형 사회자본을 통해 비경제적 성과가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했지만, 로컬거버넌스는 비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민참여가 더 높은 수준의 진정성 있는 협력적 참여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 영향관계의 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우선, 서부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의 하위 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나,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는 계속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로컬거버넌스 증진을 위해 유의하게 작동하게 되는 등의 긍정적 변화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동부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협력적 참여가 교량형 사회자본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주민참여의 상위 단계인 협력적 참여의 과정에서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졌었으나 점차 진정성 있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 교량형 사회자본이 증진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통해 협력적 참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가그룹의 협조 과정, 그리고 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상호교류 과정 등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고, 신뢰도 역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을 유추할 수 있었다. 협력적 참여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속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로컬거버넌스가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지속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것은 흥미롭게도 서부집단에서의 결과와 정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집단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 서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동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보다 조금 상위 단계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본격적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부집단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변화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상위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주민참여의 하위 단계인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에는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나, 교량형 사회자본 증진에는 계속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상위 주민참여 단계인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가그룹의 협조 과정, 그리고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그룹 간의 상호교류 과정 등에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도 역시 낮아진 상황을 함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로컬거버넌스는 비경제적 성과를 제외한 경제적 성과 증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협의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속형 사회자본이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교량형 사회자본이 비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 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모두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하위집단의 잠재변수 간 경로유의성 변화양상을 살펴본 결과, 협의적 참여가 결속형 사회자본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협력적 참여가 로컬거버넌스 증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본격적인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단, 로컬거버넌스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상위집단에서의 결과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성과 인식정도의 수준이 낮은 하위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시사점

1. 학술적 관점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개념을 기저에 깔고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들은 내발적 상향식 개발방식의 자리매김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마을 내 갈등, 추진 주체 간 또는 주민 간 소통부족 등 많은 공동체적 문제점들이 노정되면서 그 한계를 실감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현재 농촌관광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주민참여는 협의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로 구분하고, 사회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로컬거버넌스는 하나의 단일요인으로 위치시키고, 사업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변수들 간의 단순 영향관계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의 사회학적·정치학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연구변수가 매개(또는 이중매개)하게 되는 포괄적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는 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예비조사, 본조사(농촌관광마을 조성 전,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를 통한 분석 결과, 모두 동일한 요인들로 구성됨을 확인하였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 또한 모두 동일한 형태로 최종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에 공통적으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는 연구모형임이 학술적으로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가 농촌관광마을 사업성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개별적 매개효과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동시에 매개하게 되는 이중매개효과에 대하여 독창적으로 분석한 것에서도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대상지를 제주도 내 집단(서부·동부 집단 및 상위·하위 집단)별로 구분하여 집단 간 매개효과의 차이 비교분석 및 집단 간 영향관계 차이검증을 위한 조절효과 분석을 다중집단분석에 의해 독창적으로 검증하였다는 데 또 하나의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방법론적으로도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뿐만 아니라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까지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 SEM)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영향관계 정도로 제시되어 오던 변수들 간의 관계를 체계화된 척도를 사용하여 세부 요인들 간의 매개효과 및 영향관계, 그리고 집단 간 매개효과 및 영향관계의 차이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과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의 변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조성된 후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고, 특히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분석을 통해 집단에 따라 매개효과 및 영향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로써 주민참여와 사회자본, 그리고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연구 방향의 깊이를 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는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의 방향을 여러 방면으로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어 그 학문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실무적 관점

농촌관광마을 주민들의 행복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고, 이는 공동체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것으로, 이러한 구조는 본 연구에서 연구변수로 제시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복잡한 매개관계 및 영향관계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 틀(concept frame)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농촌관광마을 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의 개념을 기저에 깔고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수행 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우선적 매개 접근 방향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사업에서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고찰하면서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나아가 집단(서부·동부 및 상위·하위 집단)별 매개효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고, 조절효과를 입증하였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전체적 또는 집단별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는 공동체 회복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사회자본이 근래 더욱 화두가 되고 있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농촌 관광개발 등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로컬거버넌스가 근래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주민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역할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측면은 물론이고 실무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의 연구모형,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연구모형을 각각 검증하고 비교분석하여 그 주요한 변화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후의 전체적 또는 집단별 변수들 간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실무적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주민들의 협력적 참여를 통해 직접적으로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주민들의 협의적 참여를 통해서만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되는 경로를 거쳐야만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협의적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효과도 더욱 유의하게 작동될 수 있음이 규명되었다. 또한 협의적 참여는 직접적으로 로컬거버넌스에 점차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지만, 협력적 참여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량형 사회자본은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 매개역할을 하고,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 매개역할을 하되, 경제적 성과의 증대와 관련하여 더 큰 매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점차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교량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 이중매개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고, 결속형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는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 이중매개역할을 하되, 경제적 성과의 증대와 관련하여 더 큰 이중매개역할을 하게 되는 것으로 점차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서만 농촌관광마을의 내발적 활성화가 가능하고, 협력적 참여보다 낮은 단계의 협의적 참여 수준에서는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매개역할을 하여 사업성과의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는 협의적 참여에서 협력적 참여로 나아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서는 로컬거버넌스의 증진이 많은 도움이 되고, 비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서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증진이 많은 도움이 되며, 결속형 사회자본은 경제적 성과의 증대를 위해 로컬거버넌스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시행 시 주민들의 참여 수준을 고려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대상지별로 경제적 측면 또는 비경제적 측면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에 제주도 서부집단의 협력적 참여는 동부집단보다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위치했었지만,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에는 서부집단의 경우 조성 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부집단의 경우 점차 상위 단계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농촌관광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동부집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 변화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도 상위집단에서는 협의적 참여를 통해 로컬거버넌스가 증진되는 수준이 하위집단에서보다 더 높았지만, 협력적 참여를 통해서는 로컬거버넌스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상위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행정기관, 전문가그룹 등에 대한 신뢰도가 오히려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진정성 있는 높은 수준의 협력적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전문가그룹 등에서 동반자적이고 수평적이며 진솔한 자세로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도 서부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동부집단에서는 특히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그리고 서부·동부 어느 집단에서도 매개역할을 하지 못하던 결속형 사회자본이 동부집단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위집단에서는 특히 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매개효과가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하위집단에서는 비경제적 성과와 관련하여 교량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만이 점차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부·동부 집단 또는 상위·하위 집단에 따라 매개효과가 다르게 작동함을 규명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 등 농촌 지역개발 정책사업을 추진 시 집단 별 특성을 참고하여 시행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rnstein(1969), Prieto-Martin & Ramirez-Alujas(2013) 등 여러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주민참여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단번에 협력적 참여의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통해서도 협의적 참여의 수준을 거쳐 성숙한 협력적 참여의 단계로 진화하며, 행정기관 및 전문가그룹 등과의 진정성 있는 신뢰가 구축되는 부분은 진정한 협력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연관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앞으로도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농촌관광사업 추진 시 진정성 있

는 협력적 참여를 통해 경제적 성과 및 비경제적 성과를 내발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장 협력적 참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의 단계인 협의적 참여 단계에서의 주민참여 과정은 필수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를 통해 협의적 참여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매개역할을 파악한 것은 학문적 측면은 물론이고 실무적 측면에서도 매우 의의가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이진희 외(2017)는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예비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 주민들이 기본계획 단계 등 사업의 시행 단계 전반에 걸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업 수행 중 리더가 바뀌어 연속성이 약해지고 주민들 간 갈등이 생기는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조율해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 행정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마을이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강화될 때까지 전문가 및 행정기관의 장기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는 협력적 참여가 정착되기까지 협의적 참여 단계에서 로컬거버넌스 및 사회자본의 매개역할을 강조한 본 연구의 내용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제언

1.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에서의 농촌관광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간의 매개관계, 영향관계 등을 밝힘으로써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연구의 한계점도 지니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지를 제주도 내로 한정하여 진행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지를 전국의 농촌관광마을로 확대하여 진행한다면 전국적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실증분석은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 주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설문자료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동시간대, 동일인에 의해 주관적으로 측정된 것이다. 따라서 동일방법편의에 대해 진단함으로써 연구의 결과가 동일방법편의로 인해 왜곡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횡단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함에 따르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종단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더욱 의미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연구 표본의 선정 시 마을별 인구 수 또는 사업의 크기에 따르는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마을에 동일한 수의 표본을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에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선정 시 마을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더욱 세밀하게 접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협의적 참여와 협력적 참여의 두 가지 요인으로, 사회자본은 결속형 사회자본과 교량형 사회자본의 두 가지 요인으로, 로컬거버넌스는 로컬거버넌스 단일 요인으로, 사업성과는 경제적 성과와 비경제적 성과의 두 가지 요인으로 각각 도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에 대한 각각의 유형 및 구성요소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유형 및 요소들을 발굴하여 다른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공동체 회복과 밀접히 연관되는 사회자본, 사업 추진 주체들 간의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는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사업성과 간의 매개관계 및 영향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전체적 틀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데 학문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큰 의의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 더욱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예컨대, 농촌관광정책사업의 단계별 즉, 사업신청-예비계획-기본계획-시행계획-시행-유지관리 등의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접근함으로써 각 단계별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 사업단계별 분석 등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제언

점점 과소화되고, 고령화되어가던 농촌에 귀농·귀촌의 바람이 불어 농촌의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농촌에서조차 이전 두레와 품앗이와 같은 미풍양속의 분위기는 사라져가고 점차 금전적 관계로 거의 모든 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농촌관광마을사업 현장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마을 내 갈등, 추진 주체 간 또는 주민 간 소통부족 등 공동체적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정책적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 경제적 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정신적·문화적 수준의 진전을 함께 이루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자본이 제대로 형성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주민들의 진정한 협력적 참여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자본이 제대로 구축되는 과정을 거쳐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성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본은 장기적 관점의 개념이기에 단기간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차근차근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내부 지향적 결속형 사회자본과 외부 지향적 교량형 사회자본이 함께 증진되어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의 성과가 균형있게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구두 약속뿐만 아니라 법과 질서, 공정함 같은 사회규범을 존중하는 습관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해 나가야 하고, 이는 타인·공공에 대한 신뢰, 건강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롭고 창의적인 교육 현장의 분위기에 더하여 우리만의 전통 예절을 중시하고 산교육·인성교육을 우선시 하는 교육 풍토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교육 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서로 연계하여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협의적 참여보다 높은 수준의 협력적 참여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로컬거버넌스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성과 증대를 위해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민참여가 진정한 협력적 참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역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그룹 등 추진 주체들이 동반자적·수평적 관계를 유지하여 진정성 있는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들은 행정기관이나 전문가그룹 등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말고, 마을의 자율성·자립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들의 역량이 갖추어져 가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전문가그룹 등과의 원활한 대화와 소통이 가능할 때 진정한 로컬거버넌스가 가능할 것이다.

행정기관과 전문가그룹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마을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합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이때 주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은 동반자적이고 수평적 관계의 진정성을 갖춘 상태의 것이어야 한다.⁸⁴⁾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사업 대상지의 신청 또는 선정 시 반드시 단계별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하며,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자격 수준이 갖추어졌을 때 그 수준에 걸맞은 사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 명도암마을 추진위원장과 인터뷰 내용과 같이 심사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고 열의가 있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마을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에서는 나눠주 기식·지역달래기식 행정을 탈피하여 적재적소에 사업이 행해질 수 있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하는데, 이는 여러 농촌관광마을사업 현장에서 인터뷰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것과는 일치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컬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의 권위적이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가장 강조하였지만, 농촌의 리더들을 포함하는 주민들의 역량이 선진화되어 행정 기관, 전문가그룹 등과 함께 원만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84) 농촌관광마을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조사를 통해 진정성 있는 로컬거버넌스를 바라고 있는 농촌관광 마을사업 현장에서의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본 연구의 제언 내용들은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문성민(2008)이 주민들의 역량 수준이 커뮤니티 기반 관광개발에 맞는 단계까지 맞추어져야 사업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시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주민주도의 개발이 아닌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의 주민주도 개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 중 협의적 참여 단계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사업을 계획하는 마을들이나 사업 초기의 마을들에 대해서는 마을 내 주요한 곳곳에 현수막 등 사업관련 홍보물을 이색적이면서도 일목요연한 내용으로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 마을의 전 주민들이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가능한 마을 내 많은 수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또는 선진지 견학에 마을의 리더들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지금 현재는 대부분의 마을에서 리더들 중심으로 견학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향후에는 마을 내 전 주민들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⁵⁾

향후 정책 시행 시에는 주민의식 또는 주민역량을 조사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마을 역량수준을 정확히 파악한 후, 하위 주민참여 즉, 협의적 참여 수준의 마을에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많은 비중을 부여하여 사회자본과 로컬거버넌스가 제대로 매개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상위 주민참여 즉, 협력적 참여 수준으로 내발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에는 외부 경쟁력 있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들의 현지화, 고급화 및 브랜드화,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적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집단별·마을별 현지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비중을 조화롭게 정할 수 있도록 정책적 융통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가시리권역 전 추진위원장과와의 인터뷰 내용 즉, 집단별·마을별 특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유연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의 증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힐링 요소의 부각, 사회적 여가시간 증대 분위기 확산,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가족과의 체험관광 선호도 증가 등으로 대안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오염 지역의 자연을 느끼고, 그 지역만의 순수한 전통문화를 경험하면서, 지역민들의 인정을 느끼고자 하는 자연관광

85) 윗뜨르권역 전 추진위원장은 연구자와의 인터뷰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추진과 관련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우리 농촌의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보다 먼저 변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및 생태관광을 포함하는 농촌관광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저가관광이 횡행하는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도는 미미할 수밖에 없고, 지역사회 내 선순환의 구조로 정착되기 어려울 수 있다.

관광의 고급화를 실현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만족도 역시 높은 유럽 선진국의 농촌관광 사례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농촌관광 시장은 프랑스 국내여행 시장에서 약 18%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관광 시장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국내여행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대까지 성장했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김용렬, 2018). 숙박시설 등 관광시설을 그 지역만의 특성에 맞게 쾌적화·고급화하고, 정성을 다해 그 지역만의 전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보다는 질적으로 품질을 높여 나간다면 우리 농촌관광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규슈의 유후인은 음악제와 영화제 등의 이벤트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데, 처음에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즐거움을 찾다가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렇게 당초 주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 이벤트를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꼭 방문해보고 싶은 곳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행복을 우선 생각하는 농촌관광마을 만들기를 통해 방문객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농촌마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방문객이 증가해야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농촌마을의 주민들이 행복해져야 방문객이 증가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신중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연구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그 영향력이 미약하거나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과 관련하여,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그 영향관계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대안모형을 개발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기호(2014), 제주 농어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기호·이진희(2015), 주민참여와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성과의 관계에서 거버넌스의 매개효과 실증 분석, 『농촌계획』 21(1).
- 강기호(2015), 무릉도원올레권역 마을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35.
- 강성철·문경주·김도엽(2008), 지속가능성 지표 비교평가, 『지방정부연구』 11(4).
- 강신겸(1998), 지역사회 관광개발의 개념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논총』 10.
- 강신겸(2001), 여가시간 확대와 농촌 관광의 발전방향, 『농촌관광연구』 8(2): 179-191.
- 강신겸(2007), 농촌관광과 국제화 전략, 2007 농촌관광심포지엄 주제 발표자료: 1-11.
- 강신겸(2009), 『농촌관광 개발과 서비스경영』, 부천 : HM연구소.
- 강신겸(2014), 『농촌관광: 새로운 농촌 활성화 전략』, 서울 : 대왕사.
- 강창현(2002), 지역복지공급거버넌스 연구, 『한국행정학보』 36(2): 313-332.
- 강황선(2003), 정부중재형 거버넌스 체제의 운영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3): 201-227.
- 고동완(2009),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 모형, 『관광학연구』 33(5).
- 고미네아키라(2008), 일본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별 정책유형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미네아키라·김문주(2008), 일본 농촌관광의 발전단계별 정책유형 분석, 『관광연구논총』 21: 47.
- 고충석·송재호·장성수 외(2003), 『전환기 제주도 지역개발 정책의 성찰과 방향 : 제주개발의 발전가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제주 : 도서출판 각.
- 고한익(2010),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균형성과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2(1): 402-413.
- 곽순길(1996), 도시계획관련 민원의 실태 및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현근(2008a), 주민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32(1): 122-148.
- 곽현근(2008b), 『현대 지역공동체의 의의와 형성전략』, 이종수편 : 한국사회와 공동체, 서울 : 다산출판사.

- 곽현근·유현숙(2011),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 구자인·유정규·곽동원·최태영(2012), 『마을만들기, 진안군 10년의 경험과 시스템 : 더디가도 제대로 가는 길』, 경기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사업단.
- 구혜정(2002),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대안적 평생교육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7), 『균형발전 정책교본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 : 제이플러스에드.
- 금희조(2010), 온라인 소셜 미디어와 참여적 사회 자본, 『한국방송학보』 24(5): 9-46.
- 김계수(2010),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한나래출판사 : 서울.
- 김근호·이영창·이은영(2012), 마을만들기 사업의 주민참여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 『한국디자인포럼』 35: 27-38.
- 김기완·유광민(2010), 농촌관광 동기가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선호에 미치는 영향, 『농촌계획』 16(2): 21-29.
- 김기홍(2006a), 농촌마을 사회자본 탐구를 위한 이론의 구성, 『농촌사회』 16(1): 7-42.
- 김기홍(2006b), 한국 농촌마을 사회자본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남조(2004), 농촌어메니티 개념과 관광현상 구성요소를 이용한 농촌관광정책의 방향, 『관광학연구』 28(1): 263-281.
- 김대관(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연구』, 한국관광연구원.
- 김대업(2008), 『AMOS A to Z』, 경기 : 학현사.
- 김석준·곽진영·이선우·문병기(2000), 『뉴 거버넌스 연구』, 서울 :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 김성권(2004), OECD 국가들의 사회자본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국제지역연구』 8: 491-513.
- 김성주(2009), 도시계획 의사결정과정의 거버넌스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진(2003), 『지속가능한 관광 - 지속가능한 관광과 지역주민 참여』, 서울 : 일신사.
- 김성태(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세용(2002),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계획계』 18(9): 195-202.
- 김소진(2015), 주민참여형 주거재생사업의 통합 프로세스 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현(2012), 사회자본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이필용·김남룡·정규식(2008),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특성과 평가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1(3): 88-107.
- 김영섭 외(2000), 『위대한 사회를 향하여 : 한국의 정치·경제·행정의 발전적 전망』, 서울 : 법문사.
- 김영화(2014),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3): 347-372.
- 김용렬(2018), '과감한 농촌관광정책이 필요하다', 한국농어민신문 기사(2018.02.23.).
- 김용학(2003), 『사회 연결망 이론』, 서울 : 박영사.
- 김은아(2015), 마을만들기 참여가 사회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정(2002), 주민참여에 의한 도시주거지정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9), 로컬 거버넌스가 지역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의영(2011),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209-234.
- 김인성·황경수·오운정(2014), 제주지역의 협력(수눔음)형 사회적 자본 증진방안 연구, 『탐라문화』 45.
- 김인환·이용진(2009), 농촌 관광 사업에서 지역주민간의 파트너십 및 갈등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4(5): 251-273.
- 김정렬·김시윤(2003), 거버넌스와 행정국가, 『대한정치학회보』 10(3).
- 김정섭·박시현·김영단·임지은(2011), 농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평가와 발전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658.
- 김정태(2014), 농촌마을 내 사회자본이 주민주도 문제해결에 미치는 영향 : 업무담당자들의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1): 51-64.
- 김정흠(2009), 농촌형 거버넌스 구축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14), 주민참여조례를 통해서 본 주민참여와 거버넌스의 특징 연구, 『지방정부연구』 18(1).
- 김주년(2004), 지속가능관광개발지표(STDI)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효(2016), 탈일상 동기와 관광지 현장체험, 치유효과 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진동(2005), 지역관광개발에 있어 관광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찬호(2000), 일본의 도시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의 전개와 주민 참여, 『도시행정학보』 13(1): 95-115.

- 김태동(2014),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만족도에 대한 창원과 청주 사례 비교분석,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통원(2006), '수직적 규범, 수평적 규범', 국민일보 국민논단 기사(2016.11.27).
- 김판석·사득환(1998),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와 개념정립. 『한국정치학회보』 32(4): 71-88.
- 김현우·이홍배·신용호(2015), 다중매개모델에서 bootstrapping기법을 이용한 흡수능력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시물레이션학회논문지』 24(4): 89-96.
- 김형곤·고성태(2008), 농촌관광을 통한 사회자본 형성 연구, 『관광레저연구』 20(2).
- 김형양(2006),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10(1): 181-203.
- 김혜민(2006), 농촌마을개발사업의 전개와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 산청 남사 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계획』 12(3): 1-11.
- 김홍운·김사영(2002), 『관광개발론』, 경기 : 형설출판사.
- 남궁근(2007), 사회자본의 형성과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쟁점, 『정부학연구』 13(4): 297-325.
- 남상우(2008), 사회적 자본을 통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모형에 관한 연구 : 충북 청주시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경섭(2016), 「제대로 알고쓰는 논문 통계분석」, 서울 : 한빛아카데미.
- 노용호·조광익·이상영(2006), AHP를 활용한 농촌관광마을 사업성과지표개발, 『관광학연구』 30(4): 191-209.
- 노정민(2013), 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일상활동과 계획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농촌산업과 보도자료(2017.03.30.)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2017), 『2016년 기준 귀농어·귀촌인통계 결과』 보도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09), 『2009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2014), 『2014 도시민 농촌관광 실태조사』.
- 류선무·김성기·배중남·송광인·유상오·강신겸(2003), 『그린투어리즘 이론과 실제』, 서울 : 백산출판사.
- 류선무(2009), 『농촌관광 성공전략』, 서울 : 백산출판사.
- 류시혁(2008), 로컬거버넌스의 구조적 특성과 지역사회복지사업 성과간의 관계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성민(2008), 커뮤니티관광개발에서의 이해집단 간 신뢰와 의사소통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문영훈(2012), 거버넌스 특성이 커뮤니티 개발정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옥표(2003), 한국 농촌사회의 특성과 농촌관광 개발 -일본과의 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4(2): 139.
- 문화체육관광부(2010), 『2009 국민여행 실태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15), 『2014 국민여행 실태조사』.
- 미야자키 타케시(宮崎 猛)(2003), 『그린 투어리즘과 일본의 농촌』, 김범수·오미숙 역, 서울 : 일신사.
- 민흥기(2014), 권역단위 농촌개발사업에서 취약성 평가를 위한 농촌마을 사회관계망 해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범(2012), 지역적 특성과 리더에 의한 농촌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고찰, 『한국농촌건축학회 논문집』 14(3).
- 박석희(2001), 농산촌 경관 및 체험활동에 대한 선호도 분석, 『경기대학교 논문집』 45.
- 박석희(2007), 『신관광자원론』, 서울 : 일신사.
- 박세경·김형용·강혜규·박소현(2008),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 형성의 실태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16.
- 박세준(2016), 컨벤션 개최국의 위험지각, 이미지, 방문의도간의 구조적 관계분석 : 방문경험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2013),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운영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윤희철·나주몽(2015),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2(2): 337-359.
- 박순미(2000), 조직의 사회적 자본이 새로운 지적자본 창출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2(1): 171-203.
- 박시현·송미령·성주인·박주영·장면주·박석희·신원섭·김태균(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 발전 방향 및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C2003-6.
-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R675.
- 박영민(2012), 정부정책의 사회자본 형성기능과 성과에 대한 영향 연구 :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실증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순·김성혁(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지도, 『관광학연구』 25(3): 81-98.
- 박용순(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용치(1993),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 8(4): 83-103.
- 박운정(1999), 농촌관광개발의 주민참여 행동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은병·김성록·윤준상(2012), 포괄보조금제도하의 농산어촌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참여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농촌지도와 개발』 19(2).
- 박정민(2015), 마을만들기 사업 특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한식·김남조(2008), 농촌관광마을 리더의 역량분석과 역량모델 개발, 『관광연구』 23(3): 239-256.
- 박호균(2002), 농촌관광과 지원체계 : 이스라엘 사례, 『한국농촌지도학회지』 9(2): 161-171.
- 박희봉·김명환(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4(4): 119-237.
- 박희봉(2005), 거버넌스 증진의 전제로서의 사회자본과 한국 사회자본 특징, 『국가정책연구』 19(2).
- 박희봉(2006), 시민참여와 로컬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0(2): 1-23.
- 박희봉(2009), 『사회적 자본 :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 서울.
- 반호준(2016), 조직문화가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교량형·결속형 사회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길현(2008),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활성화방안,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방한영(2003),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역유산 활용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귀희·김영환(2006), 사회자본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Burt의 구조적공백(Structural Holes) 이론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4(3): 1-32.
- 배병렬(2009), 『AMOS 17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 서울.
- 배병렬(2014), 『AMOS 21 구조방정식모델링』, 도서출판 청람 : 서울.
- 배선주(2012),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응규(2001), 지구단위의 도시정비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유일(2003), 지방 거버넌스와 제도주의적 시각, 『정부학연구』 9(2): 297-335.
- 배응환(2005), 로컬거버넌스 : 갈등에서 협력으로, 『지방행정연구』 19(2): 187-216.
- 백완기(2007),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2): 1-2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3383호].
- 사득환(2007),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로컬 거버넌스, 『한국공공관리학보』 21(4): 153-173.
- 서승재(2015), 지역사회자본과 지역애착·역량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재수·정용용·정규엽(2014), 호텔 직원의 조직몰입이 비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텔관광연구』 16(3): 310.
- 서태성(2002), 지역발전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체제 구축방안, 『국토』 252.
- 서형준·명승환(2015), 사회자본과 정부신뢰의 관계 재조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9(3): 1-31.
- 성순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참여활동의 영향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소진광(2010), 『농촌활력론 : 농촌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
- 손동욱(2008),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건축』 52(7).
- 송광인(2003), 일본 그린투어리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18(1): 41-55.
- 송미령·성주인(2004),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R482.
- 송미령·성주인(2005), 마을개발사업의 성과와 주민참여의 관계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7(4).
- 송상섭·한범수(2012), 지역사회 애착이 내발적 지역관광개발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6(1): 241-261.
- 송영민(2010),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찰: 농촌 관광마을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4(4): 244-267.
- 송재호(1997), 지방행정의 관광정책 이익집단간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재호(2003), 관광의 지속가능성 이론 구조모델 검증, 『관광레저연구』 15(2).
- 송재호·이성은(2005), 그린투어리즘 프로그램 개발 평가를 위한 구조모델 구축과 적용, 『관광연구저널』 19(1).
- 송재호(2013), 섬 관광의 미래 전망,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총서』 14: 188-206.
- 송정기·박재규(2001), 개방화와 한국의 농어촌: 농촌지역주민의 사회계층과 일상생활 변화: 외환위기 이후 사회적 자본의 효과를 중심으로, 『농촌사회』 11(2): 37-66.
- 송주연·임석희(2015), 도시의 질적 발전을 위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이론적 탐색, 『대한지리학회지』 50(6): 677-694.

- 신민경(2007), 주민이 지각한 농촌지역개발 지도자의 리더십 유형과 주민참여간의 관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풍리(2006), 냇가의 풍년마을, 『마을지』.
- 신현석(2011), 지방교육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쟁점 분석과 설계 방향 탐색, 『교육행정학 연구』 29(4): 99-124.
- 심현숙(2012), 브랜드 체험이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브랜드 자산의 매개역할 및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상유(2013), 농촌지역 마을 만들기의 주민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성호·배응환(2004), 『지방거버넌스와 지방정책 : 네트워크 관점에서 본 지방정책사례』, 서울 : 도서출판 다운샘.
- 안전행정부(2003), 『예산성과관리 제도 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 안종현(2007), 주민참여에 의한 농촌관광마을 만들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2).
- 안종현(2008), 농촌관광마을 만들기와 주민참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중호(2013),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 만족도 영향 분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태숙(2010), 사회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야마자키 미쓰히로(山崎光博)(1997), 『그린투어리즘과 일본 농촌』, 일본 농림통계협회.
- 야스모토야츠코·김경희(2015), 농촌관광정책의 협력적 거버넌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관광두레 사업을 대상으로,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 78(3).
- 양길현(2017), '연대와 협동'에 깃든 제주 살릴 핵심가치, 제주의 소리 기고문(2017.05.29).
- 양현모·이준호·최유성·최진욱(2007),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07-11-08.
- 염미경(2008),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 제주대안 연구공동체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 염일열·설성현(2003), 로컬거버넌스 구현을 위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활성화 전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오상훈·임화순·고계성(2005), 관광매력성의 계절간 비교 연구 : 제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17(4) 통권 제33호: 96.
- 오순환(2000), 녹색관광의 시설 및 활동프로그램, 『농촌전통생활문화 체험프로그램 교재』, 농촌진흥청.
- 오욱환(2013), 『사회자본의 교육적 해석과 활용 : 콜먼으로부터 그리고 그를 넘어서』, 경기 : 교육과학사.

- 오재일(2004), 지방분권과 로컬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18(1): 3-18.
- 오현석(2002), 농촌관광과 어메니티 시장의 발전, 『Agroinfo Issue』 No 1: 1-6.
- 오현석(2004), 주5일 근무시대와 농산어촌 - 5. 서유럽 농촌관광의 발전과 시사점, 『국토』 272: 42-50.
- 오현석(2016), 농촌관광 활성화의 조건, 한국농어민신문 2797호 농업마당 기사(2016.03.01).
- 오현석(2016), 마을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한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시선집중 GSnJ 제219호 보고서.
- 우종필(2013),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 한나래출판사.
- 원성심(2017), '나홀로' 귀촌·귀농 1인가구 부쩍 ↑, 서귀포시 '귀농 1번지', 헤드라인제주 뉴스 기사 (2017.06.29.).
- 유광민(2006),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자본과 리더십, 『관광연구논총』 18: 177-196.
- 유상진(2006),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참여, 한국농어촌공사 학술대회 자료집.
- 유상진(2007), 농촌지역 개발과 주민의 역할, 『농어촌과 환경』 94.
- 유석춘·장미혜(2002), 사회자본과 한국사회, 『사회발전연구』 8(0): 87-125.
- 유선경(2012), 전남 함평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민참여 행태와 IPA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정규(2003), 우리나라 농촌관광정책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농정연구센터 제126회 월례세미나 자료.
- 유정우(2006), 지속가능 관광개발 및 사회자본과 파트너십, 네트워크, 관광거버넌스 간의 구조관계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진우(2014), 지역축제 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몰입과 축제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치선·이수기(2015), 근린환경, 사회적 자본, 그리고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 인과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국토계획』 50(7).
- 유현숙(2004), 여성의 인적·사회적·심리적 자본에 관한 실증연구,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유희준(2014), 지역활성화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성준(2013), 사회적 자본의 효과에 관한 네트워크적 접근 : Bonding vs Bridging, 『e-비즈니스 연구』 14(1): 203-224.
- 윤순진(2009),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환경사회학연구 ECO』 13(1): 219-266.
- 윤유식·박덕병(2008), 농촌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사회자본이 농촌관광개발 효과 인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관광학연구』 32(2).

- 윤유식(2009), 농촌관광마을 사회자본에 따른 관광개발태도 및 관광개발 지지도에 관한 연구, 『농어촌관광연구』 16(3): 43.
- 윤현석(2007),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주·최승담(2013), 사회적 자본이 지역사회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37(4).
- 이강혁(2017), 사회적 자본과 로컬거버넌스의 관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걸재(2009), 생활 속에 숨쉬는 문화관광,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문화·관광정책 심포지엄, 관광분과 토론자료: 204-208.
- 이경원(2014),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사회적 자본의 육성, 『제주발전포럼』 51: 3-16.
- 이근희(2008),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경기 : 법문사.
- 이금옥(2001), 탈 농촌화 지역 주민의 공동체의식과 사회적 자본, 『한국농촌지도학회지』 8(2): 23-234.
- 이동원·정갑영·채승병·박준·한준(2009), 『제3의 자본 :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증진되는가?』,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이명석(2002),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6(4): 321-338.
- 이명석(2006), 거버넌스 이론의 모색, 『국정관리연구』 1(1): 36-63.
- 이명석(2007), 행정학의 패러다임과 거버넌스, 『국정관리연구』 2(2): 5-30.
- 이명석(2016), 거버넌스 : 신드롬 또는 새로운 행정학 이론?, 『국정관리연구』 11(3): 1-25.
- 이병원(2006), 농촌관광사업에서 마을주민들이 인식하는 갈등의 원인 및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철(2007), 지속가능한 농촌관광개발을 위한 지표설정 및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훈(2013),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성과 및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석환(2012),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의 원칙, 『환경논총』 51: 3-18.
- 이성은(2001), 제주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 수(2016), 중국 농촌 관광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관광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시철(2005), 지방분권과 지역 거버넌스의 어울림: mismatch와 관련 쟁점, 『지방정부연구』 9(1): 185-208.

- 이연택(2004), 국가 관광정책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에 관한 연구정책 과제 도출, 『관광학연구』 28(3): 143-160.
- 이연호(2010), 지속가능발전정책 거버넌스의 평가, 『동서연구』 22(1): 7-45.
- 이윤정(1997),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 수립단계별 주민참여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수·김태구(2013), 호텔직원의 지각된 불완전취업,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호텔관광연구』 15(2): 250-267.
- 이인배(2009),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사업추진방안,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개원기념 문화·관광정책 심포지엄, 관광분과 주제발표자료: 145-175.
- 이인자·한세희·이희선(2011), 사회자본이 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사교육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0(1): 179-213.
- 이재준·이상문(2003),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8(3): 40.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서울 : 대영문화사.
- 이종수(2016), 『공동체-유토피아에서 마을만들기까지』, 서울 : 박영사.
- 이지혜(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희(2005), 『1.3차 산업을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21세기 비전 남제주군민 대토론회, 남제주군: 19-66.
- 이진희(2007), 『관광을 활용한 농촌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향』, 07 농촌관광 전문인력육성 1차 워크숍,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 이진희(2008), 『제주도의 명품·명소 추진전략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3권,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 171-210.
- 이진희(2009),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산경논집 제24권,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159-184.
- 이진희(2011), 『제주지역의 명품녹색관광(Green-Tourism)확산전략』,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과 명품 녹색관광 확산전략, 제주웰컴센터.
- 이진희(2013), 『일본 마치즈쿠리의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1-51.
- 이진희(2013), 『장소마케팅 제3판』, 서울 : 대왕사.
- 이진희(2013), 『제주도 농어촌 관광마을 성공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13-21.

- 이진희(2015), 제주도 농촌마을의 관광동기 유형에 따른 관광선택속성에 관한 연구, 『탐라문화』 50: 153-180.
- 이진희·고성보·강하나(2017),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체계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83-85.
- 이현우·이지호·한영빈(2011), 사회자본 특성이 지역주의에 미치는 영향 : 결속형과 교량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2): 149-171.
- 이현웅(2014), 국내외 HRD 연구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관한 고찰, 『HRD연구』 16(3): 225-249.
- 이혜경(2009), 문화역사마을가꾸기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평가,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현·박덕병·이민수(2006), 농촌관광 방문객의 선호 체험프로그램 분석, 『문화관광연구』 8(1): 306-326.
- 이훈희(2014), 한국 건강불평등의 구조 분석 : 사회경제적 지위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연·차승훈(2004),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지표설정과 적용방안, 『관광학연구』 27(4): 331-352.
- 이희정(2013), 사회적 자본과 정보의 특성이 SNS 内の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마케팅연구』 28(2): 109-133.
- 임경수(2010), 『농촌활력론 : 농촌마을 가꾸기』,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임승빈(2005), 『로컬거버넌스와 사회자본』, 민관협력포럼 창립 2주년 기념 심포지엄 토론문, 거버넌스통합정보센터.
- 임화순·강영순(2008), 관광행태별 관광자원 선호도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0(2).
- 장성수·강보식·고계성·노경국(2013), 『관광자원론』, 서울 : 백산출판사.
- 장시준(2006), 사회자본의 개념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슈리포트: 1-26.
- 장호찬(2003), 『지속가능한 관광 - 녹색관광과 농산촌 개발』, 서울 : 일신사: 179-215.
- 전영평(2003), 자치의 오류와 지방정부혁신: 성찰과 과제, 『행정논총』 41(3): 79-104.
- 전창진(2014), 도시재생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이 로컬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건호·변효근·김기홍(2004), 지속가능한 한국형 농촌관광의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16(1).

- 정규식(2012), 도시재생사업에서 로컬 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규호(2002),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제도혁신의 필요성과 거버넌스의 전략적 함의, 『환경사회학 연구 ECO』 통권 2호: 9-32.
- 정대연(2004), 『환경주의와 지속가능한 발전』, 파주 : 집문당.
- 정병은·장충권(2006), '노가다'의 사회자본 형성과 한계 :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연결망, 신뢰, 호혜성, 『사회연구』 12: 9-37.
- 정봉섭(2010), 지역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와 협력, 통합의 관계,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재훈(2010), 주민조직 리더십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주영(2013), 대학교육만족도, 직업가치관, 직업만족도에 관한 구조적 분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진원·김천권(2011), 도시계획체제의 거버넌스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11.06.04.): 223-254.
- 정현달·백윤정(2016), 과업갈등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 커뮤니케이션 만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7(7): 192-203.
- 제주특별자치도(2012), 『제주의 마을을 품다』, 제주 농어촌마을 사례집.
- 제주특별자치도(2014), 『제주, 마을안에 서서』, 제주 농어촌마을 사례집.
- 제주특별자치도(2017), 『2017년 통계연보(2016.12.31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201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자본 관리 및 육성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토론회 토론문.
- 조남익(2008), 청소년 집단활동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모형분석,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록환(2003), 농촌관광사업 지역의 사회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부연(2011), 서비스 아웃소싱 관리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재환 외(2003), 농촌관광에 대한 도시민 선호분석, 『농업경영·정책연구』 30(3): 387-401.
- 조주은(2015), 지역 메가이벤트 참여가 사회적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순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창현(1998), 6·4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망 지방선거, 시민강연회 5: 5-12.
- 주현정(2013), 지역컨벤션산업정책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요인에 관한연구, 『관광연구논총』 24(2): 85-107.
- 진관훈(2013), 『사회적 자본과 복지거버넌스』, 도서출판 각 : 제주.

- 진영재(2010), 농촌체험마을 컨설팅지표 개발 및 농촌관광정책 방향 탐색, 『관광연구저널』 24: 91-106.
- 진영환·류승한·조판기·김진범·권영상(2007),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 사례편』, 국토연구원.
- 진창남(2012), 사회자본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종훈(201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와 파급효과 분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종훈·서정원(2011), 전남지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 요인 분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3(3): 108-124.
- 최경지(2015), 커뮤니티 기반 관광의 지속가능성 지표개발과 지역관광 발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기조(2009), 사회적 자본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문형(2013), 공동체의식과 주민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병훈·조현석(2010), 산업클러스터와 혁신 - 사회적 자본과 구조적 요인의 영향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9(3): 109-136.
- 최보희(2014), 로컬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성욱(2004),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행정학계의 거버넌스 연구경향분석, 『정부학연구』 10(1): 239-261.
- 최수남(2014), 복지관광이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수명(2011), 『농촌계획학 : 총설』, 경기 : 동명사.
- 최영국(2000),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 및 과제, 『국토』 223.
- 최용복(200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 36: 108.
- 최지민(2015), 사회자본이 참여의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해봉(2012), 사회자본 구성요인이 지방정부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두(2009), 농촌마을 주민의 농촌관광 사업 참여와 관광영향 지각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호준(1984), 『참가와 능률의 행정학』, 삼영사 : 서울.
- 최효영(2008), 농촌관광 지원요소가 농촌관광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성규(2009),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주택연구』 17(4): 77-94.
- 한국관광공사(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관광공사 연구보고서』.

한국농어촌공사(2009), 『가시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2009), 『녹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한국농어촌공사(2017), 2016년 말 기준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현황(내부자료).

한국선진화포럼(2010), 선진국 문턱에 선 대한민국 2010 - 신뢰와 사회적 자본의 구축, 한국선진화 포럼 정책제안집 32.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수준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39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이제는 사회적 자본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나라살림지식창고 블로그 자료.

한상연·서윤정·조록환·박정운·배형호(2014), 마을특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고찰, 『농어촌관광연구』 21(2): 103-113.

허주열(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 수준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현민철(2016), 공급사슬에서 기업경영활동 위험관리 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현해남(2011), 제주 토양환경을 알면 제주의 사회·문화를 안다, 『한국환경농학회 논문집』: 3-20.

홍영란·김태준·조영하·박희봉·양정호(2006),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RR2016-16.

홍종득(2007),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황경수(2015), 사회적 자본이 제주지역 공동체 문화인 권당문화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1764-1772.

황인학(2011), 금강산관광지구의 가치가 지속가능성 및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KBS 사회적 자본 제작팀(2011), 『사회적 자본(1% vs 99% 누가 양극화를 만드는가)』, 문예춘추사 : 서울.

〈외국문헌〉

Alvaro Vicente Ramirez-Alujas & Pedro Prieto-Martín(2013), *Participation Schemas: Dimension WHAT - Intensity of Collaboration*, <http://roadtolorien.info/>

Arnstein, Sherry R.(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5(4): 216-224.

- Arrow, Kenneth J.(2000), *Observations on social capital,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 The World Bank.
- Baron, R. M., & Kenny, D. A.(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riedenhann, J. & Wickens, E.(2004), Tourism routes as a too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areas–vibrant hope or impossible dream? *Tourism Management* 25(1): 71-90.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241-258. New York: Greenwood.
- Box, Richard C.(1998), *Citizen Governance : Leading American Communities into the 21st Century*, London : Sage Publications.
- Brodie E, Cowling E, Nissen N(2009), *Understanding participation: A literature review, Pathways through participation*, NCVO & Involve: 6-42.
- Burt, R. S.(1992), *Structural Holes : The Social Structure of Compet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 Burt, R. S.(2001), *Structural Holes versus Network Closure as Social Capital :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Capital : Theory and Research* edited by Nan Lin, K. Cook and R. S. Burt,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Buttler(1998),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C.M. Hal & Al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 A Geographical Perspective*.
- Carolyn C. Leung(2005), *Resident Participation : A Community-Building Strategy in Low-Income Neighborhoods*, Joint Center for Housing Studies of Harvard University working paper: 1-32.
- Catlaw, T. J.(2009), Governance and Networks at the Limits of Representation,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9(5): 478-498.
- Chris Choi, H. S. & Sirakaya, E.(2006), Sustainability indicators for managing community tourism, *Tourism Management* 27(6): 1274-1289.
- Chubb, Michael and Holly R. Chubb(1981), *One Third of Our Time?*,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 Chuzu, Pia Mwanza(2002), *Social Capital Effects on Poverty and Technical Efficiency in Rural KwaZulu - Natal, South Africa*, A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lawson, Marion and Jack L. Knetsch(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Press.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3).
- Coleman, J.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Craig, G.(2004), "Appendix". *Community Work: Policy, Politics and Practice*. Edinburgh: University of Hull.
- Cunningham, James V.(1972), Citizen Participation in Public Affair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2.
- Elkington, J.(1997), *Cannibals with forks: the triple bottom line of 21st century business*, Oxford : Capstone.
- Etsuko Okazaki(2008), A Community Based Tourism Model - Its Conception and Use,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6(5): 511-529.
- Fallon, L. D. & Kriwoken, L. K.(2003), Community involvement in tourism infrastructure—the case of the Strahan Visitor Centre, Tasmania, *Tourism Management* 24(3): 289-308.
- F Rahimnia, R Najminia(2014), Effect of Social Capital Dimensions on Intellectual Capital, *International Business and Management* 8(2): 182.
- Flora, C. B., Flora, J. L., Spears, J. D., & Swanson, L. E.(1992), *Rural Communities: Legacy and Change*, Boulder, CO: Westview Press.
- Foley, M. W., and Edwards, B.(1999), Is It Time to Disinvest in Social Capital? *Journal of Public Policy* 19(2): 141-173.
- Fukuyama, Francis(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The Free Press : New York.
- Gittell, R. & Vidal, A.(1998), *Community organizing : Building social capital as a development strategy*, Sage Publications : California.

- Glennerster, Howard(2009), *Understanding The Finance Of Welfare*, Policy Press.
- Go, F. M. and Trunfio, M., Della Lucia, M.(2013), Social capital and governance for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Studies in Agricultural Economics* 115: 104-110.
- Goss, Sue(2001), *Making Local Governance Work*, Hampshire : PALGRAVE.
- Gouldner, A. W.(1960), The Norm of Reciprocity :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5: 161-178.
- Grix, J.(2001), Social Capital as a Concept in the Social Sciences : The Current State of the Debate, *Democratization* 8(3): 189-210.
- Grootaert, C. & van Bastelaer, T.(2001), *Understanding and Measuring Social Capital : A Synthesis of Finding and Recommendations from the Social Capital Initiative*, Center for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Informal Sector(IRIS), University of Maryland, Working Paper No. 24.
- Grootaert, C., Narayan, D., Jones, V. N., & Woolcock, M.(2004), *Measuring Social Capital : An Integrated Questionnaire*, World Bank Working Paper No.18.
- Halpern, D.(2005), *Social Capital*, Cambridge Polity.
- Hewitt de Alcantara, Cynthia.(1998), Uses and Abuses of The Concept of Governanc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published by UNESCO.
- Hoogland, J. J., & Boomsma, A.(1998), Robustness studi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 An overview and a meta-analysi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6(3): 329-367.
- Horn, C. & Simmons, D.(2002), Community adaptation to tourism: comparisons between Rotorua and Kaikoura, New Zealand. *Tourism Management* 23(2): 133-143.
- Huntington, Samuel P. & Nelson, Joan M.(1976), *No easy choice : political particip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 Harvard University,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 Hwang, D. H.(2012),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Community Based Action in Tourism Development : A Study of Social Network Analysis*, A Dissertation of Illinois University.
- Inaba, Y.(2007), *Social Capital(in Japanese)*, Japan Productivity Center : Tokyo.

- Inkpen, A.C. and Tsang, E.W.K.(2005), Social Capital, Networks, and Knowledge Transfe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30(1): 146-165.
- IAPP(2000), *Spectrum of Public Particip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 Downloaded from www.iap2.org.au/Resources/IAP2-Published - Resources.
- Immergut, E. M.(1996), *The Normative Roots of the New Institutionalism*, University of Konstanz.
- Jankauskas, V. & Šeputienė, J.(2007), The Relation Between Social Capital, Governanc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Europe, *BUSINESS : THEORY AND PRACTICE* 8(3): 131-138.
- Jackman, R. W., and Miller, R. S. (1998). Social Capital and Politic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 47-73.
- Jessop, B.(2000), *Governance failure* in G. Stoker, (ed.), *The New Politics of British Local Governance*, Basingstoke : Macmillan.
- Johannesson, G. P., Skaptadottir, U. D., & Benediktsson, K.(2003), 『Coping with social capital?: The cultural economy of tourism in the north』, *Sociologia Ruralis* 43(1): 3-16.
- John Field(2004), *Social Capital*,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Jones, N., Sophoulis, C. M., Iosifides, T., Botetzagias, I., & Evangelinos, K.(2009), The Influence of Social Capital on Environmental Policy Instruments. *Environmental Politics*, 18(4): 595-611.
- Knack, S.(2000), *Trust, Associational Life and Economic Performance* in the OECD, Report, Paris: World Bank.
- Krause, D.R., Handfield, R.B., Tyler, B.B.(2007),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plier development, commitment, social capital accumula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5(2): 528-545.
- Larsen, L., Harlan, S. L., Bolin, B., Hackett, E. J., Hope, D., Kirby, A., Nelson, A., Rex, T. R., and Wolf, S.(2004), Bonding and bridging :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civic action.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24(1): 64-77.

- Leach, R. & Percy-Smith, J.(2001), *Local Governance in Britain*, Hampshire : Palgrave.
- Leslie, D.(2005), Effective community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cultural tourism: an exploration in the case of New Lanark, *International Cultural Tourism*: 122-136.
- Lesser, E. L.(2000), *Leveraging Social Capital in Organizations,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Boston: Butterworth-Heinemann.
- Liang, Q., Huang, Z., Lu, H., & Wang, X.(2015), Social Capital, Memb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ve Performance: Evidence from China's Zhejiang, *International Food and Agribusiness Management Review* 18(1): 58.
- Liedewij van Breugel(2013), *Community-based tourism :Local participation and perceived impacts*, Master Thesis of Radboud University Nijmegen.
- Lin, Nan.(2001), *Social Capital :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oury, G.(1977), *A Dynamic Theory of Racial Income Difference - Women, minorities, and employment discrimination*, edited by P.A. Wallace & A. LeMund. Lexington, Mass : Lexington Books.
- Marina Mushkelishvili, Lia Mezvrishvili, Beka Natsvlshvili, Mariam Elizbarashvili(2012), *The Role of Social Capital i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in Georgia*, Centre for Social Studies: 1-95.
- Mason, P. & Cheyne, J.(2000), Resident's attitudes to proposed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2): 391-411.
- McKenzie, S.(2004), *Social sustainability: towards some definitions*, Hawke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Magill South Australia: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Hawke research institute.
- McLean, Schultz, Steger(2002), *Social Capital*, New York Univ. Press.
- Miller, Dickson, & Stoker(2000), *Models of Local Governance :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Theory in Britain*,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urphy, P. E.(1985). Community driven tourism planning. *Tourism Management* 9(2): 96-104.

- Nahapiet, Janine & Ghoshal, Sumantra(1998), Social Capital, Intellectual Capital and Organization Advantag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3(2): 242-266.
- Nakagawa, Y. & Shaw, R.(2004), Social Capital - A Missing Link to Disaster Recovery, *International Journal of Mass Emergencies and Disasters* 22(1): 5-34.
- Narayan, Deepa & Cassidy, Michael F.(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 59-102.
- Ndlovu, Thulile Promise(2016), *Evaluating community-based tourism models : the case of Zulu-Mpophomeni tourism experience*, Master Thesis of Durban University of Technology.
- Newton, K.(2008), The Handbook of Social Capital - Trust and politics, pp.241-272, edited by Castiglione, D., Van Deth, J. W. and Wolleb, G., Oxford University Press : Oxford.
- Nick Wates(2000), The Community Planning Handbook, London : Earthscan.
- OECD(2001), Citizens as Partners, OECD handbook on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Publ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aris : OECD.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
- OECD(2004), *Tourism Policy and International Tourism* in OECD Countries :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OECD.
-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2002),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 A Survey of Local Authorities*, London : ODPM.
- Ohe, Y.(2016), Can community-based rural tourism survive under a super-ageing society? : Challenges of an agrarian community in Japan, *Journal of Global Tourism Research* 1(1): 5-8.
- Onyx, J. & Bullen, P.(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23-42.
- Ostrom, Elinor & Ahn, T. K.(2007), *The Meaning of Social Capital and Its Link to Collective Action*, Handbook on Social Capital, ed. Gert T. Svendsen and

- Gunnar L. Svendsen., Northampton, MA : Edward Elgar.
- Paxton, P.(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earce, D.(1997), Tourism and the autonomous communities in Spain, *Annals of Tourism Research* 24(1): 156-177.
- Pedro Prieto-Martín(2014), *Participation Schemas - A tool to characteriz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PDD Specialist Group Conference presentation paper: 1-14.
- Pierre, J(1999), Models of Urban Governance: The Institutional Dimension of Urban Politics, *Urban Affairs Review* 34(3): 372-396.
- Pierre, J(2000), *Introduction : Understanding Governance*, in Jon Pierre. (ed.), *Debating Governance*,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 Pierre, J. & Peters, B. G.(2000), *Governance, Politics and the State*, London : Macmillan Press Ltd.
- Podolny, J. M. & J. N. Baron(1997), Resources and Relationships : Social Networks and Mobility in the Workpla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73-693.
- Podsakoff, P. M., MacKenzie, S. B., Lee, J. Y., & Podsakoff, N. P.(2003), Common method biases in behavioral research : A critical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recommended remedi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8(5): 879-903.
- Portes, A., Landolt, P.(1996), The Downside of Social Capital. *The American Prospect* 26: 18-23.
- Portes, A.(1998), SOCIAL CAPITAL :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obert D.(1993a),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1993b), The Prosperous Community :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
- Putnam, Robert D.(1995), Bowling alone :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 Putnam, Robert D.(2000), *Bowling Alone*; 정승현 역(2009), 나홀로 볼링, 페이퍼로드 : 서울.

- Putnam, Robert D. & Goss, Kristin A.(2002), *Democracies in Flux : The Evolution of Social Capital in Contemporary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3-20.
- Reid, D.G.(2003), *Tourism,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 Responsible Tourism Planning*, London : Pluto Press.
- Rhodes, R. A. W.(1996), The New Governance :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Political Studies* 44(4): 652-667.
- Rhodes, R. A. W.(1997), *Understanding Governance :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Buckingham ; Philadelphia : Open University Press.
- Rose, R.(2000), *Getting things done in an anti-modern society : social capital networks in Russia*, In Dasgupta, Partha & Serageldin, Ismail,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 World Bank.
- Rosenau, J. N.(1992), *Citizenship in a changing global order, in 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 Orde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edited by J. N. Rosenau & E. O. Czempie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hin, I.(2010), *Organizational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Performance Of Drug Law Enforcement Departments : A Case Study In Turkey*, A Dissertation of Central Florida University.
- Schuller, T., Baron, S., & Field, J.(2000), *Social Capital: A Review and Critique*, in Baron et al.(Eds) *Social Capital: Critical Perspectiv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Schumacker, R. E., & Lomax, R. G.(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harpley, R. and J. Sharpley.(1997), *Rural tourism : An introduction*, Boston, MA : International Thomson Business Press.
- Smouts, M. C.(1998), The proper use of govern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50(155), published by UNESCO.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San Francisco : Jossey-Bass: 290-312.

- Solow, Robert M.(2000), *Notes on Social Capital and economic performance.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 C. : The World Bank.
- Sorensen, C.(2000), *Social Capital and Rural Development: A Discussion of Issues*. Social Capital Initiative Working Paper 10, The World Bank.
- Stoker, Gerry.(1997), *Local Government in British after Thatcher*, In Lane, J.(ed.), Public Sector Reform, London : Sage Publications.
- Stoker, Gerry.(1998),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Urban Governance*, in Jon Pierre(ed.), *Partnerships in Urban Governance*, London : Macmillan Press Ltd.
- Stone, Wendy.(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Family Matters Autumn*, p.38.
- Stone, W., and Hughes, J.(2002), *Social Capital : Empirical Meaning and Measurement Validity*,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 Svara, J. H.(1999), Politics-Administration/Officials-Citizens : Exploring Linkages in Community Governance, *Administrative Theory & Praxis* 21(3): 309-324.
- Svendsen, G. L. H. & Svendsen, G. T.(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The Danish co-operative dairy movement, *Sociologia Ruralis* 40(1): 72-86.
- Svendsen, G. L. H. & Svendsen, G. T.(2007), *The Creation and Destruction of Social Capital*, Edward Elgar Pub.
- Thammajinda. R.(2013), *Community participation and social capital in tourism planning and management in a Thai context*, A Dissertation of Lincoln University.
- Thomas, J. C.(1995), *Public Participation in Public Decisions*, SanFrancisco : Jossey-Bass.
- Tosun, C.(2000), Limits to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tourism development process in developing countries, *Tourism Management* 21(6): 613-633.
- Tsai W. & Ghoshal. S.(1998), Social Capital and Value Creation : the Role of Intrafirm Networks. *Th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1(4): 464-476.
- Turner, J.(2011), *Social Capital : Measurement, Dimensional Interactions, and Performance Implications*, A Dissertation of Clemson University.
- Uphoff, N.(2000),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 Learning from the Analysis and*

- Experience of Participation in Dasgupta and Serageldin, (eds.), Social Capital ; A Multifaceted Perspectives*, edited by P. Dasgupta and I. Serageldin. Washington, D. C. : The World Bank.
- Vargas Tangua, S. I. & Ortiz-Guerrero, C.(2015), The Governance System of Rural Tourism in the Guanentá Province, Santander: Cultural and Political Transformations, *Ambiente y Desarrollo* 19(36): 39-55.
- Wall, E., Ferrazzi, G. and Schryer, F.(1998), Getting the goods on social capital, *Rural Sociology* 63: 300-322.
- Wallace, C. & Pichler, F.(2007),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 Which is More Prevalent in Europe ?, *European Journal of Social Security* 9(1): 29-53.
- Wang, H., Yang, Z., Chen, L., Yang, J. & Li, R.(2009), *Minority community participation in tourism: A case of Kanas Tuva villages in Xinjiang, China*, Tourism Management, In Press.
- WCED(1987), *Our Common Future*.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Wilcox D.(1999), *A to Z of Participation*, Joseph Rowntree Foundation.
- Williams, D.(2006). On and Of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593 - 628.
- Wilson, David(1999), Exploring the Limits of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Parliamentary Affairs* 52(2): 247-259.
- Woodhouse, A.(2006),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in regional Australia: A case study, *Journal of Rural Studies* 22: 83-84.
-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 Woolcock, M. & Narayan, D.(2000), *Social Capital: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theory, research and policy*, The World Bank Research Observer, 15(2): 225-249.
- WTO.(1993),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Guide for Local Planners*, Madrid : World Tourism Organisation.
- WTO.(2002), *Rural Tourism In Europe -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WTO Seminar (Belgrade, Yugoslavia) Paper Conclusions: 1-10.

馬越皓之(1997), 環境社會學の理論と實踐, 有斐閣.

東澈·伊藤昭男·安村克己·田辻隆司·佐藤博樹(1993), 『持續可能な觀光と地域發展へのアプローチ』 ;

임주환·김종은·양덕희 옮김(2001), 『지역발전의 접근과 지속가능한 관광』, 서울 : 백산출판사.

山崎光博·小山善彦·大島順子(1993), 『グリーン・ツーリズム』 ; 강신겸·김정연 옮김(1997), 『녹색

관광』, 서울 : 일신사.

<기타>

고성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4304>)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 홈페이지(<http://www.welchon.com>)

동광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4406>)

배화의 맛있는 집밥요리 블로그(<https://blog.naver.com/pyoun0181/221014410716>)

어멍아방잔치마을 홈페이지(<http://jeju.go2vil.org>)

저지리 홈페이지(<http://jeoji.invil.org>)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카페(<http://cafe.naver.com/jejuchonvillage>)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jumaetul.or.kr>)

청수리 홈페이지(<http://jejuvill.jeju.go.kr/jejutown/domain-root/3511>)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희망을 가꾸는 농어촌마을 이야기 카페(<http://cafe.daum.net/nongchon1000>)

[부 록]

I.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

II. 인터뷰 조사 내용

III. 예비 조사 설문지

IV. 본 조사 설문지

[부록 I] 우리나라의 농촌관광정책

1. 2000년도 이전의 농촌관광정책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까지 농촌관광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려웠고, 1980년대 농업소득만으로는 농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개방농정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농외소득 증대정책이 추진되었다(유정규, 2003). 이 때 관광농원 등의 수단을 통한 농촌관광이 농촌정책에 등장하게 되었는데,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의 제정으로 농공단지 등과 함께 1984년부터 관광농원 개발이 농외소득 증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 이후 1989년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1991년 민박마을지원사업(現 농어촌민박사업) 등이 추진되면서 농촌관광이 본격적으로 도입·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으로 통칭되는 이들 세 가지 사업(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은 2000년대 이전까지 추진되어 온 대표적인 농촌관광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관광농원사업은 농어촌의 자연자원, 농림축산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의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 등에게 농어업·농어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업 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4년부터 추진되었다. 2,000m² 이상이고, 승인면적의 20% 이상 규모를 갖춘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 및 비닐하우스·분재원 등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한 토지 및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을 사업운영의 기본 시설로 정하고,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음식물제공시설, 숙박시설⁸⁶⁾, 기타시설⁸⁷⁾ 등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율 시설로 정하였으며, 2017년 현재, 지원 대상별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15억 원 이하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장 등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도시민 등에게 체험·휴양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86) 관광농원사업의 숙박시설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호 나목 관광농원의 정의에 따라 설치 가능함.

87)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광농원의 기타시설에 포함되지 아니 함.

1989년부터 추진되었다. 60㎡ 이상의 농어업전시관 및 학습관⁸⁸⁾을 기본 시설로 정하고,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자율 시설로 정하였으며, 이전에는 일정 부분 용자금을 지원했었으나 2017년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용자금은 따로 없는 상태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시행되었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에서의 숙박, 취사시설, 조식 등을 이용객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농어촌민박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증·개축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용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원받으려고 하는 주민(농어촌민박 사업자)이 농업인인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 2017).

관광농원은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관광시설로 일부 역할을 담당해 왔고, 2000년대 이후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의 향상에 힘입어 경영여건이 호전되면서 농촌관광 확산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여러 곳의 관광농원이 부실하거나 휴업 중인 것도 사실인데, 관광농원이 지역 특색과 매력을 살리는 다양한 농촌관광 상품의 개발이 아닌, 음식물 판매위주의 운영형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대중 일반음식점과 차별화가 안 되는 상황이다. 마을과의 연계 수준이 매우 낮아서 농촌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당초 목표의 달성도 쉽지 않아 당초 정책 취지인 도·농교류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농어촌민박은 관광농원 등에 비해 정책적 내용이 아주 단순로운 편이고, 주변 관광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 숙박사업의 운영 형태로, 농촌지역의 향토문화활동이나 농특산물 구매 및 농촌지역의 활성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금액도 소액에 그치고 있어 농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한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민박 운영관리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의 숙박시설로 인식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박시현 외, 2003; 강신겸, 2014).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2000년대 이전에는 관광농원사업,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민박사업으로 대표되는 농촌관광이 주로 농외소득 증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그 때까지 농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

88)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경우, 별도의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가 미흡했던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강신겸, 2014; 김광선 외, 2016).

첫째, 농촌관광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정책 추진으로 전체 관광 시장 내 매력적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다. 둘째,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육성하면서 농촌지역 자원의 다면적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신중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역으로 부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셋째, 시설물 확충 등 하드웨어적 측면으로 치우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운영 관리 교육 등 농촌관광 사업체의 운영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에 소홀하였다. 넷째, 시설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사업지원 방식의 성격상 하향식 개발방식의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농촌관광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등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였다.

〈표 1-1〉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의 추진 내용

구분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어촌민박
시작년도	1984	1989	1991
사업주체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단체	제한 없음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정부지원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 융자금 지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 없음	운영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등 융자금 지원
주요내용	영농체험시설, 휴양시설, 체육시설,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음식 또는 용역 제공 등	농림어업전시관, 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시설 등	숙박, 취사시설, 조식제공 등
사업규모	2천 m ² 이상, 10만 m ² 미만	1만 5천 m ² 이상, 100만 m ² 미만	연면적 230 m ²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005년 (개소)	392	11	11,659
2010년 (개소)	458	22	18,858
2015년 (개소)	545	23	24,246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06, 2011, 2016),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2. 2000년도 이후의 농촌관광정책

1990년대 중반부터 서서히 그린투어리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0년도 이전부터 추진되어오던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등의 농촌관광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000년 이후 ‘마을단위 농촌관광’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관광 개발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 당시 농가소득 증대를 우선 목표로 하여 전개되었는데, 2001년 행정자치부(現 행정안전부)의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등을 필두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現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년 시작), 어촌체험마을사업(2001년 시작),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년 시작) 등을 시행하였다. 문화관광부(現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2004년 시작)을 시행하였으며,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2002년 시작)을 시행하였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전의 개인사업자 중심 체계에서 마을단위 중심 체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인데, 개별적으로 투자한 후 많은 위험이 뒤따르게 되는 관광농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농촌 관광자원의 다면적 이용 및 관광체험의 다양성을 우선 고려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단위로 접근하는 관광개발이 시도되면서 그때까지 마을을 단위로 추진되어 온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농촌관광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새롭게 시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 것이었고, 궁극적으로 농촌 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문화의 창출을 추구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강신겸, 2014; 김광선 외, 2016).

이러한 새로운 농촌관광정책은 주변에 훌륭한 관광자원을 소유하고 있거나 농촌관광을 추진할만한 역량을 갖춘 리더가 있는 농촌 마을들 중에서 공모절차에 따라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신청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대상지를 선정하고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011년 기준, 다음 <표 I-2>의 내용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5개 중앙부처에서 8개 농촌관광마을 조성사업에 총 1조 6,629억 원을 투입하여 1,918개소의 농촌관광마을을 조성하였다.⁸⁹⁾ 중앙정부의 농촌관광정책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을단위 농촌관광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강원도의 신농촌건설운동,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8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의 목적이 당초 농촌관광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대상 농촌마을들이 숙박·체험형 마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대상 마을들을 농촌관광마을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정섭 외, 2011).

〈표 1-2〉 부처별 농촌관광마을 조성 현황(2011년 기준)

소관부처	관련사업	사업기간	조성마을 (개소)	투입예산 (억 원)	지원내용
농림수산 식품부 (現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2004~2017 (권역당 5년)	392	8,849	권역당 40~70억 원 (국비 80%, 지방비 20%) (국비 70%, 지방비 30%) ⁹⁰⁾
	녹색농촌 체험마을	2002~2013 (마을당 1~2년)	571	1,042	마을당 2억 (국비 50%, 지방비 50%)
	어촌 체험마을	2001~2013 (마을당 1년)	107	702	마을당 5억 (국비 50%, 지방비 45%, 주민자부담 5%)
행정자치부 (現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2001~2014 (마을당 3년)	400	1,658	마을당 3억 (국비 50%, 지방비 50%)
	아름마을	2001~2003 (마을당 3년)	23	435	마을당 국비 10억
문화관광부 (現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2009 (마을당 2년)	13	239	마을당 10~30억 (관광진흥개발기금 및 지방비)
농촌 진흥청	농촌전통 테마마을	2002~2009 (마을당 2년)	170	340	마을당 2억 (국비 50%, 지방비 50%)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1995~2017 (마을당 3년)	242	3,364	마을당 14~16억 (국비 70%, 지방비 30%)
합계	8개 사업	-	1,918	16,629	-

주 1) 투입예산은 2010년 말 기준.

주 2) 아름마을가꾸기사업은 2002년 농림부로 이관되었음.

주 3) 2008년~2012년 해양수산부가 폐지됨에 따라 어촌체험마을사업이 농림부로 이관되었었고,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하면서 현재는 다시 해양수산부에서 소관하고 있음.

자료 : 박시현·김용렬·권인혜·류경선(2012), 농촌관광의 새로운 방향과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보고서』 R 675.

위에서 제시된 마을 중심의 농촌지역개발 사업들 중 농촌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체험마을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이들 사업은 2001년 5월 농외소득증대 중장기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체험관광 추진마을의 지속적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들이라고 할 수 있다(백선정·정요한, 2015). 이러한 녹색 농촌체험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외 상기 제시된 사업들은 곧바로 농촌관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김정섭 외(2011)가 언급한 것처럼 사업시행 과정

9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2010년까지 80:20에서 2011년부터 70:30 으로 변경되었다.

을 거치면서 대부분 숙박·체험형 마을을 지향하게 됨에 따라 결국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농촌 관광마을 조성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이 5년 이상 소요되며, 사업 내용이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소득기반증대, 지역역량강화 등에 걸치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하기 때문에 마을단위 농촌관광을 준비하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중 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의지가 있는 마을들은 농촌관광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로 신청하여 지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2004년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권역단위 개발전략을 가지고 태동하게 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당초 농촌의 농촌다움(amenity)을 유지·보전하고,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 공간조성과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며,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표방하는 등 농촌관광을 아우르는 넓은 개념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따라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후 마을단위 농촌관광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방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많아지던 시기와 맞물려 2010년부터 포괄보조사업⁹¹⁾이 시행되면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같은 농촌 지역개발사업들에도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다. 기존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고, 기존의 소도읍사업과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이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러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의 세부사업들을 묶어서 명칭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일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과 어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등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으로 일원화 되었다.

2015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재정비되면서 기존의 농촌 지역개발사업들이 다시 개편되었는데,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창조

91) 포괄보조금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이전재원 중 하나로, 재정 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사업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지고 포괄적 사업 영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재원이며, 포괄보조사업은 이러한 포괄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이다(국회예산정책처, 2010).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개편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설계할 수 있도록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 200여개의 세부사업을 22개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였는데, 이는 지역별·중앙부처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포괄보조사업은 시·군의 자율성에 맡기는 사업으로, 점차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방 주도의 사업으로 옮겨가면서 더욱 하향식 개발의 색깔이 얼어지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강기호, 2014).

적마을만들기사업은 다시 권역단위 사업과 마을단위 사업 등으로 구분되면서 사업의 내용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는 권역단위 사업보다 지원규모가 작은 마을단위 사업⁹²⁾을 우선 시행한 후 권역단위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3〉 정부의 농촌 지역개발사업 흐름

연도	사업의 흐름	사업 유형	
1955	마을단위 종합개발	지역사회 개발사업(1958), 시범농촌 건설사업(1962)	
1965		지붕개량사업(0967)	
1970		새마을운동(1970), 소도읍개발(1972)	
1975		취락구조개선사업(1976), 불량주택개량사업(1976)	
1980	농업위주 농촌개발	불량화장실개량사업(1980), 입식부역개량사업(1983)	
1985		도서종합개발(1988)	
1990	부처별 분산적 농촌개발	오지종합개발(1990), 문화마을조성(1991), 정주권개발(1992), 어촌종합개발사업(1994)	
1995		산촌종합개발사업(1995), 주택개량사업(1995), 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1996)	
2000	마을단위, 균형발전 농촌개발	아름마을가꾸기사업(2001), 농촌전통테마마을(2002), 녹색농촌체험마을(2002), 어촌체험마을(200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거점면소재지사업 포함](2004)	
2005		지역특화사업(2004), 신활력사업(2005), 지역농업클러스터(2005), 전원마을(2006)	
2010 이후	농어촌 맞춤형 통합개발 [포괄보조 (일반농산 어촌개발)]	읍면단위	농촌중심지활성화(기존 소도읍사업, 거점면소재지마을종합개발사업,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등의 통합)
		권역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기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의 통합)
		마을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소규모), 농어촌체험휴양마을조성(기존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어촌체험마을 등의 통합)
		기타	시·군 창의, 시·군 역량강화 등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17)를 인용하여 재구성.

92) 여기서의 마을단위 사업은 문화·복지, 체험·소득, 경관·생태, 종합개발 등의 분야 중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파트를 선택하여 진행하고, 그 마을의 강점을 우선 살리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요 내용

사업 유형		주요 내용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통합·선도·일반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통합지구 120억 원 이내, 선도지구 80억 원 이내, 일반지구 6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통합지구 및 선도지구는 지역소득증대 사업 가능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의 공급기능 확충,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공통)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공통),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서비스 수용기능 확대지원(통합지구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권역 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4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동일한 생활권·영농(어)권 등으로 지역주민 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 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역량강화 지원 	
	마을 단위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마을단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역량강화 지원
		공동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5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공동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경제 (체험·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5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조·가공시설 및 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교육 & 마을 향토문화·자원 등을 연계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지원
		환경 (경관·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5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마을의 경관개선 및 생태보전을 위한 지원
		신규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5~36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마을기반시설 및 마을공동체 형성 사업비, 마을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시·군 역량 강화사업	시·군 창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1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5년 이내 ○ 4개 기능사업 일부·전부 지원 가능, s/w위주의 지원, 단계별 지원체계 미적용 	
	시·군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 2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 ○ 사업기간 : 1년 ○ 시·군 공무원 및 마을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s/w사업 지원, 사후관리 및 활성화 지원, 시·군 내 권역 간 연계 및 활성화 지원,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등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7),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pp. 1316-1341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구성.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고, 중심성 분석을 통해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거점기능 활성화 중심의 선도지구로, 중심성이 낮은 지역은 기초인프라 중심의 일반지구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적인 서비스 수용기능을 확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구를 추가하여 추진하고 있다(〈표 I-4〉 참조).

이 외에도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s/w 위주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시·군 역량강화 등의 사업들도 진행하고 있는데, 농산어촌의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통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재정투입 계획은 다음 〈표 I-5〉의 내용과 같다.

〈표 I-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연도별 지구수 및 사업비 현황(2016년까지)

구분	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구수 (개소)	1,508	429	160	166	166	300	287
사업비 (억 원)	68,058	23,656	10,535	9,158	9,397	8,355	6,957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자료(2017).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농촌마을들이 숙박·체험형 마을을 지향하는 등, 이러한 사업들이 궁극적으로 농촌관광마을의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농촌 지역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농촌관광사업은 농촌관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되어 오다가 정부에서 2007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을 제정하면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지정 등 농촌관광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⁹³⁾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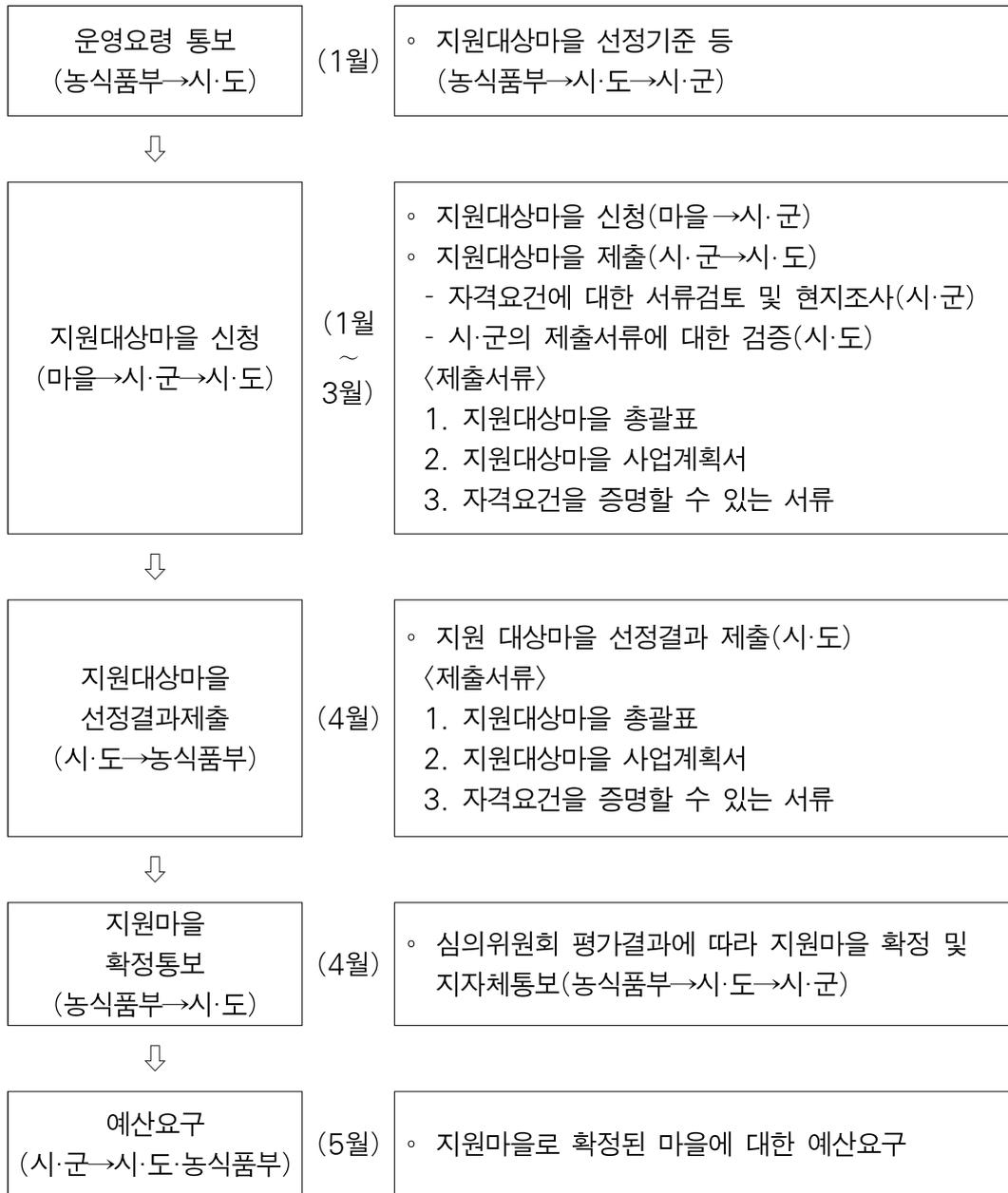
93) 도농교류법 제2조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하여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부 지원에 의해 조성된 농촌관광마을은 이러한 도농교류법에 근거하여 농촌관광사업을 할 수 있는 경영체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박시현, 2012).

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신청을 하여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에 기 추진되었던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등의 농촌관광마을들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운영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법적 지원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이렇게 마을단위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추진하던 농촌관광의 직접적인 관련법을 마련하고 해당 마을들로 하여금 그 법률에 의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도록 하는 것은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마을에서 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게 되면 관련 법규제의 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⁹⁴⁾

여러 가지 법규제 특례 외에도 「도농교류법」 제6조의 내용을 근거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⁹⁵⁾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해당 예산은 시·군 포괄보조금(지역발전특별회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지원된다. 주로 체험프로그램 개발,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마케팅 및 사무장 활동비 등의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고, 최근에는 해마다 농촌체험휴양마을들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그림 I-1]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김광선·안석·박지연, 2016).

94)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되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마을공동시설(연면적 5천㎡ 이하인 폐교를 연면적 1천㎡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 또는 연면적이 합쳐서 2천㎡ 이하인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 등의 마을공동시설을 각 시설별 연면적 500㎡ 이하의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임. 단, 총 숙박서비스시설의 연면적의 합은 1천500㎡ 이하여야 함.)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3천㎡ 이하의 실외승마장 또는 1천500㎡ 이하의 실내승마장)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하는 즉석식품을 제조·가공·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95) 도농교류법 제6조에 근거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되는 보험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안전)보험(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화재보험(화재보험, 화재배상 책임) 두 가지 종류이다. 마을별 5개 시설물에게까지 보험가입 신청이 가능하고, 두 가지 종류의 보험가입 지원 모두 마을 자부담 50%가 포함된다. 2016년 기준 체험관광(안전)보험은 820개 마을이 가입하였으며, 화재보험은 791개 마을이 가입하였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정책분야별 자료 -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현황(2016.12.14.)).



[그림 1-1]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선정·지원 절차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4년 농어촌체험마을 신규조성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추가지원 운영요령 [참고자료], p.8.

농촌관광마을 사업의 운영을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구의 1/3 이상(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다는 동의서,

마을협의회 규약 또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야 하고, 마을협의회(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⁹⁶⁾ 또는 '어업인'⁹⁷⁾이어야 하며,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시장·군수 등이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마을이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농촌관광의 품질유지 및 정보제공을 통해 도시민의 선택 폭을 넓혀 농촌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4년부터 농촌관광마을의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을 대상으로 하여 경관 및 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등 4개 부문에 대하여 농촌관광분야, 위생·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위원의 현장 평가 후 등급 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이 최종 결정되며, 평균 70% 이상 득점한 마을에 대해 우수한 순서대로 1~3등급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4개 부문에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마을에는 ' 으뜸촌'이라는 타이틀을 부여하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촌관광사업 등급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활동을 지원하고, 우수등급의 마을에 대해서는 표창, 대중매체 홍보 등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게 된다.⁹⁸⁾

뿐만 아니라, 도농교류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서 유치원 원아 및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농업·어업 및 농어촌의 가치를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교육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운영 가능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프로그램 등을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관할 지역의 학교에 이를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촌체험교육의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유치원과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의 교육적 측면에서도 농촌관광과 연계시키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관광마을의 홍보를 위해 농촌관광 관련 종합포털사이트(웰촌, www.welchon.com)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포인트 종류를 9개 카드사로 확대(당초 2016년 3월, 농촌관광지에서 사용

96) 여기서의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97) 여기서의 '어업인'이란,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 ②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98)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2014), 『농촌체험휴양마을 업무매뉴얼』, p.130 참고.

가능한 카드 포인트제 도입)함으로써 추후 농촌관광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농촌관광의 수요 확대로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 현재는 총 191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체험관광을 한 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으며, 점차 카드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마을이 늘어날 전망이다.⁹⁹⁾

99) 농림축산식품부(2017), 농촌체험마을, 신용카드 포인트 확대, 농촌산업과 보도자료(2017.03.30.).

[부록 II] 인터뷰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는 마을 리더(사업 추진위원장, 리장, 사무장 등)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이는 연구 대상지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량화된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포함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과 연관되는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사업성과 등에 대한 대상지 마을 주민들의 인식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며, 이는 지역 내 관계적 속성과 과정에 관한 사회현상을 해석하고 기술하고자 하는 철학인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¹⁰⁰⁾

본 연구에서 우선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 대상지 주민들의 주민참여, 사회자본, 로컬거버넌스, 그리고 사업성과에 대한 인식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 중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개인적인 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많은 부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홍현미라, 2005 : 43-50; 박용순, 2009 : 59-60 재인용).

본 연구의 인터뷰 조사는 계량화된 설문조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만큼, 설문 조사와 연계될 수 있는 인터뷰 문항들로 구성하여 시행하였다. 마을 리더들과의 인터뷰는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되는 일반적 내용에서부터 마을 내 구체적인 내용으로까지 이어지는 자유대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대화 중에라도 자연스럽게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을 리더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기본적인 문항 10개를 선정하였으나, 실제 인터뷰를 진행할 시에는 그 문항의 순서대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유대화 형식으로 자유롭게 대화를 유도하면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인터뷰의 순서도 당연히 랜덤(random) 형식이 되었다.

100) 본 연구에서 대상지 마을 주민들의 인식정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핵심 구성개념 중 특히 '자아정의', '상황정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아정의는 대상으로서의 자아 개념으로, 인간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자신의 마음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대상화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개인이 상황에 맞는 행위를 계획할 때 개인이 환경의 일부분인 것으로 시각화하고, 자신의 행동을 주위 동료들의 행동과 연관 지어 자신의 행위를 예측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황정의는 행위가 발생하는 명확한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특별한 상황의 본질, 그곳에서 발생하는 활동, 고려해야 하는 대상, 타인들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개념이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과 상황정의는 개인이 인지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으로,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홍현미라, 2005 : 43-45).

〈표 II-1〉 인터뷰 조사 내용구성

변수	인터뷰 문항	핵심적 확인내용
주민참여	·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인지정도 ·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참여정도	· 협의적 참여 · 협력적 참여
사회자본	· 농촌관광마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공동체복원에 대한 기여정도	· 결속형 사회자본 · 교량형 사회자본 · 교육적 부문과의 연관성
로컬거버넌스	· 행정과의 수평적·동반자적 관계형성 ·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로컬거버넌스의 필요성	· 행정에서의 지원정도 · 전문가그룹의 지원정도 · 주민, 행정, 전문가그룹 간 소통정도
사업성과	· 농촌관광마을사업 시행 후 나아진 점 · 농촌관광마을사업 시행 후 주민들의 만족도	· 경제적 성과 · 비경제적 성과
공통	·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향후 바라는 추진방향	· 향후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전망

우선, 주민참여와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인지정도’,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참여정도’ 등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협의적 참여’, ‘협력적 참여’의 현지 분위기는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농촌관광마을사업의 공동체복원에 대한 기여정도’ 등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웃 간의 신뢰, 행정에 대한 신뢰, 규범 준수, 대내외적 교류 등 ‘결속형 사회자본’ 및 ‘교량형 사회자본’ 등의 현지 수준을 알아보려 하였다.

셋째, 로컬거버넌스와 관련하여 ‘행정(지방자치단체)과의 수평적이고 동반자적 관계형성’,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로컬거버넌스의 필요성’ 등의 질의응답을 통하여 ‘행정에서의 지원정도’, ‘전문가그룹의 지원정도’, ‘마을주민·행정·전문가그룹 간의 소통정도’ 등의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넷째,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되기 전과 비교하여 조성된 후 현재 나아진 점’, ‘농촌관광마을로 조성된 후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 등의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경제적·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현지의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향후 바라는 추진방향’ 등의 전반적 질의응답을 통해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된 마을 내 현장의 전반적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1. 가시리권역 전 추진위원장(現 제주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인터뷰 일시 : 2017.07.03. 오전 10시)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정도는 어떠한가요?

A) 사업 전에 비해 사업에 대해 인지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정도는 어떠한가요?

A) 주민들 교육, 세미나, 견학 등을 통해 마을에 풍력사업, 태양광사업을 유치하게 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서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정부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1년에 한번은 가시리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귀담아 들은 부분들이 주민들 간에 전파되고 또 전파된 것들이 의식의 변화를 도와준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러면서 마을의 갈등도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전에 비해 더욱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더욱 더 재미있는 분위기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 지난 5월 마을 단합 체육대회 때 보니까 더욱 풍성하고 재미있게 진행되는 분위기를 보면서 공동체가 조금씩 회복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 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주민에 의한 주민 주도형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은 어느 위치에서 도와줄 것인가, 농어촌공사나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도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개입하고 관여해야 하며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면 주민들의 자율성을 후퇴시켜서 지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지속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 위험성이 있고, 전문가그룹, 농어촌공사에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게 되면 주민들의 의존성이 커져서 이 역시 주민들의 자율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주민들에 의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에서는 사업비 지원기간을 사업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는데, 마을에서 생각하는 사업비 지원기간은 본격적 사업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사업비 지원기간이 끝난 이후에 마을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사업비 지원이 끝날 때 본격적 사업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료되어 버리는, 지원기간이 끝나면 유명무실
해져 버리는 것이 계속하여 반복되는 경향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다.

Q) 옛날 제주의 그릇계, 쇠번, 초집일기 등 공동체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 농촌마을의 공
동체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A) 산업구조, 사회구조 자체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옛날과 동등한 구조의 공동
체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대신 문화사업을 통해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공
동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전 제주지역 농경사회 공동
체 문화의 정신만은 가져와서 분명 집목시켜야 한다. 지금도 농촌에 수놓음 형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 역시 경제관념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내가 가
서 도와주면 돈을 받을 것이고 누군가 와서 도와주면 돈을 줘야 하는 경제관념으로 많이
바뀐 것이다. 결국 요즘 시대에는 공동체 회복을 문화사업과 복지사업에서 찾는 것이 중
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사업 전과 비교하여)

A) 리더들과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행정력이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주민
들과의 관계는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다. 지역의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넓혀나가
는 활동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홀한 것 같다.

거버넌스, 협치와 같은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협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행정에서도 철학이 공유되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관계부서로 발령받아서
새로 오면 그 철학적인 부분들이 전혀 공유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저것 뒤죽박죽 되어
버리는 경우를 보았다. 그리고 진정한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농촌관광마을사
업 등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 안타깝다. 그러면서 마을
사업을 다른 행정과 유사한 형식으로 접목시키려고, 꼭 그 틀로 가두어 놓으려는 모습들
이 무척 아쉬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직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1년에 상·하반기 한 번씩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
다. 사업 참여 주체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잘 모르면 협치가 힘들

다고 생각한다. 잘 모르니까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고만 한다. 그저 만나면 형식적인 협
치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¹⁾

Q)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가야한다는 것, 지속유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주기위해 노력해
야 한다는 것, 사후 운영마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한
번 더 지원해주는, 기회를 더 주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 즉,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
존 지원해준 마을들은 조금만 잡아주면 많이 나아질 것인데도 조금 잡아주지 못해서 다
시 퇴보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이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초기에 계획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 많이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 내용이 발굴되었었다. 그런 사업계획을 하였기에 주민
들이 거기에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과거 행정과 전문가들에 의해 사업이
발굴되다 보니 주민들과의 괴리감이 발생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유지 가능하지 못한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시설물들이 목적 외의 시설물들로 활
용되고 있거나 활용도가 낮아 흉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마을사업으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대신 가능성을 위한 터전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을사
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업을 통해 어떤 수익을 낼 것이고 그래서 얼마만큼 나눠 주겠
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구조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개개인이 노력
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떠한 편입니까?

A)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은 안 해봤지만, 반대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관망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고, 적극 참여하고 좋아하는 그룹이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관망하는 그룹이
50%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관망하는 그룹 중 20%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룹으

101) 농촌관광마을 조성 후 현재의 상위집단에서 협력적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동안에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신뢰
도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관련하여, 향후 진정성 있는 협력적 참여를 위해서
행정기관 등에서 동반자적이고 수평적이며 진솔한 자세로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시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로 바뀌었다. 반대하는 그룹이 약 10% 정도 있는데, 어떤 것을 시도해도 반대를 한다는 느낌이어서 모두 끌고 가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다. 마을사업의 성격상 마을사람들 전체를 모두 끌고 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진하면서 중간에 하차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간에 승차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데, 과연 목적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목적지까지 순항만 할 수 있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Q) 가시리를 '재미진 마을'로 표방하는 것이 결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A) 가시리의 마을 비전이 중간에 한 번 바뀌었다. 당초 '유채꽃과 그린에너지가 어우러진 생명의 마을'에서 '더 재미진 마을'로 바꾸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조성된 후 더 큰 업그레이드된 마을로 구상하면서 찾은 것이 '재미진 마을'이었다. '재미진'은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와 환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마을이 재미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을이 발전해나가는 중간에 비전도 바꿔주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전이 똑같은 마을이라면 발전이 없는 상황의 마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도농 간의 격차 해소, 농촌의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농촌에서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농촌에서는 의료·문화·복지·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도시와 비교하면 많이 소외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지역 균형의 관점에서 마을사업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의 문제는 도시문제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도시민들이 잘 알아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평소 생각하시는 희망사항이 있나요?

A) 지금 행정에서는 환경, 문화, 복지사업을 하는 곳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방문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평가지표와 같은 것들도 분야별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라면 문화분야에 맞는 세분화된 지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체험소득 분야라면 체험소득분야에 맞는 세분화된 지표가 있어야 하는데, 전체적 통합지표 하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험휴양마을의 경우도 마을별 특색이 있는데, 평가를 모든 마을에 똑같은 통합 평가지표로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각 분야별로 평가체계를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체험휴양마을 평가와 관련해서 너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한다. 불필요한 형식적이고 엉뚱한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평가해야 발전이 있을텐데, 일해야 할 시간에 평가준비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매달리고 있을 정도로 참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마을의 사무장도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많이 있다. 마을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똑같은 틀의 것들을 하라고 하고, 똑 같은 잣대로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2. 옷뜨르권역 전 추진위원장(現 제주도 마을만들기협의회 회장) 인터뷰 (인터뷰 일시 : 2017.07.03. 오후 2시)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A) 도시민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 흐름을 읽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정도는 어떠한가요?

A) 이제는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알고 있고, 이전에 비해 인식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정도는 어떻습니까?

A) 마을사업에 대해 전보다 많이 적극적인 편이다. 더 알려고 하고 참여율도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교육, 견학 등의 역량강화사업도 타 마을보다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였기에 역량적으로 축적되고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 때 더 많은 역량강화교육을 시행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실천성, 발현적 측면을 더욱 고려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결국은 교육의 문제이다. 사업이 끝난 마을에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보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만약 본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주민들과 같이 활용방안을 도출시켜야 하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곳에는 패널티를 주고, 잘 하고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 무작정 사업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Q)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사업 전과 비교하여)

A) 경북 청송의 한 공무원이 마을만들기 사업 담당을 10년간 해오고 있는데, 본인이 자처해서 다른 부서로 가지 않고 계속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이런 공무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타 부서 업무에 비해서 사업비도 적고, 말은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인데, 이런 업무에 자처해서 계속 근무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소명의식을 갖기란 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민들과 계속하여 유대·소통을 통해 무엇인가 만들어보고자 하는 행정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아마추어적일 뿐 아니라 갑질이나 하려고 하는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행정에서도 거버넌스를 많이 이야기 하는데,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행정에서는 실적 위주로 사업비 맞추기에 급급하고, 마을 입장에서는 사업이 조금 늦더라도 현장 여건에 맞게 계획을 수정하여 제대로 시행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공무원들은 어떠한 물 내에서 그들의 일신상 문제가 없다면 뻔히 눈에 보이는 결과를 예측하면서도 그대로 추진해 버리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의 마을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소통이 되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까?

A) 이 사업의 본질적 목적은 농촌다움의 유지, 보존을 위해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삶이 과연 이 사업을 통해 향상되었는가?' 라는 물음에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 라고 대답한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을 통해 마을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마을로 나와서 해야 할 일들이 그 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예를 들어, 청수리 반딧불이 축제와 같은 경우, 청년회원들과 부녀회원들이 매일 동원되어 도와줄 때 그 일당으로 약간의 일당이 지급되지만, 과연 그 소소한 일당 지급이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많은 도시의 소비자들을 대하면서 감동을 주고, 어떠한 보람을 얻었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면 삶의 질은 향상될 수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여러 과정들을 겪으면서 향후 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 시, 충분한 학습, 충분한 훈련 등 마을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급하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승인되어서 책자가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에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아직은 사업을 시행할 곳이 아닌 곳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본다. 물론 지금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까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입할 곳에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준비가 되어있으면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투자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통해 피드백되어야 하고 그 결과 타당성이 있는 곳에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반드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한 것은 겨우 10년 정도로 볼 수 있고, 유럽 선진국은 70년, 일본은 30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선진국들도 농촌관광사업을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거울삼아서 우리도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데, 행정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앞으로 달라져야 하는데,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변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농촌의 사람들이다. 우

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변해서 외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고 발전이 굉장히 더딜 것 같다. 행정이 가장 늦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농촌의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한다.

제주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마을 리더들이 바뀐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연속성이 없게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전 리더와 현 리더와의 관계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둘 간의 사이가 안 좋다면 지금까지의 사업에 대해 거부하고, 부정하여 새로 다시 계획하고 시행하는 비효율성을 낳게 된다. 육지의 경우, 제주도의 상황과는 조금 달라서 마을의 리더가 장기적으로 책임을 맡아서 사업의 연속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데 반해, 제주도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은 제주도 마을의 리더들이 너무 바쁜 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은 마을의 리더들이 모두 전적으로 책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 사업단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리장이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그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하는 마을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행정과도 상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촌관광사업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과 같은 맥락일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도시 소비자들은 그들의 힐링을 위해 농촌을 방문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 그런 흐름들에 대비하여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지금은 농촌에 영농소득이 훨씬 많지만, 앞으로의 미래는 영농소득보다 영농과 관련된 농촌체험관광의 소득이 높아질 것이다.

나의 주관적 고집으로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계획만 할 것이 아니라 도전하여 시도해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마을 리장이나 사무장 등 리더그룹이 농촌관광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초반에 얘기했지만, 마을의 리장은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고, 마을 사업단을 맡고 있는 핵심 리더들에게 소명을 심어줄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게 해야 한다. 개인이 하는 것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공동체의 회복에 대해 강조하지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A) 그동안 농촌에서는 눈뜨면 밭에 가고 해가 안보여야 집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적 삶이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마을의 핵심 화두를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것은 이미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나의 기쁨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공동체성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Q) 옛날 제주의 그릇계, 쇠번, 초집일기 등 공동체 문화가 있었고, 그것들은 어려운 시절에 상부상조하는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일에 경제적 관념이 접목되어버리는 씩씩한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위원장님 느끼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A) 옛날에는 마을에 일이 있으면 전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었지만 지금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동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 말하면, '마을'이라는 개념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마을은 다양한 사고, 다양한 아이디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군락을 이루고 거기서 다양한 형태로 가치를 발현시키기 위한 모임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곳으로 그 개념이 달라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개념도 그에 따라 달라졌다고 봐야 하는데, 현 시대 흐름에 맞게 공동체성이 새롭게 정립되어 가는 것이다. 옛날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수놓음, 품앗이의 개념들이 아니라 음악동아리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가 달라진 현 시대의 공동체라고 봐야 할 것이다.¹⁰²⁾

3. 명도암마을 추진위원장

(인터뷰 일시 : 2017.07.05. 오전 9시)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정도는 어떠한가요?

A) 지금은 이전에 비해 마을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더 잘 알고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도는 어떠한가요?

A) 현재 마을사업에 대한 참여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명도암마을 내 거의 모든 가구가

¹⁰²⁾ Putnam은 신뢰·호혜적 규범 등을 촉진하는 비공식적 형태의 음악·스포츠 동호회 등과 같이 이윤추구가 아닌 모임 자체를 중시하는 조직을 강조하였는데, 현재 농촌마을에서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동아리개념의 공동체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의 가시리권역 전 추진위원장과 인터뷰 내용(본 논문의 p.320 참조)과도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2006년도에 처음 마을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주민들이 전혀 참여할 생각을 하지 않았었다. 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행정에서의 일방적 정책시행을 하다 보니까 마을에 도움은 되지 않고, 마을의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지는 결과를 낳아서 정부,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주 일부만 동참하고 대다수가 동참을 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그 이후 마을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참여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마을사업 진행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마을사업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나누어주고 있다. 회기 마감도 12월 말이 아닌 11월 말에 하여 매년 11월 5일 정도에 감사를 모두 받고 11월 10일 정도 되면 결산자료를 책자로 주민들에게 배포한다. 그리고 12월 25일 마을 대동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궁금한 사항들이 모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른 마을들은 마을회와 조직을 동일하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마을은 마을회와 체험휴양마을을 구분하였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마을회장직을 다른 분에게 넘겨주고 체험휴양마을의 추진위원장을 맡기 시작했다. 마을회 회장은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바뀌어서 지속성,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지속성을 위해 구분을 한 것이고,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추진위원장 직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 현재는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모두 13명의 운영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신뢰가 쌓여서 믿음을 갖고 운영위원회에 맡기는 형태가 된 것이고, 현재는 안정권에 진입하여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A) 농촌에서 도시로 나갔다가 IMF 시기에 다시 귀향하여 우리 농촌도 FTA를 통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 준비를 한 것인데,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처음에 농업기술센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힌트를 얻었고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한 농촌진통테마마을 사업을 계기로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이 공동체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마을사업을 통해 공동체는 많이 회복되었고 이전과 비교하면 공동체가 많이 좋아졌다

고 볼 수 있다. 다만 마을에 대한 열정보다는 점점 더 경제적 관념으로 흐르는 것이 안타
까울 뿐이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추진 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마을사업과 관련
하여 향후 추진방향 등 희망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마을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계획을 철저히 해 두었다
가 나중에 행정에서 공모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게 빨리 신청해야 한다. 행정에서는 1주
혹은 2주일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마을사업 공모하는 경우, 행정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더
욱 더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해서 정말로 사업을 해야 할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는 열의가 있는 마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업비만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마을들에게도 공평하게 지원
해준다는 명분으로 지원해주게 되면 이는 비효율적인 것이고, 결국 후회하는 결과를 낳
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 행정에서 귀농·귀촌인들에게 토지구매 시 저금리의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
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한다. 이는 땅을 사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땅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한 귀농·귀촌인
들이 또 마을 내에서는 자신들도 마을의 주민들이라고 권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융화는
되지 않으면서 권리 주장만 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귀농·
귀촌인들에게 아주 후한 제도적 지원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마을에 가서 어떻게 융화하
고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을 우선해야 맞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여러 가
지 귀농·귀촌 정책들을 많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시행에 있어서 1차 산업 분야에도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의학
을 포함하는 모든 과학들이 1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기도 하지만 우리 삶의 근본은 농업
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를 너무 무시하여 교육을 하다 보니 교사, 학부모들
도 농촌에 대해 잘 모르고, 그들에게 배우는 아이들은 오죽하겠는가.

마을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이용객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다.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이외로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언해주는 경우가 많다.

Q)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사업 전과 비교하여)

A) 이전과 비교하면 행정에 대한 신뢰는 아주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다.

Q) 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 어려운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농촌관광마을사업들을 통해서 명도암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고, 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은 향상된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살기 좋은 마을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점점 주민들이 돈에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물론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은 이익금을 나눠주지 않고 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첫째, 유지보수를 위한 재투자, 둘째, 고용창출, 셋째,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여행), 넷째, 기부를 하고자 하고 있다.

농촌관광마을사업이 농업의 1차 산업과 연계된 것들이고,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익은 많지 않은 편이다. 학교에서 체험하러 많이 오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인솔해 오는 교사들 중에는 체험비가 비싸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그러나 체험을 위한 재료비나 주민들의 인건비를 생각하면 마을에 남는 이익은 거의 없어서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비싸다고 말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참 곤란할 때가 있다.

일선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느낄 때가 있다. 깃잎을 수확해오는 체험을 하는데, 학부모와 같이 체험농장으로 나간 교사들이 깃잎을 구분하지 못해서 수확해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부터 교육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어멍아방권역 사무장(신흥리 전 사무장)

(인터뷰 일시 : 2017.08.08. 오후 5시)

Q) 농촌관광마을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A) 2002년 경에 농업기술원에서 그 당시 리장님 등 리더분들에게 권유하셔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사업이 2002년도부터 진행한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이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정도 및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A)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농촌관광마을사업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하향식 분위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대부분 마을의 임원들만 참여하는 형태 였는데, 2006년부터 농촌관광마을 사무장을 새롭게 채용하면서부터 마을 주민분들이 농촌관광마을사업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고, 방문객이 점차 늘어나면서 마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게 되었다.

집줄농기, 빙떡만들기 체험 등을 위해 마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참여하고 계시다. 민 박 운영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연합회를 만들어서 민박객들이 오면 마을에서 농가에 배분 해주고, 마을에 일부 수익이 할당되는 형태가 되고 있다.

2009년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농촌페스티벌을 개최하였는데, 그 때 마을 주민들 중 90%이상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축제에 참여했던 것들이 계기가 되어 참여도가 점차 높아졌고, 그 이후 마을이 외부에 많이 알려져 방문객이 더 증가하는 등 2009년에 치른 농촌페스티벌은 농촌관광마을사업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각 자생단체에서 준비를 해 주셨고, 고망늬시 준비팀, 음식 준비팀, 전통문화체험 준비팀, 농산물판매 준비팀, 교통봉사 진행팀 등 여러 가지 파트에서 주민분들이 참여해서 진행 했었는데, 그런 행사를 치르고 난 뒤 주민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다. 당시 축제 지원비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었지만, 적은 지원비를 가지고 몇 배의 성과를 달성했 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현재 참여도는 그 때와 비교하면 저조한 편으로, 내·외부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는 우리 마을에서 풀어야 하는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이 공동체 회복에 어느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마을사업을 통해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동체회복에는 많은 부분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모여서 한마디라도 나누게 되면 조금의 소통이라도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쉬운 점, 중요한 점, 향후 희망사항,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요?

A) 마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민들 간의 신뢰가 중요하고, 리더들은 주변에서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촌관광마을사업 추진 시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까 중간에 지원해주는 마을사업 관련 중간 지원조직이 너무 많았다. 서로 업무가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중구난방

식이라고 느껴져 많이 아쉬웠다. 그룹별로 지원 분야를 명확히 해서 지원해 주면 더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진입단계까지 해당되는 마을들의 포럼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하고, 그 이후 단계의 마을들에 대한 지원은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방안 등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컨설팅 업체와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전문가를 직접 고용해서 활동하게 해야 맞는 것 같다. 중간지원조직에서 전문가를 섭외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내 전문가들이 직접 고용되어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이면 좋을 것 같다. 전문가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관리해주는 실질적 시스템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전문가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녹아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마을사업들을 진행해오며 있어서 사무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리장님의 역할이 크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운영상 사무장을 맡아서 일해오신 분들이 제 역할을 해 주셨기에 지금까지 농촌관광마을의 운영이 이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농촌관광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특히 사무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처후도 조금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덧붙이자면, 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사후관리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한다.

Q) 행정과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사업 전과 비교하여)

A) 겉으로는 점점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많이 드러내지 못하는 불만들이 많은 것 같다.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협치가 아니라, 권위를 내려놓고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치가 되어야 한다.

[부록 III] 예비 조사 설문지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주민 설문조사

No.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책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고, 순수 학술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기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설문 내용이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7월

지도교수 : 이 진 희(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연구자 : 강 기 호(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 농촌관광마을사업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말합니다.
- 사회자본이란,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지역 내에 축적된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 로컬거버넌스란, 지역 공동문제를 해결·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
관(지방정부), 전문가그룹 등의 다양한 상호의존적 행위자들이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의사결정 체계를 말합니다.

※ 아래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① ~ ⑤까지 번호 중 적절한 번호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②.....	③.....	④.....	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I.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주민참여활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마을안내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설문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마을회의(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7.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의견제시에 적극적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관련 계획·시행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9.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 II. 사회자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지들을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마을의 자치 규약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마을의 자치 규약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마을 내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8.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0. 제주도, 시청, 읍·면사무소 행정에 대해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1.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마을의 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Ⅲ.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로컬거버넌스 인식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자체(공무원)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공무원)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전문가그룹(전문단)의 협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마을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마을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6. 마을주민, 지자체, 전문가그룹은 서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지자체, 전문가그룹 간 마을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는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IV. 농촌관광마을사업의 성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소득이 증대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마을의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마을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주민 협조(단합)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증가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9. 우리 마을의 이미지가 향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 당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59세 ⑤ 60~69세 ⑥ 70세 이상
3.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귀하의 고향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께서 마을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어업 ② 자영업 ③ 공무원 ④ 회사원 ⑤ 전업주부 ⑥ 학생 ⑦ 기타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7.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 총소득)

- ① 1,500만원 이하 ② 1,500만원~3,000만원 ③ 3,000만원~4,500만원
④ 4,500만원~6,000만원 ⑤ 6,000만원~7,500만원 ⑥ 7,500만원 이상

8. 귀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및 마을만들기사업 등 농촌관광사업 추진 시 위원장, 리장, 사무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마을지도자 등의 직책을 전에 맡으셨습니까? 또는 현재 맡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에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IV] 본 조사 설문지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주민 설문조사

No.			
-----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농촌관광마을의 주민참여와 관광사업성과 간 매개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를 위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정책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내용은 본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고, 순수 학술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익명으로 기재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설문 내용이 본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의 정성에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10월~11월

지도교수 : 이 진 희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연구자 : 강 기 호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 농촌관광마을사업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농촌
마을만들기사업 등의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방식의 마을공동체
활성화형 농촌관광사업을 말합니다.
- 사회자본이란, 지역 내 사회구성원들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조직의
특징과 관련되는 지역 내에 축적된 무형자산을 말합니다.
- 로컬거버넌스란, 지역 공동문제를 해결·조정하기 위해 지역주민, 행정기
관(지방정부), 전문가그룹 등의 다양한 상호의존적 행위자들이 동등한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의사결정 체계를 말합니다.

※ 아래의 질문에 대한 귀하의 인식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 전과 현재 각각 ① ~ ⑤까지 번호 중 적절한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 I.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조성 전					현재				
1.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마을 안내문에 관심을 가지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설문 조사 또는 인터뷰에 협력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주민 설명회(공청회)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전문가 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마을회의 (자발적 조직)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의견 제시에 적극적이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관련 계획·시행과정 등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마을만들기 및 농촌관광마을사업 담당 공무원과의 토론에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Ⅱ.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조성 전					현재				
1. 친지들을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마을 대부분의 이웃들을 신뢰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의 자치 규약을 잘 알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의 자치 규약을 잘 준수하고 계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마을 내 불우이웃을 도울 뿐 아니라 도움을 주라고 이웃들에게 권유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마을 주민들과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처음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대부분의 사람들을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중앙정부 행정에 대해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지방자치단체(제주도, 시청, 읍·면사무소) 행정에 대해 신뢰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출신지역에 관계없이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다른 마을의 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지내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②.....③.....④.....⑤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Ⅲ.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로컬거버넌스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조성 전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지자체(행정)의 정보제공, 인력지원 등 행정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행정)의 예산 및 시설지원 등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전문가그룹(자문단)의 협조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주민, 지자체(행정), 전문가그룹 간 동등한 (동반자적) 관계로 협력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주민, 지자체(행정), 전문가그룹 간 상호교류가 잘 되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주민, 지자체(행정), 전문가그룹은 서로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Ⅳ. 농촌관광마을 조성 전과 조성 후 현재의 사업성과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구분	조성 전					현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 가구소득이 증가한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토지가격이 상승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마을내 방문객이 증가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마을내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공동체 참여의식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주민 협조(단합) 정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시설 개선으로 생활의 편리성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시는 편입니까?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V. 통계처리를 위한 일반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항 당 해당 번호에 √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30대 이하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 이상
3. 현재 거주하시는 마을이 귀하의 고향입니까?
① 예 ② 아니오
4. 귀하께서 마을에 거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이하 ② 6~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 농어업 ② 자영업 ③ 회사원 ④ 전업주부 ⑤ 기타
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초등학교 졸업 이하 ② 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7. 연평균 가구 총소득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 총소득)
① 1,500만원 이하 ② 1,500만원~3,000만원 ③ 3,000만원~4,500만원
④ 4,500만원~6,000만원 ⑤ 6,000만원 이상
8. 귀하는 마을에서 리장, 감사,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추진위원, 사무장, 노인회장, 개발위원장, 개발위원, 청년회장,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작목반장, 친목계 회장 등의 직책을 전에 맡으셨습니까? 또는 현재 맡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에 성의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the Mediating Factors betwe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Tourism Business Performance in Rural Tourism Villages
- Focused on Applic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for Rural Experience Recreation Villages on Jeju Island -

Ki-Ho Kang

Department of Tourism Development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lemented a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a rural tourism village community since about 15 years ago, but as communal problems keep occurring, there is a political limitation, this study has a critical mind on the basis that it is most important to strengthen the basis of 'recovery and revitalization of village community.' Along with this,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cessity to suggest the priority directions for the future for the efficient promotion of the policy for the revitalization of rural tourism in the village community, e.g. How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should operate and what to do to form them properly.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was set to the entire rural experience recreation villages on Jeju Island to contribute to the generalization on Jeju Island.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from the time before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tourism villages till the present to compare their properties before and after their construction as rural tourism village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this study drew the items about residents'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local govern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and prepared the draft of questionnaires. Through a preliminary study, this study refined the items of the questionnaires in the draft and composed the items of the final questions for the main survey. Moreover, based on the ranking of the average score of the recognition of business performance in the preliminary study, this study selected eight villages as subjects for the main survey to consider Plan A that selects a total of eight villages, adding top two villages and bottom two villages by the western and eastern groups on Jeju Island and Plan B that selects a total of eight villages adding four villages at the top first through fourth by the top and bottom groups and four villages the bottom first through fourth by. As a result of an examination of Plans A and B, the same eight villages were drawn as the target sites. Thus, this study subsequently

conducted tests of the western and eastern groups and the top and bottom groups in the verification of the group difference through the main study.

This study focused on the analysis and verification of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with the entire samples. Second,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in the residents' particip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between the groups (The western and eastern groups and the top and bottom groups). Thir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s of the influences among the residents'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local governance and business performance by the groups, the moderating effects were analyzed. Fourth, this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changes by comparing the significance of the path and mediating effect of the present entire samples and groups before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village and after the construction.

By setting each research model before the development of a rural tourism village an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tourism village as a research model (before the construction) and a research model (present), theoretical models for hypothesis testing were proposed. In addition,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es, SPSS 18 and AMOS 18 statistical package were used.

Through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this study checked the factor structure by variables and conducted a reliability analysis, using Cronbach's value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items. Also, for the assessment of convergent validity among the measuring items, statistical validation of discriminant validity and the assessment of the fitness of the measurement models,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verified measurement models, this study conducte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of mediation and influence among the potential variables. Next, to check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the western and eastern groups and the top and bottom groups on Jeju Island, this study conducted a multiple group analysis. As a result of a comprehensive analysis through the hypothesis testing of this study, the following implications could be drawn.

It turned out that, through collaborative participation, the endogenous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village was possible, and that at the level of consultative participation lower than collaborative participation, social capital and local governance played a mediating role and might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business performance. Also, it turned out that, for the increase of the economic performance, the enhancement of local governance would be very helpful; for the increase of the non-economic performance, the enhancement of bridging social capital would be helpful; and bonding social capital could have a synergy effect with local governance for the increase of the economic performa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to set up a plan related to the rural tourism project in rural tourism village or approach that, considering the level of the residents' participation in implementing the project and pay careful attention to the focus according to

the business priority of economic or non-economic aspect by each project site.

Furthermore, it was noted that prior to the development of the rural tourism village, the collaborative participation of the western group on Jeju Island was located in a level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the eastern group, but in the present, after the development of rural tourism village, the western group maintained the level similar to that before the construction while the eastern group gradually entered into a higher level. It is judged that this is the pattern of a positive change in the eastern group as the rural tourism village project was promoted in earnest after they were constructed as a rural tourism village.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in the top group on Jeju Island, local governance rather decreased through collaborative participation. This shows that while in the top group, collaborative participation is made actively now, the reliability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expert groups rather decreased. Therefore, for a high level of authentic collaborative participation, it is judged that it is most important for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expert groups to build the residents' trust with a companion, horizontal and sincere attitude.

It was noted that in the western group of Jeju Island, a mediating effect was gradually operating, concerning the economic performance, in particular; in the eastern group, it was gradually operating, concerning the non-economic performance; and in the eastern group, the bonding social capital, which had not played a mediating role in either the western or the eastern group, began to operate. In addition, it was noted that in the top group, a mediating effect was gradually operating, concerning the economic performance while in the bottom group, only the mediating effect of bridging social capital was gradually operating, concerning the non-economic performance. This result reveals that the mediating effect was operating differently in the western and eastern groups or the top and bottom group, and it is judged that it would be helpful i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implement a project for the policy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 like a rural tourism village project, referr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when they would promote that.

Social capital, which is the ethic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olitics and economy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ime.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a system in which people can receive a systematic and repetitive advanced education since young so that they can feel at home with a habit of respecting social norms such as law and order, and fairness as well as an oral promise in the long-term. Ultimately, this is concluded as the problem of education, and it is necessary to make an effort by all levels of society as well as in the education sector.

This study emphasized an authentic attitude, not authoritative of administrative institutions, like a local government, concerning local governance, but what is the most important and essential is to create an atmosphere in which good conversation and communication are made with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expert groups and real cooperation is made as the capability of residents including rural leaders are advanced.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make a residents-led development equipped with capability, instead of unconditional residents-led development.